예산의 소리

채록 정리자

이걸재 공주향토사회원. 공주문화원부원장. 공주석장리박물관장
최병숙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45호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 사무국장
이정욱 충남민속학 연구회
임장묵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45호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 예능보유자. 전) 한국민속 예술제 사무국

예산의 소리

2016년 12월 20일 인쇄
2016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김시운
지 은 이 이걸재
발 행 처 예산문화원
3244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90번길 3
Tel. 041-335-2441
http://www.cnkccf.or.kr/yesan.do
기 획 박세진
행정지원 김상희, 박지혜, 이다연
편찬위원 김문회, 정낙신, 김도회, 김종옥, 류근홍, 류승순, 박복규, 박종규,
신익선, 유원숙, 이명선, 이송희, 정달순, 한규복, 한상복

편집 · 인쇄 민속원(Tel. 806-3320)

ISBN 979-11-959886-2-4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혹은 전재 할 경우에는 저자와 예산문화원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서적은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016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 사업

예산의 소리

채록정리 | 이걸재 · 최병숙 · 이정욱 · 임장묵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발간사

전국의 지방문화원들이 수행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단절된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편화에 묻힐 수 있는 지역문화를 보전하여 우리 지역 문화만의 독창성을 후대에 계승시키어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의 사업이자 본연의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예산문화원에서도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목적을 사명감으로 알아 매년 지역의 향토문화를 대변하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모아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알려왔습니다. 올해 역시 2016년 충청남도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석장리 박물관장을 역임하신 이걸재 선생님께서 과거 충남 경제의 중심지로서 내포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예산지역의 소리를 모아 『예산의 소리』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예산문화원을 통하여 발간된 지역 문화 총서들의 구성에 큰 의미를 추가 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걸재 선생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본 자료집을 바탕으로 발굴되어진 예산지역의 소리 문화가 재현되어 다시금 지역민의 귓전에 울릴 수 있도록 예산의 소리 재현 사업에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생활속에 녹아 소리로 구전되어진 노래소리도 그 지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닫고 보존되기를 희망하며 지역사 연구를 비롯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지역의 소리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가 되리라 봅니다. 다시 한 번 지역의 구전자료를 소중한 역사자료로 엮어주신 이걸재 선생님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 사업에 힘을 실어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시운

차례

발간사 4

1장

예산민요의 개설

1. 예산 민요의 관점에서 본 예산의 역사 / 10

예산군의 연혁 ····· 10
대흥군의 연혁 ····· 11
덕산군의 연혁 ····· 12
민속(민요) 관점에서 살펴본 예산의 지리여건 ····· 14
예산 민속의 특징 ····· 16

2장

예산의 소리

1. 예산의 소리와 풍장 개설 / 32

2. 예산 축원소리, 각설이타령, 풍장의 특징 / 34

3. 조용한 흥의 소리 예산 민요 / 37

4. 예산 소리의 종류와 노랫말들 / 39

청춘가 ····· 39
노랫가락 ····· 44
창부타령 ····· 48
고사 축원 ····· 57
일노래 ····· 85
판소리 ····· 102
부녀자들의 노래 ····· 106
상례소리(상여행상소리. 달구소리) ····· 115
장타령 ····· 142
각설이타령 ····· 149
예산의 동요 ····· 179
기타—잡가 등 ····· 185
예산의 소리꾼들 ····· 191
예산의 무속 소리 ····· 203
예산의 앉은 굿(경) 무속인 ····· 221
예산의 보부상 관련 소리 ····· 223
예산 보부상 활동 소리꾼들 ····· 250
예산의 풍장 ····· 254
예산의 풍장인들 ····· 268

채록에 도움을 주신분들 275
참고문헌 277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덕산면 옥계리 고사 축원
덕산면 시량리 고사 축원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 고사 축원
덕산면 광천리 고사 축원
덕산면 시량리 고사 축원

삽교읍 창정리 모찌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삽교읍 창정리 논매는 소리 1
삽교읍 창정리 논매는 소리 2
대술면 장복리 논매는 소리
신양면 신양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상중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대술면 장복리 자리개질 소리
신양면 신양리 집터 다지는 소리
광시면 신흥리 말뚝 박는 소리
광시면 신흥리 메질(망깨) 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수궁가 중 곡우천변
한송정 (단가)
신암면 신택 1리 시집살이 노래
대흥면 탄방리 시집살이 노래
삽교읍 신리 베틀가
신암면 신택 1리 청혼가
덕산면 옥계라 방아타령
대흥면 상중리 방아타령
삽교읍 신리 방아 노래

덕산면 시량리 상여 소리
대술면 화천리 상여 소리
오가면 좌방리 상여 소리
봉산면 봉림리 상여 소리
신양면 신양리 상여 소리
광시면 마사리 상여 소리
상여소리 회심곡
고덕면 호음리 상여소리
신양면 신양리 달구소리
고덕면 호음리 상여소리
고덕면 호음리 상여소리
천자 대피 장타령
장타령 2
장타령 3
덕산면 몽곡리 장타령
김 모 장타령
각설이타령 (유진룡)
각설이타령 (김 모 각설이타령 2-6)
애기그지 품바 (김 모)
잡 타령 (김 모)
월령 품바 (김 모)
잡 타령 (김 모)
중신 타령 (김 모)
삼국지 월령 품바 (김 모)
대빵 타령 (김 모)
한탄 사설 (김 모)
상여소리 품바 (김 모)
삽교읍 두 2리 각설이타령
사설 각설이
광시면 마사리 각설이타령
자마리 꽁꽁
달래 먹고
대흥면 신중리 우스개 노래
신양면 만토리 우스개 노래
대흥면 탄방리 불무 소리
삽교읍 신리 달강달강
대술면 장복1리 달강달강
대흥면 탄방리 달강달강

덕수가
난봉 아리랑
병타령
새야 새야
파랑새의 노래

예산 안택경의 반야심경문
예산 안택경의 회심곡
예산의 앉은 경(굿) 경문
심방장수경
천지팔양주신경
공문제 소리
계화가
공문제 축원소리
상인들 물건 파는 소리
약장사 죽방울 놀이 죽방울 소리
약장사 약파는 사설과 약타령
삽교읍 두2리 약장수 타령
젓갈 장수 젓깔 타령
담배 장수 사설과 담바귀 타령
류진룡 구술 담배 장수 사설과 담바귀 타령
엿장수의 사설과 엿타령
류진룡 구술엿장사 엿파는 소리
삽교읍 두2리 엿장수 타령
떡장수의 떡파는 사설과 떡타령
소금장수 소금파는 사설과 소금장수 타령
짚신장수 짚신파는 사설과 짚신 타령
싸구려 타령
삽교읍 두2리 양잿물 장수의 양잿물 타령
보부상 놀이에서 불리는 기타 소리
장터에서 구걸하는 걸인들의 각설이타령
예산 군지 수록 보부상 각설이타령
류진룡 구술 장터 각설이타령
요지경 놀이 소리
보부상의 죽음에 나가는 상여 행상 소리
장터 축원 소리

1장 예산민요의 개설

1.
예산 민요의 관점에서 본 예산의 역사

•

•

•

예산군의 연혁

백제시대　오산현 임존성 금물현으로 칭함

신라시대　고산현 임성군 금무현으로 개칭

고려시대　예산군 대흥현 덕풍현으로 개칭

조선시대　예산군 대흥군 덕산군으로 개칭

1914.01.01. 부령 제111호(1913.12.29. 공포)로 예산, 대흥, 덕산군을 통합 예산군 설치 (12면)

1940.11.01. 부령 제221호(1940.10.23.) 공포로 예산면이 읍으로 승격(1읍 11면)

1973.07.01. 대통령령 제6543호(1973.03.12. 공포)로 삽교면이 읍으로 승격(2읍 10면)

1983.02.15. 대통령령 제11027호(1983.02.15. 공포)로 오가면 효림리와 월곡리 일부를 월산리로 개칭 및 좌방리 일부를 방아리로 개칭하여 삽교읍에 편입

2012.　충청남도청 이전

예산군지에 기록된 예산의 역사를 요약하여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래 백제의 오산현烏山縣인데,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고산孤山으로 고쳐서 임성군任城郡(大

興)에 딸린 현縣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 2년(919)에 '예산'으로 고쳤다. 제8대 현종 9년(1018)에 천안부天安府에 속해 있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 제3대 태종 13년(1413)에 예에 따라 현감縣監이 되어, 현내縣內(군내), 금평今坪, 술곡述谷, 대지동大支洞, 두촌豆村, 입암笠岩, 거구화巨九火, 우가산于可山, 오원리五元里의 9개 면을 관할하였는데, 제26대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천안군의 신종면新宗面을 편입, 1914년 군과 면에 따라 덕산군德山郡의 현내縣內, 나박소羅朴所, 대덕산大德山, 대조지大鳥旨, 장촌場村, 도용道用, 고현내古縣內, 외야外也의 11개면과 대흥군의 읍내邑內, 근동近東, 일남一南, 이남二南, 원동遠東, 거변居邊, 내북內北, 외북外北의 8개 면과 공주군 신상면新上面의 산북山北, 율계栗溪, 두지斗支, 박운朴雲, 백석白石, 신천新泉, 하천下泉의 5개 동리와 신창군新昌郡, 남상면南上面의 등대等大, 가적稼積, 대소정大召亭, 효자孝子, 봉암鳳岩의 5개 동리와 면천군沔川郡, 합북면合北面의 영상令上, 영하令下의 2개리와 비방면菲方面의 돈곶리頓串里와 마산현馬山面의 대곡리大谷里와 홍주군洪州郡 남하도면南下道面의 구성九城, 원성元城, 갈오葛五의 3개 리와 홍주면洪州面의 중리中里, 치사면稚寺面의 치사동稚寺洞 비지飛地(중리)와 청양군 서상면西上面의 장존리長存里, 북하면北下面의 하북리下北里 일부를 포함하여 대술, 응봉, 오가,신암, 덕산, 삽교, 고덕, 봉산, 대흥, 광시, 신양, 예산의 12개면으로 개편 관할 하였다.

1917년에 임성면任城面을 예산면으로 고치고, 1940년 10월 1일 읍제 실시에 의하여 예산면을 읍으로 승격해서 현재 2읍, 10면, 175동·리를 관할한다. 동쪽으로는 아산시와 공주시, 남쪽은 청양군, 서쪽은 홍성군과 서산시, 북쪽은 당진시와 아산시에 닿는다.

대흥군의 연혁

본래 백제의 임존성任存城 또는 금주今州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임성군任城郡으로 고쳤다. 고려초에 대흥大興으로 고치어 제8대 현종 9년(1018)에 운주運州(홍성)에 속해 있다가, 제19대 명종 2년(1170)에 감무監務가 되었다. 조선 제3대 태종 7년(1407)에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같은 13년에 예에 따라 현감縣監이 되었다. 제19대 숙종 7년(1681)에 이고을 박산朴山에 있는 현종의 태실胎室을 다시 봉축하고 군으로 승격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현縣으로 되었다. 제26대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군郡이 되어

읍내邑內, 거변居邊, 원동遠東, 근동近東, 외북外北, 내북內北, 일남一南, 이남二南의 8개 면을 관할하였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예산군에 편입되어 읍내 근동의 두 개 면을 합하여 대흥면으로, 일남·이남의 두 개 면을 합하여 광시면으로, 원동·거변의 두 개 면을 합하여 신양면으로, 내북·외북의 두 개 면을 합하여 봉산(응봉)면으로 되었다.

덕산군의 연혁

본래 백제의 금물현今物縣으로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금무今武로 고쳐서 이산군伊山郡의 관할이 되었다. 고려 초에 덕풍德豊으로 고치고, 제8대 현종 9년(1018)에 운주에 딸리었다가 제19대 명종 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제3대 태종 5년(1405)에 이산伊山으로, 13년(1413)에 예조에 의하여 현감이 되었다. 제24대 헌종 13년(1847)에 군이 되어, 장촌場村 대조지大鳥旨, 대덕산大德山, 나박소羅朴所, 현내縣內, 내야內也, 외야外也, 도용道用, 고현내古縣內, 고산高山, 거등居等, 비방곶菲方串의 12개면을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예산군에 편입되어 현내, 나박소의 2면이 합하여 덕산면으로 대덕산, 대조지, 장촌의 3면이 합하여 삽교면으로, 도용, 고현내(일부), 거동, 고산의 4면이 합하여 고덕면으로 내야, 외야의 2면과 고현내면 일부를 합하여 봉산면으로 되고, 오가면과 신암면의 일부지역도 되었다. (이상 예산 군지)

예산군의 역사적 기록은 지나칠 만큼 간명하다. 위의 기록이 전부인 셈이다. 삼국시대의 다른 기록으로 대흥면의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인 임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었을 가장 큰 사건이다. 그런데 이는 이미 천년 이상 흐른 옛 기록일 뿐이다.

예산군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산 땅을 지키고 살아 온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살아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일들로 사람을 어렵게 한 일이 없는 고장은 없을 것이다. 소소한 왜구의 침탈도 있었을 것이고 현대사의 비극인 일제 강점기의 고통이나 한국 전쟁의 아픔마저 빗겨나간 고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아픔 속에서도 특별히 기록

될만한 고통은 타고장에 비하여 아주 적다는 의미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지역의 근대사에서 민속에 영향을 준 역사적인 사건은 엉뚱하게도 대원군이 아버지 남은군의 산소를 가야산 명당으로 이장한 사건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남은군의 산소는 당대 발복發福의 명당이라는 면에서 여러가지 전설 같은 민담을 만들어 냈으며 이장에 사용했던 상여는 지방유형문화재로 선정되어 보관되었다. 이는 명당을 품고 있는 산인 가야산과 어울려 남은군 산소가 있는 상가리와 옥계리 등의 두레나 마을 문화에는 색다른 영향을 끼쳤다. 남은군 산소는 두 마을의 두레가 인근 마을 두레들의 어른으로 활동하는 근거가 되었다. 상가리와 옥계리 노인들은 두 동네는 남은군 산소로 인하여 다른 마을 두레의 어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정도다.

윤봉길 의사의 일생 또한 덕산의 민속에 영향을 주었다. 윤봉길 의사의 본명은 우의禹儀, 호는 매헌梅軒, 본은 파평坡平이다. 윤황璜의 아들로 3·1운동 때 '왜놈의 교육을 받지 않겠다'며 소학교를 자퇴하고 독학하여 19세 때 야학을 설치, 22세 때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는 등 농촌의 자립과 계몽에 힘썼다.

1930년 상해로 망명하여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서 활동하다가 1932년 4월 29일 왜국천황 생일축하 겸 상해사변 전승기념을 거행하는 홍구공원虹口公園 식장에 김구金九 주석의 지시로 들어가 폭탄을 던져 일본군 사령관 시라가와白川義則대장을 살해하였다. 의거 후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잡혀 상해의 일본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일본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영향은 월진회나 선양사업의 각 단체가 윤봉길 의사의 선양 사업은 물론 지역의 민속예술을 선양하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의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월진회는 보부상놀이 재현 관련 단체가 양분되어 일부가 예덕상무사를 이탈하여 보부상 난전놀이 공연단으로 활동하고 있을 시 오래 동안 이를 후원하여 공연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큰 사건이 적었던 고장 예산의 역사에 기반하여 평온하고 느긋한 정서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예산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적 뿌리가 평화로운 기풍에 쌓여 안온함을 즐기는 예술로 전개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민속(민요) 관점에서 살펴본 예산의 지리여건

지리적으로 예산군은 충청남도의 중북부에 자리 잡은 고장이다. 동쪽은 공주시, 서쪽은 홍성군과 서산시, 남쪽은 청양군, 북쪽은 당진시・아산시와 접해있으며 예산읍이 중심지가 되어 온양방면, 당진방면, 홍성방면, 공주방면 등 네 갈래의 교통로가 예산으로부터 펼쳐져 있어 충청남도 북서부지역의 교통중심이다.

예산의 지리적 여건은 민속에 있어 큰 영향을 준다.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은 사람 살기 편한 고장'이라는 것이다. 예산전체가 구릉과 산맥이 연결되어 있다. 예산 동쪽의 차령산맥은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지역의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서쪽에는 가야산(678m), 남쪽에는 봉수산(484m)을 중심으로 산이 겹치면서도 두 산의 정상부분이 아니면 산의 계곡이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고 있어서 농사를 지을 농토가 많은 고장이다. 산에 둘러 쌓여있지만 악산이 아니어서 고립되지 않으며, 농사지을 농토가 많다는 점은 예산 사람들의 기질을 여유롭게 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산은 예산 사람들의 신앙중심지 노릇을 한다. 충청남도 북부지방을 북・남 방향으로 뻗어 있는 소규모 가야산맥에 속하며, 규모는 작지만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명산이다. 주봉인 가야봉을 중심으로 원효봉元曉峰, 석문봉石門峰, 옥양봉玉洋峰 등의 봉우리가 있다. 신라 때는 가야산사를 짓고 중사中祀(나라에서 지내던 제사의 하나)로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시대까지도 덕산현감이 봄, 가을로 고을 관원을 시켜 제를 올렸다. 또한 능선을 따라 피어있는 진달래와 억새풀로 경치가 수려하여 '절하면 수덕사, 산하면 가야산'이라는 마음으로 예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덕숭산德崇山은 호서의 금강산이라 칭해지던 산이다. 해발 495m로 산이 높지 않으나 아름다운 계곡과 각양각색의 기암괴석이 많아 붙여진 별칭이다. 그러나 예산 사람들에게는 호서의 금강산이라는 별칭보다는 수덕사를 품고 있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식된다. 덕숭산은 수덕사와 10리 안에 있는 덕산과 함께 전통사회 때부터 이미 좋은 관광명소였다. 아름다운 산과 그윽한 고찰, 그리고 천혜의 온천을 제공하는 지리적인 혜택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지면서 여러 방면의 민속예

술과 소리판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산군의 중앙부는 무한천·삽교천 등 2개 하천이 북으로 흐르며 들에 물을 제공하여 그 유역에는 기름진 예당평야가 펼쳐져 쌀의 주산지를 이룬다. 일제 강점기에 예당저수지[1] 공사를 시작하여 막기 시작한 것이 타 고장의 저수지 축조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이다. 예당저수지로 인하여 천수답에서 일찍 벗어나게 되면서 농업 생산양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예산 특유의 넉넉한 혹은 여유로운 정서가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당저수지가 완성 된 이후 지역의 가뭄 때에는 예산 군수가 예당저수지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는 예당저수지에 대한 예산 사람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속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산의 기후는 각종 기록에서 살피면 기후 또한 평온한 고장으로 보인다.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바다의 영향은 비교적 적어 내륙성 기후에 가깝다. 기온 교차가 심하고, 여름철의 남동풍과 겨울철의 북서풍이 탁월한 온대계절풍 지대이면서,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대륙성기후이기에 사계절이 분명하다. 사계절이 분명한 것은 전통 영농에 적합한 고장이요 과일이 잘 자라 제 맛을 내는 고장이라는 의미한다. 4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는 차령산맥으로 인해 눈이 많이 내려 보리와 밀농사가 잘 되면서도 해풍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엄동 추위가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예산의 산과 들, 즉 지형과 지리는 욕심 없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그동안 필자가 예산 민속을 조사하며 예산 사람들의 정서를 파악할 때 그 환경에 맞게 넉넉한 정서를 갖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형상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을 기원하는 소박한 마음의 예술로 생성되고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1 예당저수지는 일제 강점기인 1929년 착공하였다. 식민지 치하에서 저수지를 막았으니 당시 일제가 수몰되는 땅에 대해 현대 개념의 넉넉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많은 눈물과 한숨을 자아냈을 것이다. 저수지 축조 공사가 인력에만 의지하여 추진하였기에 1945년 해방 때 까지도 완성하지 못했고, 이어 받은 우리 정부의 추진도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1963년에는 현재의 예당저수지로 완공하였다.

예산 민속의 특징

예산의 민속을 채록하며 느낀 특징은 '평온함'과 '점잖음'이다. 민속의 채록은 시기와 제보자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속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 민속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만나 채록하는 것이 그 고장 민속의 정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예인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우선이며, 마을 단위 민속은 그를 행한 이른바 마을의 유지로 이를 시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 예술인으로의 기량이 높은 상당수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예술인들은 채록자를 당황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필자와 예산의 소리 채록을 위해 활동한 누구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오히려 채록에 활기를 넣어 줄 인물이 적은 것을 우려할 정도였다. 이는 그동안의 민속 조사를 반추해보면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며, 역설적으로 예산의 민속이 평온함 속에서 점잖은 모습으로 전래되고 보존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본 도서는 예산의 소리와 풍장만을 조사, 정리, 기록에 집중하여 다양한 민속을 정리하지 못했다. 다만 지역의 소리와 풍장의 흐름을 가늠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낀 민속들을 간단히 기록하고자 한다.

1) 예산의 세시풍속

예산의 세시풍속에 대해서는 구久예산군지에 월별 세시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예산의 소리에 도움 될 만한 자료들만 정리하여 제시한다.

(1) 정월

설(정월 초하루) 설과 관련된 민속은 복조리부터 시작된다.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장수들이 조리를 팔러 다니며, 복조리는 일찍 살수록 좋게 여겨 서로 남보다 먼저 사고자 하였다. 1쌍(2개)을 사서 집안에 매달아 두었다 쓴다.

설날은 아침 일찍 설빔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올리며 종가에서 세찬, 세주를 마련하여 제상에 진설하고 4대를 모신다. 차례 때의 제물은 떡국, 삼색 실과, 식혜, 시루떡,

맑은 술 등이다. 설날 차례를 지낸 뒤에는 웃어른께 세배를 올린다. 순서대로 세배를 드리며 집안의 어른들 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도 한다. 이 때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덕담을 하고 설날 음식을 내 주며 세뱃돈도 준다. 하루에 못한 세배는 정월 대보름까지 했다. 설날 차례 후에 가족 세배를 마치면 남자들은 선조들에 대한 새해 인사 차 성묘를 간다.

입춘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 봄이 시작된다는 날이며, 이날 보리 뿌리를 캐서 뿌리가 세 가닥 자랐으면 그해의 보리농사는 풍년이요, 두 가닥이면 평년작이요,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였다.

잡귀를 쫓는 의미로 대문에 용龍·호虎 자를 쓰거나, 입춘서立春書를 써 붙이며, 팥죽을 쑤어 대문에 뿌리기도 한다. 입춘서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立春大吉 建陽多慶(입춘대길 건양다경)
國泰民安 家給人足(국태민안 가급인족)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
父母千年壽 子孫萬世榮(부모천년수 자손만세영)
天下太平春 四方無一事(천하대평춘 사방무일사)
天上三陽近 人間五福來(천상삼양근 인간오복래)

정월 대보름 정월 15일을 상원일上元日 또는 대보름 혹은 '큰보름'이라 하며, 설날 다음 가는 명절이다.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한 놀이와 의식이 이 날에 거의 끝난다. 대보름의 민속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백가반百家飯 | 백집 밥을 먹는다는 의미로 정월 열나흘 날에는 아이들이 이웃집의 밥을 훔쳐 먹는다. 백가반을 먹으면 액운이 사라지고 운수가 좋다고 여겼기에 각 집에서는 밥을 한 솥의 솥뚜껑을 열어 두었다.

| 오곡밥과 복쌈 | 정월 열나흘 날 저녁부터 오곡밥을 지어 먹는다. 오곡밥은 멥쌀, 찹쌀, 팥, 조, 수수 등 온갖 곡식을 섞어 지으며 여러 집의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복쌈은 여자들이 밥을 김으로 싸서 그릇에 담아두고 식구들은 각기 자기 나이 수대로 먹는 것을 말한다.

| 쥐불놀이 | 정월 14일과 15일 밤에 농가에서는 논둑이나 밭둑을 태우는데 이것을 쥐불놀이라고 한다. 머슴들은 미리 횃불을 만들어 두었다가 달이 떠오를 무렵 들로 나가 불을 지르고 아이들은 불깡통을 돌린다. 액맥이의 기념도 있었다.

| 아홉 번 행동 | 정월 14일은 무엇이든 아홉 번씩을 해야 좋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홉 나뭇짐을 해 나르기도 하고, 잿간에 짚을 한 주먹씩 아홉 주먹을 꽂으며 농사가 잘 되기를 빌기도 한다.

| 거리제(가정신앙) | 14일 밤에 길에서 하는 것으로, 짚을 십자로 놓고 떡과 밥, 나물 등을 길가에 가지고 나와 치성을 드린다. 신수막이를 하는 것이다. 밥 3그릇, 나물 3가지, 명태 1마리, 삼색실과 촛불, 소지, 돈, 볏짚 등을 가지고 세 갈래 길에 나가 짚을 삼발나게(X자로)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은 다음, 사방으로 절한 후 소지를 올리면서 만사태평을 빌었다.

| 들기름 불켜기 |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접시에 들기름을 붓고, 실을 꼬아 만든 심지를 식구 수대로 놓고 불을 붙인다.

| 부럼과 귀밝이술 | 정월 열나흘날 저녁이나 보름날 아침에 부름(부럼) 깨친다 하여 밤, 호두, 땅콩 같은 "딱" 소리가 나는 딱딱한 실과를 깨문다. 부럼을 하면 이가 튼튼해진다고 한다.

귀밝이술이라 하여 술을 조금 마신다. 이때 술을 데우지 않고 차게 해서 마시며, 부녀자들도 마시는데, 이 술을 마시면 귀앓이를 하지 않고 일 년 동안 좋은 소식만 듣는다고 한다.

| 더위팔기 | 보름날 아침에 더위를 판다. "아무개"하고 상대를 불러서 상대가 대답하면, "내 더위"하고 더위를 팔아 버린다. 더위를 팔고 나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하며 더위를 사 간 사람은 더위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려

했다.

| 묵은 나물 먹기 | 지난해에 말려 두었던 무, 박나물, 버섯, 고사리, 미역, 호박고지 등을 대보름날 삶아 무쳐먹는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 줄다리기 | 정월 보름에는 마을끼리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에서 진 마을의 연로한 자는 이긴 마을 연로한 자에게 가서 절을 하기도 한다.

| 달맞이 | 보름날 밤에는 달구경을 즐긴다. 보름날 처음으로 달을 본 사람은 운수가 좋다고 하여 저마다 달을 보며 가족들의 안녕과 자기의 소원을 빈다. 보름달을 보고 일 년 농사 점을 치기도 하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 징조이고,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 내려 장마가 들고 달빛이 흐리면 흉년,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 지신밟기 |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동네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며 흥겹게 놀아주고 축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각 가정에서는 풍물패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쌀이나 돈을 내놓아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기도 한다.

| 벼가릿대 세우기 | 농가에서는 정월 열나흘 날 짚을 묶어서 큰 기처럼 만들어 세우고, 벼, 기장, 피, 조 등의 이삭으로 싼다. 그리고 면화棉花를 긴 막대 위에 달아 집 곁에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새끼로 묶어두는데, 이것을 벼가릿대(화간禾竿)라고 한다. 이 벼가릿대는 2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내리는데 곡물을 섬에 넣으면서 "천 석이요", "만 석이요"하는 집도 있는데, 이것은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들 곡물로는 떡을 해서 머슴을 먹이고 이웃집과도 나누어 먹는다.

보름날 그 마을에서 윤택한 집 앞에 깨깔을 세운다. 3~4m 정도의 막대 위에 짚으로 똬리를 틀어 감아 올린 깨깔을 세워 놓고, 2월 초하룻날 그 집에 가서 풍물을 하며 고사를 지내면, 그 집에서 술을 내와 함께 즐긴다. 그 집의 부정을 막는 의식이다. 이 행사는 30년 전까지 행해졌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남, 덕산면 옵내리 2구 유재호 씨, 69세).

보름날 마을 부잣집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세우고 세 줄의 동아줄을 매어

말뚝을 박아 넘어지지 않게 고정한다. 그리고는 2월 초하룻날 머슴이나 동네 사람들이 풍장을 치며 찾아가서 넘어뜨린다. 집주인은 넘어지는 걸 액운을 막는 좋은 징조로 여겨 술과 음식대접을 한다(고덕면 몽곡리 2구, 이재소).

| 윷놀이 | 정초에 남녀노소가 보편적으로 행한 놀이다.

(2) 2월

2월 초하루 | 머슴날 | 2월 초하루는 머슴의 생일날이라 한다. 일 년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농사가 잘 되기를 빌면서 일꾼을 '돋궈멕인다'는 날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풍장을 치며, 윷놀이도 하는데 이 날을 윷놀이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라 여겼다.

| 콩볶기 | '액을 때운다' 하여 콩을 볶아 나눠 먹는다. 가마솥에 콩을 볶을 때 콩이 크게 튀겨지면 그해 풍년이 들고, 그대로거나 작아지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으며, 논밭에 잡초가 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 장닭 꼬리 보고 점치기 | 2월 초하룻날 장닭 꼬리가 바람에 날리면 그해 바람이 심할 것이라고 한다.

| 노래기 바늘주기 | 소나무 가지를 꺾어 초가지붕에 얹는 행위로 노래기가 안 낀다고 여겼다.

| 노래기 쫓기 | 사철나무에 속하는 노간주나무를 베어서 이월 초하룻날 나무로 불놓으면 연중 노래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풍습도 전하고 있다.

(3) 3월

삼월 삼짇날 일명 '제비 오는 날'이라 하는데, 봄이 오는 날로만 기억할 뿐 특별한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응봉면 김기옥). 사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나비가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뻐했지만, 흰나비가 처음 눈에 뜨이면 부모상이나 기타 친척의 복을 입을 운이라 하여 좋아하지 않았다.

(4)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며 흔히 초파일이라 한다.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며 연등놀이와 탑돌이를 행한다.

(5) 5월

단오 음력 5월 5일은 단옷날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날이다. 청년들은 씨름판을 열고 힘자랑을 하며 아녀자들은 그네뛰기를 즐긴다. 여인들은 이날 창포를 삶아서 그 물에 머리를 감으면 일 년 내내 머릿결이 좋아지고, 잘 길며 희어지지도 않는다고 여겼다.

단오날은 가제가 나와 그네를 탄다 하여 마을 젊은이들은 밤새 횃불을 들고 가제를 잡는 풍습도 있다.

(6) 6월

유두 음력 6월 15일은 유두날이다. 특별한 행사는 없으나 하루를 쉬며 마을 사람들끼리 즐겁게 모여 논다. 이 날 오는 배를 '유두물'이라 하며 유두물을 하면 풍년이 온다고 믿어 비가 오기를 바란다.

삼복과 복다룸 하지 후 세 번째 경일庚日을 초복이라 하고, 10일 뒤인 네 번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말복이다. 모두 일컬어 삼복이라 칭한다. 이 기간 중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낮잠을 즐기며 여름 건강음식으로 개장국이나 삼계탕을 먹는데 이를 복다룸이라 한다. 예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팥죽을 쑤어 먹기도 했다.

(7) 7월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은 칠석이다. 이 날은 은하수 중간쯤의 동쪽 가장자리 에서 빛나는는 견우성과 서쪽에서 빛나는 직녀성이 만나는 날로, 바쁜 농사일은 거의 마쳤기 때문에 칠석놀이라 하여 하루를 즐겁게 논다.

덕산면 시량리에서는 풍물패(동네 장정들, 머슴)가 풍장을 치며 마을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고사를 지내고, 집주인이 내온 술을 마시며 논다. 고사를 지낼 때는 안방문 앞에 상을 놓고 상에다 불밭이라 하여 생쌀을 뿌린다. 그 위에 말斗을 두고, 말에는 쌀을 가득 담는다. 말에 담긴 쌀은 풍물패가 가져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칠석 천렵이라 하여 장정들이 시냇가나 계곡에 들어 지금도 이 날 천렵을 하며 하루를 쉰다고 한다.

가정신앙으로 단을 차리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장독에 차린다. 장독 바닥의 자갈 위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펴서 음식을 해 놓으며, 붉은 팥 시루떡과 생쌀 한 사발, 냉수 한 사발을 놓는다. 혹은 밥을 지어 놓기도 하며 아낙이 가족들 하나하나의 생일, 나이를 읊으며 안녕을 빈다.

칠월 보름 7월 15일 백중날로, 이날을 '머슴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농사일 하는 자녀들과 머슴에게 보양식을 해 주거나 돈을 주어 보양식을 사먹게 하였다. 농사일을 쉬면서 천렵을 하여 민물고기로 어죽을 끓여 먹기도 한다. 백중날 달이 잘 보이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8) 8월

맥질하기(벽. 마당. 부뚜막) 8월 보름을 쇠기 전에는 '맥질하기'라 하여 고운 흙을 진하게 물에 타서 흙물을 만들고 산에서 '고미지신'이라는 맥질용 풀을 뜯어와 그 풀로 흙물을 묻혀서 흙집 벽, 마당, 부뚜막에다 바른다. 벽은 보온을, 마당은 추수 시 낙곡 방지를, 부뚜막은 불기 보호의 목적을 갖고 맥질한다.

추석 한가위, 추석, 가배, 중추절 등으로 부른다.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었다. 차례 후 성묘를 하고 밤이면 풍장을 치며 노는 마을이 많았다. 추석날 밤에는 달맞이를 한다. 이날 달이 잘 보여야 보리농사가 잘된다 여기며 구름이 너무 많거나 한 점도 없으면 보리농사가 흉년이고, 구름이 적당히 떠서 벌어져 있으면 풍작이라고 판

단한다. 추석에 비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싫어한다.

| 추석의 거북이 놀이 | 예산 대흥면 대흥리에서는 추석날 밤에는 마을 아이들이 거북이 놀이를 하며 집집을 돌아다니며 놀았다. 수숫대를 머리에 쓰고, 고무래를 거북이 머리로 삼아 손으로 잡고 끄덕거리며, 등에는 멍석을 뒤집어써서 거북이 등을 흉내낸다. 풍물패가 먼저 떡이 나올 만한 집들을 찾아가서 문안을 하고, 질나래비가 덕담을 하며 풍장을 친다. 덕담을 받은 집에서 추석 음식상을 내어준다.

(9) 9월

중구의 구일 차례 9월 9일을 '중구重九' 또는 '중양重陽'이라고 한다. 예산지역에서는 다른 민속이 전하지 않으며 양반 집안에서 5대 이상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이를 '구일차례'라 한다.

(10) 10월

시제(시사차례) 방안에서 봉안하지 못하는 모든 조상(일반적으로 고조 이상)들에게 묘역에서 한 번에 올리는 제사로 10월 상순에 택일을 하거나 문중에 따라 날짜를 고정하여 올린다.

시사 차례를 위하여 문중의 토지를 구입하여 소작인에게 운영하게끔 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사답'이라 불렀다.

시월 고사(시루구멍 막는 날) 상달인 10월에는 날을 잡아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올리는 집안에서는 사흘 전부터 부정 방지를 위해 황토를 3주먹씩 떠다 대문 앞 좌우에 두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여자들은 시루떡을 쪄서 부엌, 방안 바닥에 짚을 깔고 냉수를 함께 올리며 남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떡을 떼다가 장광, 대청, 부엌, 헛간, 화장실, 굴뚝모퉁이에 두며, 토주님, 성주님, 조앙님(주왕님)께

잡귀가 들지 않고, 불이 나지 않게 해 줄 것을 빈다. 이웃과 마을 어른들께 떡을 돌려 대접하기도 한다.

대동계 가을 농사가 끝난 뒤에는 마을에서 연로한 자가 이장과 상의하여 날을 정해 대동계를 한다. 평소 이장의 수고비로 여름에 보리 1말, 가을에 쌀 1말을 집집이 낸다. 그러면 이장은 가을 대동계 때 결산 보고 겸 술과 떡을 내어 잔치를 한다. 반드시 10월에 행하는 것은 아니며 11월에 하는 마을도 있다.

(11) 11월

동지 동지는 스물 두 번째 날로 밤이 가장 긴 날이며 이 날 이후 낮이 길어진다. 동지는 작은 설亞歲이라고도 한다. 이날 팥죽을 쑤어 먹으며, 동지가 동짓달 상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하여 그냥 지나가지만, 중동지나 노동지 때는 액운을 몰아낸다하여 팥죽을 쑨다.

팥죽은 먹기 전에 방, 장독대, 대청, 헛간 등에 뿌리는데, 대문에는 여덟 팔자八로 뿌렸다. 팥죽을 뿌림으로써 질병을 옮기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고자했다. 예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동지 팥죽을 쑤면 작은 박바가지에 담아서 솔잎에 찍어 대문이나 문지방 위에 뿌리기도 했다.

(12) 12월

섣달 그믐 12월 30일은 1년의 마지막 날로서 섣달 그믐, 제야除夜, 제석除夕 등으로 부른다. 이날은 우선 1년간 있었던 거래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또한 섣달 그믐날에는 묵은세배라 하여 지난해 세배를 하지 못한 어른을 찾아가 세배를 하기도 했다. 예산군에서는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 센다하여 윷놀이를 하거나 설음식을 장만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였다.

2) 예산의 민속 신앙(고사)

(1) 가정 개인 신앙

예산군의 가정에서 부녀자들이 주로 행한 가정 민속 신앙은 대부분 고사와 부정풀이에 한정적이다. 고사는 정월 대보름 전부터 보름날까지와 칠석날, 그리고 시월 초하루에서 초사흘까지인 이른바 '시루구멍 막는 날' 주로 행했다. 집안에 따라 적당한 고사 물품을 준비하며 떡은 서되 서홉을, 기나 제물은 가정 형편에 따라 준비하였으며 일정한 고사의 형식을 보이지 않고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리는 모습이다.

부정풀이는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전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이를 치료하게 해달라는 형식이며 살풀이, 방법, 부정씻기 등으로 불렸다.

(2) 마을고사

예산군의 마을단위 고사들은 단조롭다. 인접한 공주시가 서낭제, 거리제, 샘고사, 장승제, 산신제 등의 마을고사를 올리는 것에 반하여 예산은 정월 대보름의 볏가릿대 세우기, 일부 두레의 농기고사, 칠석제 정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도 추후 정밀하게 조사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덕산면 읍내리의 벼가릿대 세우기 볏가리대 세우기는 정월 대보름에 읍내리에서 올린 마을고사다. 고사를 위해 마을 풍장패들이 정월 초열흘부터 3일 정도 마을의 각 가정을 돌며 복을 빌어주고 쌀을 받는 걸립풍장을 치며, 이날 걷어진 쌀로 고사의 경비를 마련한다. 정월 열나흘 날이면 마을 장정들은 각자의 집에서 짚을 가지고 와서 큰 동이로 묶어 깃대처럼 만들어 세운 후에 벼, 기장, 피, 조 등의 이삭으로 싼다. 그리고 면화棉花를 긴 막대 위에 달아 집 곁에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새끼로 묶어두는데, 이것을 벼가릿대(화간禾竿)라고 한다.

마을의 어른들이 이 볏가릿대 앞에 제단을 차리고 떡과 돼지머리 삼색실과 명태, 실 등의 제수 음식을 차린 후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고사의 방식은 유교식으로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음복의 순으로 이어지며 특이사항은 없다.

동화불로 고사를 지내는 마을들은 지불의 하나로 동화를 올리는데 볏가릿대는 보름날 태우지 않고 2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내린다. 곡물을 섬에 넣으면서 천 석이요, 만 석이요 하는 집도 있는데, 이것은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 풍습은 자연스럽게 이월 초하루 머슴의 날 행사와 연결되어 머슴이나 어린 농부들에게 곡물로는 떡을 해서 머슴을 먹이고 이웃집과도 나누어 먹는다.

봉림이 칠석제

| 봉림리 칠석제의 유래 | 봉림리의 칠석제는 전통 사회에서는 지역 전통의 고사로 매년 칠월 칠석날 새벽에 올려지던 고사다. 봉림리에는 흉고 둘레가 8m 20cm 이르는 느티나무 정자가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천년된 나무로 믿는다. 이 느티나무에서 칠석신께 고사를 올려 마을 사람들은 '위하는 나무' 라고 일컫는다. 칠석 고사를 올리면서도 정작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위하는 것이다.

칠석제는 느티나무의 남쪽 방향에 제상을 차리고 유교식의 고사를 지내는데 1930년대 후반까지는 마을의 남자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어 봉향하였다 한다. 한 여름 물것(벌레 등)이 움직이기 전에 고사를 지내기 위해 해 뜨기 전에 고사를 올렸다. 고사를 지내고 오전이 되면 마을 두레꾼들은 두레막음을 한다. 농기와 꽃나비를 앞세우고 정자나무 밑으로 와서 농기에게 잔을 부어 올리는 농기고사를 간단하게 지내고 하루를 즐기는 형태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대동아 전쟁 직전(1937~1938년 경) 두레를 금기하여 칠석제도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수백 년 동안 위해 온 나무에 올리던 고사를 단절할 수 없었다. 고사를 올려야 하기에 당시 대동계장인 서용제와 노인 중 신망이 높았던 이용구 두 명이 이른 새벽 조용히 칠석고사를 올렸다. 마을의 젊은이들 조차 모르게 고사를 지내는 노력으로 칠석제를 지킨 것이다. 두 분의 노력으로 8~9년 동안 올려지던 칠석제는 해방 후에도 같은 형태로 지속된다. 마을에서 칠석제를 옛날처럼 지내자는 여론이 일지 않았고,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봉림리 두레가 1954년에 폐지되면서 1980년대까지 상기 2인의 고사로 진행된 것이다.

서용제와 이용구의 사망 후에는 이용구의 처이면서 남춘희의 시어머니인 이미원이 이어 받았다. 열아홉에 시집을 온 남춘희(현재 93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칠석고사를 지내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따라야 했기에 계속 같이 하였다 한다. 이미원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고사는 단절되었다.

고사가 단절 된 후 마을 사람들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정자나무 위하기를 하지 않으면 흉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로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사고로 죽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한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3년 동안 무려 27명이 불행하게 죽는 이른바 악상惡喪이 일어났다. 또 한 가지, 2000년경 이 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부러졌는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메를 만들어 쓴 사람이 시골 정서로 표현되는 '부정'이 들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사연으로 마을 사람들은 옛날의 칠석체를 복원하여 다시 지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마을 이장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동네축제형으로 성격을 바꾸고, 시간도 새벽에서 오전 9시로 옮겨 2004년에 복원, 올해까지 13년 동안 칠석제를 지내고 있다.

| 봉림리 칠석제의 진행 | 현대 봉향되는 봉림리의 칠석제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사장 소제 : 음력 7월 6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고사장을 청소하고 용대기(농기)를 세움
2. 음식 마련 : 음력 7월 6일 부녀회원들이 고사 진설 음식과 마을 축제 용 음식을 마련함
3. 칠석제 고사 풍장 : 마을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 풍장을 울림
4. 진설 : 고사 음식을 진설함
5. 본고사 진행 알림 : 사회자가 제례 절차와 행사 진행을 설명하고 참석내빈의 소개함
6. 강신 : 제관이 첫잔을 따라 정자나무 동서남북으로 뿌리고 절함
7. 초헌 : 마을 이장이 초헌관이며 잔을 올리고 삼배三拜함
8. 봉축 : 축관이 축문(우리 말 축문)을 읽음
9. 아헌 : 노인 회장이 잔을 올리고 삼배함

10. 종헌 : 마을 동계장이 잔을 올리고 삼배함
11. 내빈 봉헌 : 마을에서 초대한 귀빈들 중 희망자가 잔으로 올리고 삼배함(2016년에는 예산 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문화원장등이 헌작에 참여 하였으며 면장 등의 면내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들 중 희망자 등이 함께하였다.)
12. 음복 : 고사를 지낸 사람들이 복을 나누는 술을 나누어 마심.
13. 고사 풍장과 축제 공연 : 대동 고사가 끝나면 먼저 마을 풍장패가 흥겹게 풍장을 친 후 난타, 대중가요 등 당해 년도 계획한 공연을 이어감.
10. 종헌 : 마을 동계장이 잔을 올리고 삼배함.

봉림리 주민들의 칠석제에 대한 신앙적 의미는 아직도 남다르다. 봉림리에서 칠석제가 단절되었던 13년 동안 27회의 악상을 치러 낸 후 칠석제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후 13년 동안 단 한건의 악상도 치루지 않았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은 축제화한 칠석제라 말하면서도 매우 경건하게 고사를 지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내빈 2인이 잔을 올리는 순서였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참여하였는데도 이들의 헌작 순서가 마을 제관들이 초헌과 아헌 종헌을 모두 행한 후에 하게 하였다. 이 순서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소신 또한 분명하여 칠석제를 지켜 나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한 후에 중요 내빈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 매우 커 바꿀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3) 예산의 두레

전 예산군지에는 예산의 두레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전통 사회의 예산은 현대의 행정단위로 리 단위 모든 마을에 1~2개의 두레가 존재 했을 만큼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 중에서 이른바 대동아 전쟁 직전인 1938년경부터 일제가 두레를 금하면서부터 쇠락하였다. 일제가 두레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농업공동체가 아니라 민족정신을 이어나가는 주체로 보았기 때문이며 국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앞세워 이를 금했던 것이다. 해방이 된 1945년부터는 다시 두

레가 복원되어 운영되었으나, 예산 읍내 일부 마을에서는 두레가 소생하지 못하여 소멸되었고 일부 두레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되어 두레의 수가 줄어들었다.

예산의 두레가 결정적으로 줄어든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몇 마을은 많은 장정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두레를 포기하였으며, 몇몇 마을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면서 두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라졌다. 자세한 원인은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하지만 예산에서는 인근의 다른 고장보다 두레가 일찍 소멸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예산 인근의 공주, 보령, 홍성, 아산 등지에서는 여름 논매기 공동작업의 두레 활동이 논의 잡초제거로 일반화 되는 1980년대 초반인데 반해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10개 두레의 경우 모두 1970년대 이전에 여름 논매기 공동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산에서 가장 최근까지 여름 논매기 공동작업을 한 마을은 덕산면 옥계리 두레가 1967년까지 행했고, 봉산면 봉림리 두레의 경우에는 1954년 한국전쟁 직후 소멸되었다한다. 물론 봄철 단오 이전에 이른바 '꽁댕이 먹는 날'이라는 봄두레 먹는 날의 관습은 이양기의 보급이 왕성해진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날 두레 좌상은 모내기 날짜와 당해 마을의 품삯을 정했으나 이 또한 이양기의 보급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두레의 가장 큰 공동작업은 논매기다. 일반적으로 논을 매는 작업은 전국적으로 3회가 평균이며 이를 예산 및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아시, 두물, 만물로 칭하는데 두레는 이 공동작업 중 몇 번을 공동체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두레의 구성과 운영의 성격을 좌우한다.

3회 모두 공동작업으로 행하는 두레는 장정들의 일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좀 더 많은 일을 행하려는 두레이며, 1회에 그치는 두레는 일보다는 두레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기는 것을 중요시 하는 두레들이다. 대부분 평야지대의 두레는 3회 세물두레가 많고 산골 두레는 1회 한물 두레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예산의 두레들은 모두 마을 공동체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켜내려는 두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군의 신안면 고도면 등 이

른바 예당평야 지대의 마을들은 예당저수지로 인하여 수리 안전율이 높고 들이 넓어 일이 많았음에도 모두 한물두레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두레에는 각 종의 민속이 함께한다. 충청남도 내 타지방의 무형문화재 중에도 두레와 관련된 민속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성군의 결성농요, 부여군의 세도 두레풍장, 논산시의 연산 백중놀이, 금산군의 물패기농요 등이 모두 두레의 민속이다. 이런 두레 민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요하며 현재까지 여름두레먹는 날과 관련된 예산군의 민속은 봉산면 봉림리의 칠석제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된다.

(4) 향후 정밀 조사가 필요한 민속

옛날의 예산군지에 기록되어 있는 추석 거북놀이와 정월 대보름 볏가릿대 놀이는 지역의 고유 향토 민속으로, 가능하다면 복원하여 맥을 이어나갈 가치가 충분한 민속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기록만으로는 복원이 어려우며 기록 보존의 차원에서도 많이 부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절민한 현장조사와 채록의 필요가 절실하다.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덕산면 옥계리 고사 축원
덕산면 시량리 고사 축원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 고사 축원
덕산면 광천리 고사 축원
덕산면 시량리 고사 축원

삽교읍 창정리 모찌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삽교읍 창정리 논매는 소리 1
삽교읍 창정리 논매는 소리 2
대술면 장복리 논매는 소리
신양면 신양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상중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대흥면 동서리 논매는 소리
대술면 장복리 자리개질 소리
신양면 신양리 집터 다지는 소리
광시면 신흥리 말뚝 박는 소리
광시면 신흥리 메질(망께) 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수궁가 중 곡우천변
한송정 (단가)
신암면 신택 1리 시집살이 노래
대흥면 탄방리 시집살이 노래
삽교읍 신리 베틀가
신암면 신택 1리 청혼가
덕산면 옥계라 방아타령
대흥면 상중리 방아타령
삽교읍 신리 방아 노래

덕산면 시량리 상여 소리
대술면 화천리 상여 소리
오가면 좌방리 상여 소리
봉산면 봉림리 상여 소리
신양면 신양리 상여 소리
광시면 마사리 상여 소리
상여소리 회심곡
고덕면 호음리 상여소리
신양면 신양리 달구소리
고덕면 호음리 상여소리
고덕면 호음리 상여소리
천자 대피 장타령
장타령 2
장타령 3
덕산면 몽곡리 장타령
김 모 장타령
각설이타령 (유진룡)
각설이타령 (김 모 각설이타령 2-6)
애기그지 품바 (김 모)
잡 타령 (김 모)
월령 품바 (김 모)
잡 타령 (김 모)
중신 타령 (김 모)
삼국지 월령 품바 (김 모)
대빵 타령 (김 모)
한탄 사설 (김 모)
상여소리 품바 (김 모)
삽교읍 두 2리 각설이타령
사설 각설이
광시면 마사리 각설이타령
자마리 꽁꽁
달래 먹고
대흥면 신중리 우스개 노래
신양면 만토리 우스개 노래
대흥면 탄방리 불무 소리
삽교읍 신리 달강달강
대술면 장복1리 달강달강
대흥면 탄방리 달강달강

덕수가
난봉 아리랑
병타령
새야 새야
파랑새의 노래

예산 안택경의 반야심경문
예산 안택경의 회심곡
예산의 앉은 경(굿) 경문
심방장수경
천지팔양주신경
공문제 소리
계화가
공문제 축원소리
상인들 물건 파는 소리
약장사 죽방울 놀이 죽방울 소리
약장사 약파는 사설과 약타령
삽교읍 두2리 약장수 타령
젓갈 장수 젓깔 타령
담배 장수 사설과 담바귀 타령
류진룡 구술 담배 장수 사설과 담바귀 타령
엿장수의 사설과 엿타령
류진룡 구술엿장사 엿파는 소리
삽교읍 두2리 엿장수 타령
떡장수의 떡파는 사설과 떡타령
소금장수 소금파는 사설과 소금장수 타령
짚신장수 짚신파는 사설과 짚신 타령
싸구려 타령
삽교읍 두2리 양잿물 장수의 양잿물 타령
보부상 놀이에서 불리는 기타 소리
장터에서 구걸하는 걸인들의 각설이타령
예산 군지 수록 보부상 각설이타령
류진룡 구술 장터 각설이타령
요지경 놀이 소리
보부상의 죽음에 나가는 상여 행상 소리
장터 축원 소리

2장 예산의 소리

1.
예산의 소리와 풍장 개설

예산에서 채록되어 기록으로 남은 소리는 놀이판에서 부른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비롯해서 일노래로는 모찌는소리, 논매는소리, 집터다지는 소리, 말목박는소리 등이 있다. 이중에서 모찌는소리는 인근의 홍성이나 공주지역과 전혀 다르면서 지역의 서정을 잘 담고 있는 소리이다. 의식요로는 상여·행상소리와 묘터를 다지는 달공(혹은 달구)소리가 있으며, 판소리는 적벽가 1수, 수궁가 1수가 적게 채록되었고, 단가는 충청일원에서 널리 불린 취담이 '한송정'이라는 이름으로 전하였다. 부녀자들의 노래 중에는 시집살이 노래들과 방아타령, 청혼가가 있는데 이중 청혼가는 노처녀가 시집을 가야하는데 중신조차 들어오지 않음을 한탄하는 노래로 다른 고장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민요다.

예산에서 가장 긴 노래로 가장 흥하게 찾아지고 기록된 소리는 고사축원소리다. 고사축원이란 고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비는 말을 노래로 하는 것으로 현재는 '비나리'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며 예산에서는 '축원소리' 또는 '고사축원'이라 한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종류로 채록되고 민속예술로의 가치가 높은 소리는 장타령과 각설이다. 문화재청의 조사에서 각설이타령의 발생지를 예산과 공주로 본 논문이 있다. 예산의 장타령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고장의 장타령에서는 인근 장에 대해 조금 노래하고 마는 것에 비하여, 예산 장타령들은 전국의 장을 모두 노래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이다. 장단에 있어서는 다른 고장과는 다르게 점잖게 불러서 어떤

부분은 판소리를 연상하게끔 느리고 빠름의 속도 차이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슬픈 각설이타령들이 전하고 있다.

동요로는 '풍소가', '불무소리', '달강달강', '자장가', '둥기소리' 등이 있는데 모두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들이었으며,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부른 노래는 줄넘기 노래 한 곡뿐이어서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예산지역의 고유 민속으로 자리잡고 있는 보부상 놀이와 장사꾼의 소리들은 예덕상무사 공연단과 보부상 난장놀이 보존회의 회원들이 다수의 소리를 전하고 공연하고 있으며, 이 외에 예산에서 채록된 장사꾼의 장사치 소리는 삽교 채록분의 '양잿물파는 소리'와 '엿장수 타령' 등이 전한다.

이 밖에도 적게 채록된 소리들을 보면 민속 신앙과 관련된 노래는 앉은굿으로 행한 무당의 소리 중 '반야심경', '회심곡', '심방장수경문', '천지팔양주신경' 등이 소리들이 채록과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타 도서의 기록에서 수록되어 있는 동학 관련 민요인 예산의 '새야 새야'가 2곡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래들은 노래의 곡이나 노랫말이 타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노래들이다. 한 고장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채록하다보면 해방 후는 물론 2000년대에도 자신이 만들어 부르는 노래들이 존재하는데, 예산에서는 한 곡 밖에 채록되지 않았다.

풍장도 활발하게 연주되었으며 뛰어난 가락들이 전승 되어왔다. 특히 마을마다 울렸던 두레풍장과 고사 풍장 등은 충청도의 어느 고장에 비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많은 가락과 판재가 연희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평택 일원의 장터 풍장을 배워 해방 후 예산에서 사람을 모아 풍장을 가르치고 판을 구성하여 덕산장 등을 돌며 장터 풍장을 쳤던 박상쇠의 영향으로 예술인들의 풍장 또한 충남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운다. 박상쇠의 풍장은 예산 각 고장의 풍장에 영향을 끼쳐 지역의 두레 풍장이 느린 흥에서 빠른 흥으로 변모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예산 축원소리, 각설이타령, 풍장의 특징

예산의 소리 중 지역민요로서의 가치와 예술성들을 기준삼아 대표적인 것들은 축원소리와 각설이타령, 장타령, 풍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예산의 장타령과 각설이타령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타고장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

축원소리는 예산의 거의 모든 마을에 소리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장에서는 마을의 큰 행사격인 고사 현장에서만 드물게 불렸던 것에 반하여, 예산에서는 풍장을 치면 축원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아서 고사 현장이 아닌 놀이판에서 예술의 한 분야로 공연되었다. 소리를 잘하고 긴 노랫말을 모두 외는 지역의 소리꾼들만이 아니라, 노는 흥이 조금 있는 사람이면 짧게라도 축원 한 자락은 할 수 있어야 소리꾼 대접을 받는 풍토였다.

축원소리는 복을 비는 소리라서 처음에는 고정된 형태의 노랫말로 시작하지만 중간부터는 소리를 하는 판의 특징을 살려 즉흥적으로 소리를 이어간다. 축원소리의 노랫말이 다양하고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런 고유의 민속은 대중매체의 보급과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일찍 쇠락하였다. 이 고장 출신의 예인 이광수가 사물놀이로 높은 예명을 떨친 후 예산 고사축원 소리를 기본으로 창작한 부분을 삽입하고, 정리하여 이른바 '비나리'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여 인기를 얻었다. 예산의 고사축원은 예산군지 외 다수의 도서와 영상으로 전하고 있으며 현재도 축원을 잘하는 소리꾼들이 예산지역에 살고 있다.

각설이타령의 발생지를 예산과 공주일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975년 당시의 문화공보부(현 문체육관광부)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행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충청남도 편에서 기록하고 있다. 다른 고장의 대부분 각설이타령이 음식을 얻어먹거나 동냥을 하기 위해 부르는 빠른 동살 풀이 한 가락으로 부르는데 반하여 예산지역에서는 진양조처럼 느리게 부르기도 하고, 보통의 속도로 부르기도 하며, 다른 고장과 같이 빠른 속도로 부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설 품바'라 하여 마치 판소리꾼이 아니리를 하듯, 재담꾼이 재담을 하듯 부르는 구절도 있다는 것은 예산 각설이타령의 특 특징이다.

예산 각설이타령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이른바 '슬픈 각설이타령'이다. 슬픈 각설이타령은 예산에서 다양한 소리가 채록되어 전하며 이 밖의 고장에서는 충남 공주에서 약간의 소리가 채록되어 기록과 노래로 전승되고 있을 뿐 타 고장에는 일체 채록되지 않는 노래다. '애기그지 품바', '한탄사설', '상여소리 품바' 등이 슬픈 각설이타령들인데 이 노래들은 각설이타령이 거지들의 노래가 아니라 민중의 노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예산지역에서는 각설이타령이 거지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들, 이른바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불렀던 노래라는 점을 대변하는 것이다.

예산의 풍장은 현재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면이 참으로 많다. 두레풍장의 다양성이나 활기찼던 점, 예인들의 풍장으로 봐야 하는 장터풍장이 일찍 자리 잡았던 점, 정기적으로 풍장을 연습하는 예인들이 다른 고장보다 일찍 시작하였고 인원수가 많았던 점에 비하여 지금은 그 명맥이 너무 쇠락한 까닭이다. 이른바 박상쇠 풍장패로 일컬어지던 장터 순회 풍장단의 가락은 예산이나 충청남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풍장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덕산 송창영 1인만이 이를 기억하고 연주하는데 고령으로 기량이 쇠하여 판재를 온건히 재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예산의 민속소리와 음악 중 소중한 3대 민속 중 하나로 풍장을 논하는 것은 전통 사회 예산의 사람들이 노래와 함께 즐긴 예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즐겼기 때문이다. 두레가 시작되면 아침부터 저녁 일이 끝날 때까지 풍장소리가 끊기면 않되는 것으로 알았던 고장이었으며, 농사를 짓는 마을에 두레를 세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던 예산 사람들이 흥을 더해서 일상을 즐거움

으로 바꾸었던 음악이 풍장인 것이다.

3.
조용한 흥의 소리 예산 민요

예산 민속의 전반적인 특징을 하나 꼽으면 점잖음이다. 이는 소리판에서도 같다. 이는 예산 소리판의 특징을 살피면 추론할 수 있다.

전통사회 민중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1년 중 노래를 부르며 놀 수 있는 날은 참으로 적은 날들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소소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술 한 잔 마시고 장구장단이라도 쳐가며 노는 날이라면 1년에 6~7일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생활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소리와 서민들의 생활은 연결고리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참으로 많은 노래가 채록된다.

또 하나 예산 민요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랫말이 길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고사 축원소리는 인근 시군의 노랫말에 2배 정도가 보통이며, 각설이타령의 경우 또한 본 도서에서는 내용별로 정리하여 기록했지만 부르는 현장에서는 흥에 딸라 끊임없이 이어 부르는 소리였다. 창부타령의 노랫말들 중에서도 예산에서만 불리는 노랫말의 창부타령 들은 노랫말이 매우 길다. 소리꾼이 청자들에게 "소리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소리를 소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다른 지역을 민속조사하며 얻은 경험에 의하면 청자들은 다양한 몸짓과 재주를 부리는 듯한 가락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예산의 소리꾼들은 이런 청중들의 요구가 없었다는 듯이 아주 편하고 점잖게 부른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흥은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두고 보여줄 듯 말듯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런 연행을 청자들이 참으로 좋아하면서도 조용히 들어 주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다.

노랫말이 긴 사설의 소리를 조용하고 점잖게 부르는데 듣는 사람들이 함께 노는 마음이 되어 즐기는 모습, 그러면서도 다양한 노래들을 할 수 있었던 예산 소리판의 점잖은 정서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민요 개별 노래에 대한 정리는 분야별로 기록한다.

4.
예산 소리의 종류와 노랫말들

-
-
-

청춘가

청춘가는 예산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다.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잔치에서 소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나 소리 한 자락 하는 장소에서는 청춘가로 시작하기 일수였다. 청춘가가 첫 노래로 불렸다는 것은 소리판의 시작을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른 고장의 청춘가에는 하급 화류층의 자학적인 노랫말들이 보이고 욕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예산에서는 이런 노랫말이 채록되지도 않았고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청춘가는 남녀 누구나 쉽게 부르는 노래로 고정된 후렴이 없이 계속 이어 부르는 까닭에 노랫말이 짧다. 기본 가락이 굿거리장단이기에 단순히 손뼉을 치면서 불러도 흥이 절로 난다. 청춘가가 불리면 청자나 창자의 구별 없이 아니라 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함께 부른다. 보통은 주고받는 형식으로 즐겼으며, 아는 노랫말이 나오면 따라 부르곤 한다.

경기민요의 청춘가와 다른 점이 적기 때문에 1970년도 이후 대중매체로 접하게 되는 청춘가를 들으면서도 예산사람들은 예산의 청춘가를 촌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예산에서 채록되는 청춘가의 노랫말은 향토성 여부로 보아 지역에서 옛날부터 불린 노래와 경기 민요 보급 이후에 불린 노랫말에 구분이 있으며, 두 노랫말 모두 같은 가락

으로 나타난다. 본 도서에는 지역의 향토 노랫말은 모두 기록하고 경기 민요재의 영향으로 보이는 노랫말은 현재 생존한 노인들이 즐겨 부르는 일부를 수록하였다.

수록된 청춘가는 총 22수로 청춘의 사랑이나 애달픈 마음으로 노래한 노랫말이 10수, 인생의 어려움이나 세월의 허무함을 노래한 노랫말이 8수, 세상을 풍자한 노랫말이 3수로 가볍게 부른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다. 청춘가와 노랫가락은 부른 창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여러 소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 까닭이다. 청춘가와 노랫가락을 제외한 채록본에는 메타정보를 기입하였다.

– 청춘(청천)하늘 위에 성별일도 많구요
요내 가슴 속엔 (좋구나) 수심도 많구나

※ 이 청춘가는 이종원의 창으로 노래의 곡조는 같으나 노랫말이 경기 민요와 달라 수록한 것으로 예산지역 옛 청춘가의 정서가 잘 살아 있어 내용이 중복됨에도 정정 없이 수록하였다.

– 니가(네가) 날 만큼 사랑을 준다면
가시덤풀 천리라두 (좋다) 맨발루 뛰리라.

–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 사나요.
놀기도 하면서 (좋다) 살어나 봅시다

– 떳다 보아라, 무엇이 떳느냐.
우편국 마당에 (좋다) 임 소식이 떳구나.

–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우리네 가슴에 (좋다) 수심도 많구나

– 세브란스 병원이 지 아무리 용타해두
임그려 난병은 (좋다) 못고치누우나.

–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사지,
못사는 세월을 (좋다) 한탄해 무엇하리

– 천길 만길을 뚝 덜어져 살어도
정든님 떨어져선 (좋다) 나 못살리로오다.

– 우두매끼(손목시계)를 사줬는디
일이삼사를 몰러서 (좋다) 새로 한시에 왔구나
※ 예산에서만 채록되고 불린 청춘가다.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따라야하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교훈적의미가 담겨있다.

– 홀목 손목시계를 사줬는디
1.2.3.4를 몰러서 (좋다) 헛일이 났구나.
※ 예산에서만 채록되고 불린 청춘가로 앞의 소리와 유사하나 특이함으로 가치가 있어 수록한다.

– 니가 잘나서 일색이드냐.
내 눈이 어두어 (좋다) 환장을 했느냐?

–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장안에 호걸이 (좋다) 다 늙어 가노라

– 날 다려(데려) 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한양에 낭군아 (좋다) 날 모셔가거라

– 남아男兒 봉접蜂蝶아 내(자기) 자랑 말어라
낙화洛花가 되며는 (좋다) 쓸 곳이 없더라(없더라).

– 바람아 불어라 구름아 모여라
순풍에 돛 달구서 (좋다) 뱃놀이를 가잔다.

– 겨울게(겨울에) 상처는 총독부總督府 차지 것만
저기 가는 저 큰애기 (좋다) 내 차지로구나

– 너 잘났다구 뽐 내지를 말어라
십 삼도十三道 남아男兒가 (좋다) 너 하나 뿐일러냐

– 니가 먼저 살자구 옆구리를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구 (좋다) 간짜를 놨느냐

– 돈 쓰던 남아男兒가 돈 떨어지면은
구시월九十月 단풍에 (좋다) 서리 맞은 국화로다

– 갱변 백사장엔 모새(모래)두 많구요.
이네 가슴엔 (좋다) 걱정두 많구나

– 간다네 온다네 날 버리고 떠난 님
한 짐을 지구서 (좋다) 돌아들 온단다.

–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며는
묘창에 지기가 (좋다) 일속이로구나

– 니가 잘나서 미색이 되드냐
네눈이 어두워서 (에에) 환장이로구나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정 마당에 한강수가 됐노라

노랫가락

노랫가락 또한 예산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이 노래 역시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부르는 노래였다. 고정된 후렴 없이 계속 이어 부르는 노랫가락은 청춘가보다 노랫말이 조금 길어 옛 시조의 길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창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조들이 노랫가락이 많이 차입됐다.

가락은 굿거리장단이며 청춘가를 부르다가 노랫가락으로 바꿀 때는 노래를 그치지 않고 청춘가 조로 "돌려라 돌려라 노랫가락으로 돌려라. 청춘가는 집어치고(좋다) 노랫가락으로 놀려라"하면 다음 창자가 노랫가락으로 바꾸어 부르는 놀이 방식을 택했다.

노래에 대한 박자와 형식은 청춘가보다 변형이 많다. 가락의 속도를 어떤 부분은 느리고 길게 뽑아 멋을 부리기도 하며, 어떤 부분은 빠르게 몰아 흥을 더하기도 한다. 굿거리 가락으로 창부타령의 노랫말 일부를 붙여 부르기도 하며, 흥이 나면 "얼씨구나 좋다 어리얼씨구 좋다"하는 부분을 즉흥적으로 삽입해 부르기도 한다.

노랫말을 살피면 노랫가락에는 교육적인 내용들이나 희망적인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예산의 소리꾼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교육적인 내용의 노랫말은 '충신은 만조정이요'와 '공자님 심으신 남그(남게)'로 시작되는 노래다. 이는 시조를 노랫말로 차입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시조를 노랫가락으로 부르는 노래들은 노랫말 약간 변형하기도 하며 변형 없이 원 시조 그대로를 노랫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록된 15수의 노랫말 중 2수는 길이가 경기민요의 노랫말보다 긴 예산 향토의 노랫가락으로 예산인 김덕수에 의해 채록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 길이와 같다.

-아버님 날 나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내 몸이 생겼을까
가엽다 하는 대문에 어따 대여이(어디에다) 감사하리

※ 예산에서만 채록되고 불린 노랫가락으로 인근 고장에서는 마지막 연이 다른 형태로 불린다.

–세상사를 비관타말고 금전 안탠 걸 한탄 마라
꽃 핀 후에 새가 울고 고생 끝에는 평화온다네
우리도 참고 살 며는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인종명 창)
※ 예산에서 아주 흔하게 불린 노래 가락이다.

–세상사를 비관하지를 고생하는 걸 한탄 마라
고생 끝엔 성공이 있고 성공 끝이는 평화온다네
아서라 니그리 말어라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
※ 예산에서 아주 흔하게 불린 노래 가락이다.

–공자님 심으신 남그 안양정자로 물을 주어
살아로 뻗은 가지 맹자 꽃이 피었도다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누만대에 무궁환가 (인종명. 김덕수 창)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열녀는 가가개주라
사전개 낙천자하니 붕우유신을 하오리다
우리도 성주님 모시고 태평성주를 누루리라 (이기순. 김덕수 창)

–무량수 강이다 집을 짓고 만수 강이다 형편 달어
삼신산 불로초를 여기저기다 심어 놓고
북방이 백발량 지기 돈 실어다 넉넉히 익수로다 (김덕수 창)

–송악산에 드린 안개 만수 봉이 포준비되고
사양강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 놓고
밤이면 월색만 좋아 낭옥을 행주로다 (김덕수 창)

– 중의요 중이요 용이 가는데 구름가고
봉 가는데 구름가고 금일상봉에 나도 가고
천년을 인 님을 이별하고 주야장창에 잠 못자네
어느 때나 님을 만나 일군락 인방진 따지게 될까 (김덕수 창)

※ 예산에서만 채록된 노랫가락으로 다른 곡보다 한 소절이 더 많다.

–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정들었던 사랑이 내 사랑아
거꾸로 보아도 내 사랑이요 뒤로다 열 번을 보아도 내 사랑이요
앞이루 몇 번을 보아두 내 사랑이요
얼그럭 덜그럭이두 덤빈 사랑 왈칵달칵이두 훔친 사랑
칠년대한 가문 날에 빗발과나 같이두나 반긴 사랑
사랑이란게 무엇이냐 알다가두 모를 사랑
모르것다가두 아는 사랑
얼씨구나 좋구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김덕수 창)

※ 김덕수는 성격이 자유 분망하여 노래를 구분하여 부르지 않는 인물이다. 이 노래는 분명 창부타령의 노랫말과 같으나 시종일관 노랫가락으로 불렀다.

–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며는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기순 창)

– 간 밤에 꿈이 좋더니 시누이에게서 편지가 왔네
편지는 왔다마는 임은 어째서 못 오는고
봉자야 먹 갈어라 임에게루 답장하자 (임세창 창)

– 달아 뚜렷헌 달아 임의동창에 비친 달아
임 홀로 누웠드냐 어느 부량자 품었드냐

명월아 본데루 일러라 임의에게루 사생결단 (임세창. 이기순 창)

–가오가오 나는 가오 임을 두구서 나는 가오
가기는 가오마는 정일랑은 두구 가오
내가 가면 아주를 가나 아주 간들 잊을소냐 (임세창 창)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 하면은 다시 오기가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염수염

나븨야 놀러나 가자. 호랑 나븨야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거든 잎이 기대여 자구 가지
잎이 푸대접 하거덜랑은 밖이 잔들 어떠하리

※ 예산에서 아주 드물게 시조의 노랫말을 변형 없이 노랫가락으로 부르는 곡이다.

창부타령

창부타령 역시 예산 사람들이 즐겨 부른 대중적 민요였다. 그러나 노랫말이 길고 흥을 요하는 소리라서 누구나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고 마을에서 '소리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라는 것이 예산 노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장단은 굿거리장단이다. 예산의 창부타령도 경기민요의 창부타령처럼 앞뒤 후렴이 있으나 예산지역에서는 앞뒤 후렴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변형시켜 부르는 경향을 보인다. 소리꾼이 노래를 부를 때 목을 쓰는 방법에서도 경기민요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경기민요재처럼 높고 맑은 소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목소리로 편하게 부르며, 속도 또한 일정한 속도에 구애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굿거리장단의 박자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정 속도에 구애 받지 않지만 굿거리 장단의 범주에서 불러야 한다는 점이 '소리꾼들의 소리'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창부타령은 크게 두 가지로 채록된다. 첫째는 예산 사람들이 고유의 편안한 창법과 흥으로 부르는 창부타령이며 또 하나는 최근 경기민요를 예산문화원 등에서 학습을 통해 익힌 창부타령 들이다. 예산 사람들의 고유한 창법은 옥계리 이종원에게 확인 할 수 있다. 이종원의 창부타령은 전통사회 예산에서 어떤 창부타령을, 어떻게 부르면서 즐겼는지를 알게끔 하는 중요한 소리이다. 일반적인 경기 민요보다 노랫말이 길며, 삶의 정서를 편하게 풀어내면서도 서정성이 담겨 있다.

예산은 창부타령조차 점잖게 부르는 모습을 띈다. 타 지역의 소리꾼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경우, 조금은 들떠서 흥겹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산의 소리꾼들은 한결 같다. 본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락을 편하면서도 즐겁게 부르는데 가볍게 어깨춤을 추며 부르는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다. 또한 예산 사람들의 창부타령 중에는 드물게 노랫말을 지어 부르는 모습도 보인다. 예산에서 창부타령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를 알게 한다.

다행히 예산지역에서는 경기민요와 다른 예산 특유의 노랫말과 가락을 간직한 창부타령 여러 수가 채록되었으며 아직도 이를 부르는 창자들이 생존해 있거나 활동하고 있다.

예산 창부타령 앞 소리의 변형

1)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2) 어리 얼씨구나 저리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예산 창부타령 뒤 소리의 변형

1) 아니 얼씨구 지화자 좋네 일으키 좋다가는 딸 낳는다.

2) 어리 얼씨구나 저리 절씨구 태평승대가 이 아니냐.

3) 절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자(기성)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부타령의 앞·뒷소리 후렴에 변형은 예산의 인근지역인 공주나 홍성보다 매우 적다. 공주나 홍성의 소리꾼들은 앞·뒷소리를 창자의 재량과 즉흥성에 따라 수많은 변형이 있으며 '입술터는소리', '콧소리' 등을 더하여 흥을 키웠는데, 예산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특히 뒷소리 후렴의 변형 중 "태평성대가 이 아니냐"의 변형으로 인하여 2000년 이전의 각종 채록에서는 이런 노래를 태평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노래의 장단과 가락에 의하면 당연히 창부타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창부타령의 노랫말

창부타령 1 – 창자 : 이종원

아니 아니로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나니
백구야 활활 높이 날아라
너를 잡을 내가 간다
선상에 달에 뜨메
당신을 쫓아 여기 왔지
당성에다가 터를 닦고
구목위에 소를 심고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넉넉하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조사자가 소리를 이어하자 그것을 듣고] 그게 인제 잡소리가 들어가지 뭐

※ 공주, 예산, 청양 지역의 소리꾼들이 가장 즐겨 부른 창부타령 중 하나로 중고제 판소리 명창 이동백의 판소리 노랫말 중에 '백구야 훨훨 날지 마라'라는 구절의 노랫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상호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창부타령이다.

창부타령 2 – 창자 : 이종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장장추야 흐르는 물에
빨래하는 저 아가씨야
옥양목 버선 흰고무신에
흰 낙질을 질끈 띠고'
머리우에 흰수건을
멋드러지게도 씌어놓고
흰 달 같이두 밝은 눈에는
반달같이 그린눈썹
송편같이 빚은 귀는
호두같이 누린 코에
앵두같이 붉은 입술이
수종같이도 솟은 인대
금반같이 따내린 머리
겨드랑밑에다 살짝 끼고
삼삼옥수에(섬섬옥수) 고운손길로

박달나무 방맹이 높이 들어
아팡뒤팡 따은모냥은 –
대장부 간장만 다녹인다
어리얼 씨구 증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이종원의 이 창부타령은 예산지역에서 〈장장추야長長秋野〉라는 제목으로 널리 불린 창부타령이며 전통사회 예산지역의 창부 타령의 본 음악과 창법을 제대로 간직한 유일의 노래다. 이 노래가 현대적으로 노랫말이 정리된 것들은 공주 평택 등지에서 채록된 것들이 보이지만 이종원의 창부타령이 더 향토적이며 노래 말의 서정성이나 서사적 표현이 더 우수한 노래다. 예산 서민들의 향토 민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창부타령 3 – 창자 : 원효순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정 들었네 정 들었어 아무도 모르게 정들었네
너 없으면 나 못살고 나 없으면 너 못살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니
젊어 잠간 청춘이요 세월 잠간 백발이 오니
일년삼백육십오일을 하루만 못봐두 못살것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원효순의 창부타령은 가장 한국적 정서로 사랑을 노래하는데 타 고장에서 채록된 사례가 전혀 없는 유일한 노래다. 원효순이 창부타령을 부르는 창법은 경기 민요재에 가깝다.

창부타령 4 – 창자 : 이희철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엄벙덤벙 세모래 강변에
마전질하는(마를 빠는) 저 처녀야
누구의 간장을 다 녹이려고
저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박 속 같이 흰 얼굴에

앵두 같이 붉은 입술
동백 기름을 살짝 발라
화초花草 댕기 화강그려
곱게 마겨라 동여나 매고
호박단琥珀緞 저고리 양단洋緞 치마
자주 고름 맞잡아 매고
한쪽 고름을 맞 잡아 매고
한쪽 고름은 어깨에 메고
토드락 톡탁 빠는 소리에
장부의 간장이 다녹는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네
태평 성대가 이아닌가

※ 이희철의 창부타령은 충남 공주와 경기 평택에서 채록된 노랫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의 아버지 이종원이 마전질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처럼 예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창부타령들을 많이 부르나 이를 배우지 못하고 평택의 소리를 익혔다고 한다. 아버지를 어려워하여 배우지 못했다 하는데 예산의 전통 창부타령을 부르는 사람이 이종원 한 사람만 남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창부타령 5 – 창자 : 원효순

얼시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이 강산 삼천리에 새 봄이 왔네
방실방실 웃는 꽃들 우줄우–줄 능수버들
비비배배 종달새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라
앞집 수탁이 꼬기오 울고 뒷집 삽살개 컹컹 짓네
앞 논에 암소가 움매움매 뒷매 살꿩이 기기기기
울리고 가는 큰애기 걸음 삼줄에 흐늘거려
사븐사쁜 아기자장 흐늘거리고 걸어간다
얼씨구나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이 창부타령은 예산 외의 지방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예산 고유의 창부타령 중 하나다. 비비배배, 꼬끼오, 컹컹 등의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차입된 것이 특이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노래의 차이가 많은 창부타령으로 예산의 소리꾼들이 즐겨 부른 소리로 추정된다.

창부타령 6 – 창자 : 박흥남

얼시구나 얼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진(긴) 담뱃대 툭툭털며 이리오너라 부르는데
요내 팔자는 무삼되어 악독한 시국에 태어나서
남 보는 글 못 배우고 속절없이도 농부가 되어
두 지게 밀방 새 모가지 걸고 춘하사시철 허송세월
하다헌 일도 많것마는 넘의 집에 콩살이가 웬 말이냐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 요 나의 청춘을 못살것네
얼씨구나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박흥남의 창부타령은 김덕수의 창부타령과 유사하나 다른 소리다. 노랫말이 타 지역의 신세타령과 유사하며 '악독한 시국에 태어나서'의 대목은 태평양전쟁이나 한국전쟁 등의 어렵던 시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옛 소리로는 박흥남의 소리가 원본으로 보이며 김덕수의 타령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창부타령 7 – 창자 : 박흥남

얼시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흥선이 떠난 부산 항구는 파도와 물결만 출렁대구
기차 떠난 서울역에는 거먹 연기만 남아있구
그대가 떠나가신 내 가슴속엔 수심만 가득히 차여있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박흥남의 이 창부타령은 노랫가락의 노랫말을 창부타령으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예산에서는 널리 불린 노래다.

해방가 – 창자 : 김덕수

얼시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징용보국단 나갈적이는 다시는 못 올줄 알었더니
일천구백사십오년에 팔월 십오일 날 열두시에 해방이 되어
문전 문전이 태극기달구 사천 팔백 만이 동포가 춤을 춘다
수양산 꼭대기 태극기는 바람이 펄펄펄펄 휘날리는디
넘의 집 서방님은 다돌어오는 디 우리집 돌이 아빠는 왜못오나
원자폭탄이 부상을 당했는지 지긋지긋하게 속썩이겠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이 창부타령은 드물게 해방가라는 별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충청남도 공주, 논산, 아산 등지에서도 채록되는 노래로 김덕수의 창은 변형이 많다. 타 고장의 이 소리는 끝 소절까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김덕수의 창에서는 후반부 2소절은 일제 강점기의 서름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소절로 추론하면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노래한 창부타령이 존재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찾지 못하였다.

동란가(6.25) – 창자 : 김덕수

얼시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해방은 됐다구 좋다구덜 하는데 지긋지긋한 육이오가 웬 말이냐
보따(다)리를 머리다 이구 어린자식은 등어리다 엎구
다 큰놈 작은 애 앞 세우구
늙으신 부모님 앞에 모시고 생각해보니
응분에 쏟아져서 나는 못 살것네
이내 팔자가 기박하여 요로케(이렇게) 살라는 팔 잔가봐
어떤 사람은 팔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쌍쌍이 마주 앉아
거문고 자락을 비겨 안고 그 노래에 하였으되
백학이 춤을 추고(며) 우쭐우쭐이 날어든다.
절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자(기성)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창자 김덕수가 동란가라고 소개한 이 창부타령은 예산지역에서 한국전쟁 후 만들어진 각설이타령과 더불어 예산의 향토 민요들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 부른 경향을 알게 하는 소리다.

창부타령 8 – 창자 : 박흥남. 김덕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부산항구 열락선 떠나간디는 파도와 물결만 남어있구
예산역전이 지내가는 기차가 떠나간디는 기적소리만 남어있구
예산통에나 서울지창이나 따는 매일 연기만 남어 있네
오장원 기차 떠나간 디는 거먹 연기나 남어있고
님 떠나 가시구 남은 방이는 연기만 가득하네
절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자(기성)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이 노래는 예산에서 즐겨 부르던 소리로 앞의 박흥남과 김덕수 외에도 부르는 사람이 많았다.

창부타령 9 – 창자 : 김덕수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백아白鵝 금녀錦女 옆에끼고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놀러가세
강수江水로다 술을 빗고
명월明月로다 초를 삼아
청풍淸風에 난간에 누웠으니
사람에 갈길 잠간 잊었구나
에~ 누구 계신곳
방탕放蕩한 자제로 경계를 따라서
어리어리어니 나 여기 왔나.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네

지화자 좋내 지화자 지화자 좋을 씨구

※ 이 노래는 김덕수의 다른 노래와 다르게 타 지역에서 부르는 노랫말이 정확하게 지켜지다가 후반부는 바뀌었다. 마치 한자 성어를 우리 말로 풀어 낸 듯한데 이는 김덕수의 역량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듯하다.

고사 축원

고사 축원은 예산을 대표하는 고유의 소리 중 하나다. 예산에서는 이 소리를 '덕담', '고사소리', '고사덕담', '축원덕담', '고사축원' 등으로 불리며 '고사축원'이라는 말을 가장 흔히 쓴다.

예산 고사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랫말이 길다는 것이다. 다른 고장에서는 고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보다는 짧은 노랫말로 이루어진다. 집터를 다지는 고사, 새집을 짓고 올리는 낙성 고사,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고사 등 그 고사에 맞도록 노랫말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길게 한 틀을 갖는 것이다. 노랫말이 긴 것은 하나의 축원소리에 노랫말을 모두 담아 놓고, 소리꾼의 역량 껏 고사에 맞는 소리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사례다. 즉, 소리꾼은 소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고사축원의 의미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래의 진행은 언제나 풍장의 반주와 함께 한다. 회심곡을 덕담으로 노래할 때는 상쇠처럼 꽹과리만으로도 하지만 예산의 고사축원은 언제나 풍장패와 함께 소리를 했다한다. 고사축원의 소리꾼은 풍물 중 주로 쇠를 치는데 사람에 따라 북이나 징을 치기도 하며 악기 연주를 하지 않고 소리만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리꾼이 소리만 하고 풍장꾼은 풍장만 치는 경우는 소리꾼과 풍장꾼이 함께 활동한 시간이 길다는 것을 말하며 소리꾼의 축원이 일정한 규범에 의해 소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고사축원은 소리꾼이 어느정도 소리를 하면 반주로 풍장을 치고, 다시 소리와 풍장치는 것을 반복하는데, 예산 고사축원의 매우 긴 노랫말이 더해져 긴 시간을 노래하게 된다. 노랫말의 맺음과 풍장이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소리꾼과 풍장패의 호흡이 중요하다. 더구나 고사축원은 고사의 성격에 따라 일정량의 즉흥소리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데도 소리꾼은 소리만 하고 풍장꾼은 풍장만 친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있었던지, 오랜 기간 함께 소리를 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산에서 고사축원이 얼마나 성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고사 축원의 반주 풍장은 거의 세마치(3채) 가락이다. 일부의 노래에서 굿거리 풍이

섞이기도 하고,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말로 이어가기도 하지만 이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고사축원은 소리 한 소절하고 풍장 한 덩어리를 치며 이어나가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다. 처음 시작도 세마치 풍장이다. 풍장꾼들이 풍장을 치기 시작하면 소리꾼이 "오늘 이렇게 좋은 마당에 왔으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복을 좀 빌어 드리겠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풍장이 소리를 낮추면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중간의 진행은 단조롭다. 소리하고 풍장 치는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데 타 고장에서라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변화가 없다. 이런 지루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래의 중간이나 후반부에 판소리의 아니리나 연극의 대사처럼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며 연행한다 해도 짧게 한다. 그런데도 예산 사람들은 이 소리를 매우 좋아한다. 오늘날에도 전통 민요나 풍장 마당을 즐기는 공연을 하게 되면 언제나 축원소리를 앞세우는 경향을 보인다. 시간이 부족하면 아주 짧게 행하더라도 '고사소리는 있어야 본격적으로 노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고사축원을 좋아한다.

고사소리의 맺음은 창자나 풍장꾼들의 경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평범한 소리로 맺기도 하고 풍장가락으로 세마치나 잦은마치(2채, 혹은 휘몰이)로 끝내기도 한다. 다른 변화로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복을 빌어 주는 말을 역시 아니리처럼 행하고 맺으며, 맺은 후 다시 풍장마당으로 이어 나가는 방식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래가 길어 현대적인 공연이나 놀이판에 어울림이 적다는 면이다. 예산고사소리는 예산의 전통문화 중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민속이 분명하며 이는 원형이 보존되어야 한다. 원형은 보존이 되면서 현실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민속 예술판을 보면 현대 공연물에서는 이 노랫말이 길다하여 점점 길이를 줄여 노래하기만 하는 추세이지 고형古形의 모습을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예산의 특색 있는 전통 민속이며 자료로서 별도의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덕산면 옥계리 고사 축원

- 창자 : 이종원(1923년 생. 남. 덕산면 옥계리)　- 기록 : 본 도서(2016년 9월 채록)

(전략)
국태민안 법륜전
제화연통 돌아들고
삼각산 아린줄기
봉학이 펄펄 날아든다
봉학눌러 자구를 지니
대궐앞에 육조로다
육조앞에 오영문 화각산
각도각읍을 마련할세
이씨한양 등극시절에
한양서울이 생겼구나
경상도 칠십이주
충청도라 오십삼관
금촌일라 망, 고주잡아
망망으로 날아들고
어디를..
(아이구 잊어버렸어)

※ 이 축원은 2016년 9월 13일 이종원의 집에서 본인의 창으로 채록한 소리다. 그럼에도 이 소리를 예산 축원의 앞부분에 소개하는 것은 가장 변형 없이 불리고 있어 전체 소리의 기준을 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현재 불리는 소리로 '봉황눌러 대궐 짓구 대궐 앞에 육조로다.'이나 이 소리에서는 '봉학눌러 자구를 지니 대궐앞에 육조로다.' 등이다.

덕산면 시량리 고사축원

- 창자 : 인종명(1939년 생. 남. 덕산면 시량리)　- 기록 : 본 도서(2016년 9월 채록)

고사 고사 고사로다.
고사축원을 받으시오. 아 – 에 –
천왕신은 하늘을 마련 지황신은 땅을 마련
인황신은 사람을 마련 복희신은 복을 마련
실농신은 농사를 마련 소희신은 불을 마련
수의신은 물을 마련
이 천지 생길적에 단군선조가 등극하여
백성을 다스릴 때 천년이 지났구나.
[풍장 소리]
천년이 지난후에 아 – 태조등극하여
백성을 다스릴 때 육백년이 지났구나.
육백년이 지난후에 가야산이 기봉하여
주춤주춤 내려와서 이동리가 새겼구나.
[풍장 소리]
이동리 생긴뒤에 이댁터가 생겼으니
우악대사가 터를 닦고 하기둥에 네절을짓고
둥굿제 맹굿제다.
[풍장 소리]
안마당에 우물을 파고 밖깥마당에 연못을 파서
연못가에 갖은 화초를 심을적에
이화 도화 매화 애철쭉 진달래 맨드라미나 봉숭아
갖을 화초를 심어놓니 이런경치가 또있으랴
앞으로 봐도 스물네칸

뒤로봐도 스물 네 칸 스물 네 칸을 지어놓고
네 귀에 풍경 달어 엥그렁 땡그렁 하는소리
만고 복덕이 떠들어온다.
[풍장 소리]
이 집 진지 삼 년 만에 고사 한번을 잘 지냈으니
아들을 나면 효자 낳고 딸을 나면 효녀 낳고
며느리 얻으면 열녀된다.
소를 먹이면 억대가 되고 말을 먹이면
용마가 되고 닭을 먹이면 봉황이 된다.
개를 먹이면 네 눈백이 청 삽살이 앞마당에 웅그러졌다.
낫선 사람 오개되면 허공콩콩 짓는 소리
만고 복덕이 떠들어 온다.
[풍장 소리]
이때에 서천시약국서 손님마마가 건너올 때
앞록강을 건너려니 배가없어 못가 건네
나무배를 짚어타니 썩어 터져 못타 것네
돌배를 짚어 타니 풍덩 가라앉어 못타 것네
세배(쇠배)를 짚어 타니 지남철에 떨걱 붙어서 못타것네
이배저배 다 젖허 놓고 휘어 능청 버들가지
주르르 훌터 띠어놓고 건너와서
하루이 틀에 솟을 불 사흘나흘에
붉을 불 닷세 엿세 검을 불 검은 딱지 떨어지고
손님마마를 곱게 하니 이런 경사가 또 있으랴
[풍장 소리]
손님마마를 곱게 하고 글 공부를 시킬 적에
하늘 천 따지 천자문을 얼른 띄고

게몽 편 명심보감 맹자 공자 시선서전 논어 주역 통달하니
이때에 한양에서 과거본단 소식 듣고
이댁 도련님이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시는 구나
[풍장 소리]
야 이놈들아–종놈아–(예이–)
아 이댁 도련님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시는데
일 칠 은 칠 노잣돈 백 냥을 더 놓고
불받이 쌀을 더 놓으라고 엿쭈어라
[풍장 소리]
천안 가서 중화하고 한양장안을 들렀더니
팔도선비가 다 모였구나
임금님이 등극하고 육조참판 좌계하니
지엄하기가 그지 없다.
이때에 글 한귀를 얼른지어 선전관에 내었더니
선전관이 그걸보고 허허 그글 잘지었다.
귀귀마다 절절이요 문자마다 난자로다.
[풍장 소리]
알선급제 장원하여 고향길에 나설적에
사령들이 좌계하고 호젓대를불어가며
고향으로 내려가네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동리에 경사로다 박씨댁에 경사로다.
이런경사가 또 있을랴
[풍장 소리]
천하지 대본은 농사로다. 농사밖에 또 있느냐.
밭 농사를 지을적에 올콩 졸콩 이 존대콩이냐
방정맞다 주년절이 뚝 넘어 말뚝콩이냐

말리 타국에 강낭콩이냐 이팥 저팥 다 던져놓고
밭 농사가 끝났으니 논 농사도 지어보세
[풍장 소리]
스마지기 논배미에 칠 십 농군이 들어서서
어덕밑은 붙어 심고 앞가슴은 뛰어 심고
　여기저기 심을적에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풍장 소리]
이 논배미 얼른심고 장구배미로 올러 갈 때
일락 서산에 해는지고 월출동력에 저 달이 돋네
풍년이로다 풍년이로다 올 대풍들었구나.
가을이 되니 추수하여 오곡 백화를 쌓놓고
부모님께 공양하고 자녀사랑 극진하니 태평성대가 이 아니냐
[풍장 소리]
고사 축원이 끝났으니 액풀이도 하여보세
정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정월 대보름에 막어 내고
이월 한 달에 드는액은 이월 한식에 막어 낸다.
삼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삼월 삼십날 막어 낸다.
사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에 막어 내고
오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날 막어 내고
유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유월 육일날 막어 낸다.
칠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칠월 칠석날 막어 내고
팔월 한 달에 드는 액은 팔월 한가위에 막어 내고
구월 한 달에 드는 액은 구월 구일날 막어 낸다.
시월 한 달에 드는액은 시월 단풍에 막어 내고
동짓달 한 달에 드는 액은 동지 팥죽으로 막어낸다.
슨달은 막달이라 집집마다 고사치송 일년 신수 잘되라고

고사축원을 드리는구나.

[풍장 소리]

이 댁 가정에 액이란 액은

잠자리 눈꼽만치도없이 다 쓸어냈으니

일 년이면 열두 달 과년이면 열 슥 달

삼백육십오일 내내 이 댁 가정에 안가 태평하시고

수명장수하시고 무병장수 하시고

끝으로 물 묻은 바가지에 깨늘어 붙 듯

복이나 그저 누덕누덕 들어오십시사

아 – 에 –

※ 인종명은 현재 보부상 난장놀이 보존회 중심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맑은 청과 내제된 흥으로 예산 고사 축원 소리를 잘하는 소리꾼이다. 9세부터 마을의 상쇠이면서 덕산면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해온 그의 부친의 영향으로 향토소리에 관심이 깊었으며 본 소리는 노랫말을 기록하여 이를 익힘으로 변형이 없이 부르고자 노력하였다 한다.

※ 축원소리 노랫말의 구성은 앞에서부터 1) 세상이 생겨난 이치에서 고사를 지내는 집터까리의 내력을 소개하고, 2) 그 집안이 잘되는 일과 어려움이 있는 것조차 고사를 잘 드린 덕분으로 아들을 얻어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하는 영화로 이어지며, 3) 농사의 중요성을 들어 풍년을 기원하고, 4) 1년 열두 달, 과년 열슥달의 안고 태평을 원하는 달거리 살풀이로 이어지며, 5) 앞으로 집안 어른들이 만수무강을 비는 애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류의 예산 고자 축원은 하나의 소리 안에 여러 소리를 포함하는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평택 공주 등에서는 열두 달 거리 고사 축원을 별도의 소리로 부르는데 반하여 예산에서는 소리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 고사 축원 소리

- 창자 : 이광선(1929년 생. 남. 덕산군 광천리 남은들)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1992년 채록)

[풍장 소리]

고사로다 고사로다 고사축원을 받으시오

시화연풍 국태민안에 범연에 날어든다

[풍장 소리]

이씨 환영에 등극하여

수지나 조중은 황해수라 산지지중은 골농산이요

골농산 능막에 뚝 떨어져 어정에 주춤 나레와서
[풍장 소리]
삼각산이 기봉이 되여
왕십리 만년등은 좌우청룡에 둘러있고
종남산에 장두봉은 오백호로다 둘러 있고
동적강으로 수기를 둘러 제왕숙복이 장국하니 만대연황에 지지로구나
[풍장 소리]
봉학이 넌짓 생겼구나 봉이 머리다 터를 닦고
학을 눌러 대궐 지어 대궐 앞이는 육조로다
육조 앞이는 오형문, 오형문 앞에는 토혁사로다
각 도 각 읍을 마련을 헐 때
[풍장 소리]
사바십에 남산 보존 해동아 잡아라 조선 국이라
경기라 경기도는 삼십칠관이 거주로다
경상도라 칠십일관 전라도라 칠십이관
충청도 오십삼관 공주 같으네 대무관이라
[풍장 소리]
이 땅하고도 예산군이라 덕산면 실항리 모씨 댁에 들거들랑
작년 같은 해우 년은 그럭저럭에 다 돌아갔건만
신년 새해로 돌어 와서 금년 논농사를 지어 보자
[풍장 소리]
앞 뜰이는 수답이요 뒷 뜰이는 건답인데
건답 수답 다 다러 놓고 베를 다가 심어보자
[풍장 소리]
어떠한 베 심었더냐 해다 졌다 정근베냐
많이 먹었다 등티기냐 광주 본안에 사발베

한갑 진갑에 노인 베 울긋불긋 대추찰
푸드득 푸드득 깨투리 찰이냐
벙거지 꼭지에 상모찰 어기덕 찌기덕 쟁끼찰
논 농사는 지었건만 밭 농사를 다 지어 보자
[풍장 소리]
올콩 졸콩이 청대콩이냐 만리타국에 강낭콩
이팔청춘 푸르대콩이냐 두렁너머 말뚝콩이냐
깍지동에 홀아비콩이냐 방장 맛다 주년저리
아랫가지는 열 가지라 우잇가지느네 버들가지
오복 조복 열렸구나
[풍장 소리]
그 농사를 걷을라면 집 채 같으네
남자 종은 황발지게다 저 드리고
앵무같으네 여자 종은 똥아리 받쳐 여 뒤릴 적에
어허 인력 못 허겠네 소 한 바리를 세워보자
[풍장 소리]
어떠한 소 세웠더냐 우벅뿌리야 잡박뿌리
홧대 뿌리다 사족바리 천지각이 노구거리
바리 바리 실여 디려
앞에두 노적 뒤두 노적 멍해 노적이 산 노적이라
담불 담불이 쟁였구나
[풍장 소리]
난뒤 없느네 부엉 덕새 그 노적봉에다 새끼를 쳐서
그 부엉 덕새 점점 자라
한 날개를 들어 치면 일 이 만석 쏟어 지고
또 한 날개 들어 치면 억 조 만석 쏟어 지고

또 한 날개 들어 치면 상 남자 바라본다.
[풍장 소리]
상 남자는 서방님이요 중 남자 도련님
하 남자 여자아기 그 아기 점점 자라날 적에
서해 바다 물 밀이듯 동해 바다 파도치듯
칠팔월에 오이 호박 붓듯 무릉도화로 자라날 적에
[풍장 소리]
강릉서 호구별성 인물 작간이 나오시더라
몇 분이나 나오시더냐 쉬흔 세분 나오실 때
쉬흔 분은 뚝 떨어져서 명과 복을 받으러 가고
[풍장 소리]
다먼 삼분 나오실 제 말 잘하는 호반 손님
활 잘 쏘는 무관 손님 글 잘하느네 문장 손님
다먼 삼 분 나오실 적에
[풍장 소리]
앞으로 잡어라 열두 바닥 뒤로 잡아라
열두 바닥 이십 사 강 건너 올 때에
나무배를 집어타니 나무배느네 썩어지고
돌배를 다 집어타니 돌배 풍덩 가라앉고
흙토산을 다 집어타니 흙토산으네 해 떨어지고
장지 배를 집어타니 장지 배느네 무여 지고
초록배 부석 부셔졌구나 아서라 그 배 못 쓰겠구나
황산 쑥 들어가서 연잎 댓잎을 주루루 훑어
연엽산 모아 타고 청귀 홍귀 받으시며
명지 바람에 지레 설풍 어기덕 지기덕 건너와
저 무슨 댁을 다 당도하야 손님을 다 시켜보자

[풍장 소리]
하루 이틀 보람주어 사슬 나흘이 솟을 물
닷새 엿새 부를 물 이레 여드레 그물 물이라
열 사흘만에 배승하니 근들 아니 좋을소냐
[풍장 소리]
삼재 액살이 많다 하니 삼재 액살을 풀고 가자
방바닥에는 성주 살이라 홧대 밑에는 넝마살
부뚜막에는 주왕살 구락정이는 화재 살이라
수채 구녕에 흘린 살 산으로 올라 산신살
들로 내리어 칠용살 거리 거리에 노중살
부모지간에 원진살 내외간에 그늘살
형제지간에 우애 살이라
이 살 저 살을 훕쓸어다가 이 고사반에 도액을 하니
멀리 멀리 아주 멀리 세멸하니 근들 아니 좋을쏘냐
[풍장 소리]
그 애기가 에 칠팔 세가 넌짓 되어 글을 다가 읽혀보자
워떠한 글을 읽었더냐 사육초권에 논어 맹자 주역팔괘 읽은 후에
서울서 과거 본다는 말을 듣고 도련님 호사를 시켜보자
[풍장 소리]
감태같은 채 머리를 반달 같은 월용수로 어리 설설 내려 빗겨
궁초댕기 서광 물려 맵세 있게도 잡어매고
한산 세모시 청도포 자 여들치 통행전이라
석자 몇 날 육호백이 쌍날 미투리 걷어 신으니
도련님 호사는 되였다만
마부 삼간 쑥 들어가 서산 나귀 솔질하여
호피 돋움에 안개 돋움 주먹상투 덤뿍 풀어

나귀등에 섭적올라
[풍장 소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남대문 턱에 당도하니 팔만 장안에 억만 가구라
팔도 선비 다 모였구나
[풍장 소리]
도련님이 춘당대 바라보니
강구연월이 문당이요 두렸이 걸렸구나
시제를 펼쳐놓고 도련님이 용지연에다 먹을 갈어
당황모 무심필로 반중동 흠씬 풀어
일필휘질하야 선장하여 나드리니
금방에 이름 불러 알선 급제를 점제하니
그녀러 경사가 하 하 하 항자야 또 있으리야
[풍장 소리]
몸은 학대로다 머리 위에는 어사화요
본댁으로다 나려올 때 칠 패 팔 패 배달이 철패
동적강을 선듯 근너 천안들어 숙식하여
본댁으로다 나려와서
[풍장 소리]
사당에 선신하야 사당차리를 하여보자
정월이라 들은 홍수 이월 한식 막아내건
이월이라에 들은 홍수 삼월 삼진 막어내건
삼월이라에 들은 홍수 사월 초파일 막아내건
사월이라에 들은 홍수 오월 단오 막아내건
오월이라에 들은 홍수 유월 유두로 막아내건
[풍장 소리]

유월이라에 들은 홍수 칠월 칠석 막아내건
칠월이라에 들은 홍수 팔월 한가위 막아내건
팔월이라에 들은 홍수 구월구일로 막아내건
구월이라에 들은 홍수 시월 만월 막아내건
시월이라에 들은 홍수 동짓달 동지로 막아내건
동짓달이라 들은 홍수 섣달 만월 막아내
섣달이라에 들은 홍수 정월 액매기 연으로 막아내건
하 하 하 항자야 이 댁 터를 다- 오 둘러다 보니 아 아아아 항자야
[풍장 소리]
밤이면은 불이 맑고 낮이면은 물이 맑어
불과 물은 수화상극이 되여
의사석경에 기명 바쳐 옥쟁반에 준추 꿀린 듯이
세 네 붓으로 마하항자야 그려 나옵소서
[풍장 소리]
이 댁 터를 다가 둘러다 보니
초가 성주는 쓸 데 없고 와가 성주를 이룩할 적에
태산에 올라서 대목을 내고 소산에 올라 소목을 낼제
금도끼로 찍어내
굽은 나무 곧 다듬고 곧은 나무 곱게 다듬어
이 귀를 꺽어 저 귀를 잇고
[풍장 소리]
저 귀를 꺽어서 이 귀를 잇고
안 중문에 밭중문에 내외 중문에 서슬 대문을 달어 놓고
행낭 차는 열 두 줄 이루 접처 지여 놓고
네 귀에다 풍경을 달어 동남풍이 건듯 불면
풍경소리가 하하항자야 더욱 좋을시다

하하헤 하 허라레 하하하 허루상에냐 합소사

[풍장 소리]

고대광실 높은 댁을 이루 접쳐 지어놓고

사당 앞에 연못 파고 연못 가운데 삿간산 모아

삼간에 삼간 초당 삼간을 지여 놓고

[풍장 소리]

화초 없어 못 쓰겠네 워떤 화초를 심었더냐

외철쭉 진달래 맨드라미나 봉선화 모란에 방초 방초

음불 도화는 벽상초라 여기 저기 심어놓고

우마 없어 못 쓰겠네 워떤 우마를 세웠더냐

[풍장 소리]

소를 멕이먼 약대가 되고 말을 멕이먼 용마가 되고

닭을 치면 봉닭이 되고 개를 멕이면 청삽사리 네 눈 배기가 되여

낯선 손님 마다하고 옥담 모팅로 돌아가면서

그 개가 커거겅 컹컹컹 짖느네 소리올시다

[풍장 소리]

일년이라 열 두달 과년에 열 석달

삼백예순날에 다 돌어가도 모씨 댁에 들거들랑

웃음으로 연황하고 춤으로 대길하기를

하 하 항자야 여기로 당도하나이다

〈인물편으로〉

※ 이광선은 덕산면 광천리에서 태어났다. 고사소리를 잘하고, 쇠를 잘 친다. 고사소리는 열 대 여섯살에 부친에게 배웠다. 이 마을에서 차리는 고사반은 충청남도에 널리 퍼진 것처럼 고사상 위에 쌀을 담은 말을 올리고 주인 밥그릇에 쌀을 담아 말 위에 올린다. 밥그릇에 초를 꼽고, 초 뒤에 숟가락을 세운 후 숟가락에 실타래를 감아 말 앞으로 늘어뜨린다. 말 옆으로 냉수 한 사발을 놓는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북어, 과일 등을 올리기도 했다. 안택이나 뱃고사를 할 때 많이 한다. (이상 MBC 한국민요 대전)

※ 이 고사축원은 가히 예산지역의 고사축원의 종합본이라 할 소리다. 초입부 노랫말의 구성에서 내용이 순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첫 3소절의 '이씨 환영 등극하여'와 4연의 '수지 조종은'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그렇다. 고사 축원의 노랫말은 먼저 세상이 생긴 이치를 말하고 천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 조종은 황해수라 로 이어지는 것이 내용의 흐름에 맞는 것인데 3행과 4행이 전혀 다른 소리로 아귀가 맞지 않으며 풍장을 울리는 흐름도 어그러져 있다. 이는 창자의 착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음원이 살아있는 이 축원소리는 1) 고사로다 ~ 공주네 같은 대무관이라 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의 좋은 기운과 역사를 담는 고사 축원문으로 구성되고, 2) 이 땅하고도 예산군이라 ~ 담불담불이 쟁였구나 까지는 농사가 주업인 예산지역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3) 난디 옶느니 부엉덕새 ~ 열사흘만에 배승하니 근들아니 좋을 소냐 까지는 부를 이루고 사람들이 찾아 오는 명문가가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4) 삼재 액살 많다하니 ~ 멀리 멀리 아주 멀리 세멸하니 근들아니 좋을소냐 까지는 살풀이 노랫말이, 5) 그 애기가 7 8세세가 넌짓되어 ~ 사당차리를 하여보자 까지는 아들을 길러 공부를 시키고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를 하기까지의 영화를 그리고 있으며, 6) 사당에 헌신하야 ~ 아 아아아 향자야 까지는 흉수를 몰아내려는 달거리 축원소리이며, 7) 밤이면 불 밝히고 ~ 마지막 부분가지는 부귀를 이룬 후 커다란 집을 지은 후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런 노랫말들은 한 고사에서나 놀이마당에서 전체를 부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창자가 당일 고사축원 마당의 의미에 따라 부분을 떼어 부르고, 그 자리에 맞는 소리를 즉흥적으로 지어 부른다.

덕산면 광천리 고사 축원 – 예산군지

- 창자 : 이광선(1926년 생. 덕산면 광천리 891)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풍장 소리]
고사 고사 고사로다 고사축원을 받으시오
시화연풍 국태민안에 범연에 나라든다
[풍장 소리]
이씨 환영(한양)에 등국(등극)하여
수지지중(수지조종)은 황해수요
산지지중(산지조종)은 골농산(곤륭산)이요
골농산 능막(낙맥)에 뚝 떨어져
어정주춤 나려와서
[풍장 소리]
삼각산이 기봉이 되어
왕십리 만영등(만년등)은 좌우청룡이 둘러 있고
종남산에 장두봉은 오백호(우백호)로 둘러 있고
동적강으로 수기를 물러 제왕숙복이장국(제왕숙복지형국)하니
만대연황이 지지로다
[풍장 소리]

봉학이 는짓 생겼구나
봉이 머리다 터를 닦고 학을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육조 앞에는 오형문(오영문)
오형문 앞에는 토혁사로다 각도 각읍을 마련할 때
[풍장 소리]
사바심에(사바십이) 남산보존 해동아 잡아라
조선국 경기라 경기도는 삼십칠 관이 거주로다
경상도라 칠십이 관 전라도라 칠십일 관
충청도 오십삼 관 공주 같은 대무관이 땅하고
[풍장 소리]
예산면 덕산면 실항리 모씨댁에 들거들랑
작년 같은 해우 년은 그럭저럭 다 돌아가고
신년 새해로 돌아와서 금년 농사 지여보자
[풍장 소리]
앞뜰에는 수답이요 뒷뜰에는 건답이라
건답수답 다 갈어 놓고 베(벼)를 다 심어보세
[풍장 소리]
워떠한(어떠한) 베(벼) 심었더냐 해 다 졌다 정근 베(벼)
많이 먹었다 등티기 광주본안에 사발 벼
한갑(환갑) 진갑에 노인 베 울긋불긋 대추찰
후드득 푸드득 깨투리(까투리) 찰 벙거지 꼭지에 상모찰
어기덕 찌기덕 쟁끼(쟁기) 찰이냐
논 농사는 지엿건만 밭농사를 지여 보자
[풍장 소리]
올콩졸콩 청대콩 만리타국에 강낭콩
이팔청춘 푸르대 콩 두렁너머 말뚝 콩

깍지동에 홀아비콩 방장(방정)맞다 준년저리
아랫 가지는 열 가지 위 가지는 버들 가지
오복조족 열렸구나
[풍장 소리]
그 농사를 거들라며
집채같은 남자 종은 황발 지게다 저드리고
앵무 같은 여자 종은 똥아리 받쳐 여 들일 적에
어허 일력 못하겠네 소한바리(마리) 세워 보세
어떠한 소 세웠더냐 우뻑뿌리 잡박뿌리
홧대뿌리 사족바리 천지각이 노구거리
바리바리 실러 들려 앞두 노적 뒤두 노적
멍해(멍에) 노적이 산노적 담불담불 생겼구나
[풍장 소리]
난뒤없는(난데없는) 부엉덕새 그 노적봉에다
새끼를 쳐서 그 부엉덕새 점점 자라
한날개를 들럿치면 일이만 석 쓰더지고
또 한 날개를 들럿치면 억조만석 쏟아아지고
또 한 날개를 들럿치면 상남자 바라본다.
[풍장 소리]
상남자는 서방님 중남자는 도령님
하남자는 여자 아이 그 아기 점점 자라
서해 바다 물밀이듯 동해 바다 파도치듯
칠팔월에 오이 호박 붓듯 물 홍도화로 자라날 때
[풍장 소리]
강능(강남)서 호구별성 인물작간이 나라(날아)든다
몇 분이나 오셨드냐 시훈 세분 오실 적에

말 잘하는 호반손님 글 잘하는 문장손님
활 잘쏘는 무관손님 다만 삼 분 나오시여
[풍장 소리]
저 무슨 댁에 당도하여 손님을 다 시켜보자
하루 이틀 보람주어 사흘 나흘이 소슬물
닷새 엿새 부를물 이레 여드레 저물물
열사흘만이 배승하니 근들허니 좋을소냐
삼재 악살이 만타(많다)하니 삼재악살 풀고 가자
[풍장 소리]
방바닥에는 성주살 횃대 밑에는 넝마살
부뚜막에는 주앙살 구락정이는 화제살
숫채구멍에는 흘린 쌀 산으로 올라 산신살
들로 내려가 칠용살 거리거리 노중살
부모지간에 원진살 내외간에는 근은살
형제간에는 우애살 이 살 저 살을 흡쓸어다가
이 고사반에 도액을 하니 멀리멀리 아주 멀리
세멸하니 근들하니 좋을소냐
[풍장 소리]
그 애기가 칠팔 세가 넌짓 되어
글을 읽혀보자 읫더한(어떠한) 글 일켰더냐
사육초권에 논어 맹자 주역팔쾌 읽은 뒤에
서울서 과거본다 말을 듣고 도련님 호사를 시켜보자
[풍장 소리]
감태간은 태머리를 반달 같은 월용수로
어리설설 내려 빗켜(빗겨) 궁초댕기 서광 물려
맵시 있게 잡어 매고 한산 세모시 청도포 자여들이

통행전 석자 몇날 육호 백이 살날 밑투리(미투리) 거더 신으니
도련님 호사는 되었다만 마부삼간 쑥드러 가서
서산나귀 솔질하여 호피 도듬에 안개 도둠
주적 상투 덤품 물러 나귀등에 섭적 올라
[풍장 소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남대문 턱에 당도하나 팔만 장안에 억만 가구라
팔도 선비 다 보였네
[풍장 소리]
도련님이 충당대 바라보니
강구 연월이 문장대가 뚜렷이 걸렸구나
도련님이 시제를 펼쳐놓고 용지연에 먹을 갈어
당황모 무심필로 일필위지(일필휘지)하여 선장하여 내드리니
금방에 이름불러 알선급제 점제하니
그런이 경사가 또 있으랴
[풍장 소리]
몸은 학대로다
머리 위에는 어사화요 본댁으로 내려올 제
철패팔패 배달이 철패 동적강을 선듯 건네
천안 들어 숙식하고 본댁으로 들어와서
사당에 선신하여 사당 차리를 하여 보자
[풍장 소리]
정월이라 들은 홍수 이월 한식 막아내고
이월이라 들은 홍수 삼월 삼진 막어내건
삼월이라 들은 홍수 사월 초파일 막아내건

사월이라 들은 홍수 오월 단오 막아내건
오월이라 들은 홍수 유월 유두로 막아내건
[풍장 소리]
유월이라 들은 홍수 칠월 칠석 막아내건
칠월이라 들은 홍수 팔월 보름 막아내건
팔월이라 들은 홍수 구월 구일로 막아내건
구월이라 들은 홍수 시월 보름 막아내건
시월이라 들은 홍수 동짓달 동지로 막아내건
동짓달이라 들은 홍수 섯달 만월로 막아내건
섣달이라 들은 홍수 정월 앵매기(액맥이) 연으로 막아내건
아–하–당자자야 아–하–헤–헤이 헤라리 허 허 허 상이야–
[풍장 소리]
소사 이댁 운을 바라보니
밤이면 불이 밝고 낮이면 물이 맑어
불과 물은 수화삼국이 되어 어이 사석경에 기명 받어
옥쟁반에 준추꿀린 듯이 세네 붓붓으로 그려 낸 듯이
[풍장 소리]
아–하–헤 헤이 헤–라리 허–허–허 상이야– –소사–
이댁 터를 둘러다 보니 초가 삼간은 쓸데없고
와가 성주를 이룩할 제 대산(태산)에 올라 대목을 내고
소산에 올라 소목을 낼 제 금도끼로 찍어내어
굽은 나무 곧게 다듬고 곧은 나무 곱게 다듬어
이 귀를 꺾어 저 귀를 짓고
[풍장 소리]
저 귀를 꺾어 이 귀를 짓고
안중문 밧(바깥)중문에 내외 중문에 소슬대문을 달어놓코

행낭채는 열두 줄이루 겹처 지여 놓고
네 귀에다 풍경을 달어 동남풍이 건들 불면 풍경소리 더욱 좋시다
[풍장 소리]
고대광실 높은 댁을 이루 겹쳐 지여 놓고
사당 앞에 연못파고 연못 가운데에 사까산 모아
삼칸에 삼칸 초당삼간을 지여 놓고
[풍장 소리]
화초없어 못 쓰겠네 어떤 화초 심었드냐
왜철쭉 진달래 맨드래미 봉선화 모란이 방초방초라
음불도화는 벽상초라 여기저리 심어놓고
우마 없어 못쓰겠네 웠던(어떤) 우마를 세웠드냐
[풍장 소리]
소를 먹이면 약대가 되고 말을 먹이면 용마가 되고
닭을 치면 봉닭이 되고 개를 멕이면
청삽살이 네눈백이가 되어 낯선 손님마다 하고
옥담 못틔고 도라가며 그 개가 귀컹컹 짓는 이 소리 올시다
[풍장 소리]
아 하 헤－헤하이 어－허 산이로소이다
일년이라 열두달 과년이라 열석달 삼백 육십일 다 도러가도
○○○씨 댁에 들거든 재수 대통하며
웃음으로 연황하고 춤으로 대길하기를 내내 축원하나이다
아하－헤 헤라리－허－허－
산으로－－소 사－－

※ 이광선의 고사 축원은 앞에 기록한 MBC 한국 민요 대전의 덕산면 광천리 이광선의 고사 축원과 같은 소리다. 그럼에도 이 축원의 전문을 기록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 행하는 축원일지라도 장소와 채록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고찰에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앞의 축원과 뒤에 축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기록에서 1) 고사로다 ~ 공주네 같은 대무관이라. 2) 이 땅하고도 예산군이라 ~ 담불담불이 쟁였구나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이 같고 5개 정도의 표현이 변화고 있으나, 3) 난디 없느니 부엉덕새 ~ 열사흘만에 배승하니 근들아니 좋을 소냐 부분에서는 중간에 3행이 빠져 있으며 후미 13행이 통으로 생략되었다. 4) 삼재 액살 많다하

니 ~ 멀리 멀리 아주 멀리 세멸하니 근들아니 좋을소냐 이후 5), 6), 7)은 모두 앞의 노래와 같으나 부분적인 표현의 차이만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까지는 예산의 고사축원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소리꾼들이 축원 소리를 자주 부르지 않아 쇠락의 길로 들어 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덕산군 시량리 고사 축원

- 창자 : 인종명(원창자 : 부 인건배)　　- 기록 : 본 도서(2016년 7월 채록)

[쇠 장단]
고사고사 고사로다. 이 댁가정에 고사로다.
박씨댁에 고사로다. 고사축원을 받으시오.
[쇠 장단]
천황신은 하늘을 마련 지황신은 땅을마련
인황신은 사람을 마련 복후씨는 복을마련
신농신은 농사를 마련 수위신은 물을마련
수위신은 물을 마련
[쇠 장단]
이천지 생길적에 단군선조가 등극하야
백성을 다스리니 천년이 지났구나
천년이 지난후에 아태조 등극하야
백성을 다스릴 때 육백년이나 지났구나
[쇠 장단]
육백년이 지난후에 가야산이 기봉하야
주춤주춤 내려와서 이 동니(네)가 생겼구나
[쇠 장단]
이 동니(네) 생길 적에 이 댁터가 생겼으니
우(무)학 대사가 터를 닦고 하 기둥 위에 내 집을 짓고
내 절 앞엔 육조로다. 육조 앞에는 호양문이오

[쇠 장단]
안마당에는 우물 파고 배깥마당에 연못 파서
연못가에 갖은 화초를 심을 적에
이화 도화 매화 철쭉 진달래 맨드라미나 봉숭아
갖은 화초를 심어노니 이런 경치가 또 있으랴
아 헤~고사
[쇠 장단]
앞으로 열 두칸 뒤로 열 두칸 이십 사 간을 지어놓고
네 귀 에 풍경달어 앵그렁댕그렁하는 소리
만수복덕이 들온다
[쇠 장단]
이 집 진지 삼년 만에 고사 한번을 잘 드렸으니
아들을 나면 효자 낳고 딸을 나면 효녀 놓고
며느리 얻으면 열녀 되고 소를매기면 먹우가 되고
말을 매기면 용마가 되고 닭을 매기면 봉황이 된다
[쇠 장단]
개를 매기면 네 눈백이 청삽살이 한 마당에 흥그러졌다
낲선 사람 오게 되면 허공 컹컹 짓는 소리
만고복덕이 떠 들어 온다. 아헤~고사
[쇠 장단]
윗대에 서찬시(서천야시)야국서(아국에서)
손님만마 흔내려(흘러내려) 올 때
압록강을 근너(건너)려니 배가없어서 못가겠네
돌배를 집어타니 풍덩 가라앉져 못 타겠고
나무배를 집어타니 썩어 터져 못 타겠고
새배(쇠배)를 집어타니 지남철(자석) 붙어 못 타겄네

[쇠 장단]
이 배 저 배 다젖혀놓고 휘어능청 버들가지
주르르 훌터 띄어 놓고 근너(건너) 와서
하루 이틀에 소설 불 사흘 나흘에 불 기둥 불
닷새 엿새에 검은 불 검은 딱지가 떨어지고
손님마마를 곱게 하니 이런 경사가 또 있으랴
[쇠 장단]
손님마마를 곱게 하고 글 공부를 시킬적에
한울천 따지 천자문을 얼릉떼고
개명편(계몽편) 명심보감 맹자 공자 시경 서경
논어 주역을 통달할 제 한양에서 과거본다는 소식듣고
[쇠 장단]

[아니리제로]아~ 이댁 도련님이 (쉬었다가)

[창자] 야 종놈아~
[청중들] 예~
[창자] 아! 이댁 도련님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가시는데 일 칠은 칠, 노잣돈 칠 백 냥만 더 넣고 붉은 알 쌀 좀 더 넣으라 여쭈어라
[청중들] 예~
[쇠 장단 : 길게 친다]

한양, 천안 가서 중하고 한양 장안 들렸더니
팔도 선비가 다 모였구나
[쇠 장단]
임금님이 등극하고 육조 참판 자리하니

과거장 안이가(안이) 틀림없다.
이라구(이러고) 할 때 의 글 한 개를 얼릉지어(얼른지어)
성균관에 내었더니 성균관이 이 글보고
허허 그 글 잘 지었다. 기기마다 절절이요?
문자마다 난자로다
[쇠 장단]
알성급제 장원하여 고향 길에 나설 적에
사령달이(사령들이) 좌개하고 호젓대를 불어 대며
고향으로 내려오네
[쇠 장단]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 동니(네)에 경사로다
박씨댁에 경사로다. 이런경사가 또있으랴
아헤~~ 고사
[쇠 장단]
천하의대본은 농사로다. 농사밖에 또있느냐
밭 농사를 지을 적에 얼콩 덜콩이 내콩이냐
방정맞다 춘연저리굴 뚝 넘어 말뚝 풍년
멀리 타국에 강낭콩이 이파 저파 다 언다 놓고?
밭 농사가 끝났으니 논농사좀 지어보세
[쇠 장단]
서 마지기 논빼미에 칠십 명 농군이 들어 서서
앞 가슴은 띄어 심고 어덕 밑은 붙여 심고
여기 저기 심을 적에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쇠 장단]
이 논빼미 얼른 심고 장구배미로 넘어를 갈 때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 동석(동명)에 저 달이 섰네
풍년이로다. 풍년이로다. 올 대풍 들었구나
[쇠 장단]
가을되니 추수하야 오곡백과를 쌓아 놓고
부모님께 공양하고 자식 사랑 극진하니
태평성대가 이 아니냐
[쇠 장단]
고사축이 끝났으니
액풀이 좀 하여보세
정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정월백날(대보름) 내보내고
이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이월 한식에 내보내고
삼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삼월 삼일날 내 보낸다
[쇠 장단]
사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날 맥어 내고
오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오월 하다루(단오)에 막아내고
유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유월 육일에 막아낸다
[쇠 장단]
칠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칠월 칠석날 막아를 내고
팔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팔월 한가위에 막어 내고
구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구월 구 일 날 막어 내내
[쇠 장단]
시 월 한 달에 드는 액은 시월 단풍에 막아내고
동짓달 한 달에 드는 액은 동지 팥죽으로 막아내고
섣 달은 막달이라 집집마다 고사지내
일년 신수 잘 되라고 고사 축원을 드리는구나
[쇠 장단]

아헤~~ 고사

[쇠 장단]

[아니리제로] 봐~ 이댁 가정에 끝으로 안가태평하시구 무명장수하시구 수병장수하시어

그저 일년 내내, 그저 물 묻은 바가지 깨 붙어 드어오는 것처럼 복이나 넉넉하게나 주소서

[쇠 장단]

※ 시량리 인종명의 축원은 그의 아버지 인권배로부터 배운 소리로 예산 덕산지역에서 채록되는 많은 축원 중의 하나다. 노랫말 구성이 좋으며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한 목소리, 한 장단으로 계속 이어 나가면서도 여유가 있는 예산 고사 축원의 본질이 잘 담겨 있다. 그러면서도 앞의 이광선 축원에 비하여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라진 부분은 보부상놀이 공연 판에서 다수의 예능인들과 공연을 하며 긴 노랫말 사이에 판소리의 아니리나 연극의 대사처럼 선소리꾼이 이야기하고 풍장꾼이 응하는 부분이 삽입된 것을 살필 수 있고, 달거리의 경우 이광선의 축원에서는 1월 액은 2월 한식이 막아내고, 2월 액은 3월 삼짓날이 막아내는 등 앞의 달 액을 뒷달 좋은 날이 막아내는데 반하여 인종명의 고사축원은 1월 액은 정월대보름이, 2월 액은 이월 초하루 지날이 막아내는 등 그 달의 액을 그 달의 길일이 막아내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일노래

예산의 일노래는 다양하다. 논일을 하는 소리로는 모내기 일터에서 모를 내기 위해 모를 뽑아 묶는 '모찌는 소리'와 일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르는 '논매는 소리', 가을 탈곡 작업으로 행하는 '자리개질 소리'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목조 건축물을 짓기 위해 집터를 다지는 '집터다지는 소리', 봄에 논두렁을 정리하면서 두렁 높이가 높아 허물어질 위험이 있는 둑의 안전을 위해 말뚝을 박는 작업에서 부른 '말목치는 소리' 커다란 나무망치인 메를 쓰면서 부르는 '메질 소리'가 있다.

모찌는소리의 경우 현재는 채록하기 어려울 만큼 쇠락하였으나 이미 채록된 모찌는 소리는 예산지역의 고유한 일노래의 전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모찌는소리가 단 1수 밖에 음원이 없음에도 예산 일노래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더구나 인근 고장의 모찌는소리(일명 모방구치는 소리)들과 다르며 모를 이앙하기 위해서 모판에서 모를 뽑아 묶는 작업에 잘 어울리는 일노래의 특성이 살아있다.

두레가 성행했던 예산의 전통사회 농사에서 가장 흔하게 불린 일노래는 역시 논매는소리이다. 두레에서 논매는 소리를 할 때 불렀던 가락과 장단은 논매는 작업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가락과 장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속도는 그날 그날의 일감의 어려움과 쉬운 정도에 따라 맞추어 부르는 특성 또한 그대로 지켜진 노래들이 채록되어 전하고 있다.

예산의 논매는 소리는 다른 고장과 같이 느리게 부르는 '긴소리' 빠르게 부르는 '잦은소리' 일을 끝내면서 몰아가는 '모는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긴소리는 만물 소리가 가장 길었고 두물 소리는 조금 빠르지만 소리의 장단은 느린 9박이 기준이다. 잦은소리는 빠른 4박이라서 긴소리와 잦은소리의 느낌이 아주 다르다. 몰이소리는 한배미의 논매기를 끝내고 논두렁으로 나오면서 하는 소리로 "우여 우여" 등의 소리를 함성을 지르듯 합창으로 하는 소리로 매우 짧다.

예산 논매는 소리의 후렴구는 "얼카덩어리"가 주를 이루고 예산 상여 행상소리의 후렴과 유사한 흘림소리, 즉 노랫말이 없이 "에하 어헤" 등의 소리로 구성된 노랫말이 전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에하 능청 에헤이야", "에하 덩어리", "에－하 산이로세",

"에하 올러를 가세" 등 다양한 노랫말들이 보인다. 예산 상여 행상소리의 후렴이 예산의 거의 모든 고장에서 흘림소리로만 구성되는 특징이 있는데 논매는소리의 후렴은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지조사 당시 논매는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부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한 마을이라도 아시 논매기에서 불렀던 긴소리와 잦은소리, 몰 소리를 구분하여 부르고, 두물과 만물 역시 상황에 맞게 부르는 논매는소리가 녹취되어 각 소리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한다면 예산 논매는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사료되기 때문이다.

예산의 자리개질소리(일명 개상질소리)는 예산군지에 한 수가 전한다. 가을 추수 일판에서 가장 힘든 노동 중에 하나인 자리개질은 한단의 볏단을 끈으로 감아들고 개상이라는 통나무에 볏단을 어깨위로 넘겨 휘둘러 이삭이 있는 부분을 따리면 벼가 털리는 작업이며 한단은 보통 7회 내외의 자리개질을 필요로 한다. 2m 이상의 통나무를 만드는 긴 개상작업은 양편에 자리개질 일꾼들이 늘어서서 번갈아 자리개질을 치기 때문에 박자를 맞춰야 했고, 당연히 일노래가 필요했다. 자리갤소리는 일이 힘겨워 잦은소리 없이 긴소리만 한다. 선소리꾼이 없는 마을에서는 흘림소리로라도 선소리를 하고 자리개질 일꾼들이 후렴을 하면서 일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자리개질소리는 선소리와 받는 소리를 한 틀로 7회 정도를 반복할 수 있는 소리가 채록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하는 소리는 짧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예산지역의 '집터다지기소리' 역시 신양리 한 마을 소리만 채록되어 전한다. 집을 지을 터를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땅만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라 집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집터를 단단히 다지는 것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집터 다지기는 큰 돌을 동아줄로 뜨고 그 줄에 다른 동아줄을 달아 장정들이 이 줄을 잡아 당겼다 놓는 일을 반복하여 다져나간다. 일꾼들이 동시에 같이 당기고 동시에 같이 놓아야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집터 다지기를 행하는 모든 마을에 집터다지기소리가 있었다.

예산 신양의 집터다지기소리는 긴소리만 채록 된 것으로 보인다. 긴소리의 박은 8

박이며, 선소리 한 구절에 받는소리 한 구절이 짝을 이룬다. 신양 집터다지기소리의 노랫말은 세상이 생긴 이치와 천하에 가장 좋은 기운, 즉 명기를 새로 짓는 집터로 불러들이는 소리와 집터가 좋음을 칭송하는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다. 받는 소리는 충남에서는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랫말 중 하나로 "어허이야 지점이야"이며 노랫말의 구성이 좋고 일을 하기에 편한 곡조이다.

이 밖에 일노래로는 말뚝을 박으며 부르는 소리와 망깨질소리가 짧게 전한다. 메를 쳐 말목을 박는 소리는 나무다리를 놓을 때나 저수지 등의 큰 제방 공사장의 바닥에 커다란 말을 박을 때 부르는 소리인데, 다른 고장에서는 일의 능률만으로 보아 짧은 선소리와 구호 같은 받는 소리로 구성된다. 예산에서 전하는 말박는소리는 선소리가 타고장의 말박는소리의 곱절에 달할 만큼 긴 특성을 지닌다. 받는 소리도 타고장에서는 "어여차", "우쒸" 등의 소리 구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하여, 예산에서는 농부가의 받는 소리로 잘 알려진 "어럴럴러 상사디야"이며 끝부분의 "디야"에서 메를 내리 친다. 선소리와 받는 소리가 길다는 것은 일의 능률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행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세계 다는 민족에 비해 특이할 만큼 일할 때 많은 노래를 즐겼다. 이런 연유에서 그 지역의 전통 사회, 특히 농사와 관련된 문화를 연구하는데 일노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가령 논매는 소리의 곡조를 들으면 그 고장의 흙에 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식이다. 논흙이 부드럽고 거름지면 논매는 소리가 흐르듯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거친 모래땅이나 굳어 딱딱한 땅에서는 소리가 된 소리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농사 일소리들이 지닌 여유로움이 예산의 흙을 칭찬하는 소리이며 사람살기 편한 고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며 예산 군민들에게 다시 보급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하겠다.

삽교읍 창정리 모찌는소리

- 창자 : 김창교(1932년 생. 남. 삽교읍 창정리)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1993년 채록)

[받는 소리] 철뜨럭꿍 철뜨럭꿍 허더니만 또 한 찜만 쪘네

철뜨럭꿍 철뜨럭꿍 허더니 또 한 찜만 쪘네
철뜨럭꿍 철뜨럭꿍 하더니 또 한 찜만 쪘네

우리네가 살며는 한 오백년 살 줄 알고 죽자 사자 애만 써오니
철뜨럭꿍 철뜨럭꿍 하더니 또 한 찜만 쪘네

청춘 하늘에 별도 많지만 우리네 살림살이는 말썽도 많에
철뜨럭꿍 철뜨럭꿍 하더니 또 한 찜만 쪘네

높은 산 상봉에 외로이 선 나무 내 몸과 같이도 외로이 섰구나
철뜨럭꿍 철뜨럭꿍 하더니 또 한 찜만 쪘네

※ 김창교는 창정리에서 출생하여 3대 째 살아온 사람으로, 14세부터 아버지가 작대기로 때리며 반대하여도 장구가 좋아 삽교에 있는 학원에 다니며 장구를 배웠다. "제일 멋있는 게 장구잽이 일레라구". 안경을 쓰고 좀 말랐으며 주름이 깊다. 스무살 넘어서 부터 북을 매고 선소리를 하였다. "비오면 신발 한 켤레만 들여 놓으면 된다"고 자기의 가난함을 표현한다. 당진과 서산을 중심으로 모찔 때 부르는 노래이다. '철떠럭궁 철떠럭꿍'은 모를 찔 때 물이 '철퍼덕 철퍼덕' 튀기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들려주는 의성어이다. (이상 한국 민요 대전)

※ 신양리는 두레가 모내기를 행하지 않은 마을이다. 모를 심을 농가에서 품앗이나 품삯을 주어 일꾼을 확보하여 일판을 이루었다. 이런 면에서 이 노래는 마을 공동의 작업에서 장정들 모두 함께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개인 소리꾼의 역량으로 부른 소리라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신양리가 놀이 문화와 소리가 살아 있는 마을이었음을 대변한다. 선소리 노랫말은 일반 민요에서 사용되던 소리들이며 박은 느린 8박이다.

대흥면 동서리 / 논매는소리

- 창자 : 노성환(1923년 생. 남. 대흥면 동서리)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1993년 채록)

[받는 소리] 얼카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얼카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이 논을 매고 저 논으로 갑시다	어여차 덩어리
고루 고루 잘 들 맵시다	
빈 데 없이 고루고루 찍어만 주세요	어여차 덩어리
이 논을 매고 저 논으로 갑시다	
어여차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이 논을 매고 빨리 매고 술들 잡숩시다	어여차 덩어리
얼차 덩어리	우여차 덩어리
이 논을 매고 저 논을 맵시다	으여차 덩어리
빨리 매고 쉬어서 헙시다	어여차 덩어리
어려워도 참어서 헙시다	어여차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얼카 덩어리	
이 집 저 집 고루 맵시다	어여차 덩어리
언릉 언릉 부지런히 맵시다	어여차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이 논 저 논 부지런히 맵시다	으여차 덩어리
언릉 언릉 빨리 맵시다 어	여차 덩어리

[받는 소리] 얼카 뎅이

얼카 덩어리

어여차 덩어리 으여차 덩어리

빨리 헙시다 얼카 뎅이

어여차 뎅이 어차 뎅이

어~

※ 창자 노성환에 대한 기록은 예산군지(하권. 11편 구비문학, 1649쪽)에 잘 기록되어 있고, 한국민요대전에는 이 소리의 음원은 있으나 다른 기록은 없다. 이 소리의 노랫말은 두레 논매는 현장에서 장정들에게 일을 빨리 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이며, 소리는 잦은 소리다. 바꾸어 말하면 동서리 두레패가 활동하였을 시에는 긴소리가 있었으며 잦은소리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채록 과정에서는 일꾼 독려하는 소리만 채록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두레 논매는 소리가 쇠락하여 변형된 전형을 보여 주는 소리다. 이 책에는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창자가 부른 논매는소리 중 예산군지 수록분과 한국민요대전의 노랫말을 수록하는 것은 MBC 우리소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노래를 모두 기록한다. 본디 같은 노래지만 노랫말이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차후 지역 민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삽교읍 창정리 논매는 소리

- 창자 : 김창교(1932년 생. 남. 삽교읍 창정리) **- 기록 : MBC 한국 민요 대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993년 채록)**

[받는 소리] 헤헤 헤헤헤헤야 허이야 허허이 헤야호

에헤 에헤이헤 헤야 어야 허허이 헤야아호

세월아 봄철아 오구 가질 말어라 아까운 우리 청춘 다 늙어간다

세월이 가기는 바람결 같고 우리네 늙는 건 물결과 같다

허허 어허허 허야 어야 어허이 헤야호

우리가 살며는 한 오백년 사느냐 살아서 생전에 맘대루 놉시다

불쌍하구 가련하다 춘향이 모친이 불쌍허다

먹을 거를 옆에 끼구 옥문 안으로 윳을 보니1)

쓸 년이 춘향이로다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옥중에 들어가서 죽을 망정 허락 받기는 나는 싫어

어허 어허허 헤야 어양 어허이 헤야호

※ 한국민요대전에는 이 소리를 창정리 상여소리로 기록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그 사유는 상여소리 또한 일노래의 특성을 지녀 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구분하기 힘든 까닭이다. 수록된 소리로는 지역 정서에 맞는 상례로 행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마을에서는 상여를 행상할 때 선소리꾼이 요령을 치며 받는 소리도 하던 마을이다. 그런데 16박에 이르는 긴 받는 소리와 32박에 이르는 선소리를 한다면 담여꾼들이 이를 행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한국민요대전의 기록 중 이 마을의 논매는 소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만물소리가 논매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논매는 소리의 받는 소리가 긴 것은 땅이 부드럽고 거름져 재거할 잡초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노래를 부르는 두레의 전통이 상여 흘림소리와 유사한 마을로 보아야할 것이다.

삽교읍 창정리 논매는 소리

- 창자 : 김창교(1932년 생. 남. 삽교읍 창정리) **- 기록 : MBC 한국 민요 대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993년 채록)

[받는 소리] 어하 덩어리

어하 덩어리	어하 덩어리
얼거디여차 덩어리로구나.	어하 덩어리
일락은 서산에 해는 다 지구요,	어하 덩어리
월출 동녘에 저 달이 솟는구나.	어하 덩어리
우리가 살며는 한 오백년 사느냐.	어하 덩어리
살어 생전에 맘 먹구 놉시다.	어하 덩어리
얼거디여차 덩어리로구나	어하 덩어리
해는 다 지구요 촛농은 떨어졌는디	어하 덩어리
얼거디여차 덩어리로구나	어하 덩어리
해는 지구요 저무신 날짜에	어하 덩어리
옷 갓을 하구서 어디를 갑니까	어하 덩어리
첩헤 집은 다 꽃밭이로구나	어하 덩어리
나헤 집은 다 연못이로구나	어하 덩어리
꽃과 나비는 봄한철이건만	어하 덩어리
물과 고기는 춘하사철일세	어하 덩어리

얼가디여차 덩어리로구나 어하 덩어리

※ 삽교읍 창정리에서는 논을 세 번 맨다. 아시와 두벌은 호미로 매면서 '얼카덩어리'를 부르고, 손으로 훔치는 만물소리는 상여소리를 닮았다. 충남의 차령산맥 이북이(당진, 서산, 홍성 등) '얼카덩어리'의 본고장이다. 처음에는 느린 '얼카덩어리'에서 잦은 '얼카뎅이(얼카덩어리)'로 넘어간다. 이 마을의 소리는 '헤하 덩어리'로 부른다. (이상 한국민요 대전)

※ 삽교읍 창정리 두레 논매는 소리 중 아시와 두벌 때 부르던 소리다. 예산의 논매는 소리 중 '얼카 덩어리'를 노랫말로 사용하는 고장이 많으며, 이 소리는 앞부분 '얼카'가 '에하', '어하'. '에헤야' 등으로 불리고 '덩어리'는 '딩이', '뎅이', '등허리' 등으로 변하고 느린 소리는 길게, 잦은 소리는 짧게 부른다.

대술면 장복리 논매는 소리

- 창자 : 조종술(1905년 생. 대술면 장복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호미가지구 논을 매잖유. 아시(초벌) 매고, 두벌 매고, 세벌 마무리 허구 그러는디, 그 저 일꾼덜이 그냥 아무소리 않구 논만 매면 어려우니께, 소리 헌 소리가 있시유. 그래서 그 소리 워치게 허는고 허니, 그것두 및 가지지유. 고장 고장 틀려유. 그것두. 우리네 여기서 소리헌 것은 에-그냥 길게 빼서, 그 저 흙댕이가 넘어간다구 해서 으이 얼카덩어리, 그래 인저 사람이 죽 인저 논을 저기 큰 배미서 매잖유. 매면서 인저 소리허는디, 얼카덩어리 우여차 덩어리 잘 넘어간다. 한 간을 떼다가 세 간씩 문질르고, 이게 인저 한간을 떼다 세간씩 문질르라는 게 뒷손들이 잘 허라는 거지유. 그러면서 허는 건디 잊어버려서 인저.

긴소리로는유

어---아 우여차 덜--커덩 넘어간다
얼카덩어리 잘 넘어 가-네

한-간을 떼다가 세-간씩 문지르고
얼카덩어리 잘 넘어 가-네

이렇기 줄 곧 그렇기 나가는 기유. 저 저녁때 되면은 해가 서산이 걸쳤다구유.
그러면서 이 배미 얼른 매구, 장구 배미루 근너 간다고 허는디,
노래가 잘 안 되네유. 그렇기 허는 기유

※ 조종술은 대술면 장복리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같이 노래를 해 준 사람은 조병두, 김영우, 김영환 등이며 어릴 적에 여러 어른들이 부르는 소리를 배웠다. (이상 예산군지)

※ 이 마을 노랫말의 후렴과 구성은 차령산맥 중 차동고개 산줄기 양편 마을들에서 불린 소리로 공주시의 신풍면과 유구읍 일부 마을들도 부르는 소리다. 긴소리와 잦은소리, 논 밖으로 나오며 부르는 우여차소리가 한 조를 이루면 긴소리는 8박. 잦은소리는 4박이다.

※ 창자의 출생 연도가 1905년 임을 감안하면 구술 부분도 소중한 자료가 되어 생략하지 않고 기록한다.

신양면 신양리 논매는 소리

- 창자 : 이기선(1944년 생. 신양면 신양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7월 채록)

아아 헤 어어허 어야 어어어 우이여루 산이로세
아아 헤 어어허 어야 어어어 우이여루 산이로세

간다 간다아 나는 간다 너를 버리고 나는 간다
아아 헤 어어허 어야 어어어 우이여루 산이로세

일락 서산 해는 지고 월출 동령에 달이 뜬다
아아 헤 어어허 어야 어어어 우이여루 산이로세
(이렇게 계속하다가 얼추 몰어가면 잦은 가락으로 넘어간다)

이 논배미를 얼카덩어리 잘넘어간다.
이 논배미응 얼른 매구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장구배미루 넘어간다.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 마을 입구에서 만나서 여러 노동요를 청하고 들었으나 많이 기억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조병직씨와 함께 상여소리를 해주었다. 이 소리는 어릴 적에 어른들한테 들었음. (이상 예산군지)

※ 논매는소리 중 만물 논매는소리다. 앞의 기록과 같이 긴소리는 상여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흘림소리로 받는 소리가 구성되어 느린 8박이다. 허리를 펴지 않고 오래 논을 맬 수 있는 일감인 마을 논매는 소리의 특징이다. 잦은소리는 빠른 4박으로 노래하며 전형적인 '얼카덩어리' 소리다.

대흥면 상중리 논매는 소리

- 창자 : 노성환(1923년 생. 남. 대흥면 상중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7월 채록)

얼카 덩어리	얼카 덩어리
이씨 한양이 등극하야	얼카덩어리
봉이 놓여 터를 딱고	얼카덩어리
학을 눌러 대궐을 짓고	얼카덩어리
대궐 밖에 영문 짓구	얼카덩어리
영문 밖에 토역사요	얼카덩어리
만조제신을 마련헐 적이	얼카덩어리
저기 그란들이 그랑거려도	얼카덩어리
툰두란이가 죽을 쏘냐	얼카덩어리

이렇게 하구서 사람마두 여러갈래루 허지요

앞 강은 열두 강이요	얼카덩어리
뒷강은 열두 강이요	얼카덩어리
이십사 강을 건너올 적이	얼카덩어리
나무 배를 잡어 타니	얼카덩어리
나무배는 다 삭어지고	얼카덩어리
돌배를 잡어 타니 돌배 핑핑 가라앉구	얼카덩어리

흙토산을 잡어 타니 흙토산은 다 헤어지구 얼카덩어리
수양산 저 포도를 훑어 얼카덩어리
배를 모아 나오실 적이 얼카덩어리
손님 마마가 나오신다 얼카덩어리
손님 마마가 나오신다 얼카덩어리
자나 붉으나 녹두 손님 얼카덩어리
말 잘헌다 구경 손님 얼카덩어리

해명허자믄 그게 전염병허구, 그게 인저 장질부사지. 손님, 우두.
그러구 인저 홍역 이게 나오서, 홍역은 한번 하믄 않는데, 우두,
그러니끼 세 분이 나올 적이 강남서 나올 적이 두분은 문서를 다 잃어 버리구
홍역만 안 잊어버려서 홍역은 한번만 하믄 않는데, 인제 해명을 하자믄
그 둘이 인저 문서가 窪기 때문에 앓은 놈인지 안 앓은 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또 앓구,
또 앓구 허다가 인저 죽구. 그래 제일 무서운 것이 염병이 인저 장질부사거든.
그러구 인저. 또 종두라구 지끔 말하나? 그 막 꽈리처럼 일어나는 거. 손님.
그것이 무섭구. 그 나머지가 홍역이지. 장질부사라는데 머리가 따 빠지구,
그거 한번 앓구 나믄 뱃속에 있던 병이 다 떨어져.
근데 그거 죽는 게 열 앓으믄 다섯이 죽는 건데, 그게 노래루는 힘들구,
그냥 내가 얘기루 일러 줄께.

강남은 배한길이요 십이지국의 열두 나라 조공을 받으러 나올 적에,
그 세분이 말여 나오는 거지. 그런디 두분은 가지고 있던 문서를 다 잃어 버리구 말여,
한 분은, 사람이 그 세 가지 병을 다 앓으야 되는데, 그게 말하면 조공을 받쳐야 되는데,
그걸 않구서 사는 사람이 왜 많으냐 이 말여. 열이믄 다섯은 죽으야 된다 이 말여.
그런디 홍역은, 홍역두 한번 들왔다하믄 그 동네, 그 동네서 대여섯 여나문은 죽거든.

그런데 전염병이 들왔다하믄 십여명 이상 죽구, 또 우리 어려서두 그게 있었으니께, 아 그런데 홍역은 한번 허구 나며는 더는 안 해. 지금은 그것두 않 잖어.

주사 미리 맞으니께. 아 우리는 그런디 열살 적이두 하구, 열댓 살 적에두 하거든. 어려서 하면은 차라리 난데 말여. 그러니 병 걸리구 소아마비 같은 거, 그렇다는 거, 그런 걸 전부 인저 가사를, 그게 문서가 있어서 꾸며대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인저 아는 대루 주서 섬기는디, 목청이 좋아야, 일청 이곡 삼비우라는 거유.

비우가 좋아야 남자구 여자구 어디가서 한곡 남이야 듣거나 말거나 하구,

비우가 좋으니까, 그런데 곡을 하든 뭘하든 말여. 그런데 청이 좋으므는 아무 소리를 해두 박자가 맞구 듣기가 좋거든. 그래서 노래는 그런 겨.

※ 창자는 대흥면 상중리에서 태어나 젊어서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 광복 이후에 고향에 내려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어릴 적에 할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고, 또 동네어른들이 하는 노래와 젊어서 돌아다닐 때 들었던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 문화방송 민요대전에도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작년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서 정신이 많이 산란해져서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한다. 지금은 부인과 손녀딸, 셋이 살고 있다. 늦은 시각에 찾아갔으나 그칠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해 주셨다. 지금은 별루 생각나는 게 없어서 잘 얘기를 못하지만, 다음에 다시 오면 더 잘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지가 나오면 꼭 한 권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이상 예산군지)

※ 이 소리는 논매는소리의 받는 소리와 가락에 맞추어 선소리의 노랫말을 고사축원 소리로 부른 노래다. 이는 각 종의 일노래 선소리가 선소리꾼의 역량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게 하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예산군지에서도 밝혔듯이 문화방송 민요 대전의 창자 소리는 고사 축원문이었으며 노랫말의 기록 또한 일치 한다.

대술면 장복리 자리개질(개상) 소리

- 창자 : 조종술(1915년 생. 남. 대술면 장복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모심는 노래두 있지유. 있는디 우리는 모심으면서 노래는 안 했시유. 타작허면서는, 베타작할라면유 개상을 이蔑기 놓잖어유. 개상이라구 인저 절구통. 절구통을 갖다가 놓은 디두 있구, 개상을 이런 나무루다가서 시개를 뚤구녁 뚫어가지구서 발 맞춰 가지구서 올려 놓구 허는 게 있시유. 그러믄 그걸 양쪽으루 넷씩, 넷씩 늘어서서, 인저 자리게를 맨단 말유. 그러면 인저 짝바심이 되유. 그게, 저 짝이서 한번 치면 이

짝이서 한번 치구 그렇게 되지유. 그건 어칙허느냐면

아아 에 아아 헤
거 근너 갈미봉
먹구름 들어온다
우여차

하면서 냅대 인저 무디게 한번 쳐유. 저 쪽이서 한 번 치구. 그래 인저 나가세 하면 나가지.

아아 에 아아 헤
거 근너 갈미봉
먹구름 들어온다
우여차

아니 해 버릇해서 그려. 자꾸 안 해 버릇허니께... 도리캐질 헐 때두 허지유. 이게 상도리캐가 있시유. 상도리캐라구. 상도리캐가 인저 소리를 미기면서 허는 소린디, 예날이는 다 해봤지만, 다 잊져버렸지 무어 짝바심허는거 그거나 한번 더해 보까

아아아 헤 아아아헤
저근너 갈미봉
거먹 구름 넘어온다
어어하

어하가 아니유 다 잊어버렸어. 이게 니번 다섯 번인가 치구서 나 가는거 거던. 그리구선 인저 끝트머리가서 나가서 하믄 베야 떨어지든 안었던 나가야 해유. 바심할

적이. 그러구 또 인저 자리께에 돌어서서 죽 싸잖유. 싸구서는 무릎에다 턱 허니 대구 있다가서는, 들어가세 허므는 상개생이 그 선소리 메기는 사램이 들어가세 허므는 인제 들어가서 치는 게거든. 그디 그것두 잘 안되네유.

※ 창자 조중술은 대술면 장복리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이상 예산군지)

※ 이 소리는 현재까지 기록으로 유일하게 남은 추수 현장의 자리개질소리다. 노랫말이 단편적인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예산 자리개질 소리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 군지에는 창자의 증언을 가감없이 기록하였지만 이 중 연로한 창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다.
1) 자리개질 횟수 : 예산 군지에는 4~5회로 기록되어 있으나 볏단을 둘러치는 자리개질은 7회가 기준이며 7회 자리개질을 친 후 자리개질 꾼이 밖으로 짚단을 버리러 가는 길에 볏단을 확인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추가해 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2) 자리개질 소리로 도리깨질을 할 수 없음 : 자리개질은 무거운 볏단을 들고 하며, 한 단 한 단 작업시마다 소리가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한다. 도리깨질은 가벼운 도리깨로 한번 시작하면 계속한다. 또한 자리개질은 소리로 호흡을 맞추는 반면 도리깨질은 소리를 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자리개질소리와 도리깨질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일노래는 받는소리가 중요하고 선소리는 즉흥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본 소리만으로도 예산 자리개질 소리는 재현될 수 있다.

신양면 신양리 집터다지는 소리

- 창자 : 이기선(1944년 생. 남. 신양면 신양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7월 채록)

어이여루 지점이오.　어이여루 지점이오
천하명승을 더듬어 봅시다.　어이여루 지점이오
천지조종 곤륜산이요.　어이여루 지점이오
수지조종은 황해수요.　어이여루 지점이오

곤륜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어디갔나 간 곳 없더니　어이여루 지점이오
함경도 내려와 백두산 생겼소　어이여루 지점이오
백두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어이 갔나 간 곳 없더니　어이여루 지점이오
황해도 내려와 구월산 생기고　어이여루 지점이오

구월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어이갔나 간 곳 없더니 어이여루 지점이오
강원도 금강산 생겨났고 어이여루 지점이오
금강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서울 내려와 북악산 생기고 어이여루 지점이오
북악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서울 경복궁 생겨났고 어이여루 지점이오

한줄기가 간 곳 없더니 어이여루 지점이오
충청도 내려와 계룡산 생기고 어이여루 지점이오
계룡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신도안 도읍지 생겨났구 어이여루 지점이오
한줄기가 간 곳 없더니 어이여루 지점이오

예산 내려와 금오산 생기구 어이여루 지점이오
금오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신양 내려와 국사봉 생기구 어이여루 지점이오
국사봉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오늘 이 대지 생겨났소 어이여루 지점이오
이 집 집터를 잡으려고 어이여루 지점이오
백일정성도 드렸습니다 어이여루 지점이오
어이여루 지점이오 어이여루 지점이오

이 집을 지어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출출문장이 태어나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총리대신이 나올 것이고 어이여루 지점이오

백만장자도 태어나서 어이여루 지점이오
세계 갑부두 나올것이요. 어이여루 지점이오
외손 발복두 할 것입니다. 어이여루 지점이오

이런 정도루 해서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겨.

※ 이 소리에 대해 예산 군지는 별도의 내용이 생략되었다.

※ 이 소리는 현재까지 예산의 집터다지기 소리로 기록된 유일한 노래다. 소리에 노랫말의 구성은 1) 땅의 근본을 밝히는 소리 : 1~4행, 2) 명기 부르는 소리 : 5~23행, 3) 집을 지은 후 복을 기원하는 소리 : 24~마지막행이다.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일원의 집터다지는 소리는 위 3항 외 1) 집터 칭송하는 소리, 2) 액막이 소리, 3) 일꾼 지휘하는 소리가 더 있으며 이중 일꾼 지휘하는 소리는 다짐돌이 오가는 방향에 대한 지시와 일꾼들의 격려하는 소리로 소리꾼의 역량에 따라 즉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소리다. 신양 집터다지기 소리의 받는 소리는 충청남도 북부, 공주, 천안, 아산 등지에서 가장 흔하게 채록되는 소리로 느리게 부르는 긴 소리와 빨리 부르는 잦은 소리가 있으며 긴 소리 잦은 소리 모두 후렴의 노랫말은 같다. 신양의 집터다지는소리는 예산에서 집터를 다지는 문화와 소리에 대해 충분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광시면 신흥리 말뚝박는소리

- 창자 : 윤병주(1920년 생. 남. 광시면 신흥리)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1993년 채록)**

[받는 소리] 어럴럴럴 상사뒤야

어럴럴럴 상사두야
상사부사는 경부사허니
어럴럴럴 상사두야

여뿌구서두(예쁘고서도) 얌전한 쥔 댁
나를 보구선(보면서) 빙길뱅길(빙글빙글 – 웃는 모습)
에럴럴럴 상사두야

꽃을 꺾어서 머리다 꽂고
산이 올라서 들구경허니

길가는 행인이 길 축만 난다

어럴럴럴 상사뒈야

인력거야 자동차야

어서 바삐 가자꾸나

어럴럴럴 상사뒈야

※ 다리를 세울 때 말뚝을 박는 소리. 다리를 세우기 위한 말뚝을 '다릿말'이라 한다. (이상 한국민속대전)

※ 예산에서는 말뚝을 말이라 한다. 농사일에서 말을 박는 경우는 논두렁이 높을 때 긴 말뚝을 박고 섶을 걸쳐 놓은 후 흙을 쌓아 논두렁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논두렁을 보강할 때는 소수의 인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사례는 극히 적었으며 단순히 '우여차', '우쑤' 등의 소리로 호흡을 맞추었다. 창자가 한국민속대전 채록 시 말한 다리를 세울 때 말뚝 박는 소리란 큰 교량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다수의 인원이 말목을 박으며 부른 소리라는 의미다. 이 소리의 노랫말과 받는 소리의 구성으로 볼 때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메를 치며 부른 소리로 보인다.

광시면 신흥리 메질소리(일본말)

- 창자 : 윤주명(1920년 생. 남. 광시면 신흥리)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1993년 채록)**

고로가 산이냐

요여 산아

요이또 소라

요이 소로다

고로가 망깨

요여 망깨

요이또 소라

요이소로다

(반복)

※ 땅 속에 금맥이 있는지 시추하느라 정으로 바위에 구멍을 뚫으면서 하는 소리. '망깨'를 빼고는 노랫말이 대체로 일본말이다. 현지에서는 '배금 점하는 소리'라 한다. 속에 금이 있는지 점을 친다는 말이다. (이상 한국민속대전)

※ 일제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나라 땅 전부에 대해서 현대적인 측량을 시행하면서 지하자원, 특히 금이 있는 곳을 파악하여 민간 기업을 내세워 금을 채굴해 갔다. 이 노래로 이런 사례가 예산에서도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

예산에서는 특이할 만큼 판소리가 채록되지 않은 고장이다. 앞서 예산 민요의 기조를 살펴 볼 때 점잖은 소리, 글줄 들어 있는 소리의 지역 정서는 예산의 향토 민요 채록 과정이나 정리 과정에서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예산소리의 기조는 선비들이 좋아했던 충남의 중고제 판소리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예산지역에서 널리 채록되는 노랫말이 긴 소리들이나, 고사축원, 상여 소리, 심지여 각설이타령까지도 다른 고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긴 노랫말의 소리들이 불렸다는 면에서도 이야기가 노래로 변한 판소리는 예산의 예술적 정서와 일치하는 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수차례의 채록과정이나 여러 자료를 살펴도 예산지역에서 불려 채록된 소리는 아주 미약하다. 이런 점을 볼 때 예산지역에서는 판소리가 불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근 고장의 판소리 문화나 명창의 면면을 살펴도 예산지역에서 판소리가 성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서산의 고수관, 홍성의 최선달, 공주의 황호통, 청양의 최낭청, 송수철, 보령・오천의 윤영석 등 인근지역에서는 국창 급의 명창과 지역의 판소리 명창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서산의 해미나 홍성 등은 장꾼들조차 서로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고장이었다. 조선후기 판소리의 문화가 예술인 소리꾼의 소리를 듣고 마디소리를 불러 보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예산지역의 판소리 문화에 대해서는 뿌리를 밝히는 차원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예산 군지에 실린 2수의 판소리 마디소리와 1수의 단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벽가(적벽대전)

- 창자 : 노성환(1923년 생. 대흥면 상중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7월 채록)

[앞의 소리 생략되어 채록됨]
생강은 오병이요 遼벽은 수중이라

난데없이 화광이 중천하니
조조가 활양도 허구 도망을 갈 때
제갈공명은 만병산이 올라가서
육육은 삼십육회를 불어 칠성단을 모아 놓고
지성공덕을 드리어 동남풍을 빌고 도망갈 때
때는 좋다 동짓달 열 사흘날 막히니
동초 선생은 연안계를 쓰고 도망을 가고
서선은 마들의 아들 마초가 호통을 친다
윤비애를 치구서 도망을 가고
황개는 구한티 곤장 오십대를 맞고
조조한티 항복을 하러 온다
하야 조조가 좋아라고 조조가 좋아라고 문비를 권했으니
피웅 화살 한 개가 날라와 문비의 목덜미가 콱 꼽히니
뱃머리 핑글 돌며 수중고인이 되었겄다

이렇기 하지
[조사자 : 어디서 배우셨나요?]
배우긴 뭘 배워, 곡두 안맞구 청두 窪구.

※ 특이할 만큼 판소리가 채록되지 않는 예산에서 채록된 소중한 소리로 대흥면 상중리에 살았던 노성황의 창으로 되어 있다. 이 소리는 공주, 예산, 아산 지역에서 마치 단가처럼 불린 소리중 하나다. 판소리의 한 마디 소리가 단가처럼 불린 노래로는 적벽가 중 '공명가'라 하여 제갈량이 동남풍을 비는 대목과 수궁가의 토끼의 '화상가',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추원만정', 춘향전 중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볼기 맞는 대목의 '십장가' 등이다. 적벽가 중에서 적벽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을 서술한 이 소리는 중모리 장단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자가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어 예산 판소리 문화의 내면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 노랫말은 현재 판소리꾼들이 부르는 적벽가의 노랫말과 다른 것으로 보아 예산지역에서도 일반인들이 판소리를 듣고, 즐기며 부르는 문화가 있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수궁가 중 곡우천변

- 창자 : 노성환(1923년 생. 대흥면 상중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7월 채록)

(아니리)
물속이두 인저 왕이 있거든. 육지만 있는 게 아녀.
용왕이 빙(병) 나서 인저 전부 재상들 헌테 얘기하니께,
거북이가 육지두 대니구, 바다두 대니구 허니께,
토끼 간을 먹으야 낫는다구 해서 육지를,
거북이가 엄명을 받어 갖구 나오는데

(창)
고구천병(고고천변)은 일이로홍(일일홍) 부상이 둥실 높이 떠
양국에 잦은 안개 월붕으루 돌구
어장친 개 짖고 호연봉 구름이 떴다
두화두라 둥대둥 어려운 양자고 철새는 날아든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고
뒷발로 장랑을 흘텅 당그리두리 당그당실 높이 떠
만이고고는 만금배 구름 소리는 학선이 울어 있고
칠보산 검은 구름은 허공이 둥실 높이 떠
괴상방울을 울차 출렁 깊었는데
이 골물은 주루르 저기 저 골물은 솰솰
열이 열골 물에 한데 합수치니
천벙지고 지방지고 언덕지고 방울지니
벽수는 뚝뚝 장송은 낙락 국화는 점 흐를 적이
올려다 보느냐 천봉은 만학이요
내려다 보느냐 백사진 땅이

허리 굽은 늙은 장수 광풍을 못이기어 우줄우줄

※ 이 소리 또한 예산군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앞의 소리와 같이 대흥면의 노성환이 부른 소리가 채록된 것이다. 앞의 적벽가는 현대 판소리의 노랫말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수궁가 중에서 자라가 토끼를 찾아 육지로 나오는 대목인 고고천변은 현대 판소리의 노랫말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후반부에는 핵심의 노랫말만 모아 놓은 듯 보이는 것은 예산지역에서 전통사회에서 중고제 판소리로 불린 소리로 추정되는 소중한 자료다. 창자 노성환이 2곡의 판소리와 중모리대 단가 한송정 등 3곡을 부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내력과 활동 보유했던 소리들은 예산 판소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만,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송정 (단가)

- 창자 : 노성환(1923년 생. 대흥면 상중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7월 채록)

한송정 숲을 빌어서 조그많게 배를 모아 한강에 띄워놓고
술이며 안주며 거문고 가야금 생 세 피리 북장구는 실고
장안의 일등명기 좌우로 늘어 앉어
호걸 남자 얹쳐 실고 울렁술렁이 배띄워라
등장가세 등장가세 무삼 연유루 하느님 전으로 등장 가자
늙은 사람은 죽지 말구 젊은 사람 늙지 말구
이게 다 허사로구나 살었을 적에 먹구 쓰구 놀구 가자

※ 이 소리가 예산 군지에는 노들강변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이 노래는 충청의 공주, 당진, 예산지역에서 널리 불린 단가의 일부분이다. 공주에서는 '취담'이라는 단가로 채록되어 2010년까지 공연된바 있으며 충청지역의 승무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받은 명인이며, 중고제 명창 심정순 가문의 후손이기도 한 심화영이 부른 소리다. 이 소리 역시 앞의 소리와 뒤의 소리가 생략되어 있지만 판소리 소리꾼들이 소리 공연에 앞서 목을 푸는 소리이다. 단가가 채록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지역 판소리나 단가의 문화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녀자들의 노래

예산지역의 부녀자들의 노래는 많지 않다. 전통사회 예산의 동부 산간 지역에서는 베 농사를 많이 지어 삼베와 길쌈을 많이 하였다. 삼의 껍질을 벗겨 삶아 빤 후 실을 삼을 때는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 공동을 작업을 하였다. 이를 명품앗이라 한다. 명품앗이는 마을 단위 공동작업이 아니고 아낙네들 중 마음이 맞고 일감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행하며, 그 일터에는 남자들이 없이 아낙네들만 행하는 일이었기에 부녀자들이 흔히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특성으로 시댁을 원망하거나 조롱하는 시집살이노래가 많이 불렸다. 특이한 경우 음담이 섞인 난봉재 소리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품앗이를 하며 부녀자들이 가장 즐겨 부른 노래는 시집살이노래이다. 일이 많고 가난했던 전통사회 농촌에서 시부모의 시집살이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온 여인들이 이를 한탄하거나 시댁 식구들의 험담이 들어있는 노래들을 좋아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베틀가 역시 많은 부녀자들이 불렀으나 예산에서는 한 수 밖에 기록된 것이 없으며 그 조차 노랫말의 길이가 타고장보다 매우 짧아 베틀가의 원형을 살펴보기 어렵다.

예산 부녀자들의 노래 중 가장 특이한 것은『한국 민속 종합 보고서』충청남도 편에 수록된 예산군 신암면 신택1리의 청혼가다. 이 노래는 나신환이라는 남자가 부른 소리로 조사되고 기록되었다. 이 노래의 노랫말에 내용은 노처녀가 자기에게는 중신아비도 오지 않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앞집이라 얼순이는 열 살부터 중매가 오는데, 자기는 20세가 되어서도 중신이 오지 않음을 한탄하다가 뒷집 머슴도 좋다고 노래하며, 양반 신랑도 부자 신랑도 원하지 않는다는 노랫말이 참으로 정겨운 노래다. 이 노래의 가장 큰 가치는 노래 말의 우수성이 아니라 예산에서만 채록되었다는 것이다.

방아타령 3수는 단편적인 소리들로, 방아를 찧으며 부른 소리이면서 여인네들이 자탄의 의미를 담아 흥얼거리듯 불렀던 노래들이다. 앞서 수록한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은 남녀구분 없이 부르던 소리들로 부녀자들이 즐겨 부른 노래지만 별도로 수록하여 부녀자 소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노래들 중 가장 특이한 것은 부녀자들의 노래 역시 조용한 흥, 점잖은 노랫말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타고장에서 불린 난봉재의 노래들은 많은 부분이 여인들의 소리에서 채록되는 경향을 보인다.

흔하지는 않지만 밭농사 중 밭을 매는 일이나 길쌈을 하는 명품앗이 현장 등은 남정네가 없이 여인들만의 노동현장이었고, 밭을 매는 일이나 명품앗이가 노동의 강도가 높은 일이 아닌, 노동시간이 긴 일들인 까닭에 노래를 부르며 일하였다. 여성들만의 노동현장이라는 점에서 노랫말에서 여성들의 심정이 담긴 노래가 불린 것이다.

시집살이요

- 창자 : 나신환(생년 미상. 남. 신암면 신택1리)

- 기록 : 임동권 편,『한국민요집』Ⅰ 임동권 편(집문당/ 초판1961.6.30/ 4판 1993. 1.20), 144쪽

꼬댁꼬댁 꼬댁각씨
한 살 먹어 어멈 죽어
두 살 먹어 아버지 죽어
세 살 먹어 말을 배워
네 살 먹어 걸음 배워
다섯 살 먹어 삼촌 집에 찾아가니
삼촌이라 마당 쓸다
비자락으로 내려쫓네
들어가니
삼촌 숙모 불때다가
부수대로 내쫓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방이라고 들어가니
사촌 오빠 공부하다
서상대로 내어 쫓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 내 팔자 왜 이런가

밥이라고 주는 것이
굽이굽이 사발구비 부쳐주네
건거니라고 주는 것이
삼년 묵은 된장에다
굽이굽이 접시구비 부쳐주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 내 팔자 왜 이런가

사주라고 받는 것이
가랑 잎사구(잎사귀) 받었고나
옷이라고 해 준 것이
짓만(깃 만) 남은 삼베 적삼
치마라고 해 준 것이
허리만 남은 삼베 치마
속옷이라고 해 준 것이
허리만 남은 삼베 고쟁이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 내 팔자 왜 이런고

시집이라고 가서 보니

고재(고자) 랑군 얻었고나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 내 팔자 왜 이런고

부엌에라 들어가 보니
밑빠진 솥만 남았더라
디란이라 가서보니
밑 빠진 바구니 하나 걸였네
그 바구니 옆에 끼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양지쪽에 발 고사리
음지쪽에 먹 고사리
디듬디듬(더듬더듬) 꺾어다가
국 끓이고 밥을 지어
열 두 반상 봐다가
시금시금 시아버지
이만 저만 주무시고
아침 밥상 밥상 받으세요
예라 요년 못 먹겠다
네가 먹고 개나줘라

※ 이 노랫말은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성장한 여인이 불우한 가정에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 일원 인근 고장의 시집살이 노래들은 일정한 가락이 없이 자신의 흥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굿거리장단에 가깝다. 노래 앞 부분에서는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 내 팔자 왜 이런고'가 후렴처럼 반복되는데 후반부에는 이런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노랫말의 첫부분인 '꼬댁꼬댁 꼬댁각시'는 충청도 타 고장에서는 소녀들의 놀이에서 사용되는 노래였다. 소녀들이 같은 노래를 반복해 부르며 무당이 접신하듯 움직이다가 그 중 한 소녀가 신명이 오르면 다른 소녀들이 이를 흉내 내며 따라하면서 놀이다. 이로 보아 노래의 장단은 동요 재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며, 노랫말의 진행으로 보아 더 길었던 노래를 후반부는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삽교 베틀 노래

- 창자 : 장기순(1919년 생. 여. 삽교읍 신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념 6월 채록)

강남 강남 강남 길을 잡어놓고
구름 잡어 잉어(잉아) 달고
사치미 때는 성제요
누리기(누르기 – 베틀 발판) 때는 독신이요
잉어(잉아) 때는 삼형제요
대추나무 북이다가
청 배나무 바디
황 배나무 바디집이
와각대각 짜니라니(짜노라니)
앞문이서 통부(부고)들와
뒷문이서 배 짜다 받어보니
어멈 죽은 통분가(통부인가 – 부고인가) 했더니
시앗(남편의 첩) 죽은 통불세
에이 그 년 잘두 죽었다

※ 장기순은 삽교에서 출생하여 삽교로 시집을 가서 평생을 삽교에서 살아온 여인으로 여러 편의 이야기를 구연한 뒤에 조사자의 청으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 들을 소리임. (이상 예산군지)

※ 이 베틀가는 삽교 지역의 전통 소리로 보인다. 삼베를 많이 하고, 목화 농사를 지어 천 짜기가 성행하였던 예산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베틀가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채록되어 기록된 베틀가는 이 노래가 유일하다. 노랫말에 사용된 언어가 표준어로 바뀌지 않고 예산지역의 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힘들이지 않고 부르는 여인들의 노래 취향이 노랫말에서도 느껴지는 소중한 자료다.

대흥면 탄방리 시집살이 노래

- 창자 : 구옥희(1943년 생. 여. 대흥면 탄방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우리 시어머니 염체도 좋아
저 잘난 아들 나 놓고
나를 콩 볶고 이리 볶고 허네

우리 집이 시어머니는 염체도 좋네
저 잘난 아들 낳고 나를 볶어대네
이리 볶고 저리 볶고 콩 볶어 대니
우리 시어머니 얌체 없네 정말 얌체 없네

※ 창자는 서천에서 태어나 대흥면 교촌리로 시집을 왔다. 교촌에서 살다가 아들을 대동샘에 잃고 집터가 안좋다 하여 탄방리로 이사를 가서 지금껏 살고 있다. 옆에서 쉬고 있는 두 아주머니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다가 전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를 한 뒤에 조사자의 청에 따라 이 노래를 불렀음. (이상 예산군지)

※ 이 노래는 예산 고유의 민요가 아니라 충청 일원에서 널리 불린 시집살이노래다. 노랫말이 길지 않고 1,2절이 분명하며 가락이 단조로워 각 지역에서 채록되는 노랫말이 모두 같은 특징을 보인다.

신암면 신택리 청혼가(請婚歌)

- 창자 : 나신환(생년 미상. 남. 예산군신암면신택리1구)　- 기록 :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6권 충청남도편)

앞집이라 얼순이는 인물 잘 난 탓이든지
양반이라 그러한지 열 살부터 오는 중매
오늘까지 오것 마는 이내나는어이하여
반 사십이다 되어도 중매 할 미 전혀없노
보살 할미 보통 장사 성기 장사 바디 장사
쌀을 주고 밥을 줘도 이내 중매 아니 하니
할 일 없고 할 일 없다 사랑방에 손님와서

아버지와 같이 앉어 편지 놓고 읽을 적에
행여나 중매(중신아비) 신가 아이 불러 물어 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방안으로 들어 가서
면경 체경을 둘러 놓고 나의 모양 살펴보니
나이사 많건 만은 인물 풍채 아깝도다
연지분도 있건 만은 쓸데없고 쓸데없다
우리 부모 날 길러서 장아 쓸가 구어 쓸가
처녀 이십 나이 적소 앞집이라 공순이는
열일곱에 시집간다 뒷집 머슴 김동이도
내사 좋아 내사 좋아 양반 신랑 내사 싫소
부자 신랑 내사 싫소 인물 풍채 마땅켜든
하로 바삐 정해 주소

※ 이 소리는 한국민속종합보고서와 한국민족음악대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산의 소리다. 안타까운 것은 음원이나 악보가 없어 현재로는 노랫말만 전하는 것이다. 노랫말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조 말엽에 만들어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외의 고장에서는 아직 채록되지 않았다.

※ 이 소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노랫말의 배경과 주제다. 앞에서 누차 기록한 대로 예산의 민요는 노랫말도 젊잖고 노래를 부르는 흥도 차분하다. 그런데 이 노래는 노처녀가 시집못가는 것을 한탄하는 노래라는 점에서 예산의 정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기표현 또한 과감해서 거울(면경 체경)으로 내 모습을 살펴보니 나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물 풍태가 아깝다고 노래하고 있다. '뒷집 머슴도 좋다. 양반 부자 남편감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인물과 풍태는 좋은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예산의 정서로는 생경한 것이다.
타 지역에 없는 소중한 소리로 널리 조사하여 음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원곡을 찾아 복원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소리꾼이 재창조해서라도 다시 불리기를 소망하는 노래다.

방아타령 1

- 창자 : 이종원(1923년 생. 덕산면 옥계리)　　- 기록 : 본 도서(2016년 9월 채록)

에따 디여 좋구나
사람은 죽어 화초나 되고
목동 여기가 화천이로구나

에하 놀아라

에 놀아라 드냐

잡은 손 놓아라 손목이 끊어져서

나는 못 노느니로 구나 (못 놓으리로다.)

※ 생존 최고령의 창자가 기분이 좋아 하던 소리로 예산에서는 드물게 사랑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방아타령의 받는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안타까웠다. 이 노래의 받는 소리는 예산지역에서 널리 불린 '에헤에 우겨라 방아로구나.'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아타령 2

- 창자 : 노성환(1923년 생. 대흥면 상중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7월 채록)

노들강변 비둘기 한 쌍

푸른 콩 한쌍을 물어다 놓고

암놈은 물어서 숫놈을 주고

수놈은 물어서 암놈을 주니

기룩기룩 소리에 늙은 과부는 한숨을 쉬고

젊은 과부는 밤봇짐 싼다

에헤에 우겨라 방아로구나

※ 예산에서는 유일하게 판소리와 단가 몇 소절을 부른 기록을 남긴 노성환이 부른 노래로 노랫말은 난봉재류에 속한다. 앞의 이중원의 방아타령 1과 노성환의 방아타령 2는 내용이 유사하고 유희성이 강하나, 타 고장에서 부르는 방아타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예산에서 난봉재의 방아타령이 많이 불렀던 것으로 추론하게끔 하는 근거가 된다.

방아노래 3

- 창자 : 장기순(1919년 생. 삽교읍 신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덜그덩 덜그덩 찧는 이 방아요

이 방아 원제 다 찧고 밤 마실 가나

※ 이 소리는 단 한 소절에 불과하지만 예산지역의 부녀자라면 누구나 부를 줄 아는 방아타령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타고장에서 부르는 이 노래의 노랫말은 '쿵더쿵 쿵더쿵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밤 마실 가나.'이다.

상례소리

(상여행상소리. 달구소리)

예산지역의 상례소리로 채록 정리 된 것은 상여소리와 달고소리가 있다. 상여소리는 '행상소리', '상여 행상소리', '요령소리' 등으로 불리며, 달고소리는 '달구질소리', '달공고리', '묘터다지는소리' 등으로 불린다. 현재의 상여소리는 긴 소리와 잦은 소리 2종이 보인다. 징검다리 건널 때나 외나무다리 건널 때는 긴 소리를 담여꾼들이 발자국을 빨리 뛸 속도로 불렀다하며, 특별히 그 작업에만 사용하는 노래는 없었다한다.

예산 행상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받는 소리의 통일성이다. 공주, 대전, 논산, 금산 등의 타 고장에서는 한 고장에서도 5~10종의 다른 후렴이 혼재해 있는 형태이며 지금도 여러 받는 소리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산에서는 "어화", "에헤", "어허－", "에허－"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에헤허하 에(어)헤이 어하" 흘림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 몇 개 마을에서 "너구리 넘차" 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노랫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⑴ 발인소리

처음 상여가 집에서 발인을 시작하는 소리를 이르며 일부 마을에서 상여 선소리 노랫말에 '어느 마을 성씨의 본관과 성명'을 넣어 발인을 알리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⑵ 긴 소리

상가에서 마을 어귀 동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까지 행하는 상여 행상소리의 기본 소리다. 노랫말은 대부분 '문서있는 소리'라 하여 '회심곡'의 노랫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색을 갖는다. 가락은 4마디 긴소리를 사용한다. 요령소리는 각 박의 머릿박에 흔들어 소리를 낸다. 상가와 장지가 가까우면 긴소리를 많이 하고 멀면 잦은 소리를 많이 하여 행상의 시간을 조절한다.

⑶ 잦은 소리

상여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노래 가락을 빠르게 하여 행상의 속도를 높일 때 부른다. 가락은 2마디 잦은 가락을 사용하며 요령은 한 박에 두 번을 울려 담여꾼들의 행상을 서둘게 한다. 후렴 역시 2가락으로 "에헤 에헤"가 가장 많다.

⑷ 담여꾼 지휘하는 소리

담여꾼들의 행동을 선소리꾼의 선소리로 지휘하는 노랫말들을 이른다. 예를 들어 느리게 행진하던 상여를 빨리 가야할 경우나 빠르게 가던 상여를 천천히 가게 할 때, 거리제를 위해 쉬어 갈 때 등 상여 담여꾼들이 이를 알게 하는 노랫말들이며 소리에 앞서 요령 소리를 1회 먼저 조절하여 담여꾼들이 모두 알고 통일된 행동을 하게 한다. 예산의 모든 마을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는 이 소리는 예산군지 광시면 미사리 상여 소리 1개만 정리되어 있다.

⑸ 상제 위로하는 소리

대부분 무덤 터에 가까이 갔을 때 슬퍼하는 상제들을 위로하는 소리다. 또한 악상이라 하여 상제가 어린 집에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상제가 몸이 상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도 한다. '불로초 찾던 진시황제도 죽었고 돈 많은 갑부도 죽는 것이며 병고치는 의사나 귀신을 부리는 무당도 끝내는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주를 이룬다.

⑹ 노자 소리

호상에서 담여꾼들이 상주 또는 가족에게 사망자가 저승에 가기 위해 필요한 노자를 명분으로 돈을 얻어 내려고 행하는 노래다. 상여가 시냇물을 건너든지 좁은 길을 만나는 따위의 어려운 행상 구간에서 진행을 멈추고 하는 노래로 '저승길을 가야하는데 노자가 없어서 못가겠다'한다. 이 경우 상제들은 물론 사위 조카 등을 노랫말로 호명하여 불러내기도 하는데 이들은 봉투를 들고 나와 상여 줄에 걸고 상여를 향해 두 번 절을 한다. 노랫말이 마을마다 다르고 해학적인 노랫말을 담기도 한다.

⑺ 힘쓰는 소리

행상 길에서 경사가 매우 심한 길을 만나면 상여의 선소리와 받는 소리 모두를 바꾼다. “영차”, “어여챠”, “헤이야” 등의 소리만으로 언덕으로 오른다. 모든 마을에 있었다.

⑻ 점상소리

상여가 무덤에 당도하였을 때 행상을 끝낼 때 하는 소리로 ‘정상소리’라 하기도 한다. 상여 소리 중 가장 느린 가락으로 상여의 도착을 알리고 끝을 내는데 행상 과정이 매우 힘겨운 경우 생략하기도 한다.

이상의 소리들은 마을이나 상여꾼들이 분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소리가 아니다. 발인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상여가 쉴 때까지 계속 이어지며 노래를 하는 순서는 마을 어귀의 긴 소리까지는 같은 소리를 하지만 행상의 거리, 호상과 악상의 차이, 계절 등에 따라 선소리꾼이 상황에 맞게 진행한다. 상례소리는 각 종의 축문 읽는 소리를 포함하기도 하나 금번의 조사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상여 소리 노랫말

덕산면 시량리 상여소리

- 창자 : 인종명(1939년 생. 남. 덕산면 시량리) - 기록 : 본도서(2015년 채록분)

에헤허하 에(어)헤이 어하	에헤허하 에(어)헤이 어하
가요가유 나는 가유 이 세상을 하직하고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인제 어제 성턴 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섬섬하구 약한 몸이 태산 같은 병이드니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은 냉수로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인삼 녹용 약을 쓴들 약덕인들 입을 소냐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무당불러 굿을 한들 굿덕인들 입을 소냐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제미 쌀 쓸고 쓸어 명산대천 찾어가서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상탕에는 머리감고 중탕이는 수족 씻고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장안향로 불 갖추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하나님께 빌고 빌어 칠성님께 기도하니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어느 부처님이 감동하야 이내 일신 살필 소냐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에고 답답 서룬지고 이내 일신어이할고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북망산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북망이라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신사당에 하례하고 적삼 벗어 초혼하니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애고애고애고에고 없던 곡성이 절로 나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말보고 웃지를 마소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그 이가 본래 청춘이며 낸 들 본래 백발인가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어허어허어하 에에이이 어하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구름 같이 검든 머리는 희듯희듯이 세어 가고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왼달 같이 고운 얼굴 구름처럼 흘러가니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학시 같이 희던 이는 염치 없이두 빠졌으니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어허어허어하 에에이이 어하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불상하구 가련하다 이내 일신 불쌍하니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하늘에 선녀는 구름을 타구 물 위에 용왕은 거북을 탓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오늘의 맹인은 꽃상여를 타구 북망산으루 들어를 가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서럽를 마라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명년 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언제 또다시 돌아를 오랴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꽃이라도 낙화되면 오던 나빈 아니 오고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남귀(나무)라도 고목이되면 눈먼 새도 아니 오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비단 옷도 떨어지면 물걸레로 돌아가고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좋은 음시 쉬어지면 수채구녕을 찾어 가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우리인생 죽어지면 북망산천을 찾어 가네 에헤허하 에헤이 어하

[잦은 소리]
어허이 어하 어허이 어하
가자가자 바삐가자 어허이 어하
이제가면 언제오나 어허이 어하
상주님네 들어 보소 어허이 어하
어허이 어하 어허이 어하

[연습 소리]
불쌍하구두 가련하다 이 세상을 하구
신사당에 하직하고 적삼내어 조혼하니
어서가자 바삐 가자 갈 길이 천리로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구 서럽를 마라
너는 다시 피려니와 다시 오기 어려워라
친구들이 많다해도 어느 친구 동행하며
일가친척이 많다해두 어느 일가 동행할까
불상하구두 가련해라 황천길이 웬말이요
간다간다 나는 가요 너를 두구 나는 가네
내가 가면 아주를 가나 아주 간들 잊을 손가

※ 덕산면 시량리 인종명의 창으로 채록된 이 상여행상소리는 회심곡을 주된 노랫말로 사용하는 타 상여소리와 달리 민요재의 노랫말과 회심곡의 노랫말을 혼용하여 상여행상 과정의 진행과 잘 어울리는 상여 소리다. 인종명은 보부상 난장놀이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향토 소리꾼이다.

※ 상여소리 연습곡은, 일상에서 상여 소리를 하면서 선소리만 모아 노래를 하는 것을 이른다. 충남 일원에서는 마을의 노인들이 초상이 난다하여 상여소리 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 하여 이를 익히려는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며 이런 유형은 공주, 당진 아산 등지에서 모두 보인다. 연습곡이라 하지 않고 '상여소리연습소리'라 한다.

대술면 화천리 상여소리

- 선창 : 이덕호(생년미상, 남)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받는 소리] 어–홍 어–하 어–홍 어–하

천석 만석을 높이 싸 놓고	어–홍 어–하
네 얼굴이 천하 일색이라도	어–홍 어–하
내 몸 하나 병들어 지면	어–홍 어–하
백사 만사가 허사로다	어–홍 어–하
북망산천이 멀다드니	어–홍 어–하
앞산이 바로 북망일세	어–홍 어–하
명사십리 해당화야	어–홍 어–하
꽃진다고 설워마라	어–홍 어–하
다시 그 꽃 피건만은	어–홍 어–하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어–홍 어–하
다시 오지 못하노라	어–홍 어–하
인제 가면 언제 올라는가	어–홍 어–하
오실 날이나 일러주게	어–홍 어–하
금강산 높은 산이	어–홍 어–하
평지되면 오시련가	어–홍 어–하
조선 팔도 넓은 바다	어–홍 어–하
평야되면 오시련가	어–홍 어–하

조두각鳥頭角하고 마두각馬頭角하면오시련가

석상에 걸린 준주	어–홍 어–하
싹이나면 오시련가	어–홍 어–하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어–홍 어–하
다시 오면 오시련가	어–홍 어–하
오실 날이나 일러주오	어–홍 어–하
세월아 가지 마라	어–홍 어–하
아까운 청춘 다 늙는다	어–홍 어–하
세월아 가지 마라	어–홍 어–하
불쌍한 백발이 다 늙는다	어–홍 어–하
이팔 청춘 소년들아	어–홍 어–하
백발보고 웃지 마라	어–홍 어–하

※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이덕호가 1998년에 부른 것을 채록한 소리다. 회심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른바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노랫말들과 '인제가면 언제오냐'조로 구성되어 있다. 받는 소리는 발음소리를 그대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선창자가 앞소리와 뒷소리를 생략한 소리다.

오가면 좌방리 상여소리

- 선창 : 김영상(1939년 생. 남. 보부상놀이 보존회 회원)　- 기록 : 본 도서

[긴 소리]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이제가면 언제다시 가던길을 되돌아 오냐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잘덜있어요 안녕히들 계셔요 동네사람 여러분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잘있거라 잘살어라 네 귀여운 처자식들아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잘모셔요 잘모셔요 열두군사 발인군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인간칠십 고레하라 없던망령 절로 나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망령이라 흉을 보고 구석 구석이 웃는 모냥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이팔 청춘 소년들아 너가 본래 청춘이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넨들 본래 백발이냐 백발하여서 서러운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청춘들은 나를 보고 삐쭉삐쭉 비웃는 모습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애달프고 서러워라 구름같이 검던 머리는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희뜩희뜩 새어가고 왼달 같이 곱던 얼굴에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주름살이 늘어나고 박씨같이 희든이는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염채없이 빠졌으니 그건만도 서러운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귀까지 철벽되니 이 아니 서러우랴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꽃이 라도 낙화가 되면 오던나비는 아니오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낭커라도 고목이 되니 눈먼새도 아니오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비단옷도 떨어지니 물걸레로 돌아가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좋은 음식 시어지니 수채구럭을 찾어가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우리 인생 죽어지는 북망산천 찾어가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어제오늘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섭섭하고 약한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은 냉수로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인삼 녹용약을 쓴들 약덕인들 있을 쏘냐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무당불러 굿을 헌들 굿덕인들 있을 써냐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제미쌀 쓸고 쓸어 명산대찰 찾어가서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상탕에는 머리감고 중탕에는 목욕하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하탕에는 수족씻고 향합 향로불 갖쳐 놓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촛대 한쌍을 키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칠성님께 빌고빌며 부처님께 발원한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어느 부처님이 감동하여 이내일신 살필 손가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애고 답답 설흔지고 이를어이 하잔말야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구사당에 허배하고 신사당에 하직을 하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적삼버섯 초혼하니 없던 곡성 절로 난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우리 인생 한번가면 다시 오기는 어려워라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일즉사자 월즉사자 한손에는 창검들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또 한 손에는 쇠사슬을 비켜 차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활등같이 굽은길을 살때같이 달려와서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닫은 문을 박차면서 성명삼자 불러내니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애고답답 나죽것네 네 분부라 거역하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네령이라 머물쏘냐 일가친척 만타헌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어느 누가 대신가며 동네 친구 만타헌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어느 누가 동행을 하랴. 실낫 같은 이 내 목숨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팔뚝 같은 쇠사슬로 한번 잡아 끌어내니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혼비백산 나 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요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이내 한말 들어보소 배고프니 점심이나 먹고 가십시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신발이나 고쳐 신고 노자 돈 좀 가지고 가요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만단개유 애걸헌들 어느 사자가 들을 쏜가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일측사자 월측사자 들은 체도아니하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쇠망치로 등을 치며 어서 가자 바삐가자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애고 답답 설흔지고 이를 어이 하잔말여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하늘에 선녀는 구름을 타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바다에 용왕은 거북을 타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오늘에 맹인은 꽃상여를 탔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잦은 소리]

북망산천 들어갈 때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높은데는 낮어지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낮은 데는 높어 진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가시덤풀 헤쳐가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가도가도 끝이없는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심산없는 길이로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이렁저렁 여러날에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저승 온문 다들으니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우둔나찰 좌두나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나찰들이 달려들어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인정달라 하는구나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인정쓸돈 한푼없어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적삼벗어 인정쓰며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당도했네 당도했어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염라국에 당도를 했네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황토(톡)으로 집을 짓고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떼짱 이불을 덮어주니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편히쉬소 편히쉬소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고이 고이잠드소서	어하이 어하 에헤이 어하

※ 이걸재 채록분으로 현재 보부상난장놀이 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상의 창이다. 노랫말의 구성은 처음 일반적인 예산지역의 상여 발인소리와 같은 유형으로 진행된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류의 이별의 노랫말은 '이제가면 언제 오나'같은 이별의 허망함을 노래하고, '백발보고 웃지마라' 후에 약간의 변형이 있는 회심곡의 노랫말로 전개되며, 고인의 편안한 죽음으로 기원하는 말로 막음을 한다. 노랫말의 내용에 전개가 매끄럽고 격식을 갖추고 있어 예산 사람들의 표현으로 '문서에 있는'소리만으로 구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리다.

봉산면 봉림리 상여 소리

- 창자 : 이용구(봉산면 봉림리)　- 기록 : 본 도서

(회심곡 조 부른 후에 노자 소리)

어허이 어하 어허이 어하

저룹다리 놀적이는 공사 한번 살어 보고	어허이 어하
저룹다리 풀어져서 자손 한번 울게 하고	어허이 어하
이제 한번 다시 왔네 다시한번 대추 먹고	어허이 어하
다시한번 저승 갈 때 노자 한 푼이 없어 놔서	어허이 어하
다시한번 왔다 가네 노자 받어 가시려네	어허이 어하
노자 한 푼 받어 가지구 인저 한번 올러 가면	어허이 어하
저승 한 번 잘 갈텐디 노자 한번 주어 보소	어허이 어하
저승길을 올러 갈 때 잘가라고 인사하고	어허이 어하
잘 갈 테니 잘있거라 인사하네	어허이 어하
인저 한번 잘 가려니 인제가면 언제 오나	어허이 어하
저승으로 오라가니 노자한번 잘 받어서	어허이 어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내가 간다.	어허이 어하

이르키 하믄서 노자돈 받는겨. 이래두 안나오믄 작은아들 큰아들 찾구 사위 손자 찾구 하능기지.

※ 이 상여 소리는 본 도서 발간을 위해 편집 팀에서 채록한 소리다. 노랫말에서 이른바 '문서 있는 소리'는 창자의 뜻으로 생략하고, 봉림리에서 담여를 할 때 노자 얻는 부분만을 불렀다. 서민적인 단순한 정서의 노랫말이 이채롭다.

신양면 신양리 상여 소리

- 창자 : 이기선(1944년 생. 남. 신양면 신양2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채록 분)

어 허어어 허어하 어허이 허어하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어허 소리 끝나거든 슬금슬금 가봅시다.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간다간다 떠나간다 고향산천 다버리고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일가친척 다버리고 북망산천 찾어가요.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일가친척두 잘있구요 동네친구도 잘있구요.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저승길이 멀다더니 문전밖이 저승이요.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이제가면 언제오나 오실날이나 일러주오.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꽃이피며는 오시려나 잎이지며는 오시려나.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가마솥이 삶은개가 컹컹짖으면 오시려나.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가는 세월 오는 백발 그 누구가 막을소냐.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인간칠십 고래희요 무정세월 자주와요.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어 허어허 허허 어허이 허허아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핀다고 자랑 마라.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꽃이 피었다 한 번 지면 명년 춘삼월 다시 피고,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인생 한 번은 죽어지면 영결종천 그만이요.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빈 손 들고 태어나서 빈 손으로 가는 인생	어 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어허이 어하 어허이 어하

이렇기 잦은 가락으루 가면서 내려놔유

※ 신양면에서 태어나 지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창자는 달구소리나 집터다지는소리, 상여소리는 모두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이고, 워낙 들어왔던 것이라 한다. (이상 예산군지)

※ 이 소리는 짧은 노랫말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역에서 노래하는 유명한 부분은 모두 조금씩 들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소리꾼으로 활동하기보다 상가 장례에 참여하여 들은 행상소리 중 기억에 남은 노랫말로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광시면 마사리 상여소리

- 창자 : 임세창(1940년 생. 남. 광시면 마사리 412번지)　- 기록 : 예산 군지(1999년 7월 2일 채록 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가자가자 떠나가자 박씨 문중을 떠나가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상주님이 지은 집에 아버지두 잘 살었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마지막에 떠나는 놈 인사 한 번 하구나 가세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앞구잡이는 우측으루 돌구 뒷구잡이는 죄측으루 돌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간다 간다 떠나간다 박씨 문중을 떠나를 간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린 상제는 슬피두 운다 우리님덜을 소리를 열심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번이는 마지막이니 실컨들 울어나 보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명사십리 해당화야 백발 보구서 웃지를 마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초로草露같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은 그만일세.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발 맞춰라 발 맞춰라 여덟군사 발 맞춰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제가믄 언제나 온다니 영원히 황천길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밟은 길을 빨리오니 숨이 차서 못 가겠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 앞에가 다리니까 넓은 곳에서 편히 쉬어가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사위 사람은 어디를 갔나 앞에 와서 인사를 드려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큰 상주도 이리 오구 상주덜은 다 오너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가는 길이 멀고나 멀으니 한 족장을 더밟으세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언덕길을 오를 때 빨라지면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빠른 걸음 발 맞추어 흔들림없이 따라오너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곳부터는 넓은 데로 마음놓구 걸어 보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평지에서 천천히]
가는 길은 다왔으니 이제 쉬엄쉬엄 가봅시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발 맞춰라 발 맞춰라 언덕길이 발 맞춰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뒤에서는 밀어를 주고 앞에서는 끌어를 주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대흥산이 이리 험한가 숨이 차서 어려우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릴 적에 민둥산이 지금은 첩첩산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다 왔구나 다 왔구나 안정 길에 다 왔구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우에 사람 연초 질르고 밑에서는 받들어 주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금못 보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보살성문 스님네께 귀성귀의 하옵나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자비하신 혼력으로 굽어살펴 주옵소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참된 성품 등짐허구 무명 속에 뛰어들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술이 물이 들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심술궂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보고 듣고 맛 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해 해내면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른길만 찾아다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 세상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삼보전에 원력을 드려 일심참회 하옵나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시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고통 바다 헤어나서 열반 언덕 가사이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 세상에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바른 인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 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삼재팔란 만나잖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반야지혜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견고하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육바라일 행을 닦아 아승지겁 뛰어 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겁만겁 의심 끊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마군중을 항복받도 삼보를 뵈아올 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쉬오리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 하옵거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제 다니면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보현보살 행언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세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여러 가지 몸을 나눠 비묘법문 연설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지옥아귀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이는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검수도산 날선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로 왕생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갖은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모진 질병 들 적에는 약풀되어 치료를 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흉년들은 세상에는 살이 되어 구제를 하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 가진들 빼오리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천금만금 내려오든 원수거나 친한 이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세상 친속들은 누구누구 할 것도 없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 하사이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허공 끝에 인사헌들 이내 소원을 다하리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뤄지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뒷부분은 평지에 갈 때 부르는데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에서 뽑아 불렀다고 한다)

※ 창자는 광시면 마사리에서 태어나 젊어서는 서울 영등포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책장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42살 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1남 1녀를 두었으며 취미가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마사리에 초상이 났다는 제보를 듣고 상주와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갔다. 마침 출상을 하려던 참이어서 요령을 잡은 구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꽂아 실제 상황에서 녹음을 하였다. 그러나 녹음기 오작동으로 인해 도중에 녹음이 끊겨 다시 찾아가 소리를 청해 들었다. 함께 후렴을 부른 보조자 같은 마을의 252번지 박성욱과 같은 마을 32번지의 이준원이다. (이상 예산군지)

※ 광시면 마사리의 상여 행상 소리는 노랫말의 구성이 다음과 같다.

1) 발인 소리 : 상여가 집을 출발하면서 근본을 밝히는 소리

2) 상제 위로하는 소리 : 죽음으로 이별하는 상제를 위로하는 소리
3) 노자 소리 : 담여꾼들이 상제들에게 노자로 돈을 원하는 소리
4) 언덕 오르는 빠른 소리 : 상여꾼들이 비탈길을 오르는 담여를 쉽도록 빨리 부르는 소리
5) 평지 소리 : 보통의 속도로 노래하는 소리로 불가 요소가 강한 소리가 중심을 이룸

이 노랫말의 구성으로 보아 언덕을 오르는 소리까지는 광시면 마사리의 전통소리로 보이며, 평지 소리 대부분은 예산군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산 혜연이라는 선사의 발원문으로 불교적 색을 띄는 교훈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불교 산문인 회심곡이 상여소리의 주된 선소리로 불리는 것과 같은 범주에서 형성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향토 민요이기도 한 상여소리가 어떤 정서로 만들어지고 불렸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소리다.

상여소리 – 회심곡

- 창자 : 임세창(1940년 생. 남. 광시면 마사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채록)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 밖에 또 있는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여보시요 주인님네 이내 말씀을 들어 보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머님 전 살을 빌며 칠성님전 명을 빌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석님 전 복을 빌어 이내 일신 탄생을 하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한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은덕을 알을 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 다 못 갚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이없고 애氣고나 무정세월 여류하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든 망령도 절로나 난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망령이라 흉을 보고 구석구석 웃는 모양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애기고도 설온지고 절통하고 분통하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홍안백발 늙어가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인간에 이 공도를 누가 능히 막을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우리네 한 번 가면 다시 젊지 못하리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인간백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걱정근심 다 제하면 단 사십도 못살 인생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오늘 어제 성튼 몸이 저녁나절에 병이들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섬심약질 가는 몸에 태산같은 병이들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은 냉수로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임삼녹용 약을 쓰나 약 효험이 있을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판수 불러 경읽은들 경 덕인들 입을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무녀불러 굿을 하나 굿 덕인들 있을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재미살을 쓰고 쓸어 명산대천에 찾어가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상탕에 메를 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하탕에 수족 씻고 촉대한쌍을 버려놓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향로향합 불같추고 소지 한 장 든 연후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전 비나이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 전 공양한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느성현 알음이 있어 감응이나 할까보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오전에 염라나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구전에 도시나대왕 제집전에 전륜대왕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열시왕의 부린 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한손에는 철봉 들고 또 한손에는 창검 들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쇠사슬을 벗겨차고 활등같이 굽을 길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살대같이나 달려와서 닫은 문을 박차면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뇌성같이도 소리하고 성명 삼자 불러내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뉘 분부라 거역하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뉘 영이라 지체할까 실날같은 이내 목숨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팔둑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내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노자나 갖고 가게 만단 계유 애걸한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느 사자가 들을손가 애고 답답 설운지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만단 계유 애걸을 한들 어느 사자가 들을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애고 답답 설온지고 이를 어이 하잔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불쌍하다 이내 일신 인간하직 망극하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명사십리에 해당화야 꽃 진다구서 설워 마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명년삼월 봄이나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북망산 돌아갈세 어찌 갈고 심산험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한정 없는 이 길이로다 언제 다시 돌아오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 세상을 하직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설화를 다 못하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정신 차려서 살펴보니 약탕관은 버려놓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 목숨을 살릴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옛늙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고 하드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오늘 내게 당하여선 대문 밖이 저승이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친구나 벗님이 많다한들 어느 누가 동행할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구사당에 하직을 하고 신사당에 예배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대문 밖을 썩 나서니 적삼내여 손에 들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혼백 불러 초혼하니 없든 곡성이 낭자하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일직사자 손을 끌고 월직사자 등을 밀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풍우같이 재촉하여 천방지방 몰아갈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진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악의악식 모든 재산 먹고 가며 쓰고 가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사자님아 사자님아 내 말 잠깐 들어주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시장하데 점심하고 신발이나 고쳐 신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쉬여 가자 애걸한들 들은 체도 아니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쇠뭉치로 등을 치며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이렁저렁 여러 날에 저승 원문 다달으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우두나찰 마두나찰 소리치며 달려들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인정 달라 비는구나 인정쓸 돈 반 푼 없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단배 곯고 모든 재산 인정 한 품 써볼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저생으로 옮겨 볼까 환전부처 가져올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의복 벗어 인정쓰며 열두 대문 들어가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무섭기도 끝이 없고 두렵기도 측량 없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대명하고 기다리니 옥사장이 분부 듣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남녀죄인 등대할 제 정신차려 살펴보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열시왕이 좌개하고 최판관이 문서잡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전후좌우 벌려서서 기치창검 삼열한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형벌기구 차려놓고 대상호령 기다리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엄숙하기 측량 없다 남자죄인 잡아들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형벌하면서 묻는 말이 이놈들아 들어 보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선심하야 발원하고 인세간에 나아가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무슨 선심 하였는가 바른 대로 아뢰여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용방비간 본을 받아 임금에게 극간하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가범을 세웠으며 배고픈 이 밥을 주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아사구제 하였는가 헐벗은 이 옷을 주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구란공덕 하였는가 좋은 곳에 집을 지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행인공덕 하였는가 높은 산에 불당 지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중생공덕 하였는가 좋은 밭에 원두 심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행인해갈 하였는가
어진 사람 모해하고 불의행사 많이 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탐재함이 극심하니 너의 죄목 어찌하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죄악이 심중하니 풍도옥에 가두리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착한 사람 불러들여 위로하고 대접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못쓸 놈들 구경하라 이 사람은 선심으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극락세계 가올지니 이 아니 좋을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소원대로 물을 적에 내 원대로 하여주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극락으로 가려느냐 연화대로 가려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선경으로 가려드나 장생불사하려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서왕모의 사환되어 반도소임 하려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네 소원을 아뢰어라 옥제에게 부품하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남중절색 되어나서 요지연에 가려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백만군중 도독되어 장수 몸이 되겠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서 바삐 아뢰어라 옥제단에 주문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석가여래 아미타불 제도하게 이문하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산신 불러 의논하며 어서 바삐 시행하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저런 사람 선심으로 귀히 되어 가나이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대웅전에 초대하야 다과올려 대접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몹쓸 놈들 잡아내어 착한 사람 구경하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너희 놈은 죄 중하니 풍도옥에 가두리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남자 죄인 처결한 후 여자죄인 잡아들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어명국문 하는 말이 너의 죄목을 들어봐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효도 하였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동생 항렬 우애하며 친척 화목 하였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괴악하고 간특한 년 부모말씀 거역하고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동생 간에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게 하며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세상간악 다부리며 열두 시로 마음 변화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못듣데 욕을 하고 마주앉아 웃음 낙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군말하고 성내는 년 남에 말을 일삼는 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시기하기 좋아한 년 풍도옥에 가두리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죄목을 물은 후에 온갖 형벌 하는구나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죄지경중 가리어서 차례대로 처결할 제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도산 지옥, 화산 지옥, 한빙 지옥, 검수 지옥,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발설 지옥, 독사 지옥, 아침 지옥, 거해지옥,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각처 지옥 분부하야 모든 죄인 처결을 한 후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대연을 배설한 후 착한 여자 불러들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공경하며 하는 말이 소원대로 다 일러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선녀되어 가려느냐 요지연에 가려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남자되어 가려느냐 재상부인 되려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제실황후 되려느냐 제후왕비 되려느냐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부귀공명 하려느냐 네 원 대로 하여 주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소원 대로 다 일러라 선녀 불러 분부하야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극락으로 가게하니 그 아니 좋을손가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선심하고 마음 닦아 불의행사 하지마소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회심곡을 업신여겨 성심공덕 아니 하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우마 형상 못 면하고 구렁 배암 못 면하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조심하여서 수신하라 수신제가 능히 하면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치국안민 하오리니 아무쪼록 힘을 쓰오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적덕을 아니하면 신후사身後事가 참혹하니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바라나니 우리 형제 자선사업 많이 하여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내생來生 길을 잘 닦아서 극락으로 나아가세 어 허어 어 에헤이 어어하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 임세창의 회심곡 채록은 같은 마을 박씨 댁 장례 후 별도로 만나 개울가 그늘에서 녹음한 것이다. 조사자가 임씨에게 오전에 상여를 메고 갈 때 다 못한 상여소리를 들려 달라고 하자, 길이 평탄하고 시간이 넉넉할 때에는 회심곡을 부르기도 한다고 하면서 상여소리 가락에 맞춰 회심곡을 부른 것을 채록한 것이다. (이상 예산군지)

※ 임세창이 상여행상소리를 불러달라는 요구에 회심곡을 들려 준 것은 예산의 행상소리꾼(예산에서는 '요령잽이'라 칭하기도 함)들이 상여행상소리의 기본으로 회심곡의 노랫말을 현장 상황과 선소리꾼의 역량에 따라 즉흥적인 변화를 주어 사용한 정서를 표현한 말이다. 특히 행상소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심곡의 '인간 백년을 다 살아도'부분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 마라'부분으로 시작하였을 만큼 기본이 되는 소리다. 행상시간이 길던 전통 사회의 행상 문화로 인하여 노랫말의 대부분은 향토 민요의 여러 부분들과 상여꾼을 지휘하는 소리들, 사망자의 일생을 기려 즉흥적으로 만들어 부르는 노래들 등 여러 종류로 이루어 졌다. 이런 영향으로 선소리꾼들은 소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평를 신경 쓰게 되는데, 회심곡의 노랫말을 사용하면 최소한 상여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요령을 잡는 다는 악평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예산지역의 정서였다. 이런 이유에서 본 도서에서도 회심곡을 상례소리에 편집한다.

고덕면 호음리 상여소리

- 창자 : 전봉남(1933년 생. 남. 고덕면 호음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채록)

어허 어어하 어허이 어어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어하
황천길이 멀다더니 어허 어어하
대문밖이가 황천일세 어허 어어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허 어어하
이제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어하
명사십리 해당화야 어허 어어하
꽃진다고 설워마라 어허 어어하
이세상에 나올적에 어허 어어하
부모님전 살을 빌고 어허 어어하
칠성님전 명을 빌고 어허 어어하

제석님전 복을 빌어 어허 어어하
이세상에 태어날제 어허 어어하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허 어어하
어머님전 살을 빌어 어허 어어하
이세상에 태어나서 어허 어어하
한두 살에 철을 몰라 어허 어어하

이런식으로 하지요

※ 전봉남은 고덕면에서 태어나 자랐고, 젊어서는 안면도에 가서 일을 했다. 신학을 하려다가 도중에 그만 두었다고 한다. 노래는 형들이 사랑방에 모여 부르던 것을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것이라 하였다. 아버님이 두레 풍물패의 상쇠로 꽹과리를 치셨는데 지금도 그때의 악기가 집에 보관되어 있다. 소리를 잘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잔치집에만 가면 장구를 잡고 노래를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다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잔치를 하기 때문에 민요를 부를 여건이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였다. 민요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더니 여러 노래를 한 자리에서 불러주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마이크 때문에 더 잘 못 부르겠다고 하였다. 주로 경기소리 중심의 유희요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노동요는 불러 보질 못해서 못 부른다고 한다. 유행가 1800곡 알아 사흘을 계속해도 다른 곡을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못한다. 그전에 종일 노래해도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 목소리가 곱게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이상 예산군지)

※ 전봉남의 상여행상소리는 전형적으로 회심곡을 상 행상소리의 선소리로 인용하는 사례이며, 노랫말의 변형도 적다. 이는 전통사회 고덕면 호음리의 상여행상소리가 회심곡을 기본으로 불렀음을 의미한다.

봉산면 봉림리 달고 소리

- 창자 : 이용구(1940년 생. 남. 봉산면 봉림리)　- 기록 : 본 도서(2016년 9월 채록)

에 헤라 달고 에 헤라 달고
밝아 봅시다 밝아 봅시다. 에 헤라 달고
콩콩콩콩 밝아 봅시다. 에 헤라 달고
지름나게 밝아 봅시다. 에 헤라 달고
열두 군사 모두 들어 에 헤라 달고
지근지근 밟아가니 에 헤라 달고

달고 지팽이 잘모셔라	에 헤라 달고
달고 지팽이 봉투 웂네	에 헤라 달고
달구 지팽이 봉투 웂써	에 헤라 달고
큰사위는 와보세요	에 헤라 달고
조카들 한번 와보구요	에 헤라 달고
달고 한번 잘하신다	에 헤라 달고
에헤라 달고	에 헤라 달고

※ 봉림리 이용구는 봉림리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봉림리에 살고 있으며 30세경부터 소리를 좋아하여 소리를 익혀 부르기 시작했다. 이 달고소리는 같은 마을 남춘희가 부르는 소리를 배워 부른 노래라고 한다. 봉림리에 머슴을 살면서 소리를 하던 남춘희는 청이 좋은 사람으로 많은 소리를 불렀으나 이를 배워 이은 사람이 없어 현재는 몇 수의 상여행상소리와 본 달고소리만 전한다. 노랫말을 살필 때 여러 소리 중 달고를 하면서 장제들에게 달고술과 돈을 청하는 소리로 앞, 뒤가 생략된 일부 소리이다.

신양면 신양리 달구소리

- 창자 : 이기선(1944년 생. 남. 신양면 신양리 1구 99)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채록)

(산 집이나 죽은 집이나 비슷해요.)

어 쉬이 –

천하 명산을 더듬어 봅시다.	어허루 달구
천지조종天之祖宗 곤륜산이요.	어허루 달구
수지조종水之祖宗은 황해수라.	어허루 달구
곤륜산 낙맥落脈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어이갔나 간 곳 없더니	어허루 달구
함경도 내려와 백두산 생겼소.	어허루 달구
백두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어이 갔나 간 곳 없더니	어허루 달구
황해도 내려와 구월산 생기고	어허루 달구
구월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어이갔나 간 곳 없더니 어허루 달구
강원도 금강산 생기고 어허루 달구
금강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서울 내려와 북악산 생기고 어허루 달구
북악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서울 청와대 생겨났고 어허루 달구
북악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공주 내려와 계룡산 생기고 어허루 달구
계룡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신도안 도읍지 생겨났구 어허루 달구
한줄기가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천안내려와 태조산 생기구 어허루 달구
태조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천안 좌불상 생겨났고 어허루 달구
한줄기가 간 곳 없더니 어허루 달구
예산 금오산 생겨났구 어허루 달구
금오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신양 내려와 국사봉 생기구 어허루 달구
국사봉 낙맥이 뚝 떨어져서 어허루 달구
오늘 이 산소 생겨났소. 어허루 달구
이 산소 자리를 잡으려고 어허루 달구
백일정성을 드렸습니다. 어허루 달구
이 산소를 모신 후에는 어허루 달구
출출명장出出名將이 태어나서 어허루 달구
총리대신이 나올 것이고 어허루 달구
백만장자도 태어날 것이고 어허루 달구

세계 갑부가 나올 겁니다. 어허루 달구

외손 발복發福도 헐 것입니다. 어허루 달구

쉬이

이렇게 허구 끝나구 그래유

※ 신양 2리의 달구소리는 예산군지 발간을 위한 채록 분으로 한 명이 선창하고 한 명이 받으며 진행된 소리다. 이 달구소리는 노랫말의 구성이 매우 좋다. 처음 이른바 충청도에서는 '명기 부르는 소리'의 내용이 보이는데 충청도 지방의 대부분의 달고소리가 공주 계룡산이나 천안 광덕산의 명기를 당해 산소터로 불러들이는데 반하여, 이 노래에서는 계룡산→태조산(천안)→금오산(예산)→국사봉(신양면)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신양면의 정신적 지주인 산이 국사봉인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산소 터를 칭송하는 소리에서도 산소 터의 좋은 기운을 설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좋은 것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노래하는 부분도 이채롭다.

장타령

장타령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의 이름과 특색을 노래하는 소리들이다. 그런데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장타령과 걸인들의 노래인 각설이타령을 같은 노래로 취급하면서, 장타령을 걸인들의 노래로 천시하는 풍토가 생겼다. 장타령은 장사꾼들이 부르며 서로 어울리는 노래지, 걸인들의 노래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나이 많은 노인 창자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경우 그 자녀들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들은 이 노래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다. 더구나 조용하고 차분한 예산 사람들의 기질은 앞에서 말한 장타령이 걸인들의 노래라는 인식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꺼리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의 장타령은 다른 고장의 장타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른 고장의 장타령들은 대부분 유명한 몇 개의 장에 대한 노래와 그 노래가 불린 고장의 인근 장에 한해서 노래하며 노랫말이 길지 않다. 그런데 예산에서 채록되고 즐겨 불린 장타령들은 전국의 장을 두루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충청남도 각 유명한 장들은 물론 각 도, 각 읍의 유명한 장을 두루 노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예산에서 활동한 장사꾼들의 영역이 넓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달되던 전통사회 정보 교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합당한 추론일 것이다.

장타령의 가락은 각설이타령과 같은 동살풀이 가락이 기본이며 빠르게 부른다. 예산의 각설이타령 중에는 이른바 '슬픈 각설이타령'이 많고, 아주 느리게 부르는 각설이타령이 있지만 장타령들은 모두 빠르게 부른다. 반면, 노래를 부르는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과 중간에 판소리의 아니리나 만담처럼 이야기를 섞기도 하고 목소리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하다가 작은 소리로 변화를 주어 듣는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각설이타령처럼 입술을 터는 소리를 하지는 않지만 마치 호각을 부는 것처럼 "에라라라라라"하는 소리를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소리로 사람을 놀래기도 한다.

장타령은 점잖은 예산의 정서에서 드물게 생기 있는 소리다. 누가 불러도 흥겨워하고 누가 들어도 친숙히 듣는 정서가 예산에서 주로 채록되는 긴 고사 축원소리 보다

더 좋다. 거지들의 노래라는 편견을 지우고 장사꾼들의 노래로 특화하여 예산의 대표적인 민요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민속이다.

천자대피 장타령

- 창자 : 이순만(보부상 난전놀이 단원)　- 기록 : 본 도서(2014년 10월 채록분)

어헐씨구들어간다 천자대필로 들어간다.
천지는 장한한데 호－나일당에 하－늘천
금피나 강남이 감을(검을) 현,
구산나라 갈현나라 고대나 광실 높은 집이 살기나 좋다구 하늘천
천지나 현황에 우주가 홍황 일월에 영창 진지나 영창
반매나 호황이 조동장
윤나나 상나냐 옥출곤강 날일에 달월에 (느리게 부르는 것으로 변함)
달밤에 부모형제를 다버리구 방방곡곡을 헤맨다.
　어헐씨구들어간다 천자대필로 들어간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리－말로 재미있게]
이 장 저 장 댕기다가(다니다가) 아저씨 장이루 둘왔네

[노래]
울울 적적 서울장은 눈물 많어서 몬보고
두건이 썼다 홍주洪州장은 눈꼴 시어서 못보고
비린내 난다 강갱(강경)이 장은 새우젖 치어서 못보고
구례장을 볼랐더니 구린내 나서 몬보고
껑충 뛰었다 제천堤川장 신발 없서서(없어서) 못보고

바람분다 청풍靑風장은 탕건 벗겨(벗겨)져서 몬보고
공술 많은 공주公州장은 술 취해서 몬보고
예산장을 보겠더니(보잤더니) 예산이 안맞아서 못보고
뜨건 물 난다 온양溫陽장은 데일까봐 몬모고
아산 장이나 둔포장은 큰애기 술 장사가 제일이요
부드럽다 연산連山장은 대추장이 으뜸이요.
비단이 쳤다 금산錦山장은
인삼人蔘 녹용鹿茸이 제일이요.
천안天安 삼거리 세 장터에는 능수버들이 척늘어 졌다.
어허 품바가 장타령. 어허 품바가 장타령
앉었다 섰다 선장장
버그네 벅벅 버그네장
오줌 지릴라 지린내장
방구 탕탕 구린내 장
씹꺼리 많다 지집(계집) 장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어헐 씨구나 들어간다.

※ 본디 천자대필(일명 천자문 타령)과 장타령은 별개의 노래다. 글자의 내력을 풀어 하는 소리는 언문뒤풀이와 한자뒤풀이 각각 한 수가 전하는데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창자는 천자대필과 장타령을 혼합하여 부른다. 두 노래의 노랫말을 보면 혼합하여 부를 수 있게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부분의 장타령과 본고에서 여러 번 거론되는 각설이타령의 명인 김모씨가 부른 노랫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아쉬운 것은 창자의 소리는 김모씨의 노래보다 현대 엿장수들의 각설이타령 가락에 가깝게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노래 장단은 동살풀이, 속도는 약간 빠르게 부른다.

장타령 2

- 창자 : 이순만(보부상 난전놀이 단원)　- 기록 : 본도서(2014년 10월 채록분)

한내장이를 갔더니 한단 찌워서 못 팔고
버그네 장이를 갔더니 버벅거려서 못 팔고
신평장이를 갔더니 심술 부려서 못팔고

※ 이 노래는 다른 고장에서는 채록된 사례가 없으며 예산에 소재한 한내장과 신평장이 포함되어 예산에서는 소중한 장타령으로 보인다. 장타령의 속성으로 추정하면 이 노래는 상당부분 긴 노랫말로 불렸을 것이고 예산지역의 장타령의 문화에 비추어 본다면 많이 불린 노래일 것이다. 향후 추가 채록이 요구되는 노래다.

장타령 3

- 창자 : 미상(김모씨 채록시 함께 있던 사람이 부른 노래)　- 기록 : 본 도서(1987년 10월 채록분)

어헐 시구씨구 들어간다 각설이타령으로 들어간다.
춘천하면 뎀박장. 홍천하면 가마니장.
원주나 박군은 금릉장. 아가씨 많구나 정선장.
강릉장은 단오장. 공갈수문장은 혼천장.
달을 본다 영월장. 지금와서 인제장.
장두 많구나 이천장. 쌀이 좋구나 연풍장.
황산에는 유기장. 예산도 많구나 예산장.
공술이 많구나 공주장. 빛깔도 곱구나 옥천장.
경장이 많어요 대전장. 맛이 좋구나 고기장.
어데가나 이리장. 안산에 가면 군포장이 있는데
큰애기 술장사가 제일이요.
충청북도 괴산장은 마른 고추가 많이 난다.

※ 조사자 이걸재가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예산의 각설이타령을 채록하였다. 주요제보자인 소리꾼 김모씨의 노래를 중점적으로 채록하였는데, 한 번은 주막에서 채록하게 되었고, 그 때 같이왔던 사람이 부른 각설이타령이다. 김모씨의 장타령과 달리 춘천, 홍

천, 원주, 정선, 강릉, 영월 인제 등 강원도 장들을 노래하여 이 노래를 충남 각 지역의 민속 조사에 임했던 조사자가 다른 원고에도 소개 한 적이 없는 노래다. 노래의 정서는 김모씨와 같았는데, 노래하는 목소리 김모씨처럼 맑지 못하여 잘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추후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더 하지 않았다. 노래 장단은 동살풀이, 속도는 약간 빠르게 부른다.

장타령 4

- 창자 : 김동식(생년 미상. 예산군 덕산면 몽곡리)　- 기록 : 한국민속 종합 보고서(제6권. 충청남도 편)

껑충 띠었다 제천장 신발 없어 못보고
바람 불었다 청풍장 선선해서 못보고
청주장을 보잤드니 술이 취해서 못보고
황가장을 보잤더니 영감이 많아서 못보고
예산장을 보잤더니 예산이 틀려서 못보고
온양장을 보잤더니 신발이 많아서 못보고
아산에도 둔포장은 큰 애기술 장사 제일이라
보는 천장 대추장은 처녀 광우리 제일이요
엄벙중천에 충주장은 황색 연초 제일이요
천안 삼거리 옛장터는 능수 버들 척 늘어 졌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도 잘한다

※ 이 소리는 문화공보부(당시)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기록되어 전하는 장타령이다. 특기할 것은 김동식의 장타령은 김모씨의 노랫말에 나오는 장들과 일치하며, 부분의 노랫말들도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장타령 5

- 창자 : 김모(생년미상. 예산군)　- 기록 : 본 도서(1986년 이걸재 채록)

넘어간다 넘어간다 장타령으로 넘어간다
어허 품바가 장타령

[아니리 – 말하듯이]
대목장을 몬보면(못보면) 겨우사리를 벗는다.
이 장 저 장 댕기다가(다니다가) 아저씨 장이루 둘왔네

[창]
울울 적적 서울장은 눈물 많어서 몬보고
두건이 썼다 홍주洪州장은 눈꼴 시어서 못보고
비린내 난다 강갱(강경)이 장은 새우젖 치어서 못보고
구례장을 볼랐더니 구린내 나서 몬보고
껑충 뛰었다 제천堤川장 신발 옶서서(없어서) 못보고
바람분다 청풍靑風장은 탕건 벳겨(벗겨)져서 몬보고
공술 많은 공주公州장은 술 취해서 몬보고
예산장을 보겠더니(보잤더니) 예산이 안맞아서 못보고
뜨건물 난다 온양溫陽장은 데일까봐 몬모고
인심 험한 광주光州장은 기어 댕기다가(다니다가) 몬보고
가히 절경 강릉江陵장은 경치가 좋아서 몬보고
아산 장이나 둔포장은 큰애기 술 장사가 제일이요
부드럽다 연산連山장은 대추장이 으뜸이요.
비단이 쳤다 금산錦山장은 인삼人蔘 녹용鹿茸이 제일이요.
어벙 중천에 충주忠州장은 황색黃色 연초煙草가 제일이요.
천안天安 삼거리 세 장터에는 능수버들이 척늘어 졌다.
어허 품바가 장타령 어허 품바가 장타령

[아주 빠르게]
앉었다 섰다 선장장
버그네 벅벅 버그네장

오줌 지릴라 지린내장

방구 탕탕 구린내 장

씹꺼리 많다 지집(계집) 장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어헐 씨구나 들어간다.

※ 김모(사망)씨가 부른 장타령이다. 후손들이 김모씨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장타령은 예산지역 장타령답게 여러 고장의 장의 이름과 특색을 노래한다. 1) 경기 : 서울장 광주장. 2) 충남 : 예산, 홍주, 강경, 공주, 온양, 천안, 아산. 3) 충북 : 제천, 청주, 충주. 4) 강원 : 제천, 강릉 등이다. 전국의 장터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노래화한 전형적인 장타령의 한 종류이며, 단순하고 호기롭게 노래한다.

노래하는 속도는 변화가 심하여 크게 세 번 변한다. 처음에는 장타령 중에서는 가장 느리게 시작한다. 말로 하는 아니리 대목은 익살스럽게 하며 약간 빠르고 경쾌한 장타령 특유의 속도로 노래하다가 마지막 부분은 풍장 잦은마치 속도로 매우 빠르게 부르고 맺는다.

각설이타령

각설이타령은 예산의 대표적인 향토소리 중 하나다. 예산지역의 각설이타령은 조사자 이걸재에게는 우리민속과의 인연에서 매우 중요한 소리다. 어려서부터 문학인이 되고자했던 조사자는 예산의 각설이타령으로 인해 우리 민속의 우수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소설가 활동을 접고 우리민속의 채록・조사자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하는 매우 충격적인 감동을 준 노래인 까닭이다.

17세에 문학의 꿈을 품은 조사자는 1970년대 말경 소설의 소재를 찾아 많은 채록을 다녔다. 그런데 예산에서 한동안 거주 했던 조사자의 백부(이황룡)가 조사 과정에서 민요들을 정리하는 조사자를 보고 예산의 각설이타령이 유명하다고 알려 주었지만, 당시에는 소설 소재를 더 중시했기에 각설이타령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1979년에서야 처음 예산 각설이타령을 조사하기 위해 김모씨를 찾아가 만났다. 김모씨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채록을 기피하였고, 각설이타령 한 소절을 채록하는데 그쳤다. 더 부르는 것은 끝내 거절하였다. 이후 1985년 10월 경 예산에 찾아가 각설이타령 가창을 거부하던 김모씨를 만나 어렵게 채록을 시작하였다. 이도 세 번 거듭 찾아 갔을 때야 채록에 응했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김모씨는 자신의 소리가 채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각설이타령을 부르는 아버지를 '거지대장'이라 놀린다하여 다시는 그 노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후 1987년까지 5회 김모씨를 만나 각설이타령을 기록하고 정리하였으며, 노랫말이 조사자에게 여러 감동을 주어 주변인에게 녹음기를 빌려 녹음을 하여 정리 하였다.

이 조사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 이다. 첫째, 각설이타령의 원산지는 예산과 공주라는 것이다. 이는 1975년 당시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행한『한국민속종합보고서 충청남도편』에 기록하고 있는 사항이다.『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서는 각설이타령의 원산지를 밝히는 것뿐 아니라 노래의 다양성으로 여러 유형의 각설이타령의 노랫말들이 보고되었고, 소리를 하는 정서가 자유로우며 여러 장단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둘째, 김모씨 본인도 생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의 아들, 딸들 또한 지금도 아버지의 내력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김모씨의 자녀들은 지금 예산에 살지 않고 타지로 이주해 살고 있으며, 김모씨 형의 자녀들, 즉 조카들 중 일부가 살고 있는데 이들 또한 숙부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싫어한다.

셋째, 그럼에도 김모씨의 각설이타령은 여타 채록이나 기록 사항을 모두 견주어도 비교가 안될 만큼 빼어난 노래라는 점이다. 조사자는 민중의 예술은 이름 없으면서도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예술인으로 노력하는 소수에 의해 발전하고 민중에게 널리 퍼져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 슬픈 각설이타령, 긴 각설이타령, 사설 각설이타령 등 예산과 공주에서만 채록되는 노래들을 부른 사람은 예산에서는 김모씨밖에 없다.

각설이타령에 대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

전북 무안군에서는 '전국 각설이 품바 큰잔치'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각설이타령의 경연대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상을 주기도 하며 이미 10년 동안 계속해 왔다. 또한 전국의 큰 축제들은 거의 모든 축제장에서 각설이타령이 연행된다. 저급한 문화라 하여 기피하는데도 직업적으로 각설이타령을 노래하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억지로라도 공연을 하고 있으며, 관중들의 호응이 높은 민속임을 아는 일부 축제들은 출연료를 주고라도 우수한 각설이 공연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민중들에게 인기를 잃어가는 민속 중에서 그나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민속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한결같이 각설이타령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무조건 '거지들의 노래'라 한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부르면 재미 삼아 들어 주지만 내 아버지나 어머니, 형님, 동생이 부르는 것을 매우 기피한다.

각설이타령은 '거지들의 노래'가 아니라 '거지 인생'을 노래한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각설이타령은 걸인들의 노래가 아니다. 최소한 예산지역의 각설

이타령은 더 그렇다. 걸인들만 부르는 '걸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걸인들의 인생'을 노래하는 민요인 것이다. 그런데 각설이타령 중 일부의 노래를 걸인들이 구걸 행위 때 부르면서, 걸인들의 노래로 천시하는 경향을 만들어 냈다. 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예산의 민속무형문화 유산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각설이타령의 다양성

예산에서 채록된 각설이타령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락

가. 잦은 각설이타령 : 아주 빠른 2박 장단의 각설이타령
나. (보통) 각설이타령 : 동살풀이가락으로 보통 속도의 4박 각설이타령
다. 긴 각설이타령 : 중모리보다 좀 더 느리게 부르는 각설이타령
라. 사설재 각설이타령 : 만담이나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이야기를 섞어 부르는 각설이타령

② 노랫말

가. 품바타령 : 일반적으로 걸인들이 구걸에 주로 사용된 각설이타령
나. 월령품바 : 1월, 2월, 3월… 등 매 달의 의미를 노래하는 각설이타령
다. 숫자풀이 : 1에서 10까지 혹은 백, 천, 만의 숫자를 앞에 두고 풀어내는 노랫말로 이루어진 각설이타령
라. 슬픈각설이타령 : 애기그지품바, 한탄사설, 상여소리품바 등 걸인의 인생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각설이타령
마. 잡타령 : 미천 타령, 잡타령, 대빵타령 등 유희적 성격이 강하고 아주 빠르게 부르는 각설이타령
바. 인생살이품바 : 중신타령, 혼인타령, 첫날밤 타령 등의 걸인 인생을 노래하는 각

③ 예술성

다양한 예산의 각설이타령들 중에는 현대적 의미로 고찰해도 예술성이 매우 높은 소리들이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예산 노인어른들이 애둘러 표현하는 이른바 '슬픈 각설이'들 중에서 '한탄사설'과 '상여소리 품바'는 가락의 변화나 노랫말의 애잔함이 우리 민족의 민속예술의 백미로 꼽을 만큼 깊이 있는 들로 마치 뛰어난 음악가가 창작한 것처럼 느껴지는 소리들이다.

일반적으로 민요를 대상을 하는 조사에서 예술성을 말하는 것은 무리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탄사설'이나 '상여소리 품바' 그리고 '애기그지 품바' 등은 전문 국악인 수준에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전문 국악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부르기 매우 힘들다. 바꾸어 말하면 소리를 잘하는 가객이 부르는 소리와 평범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의 질적 차이가 확연하다는 면에서 예술성 높은 민속음악이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④ 예산의 소리꾼들이 느끼는 각설이타령 정서

각설이타령을 채록하면서 예산에서 소리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이 각설이타령을 대하는 정서는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애정이 담겨 있다. 애정에 대한 부분은 소리꾼들 혹은 청자들이 흔히 하는 말인 "각설이타령 한 자락도 못하면서 소리 하는 척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예산에서 소리꾼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각설이타령이라는 점이다. 전통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청자들까지 대부분 이런 정서가 만연하다.

또한 예산에서 채록되는 각설이타령은 덩어리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일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고장에서는 '품바', '각설이타령', '그지타령' 등 일반명사로 통칭되는데 반하여, 예산에서는 '애기그지 품바', '미천타령', '대빵타령', '천지대패', '생여(상여)소리 품바', '혼인타령'등 다양한 각설이타령이 전할 뿐 아니라, 노랫말에 맞게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거듭 강조해서 논하지만 각설이타령은 걸인들의 노래가 아니다. 걸인들의 기구한 인생을 노래한 것인데 걸인들이 구걸 행위 때 부르고 다녀 걸인들의 노래로 오인된 것이다. 예산 각설이타령 중 일부는 소리꾼이 아니면 배우기 힘든 곡과 깊이 있는 내용의 노랫말로 지어졌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이다. 남 앞에서 소리를 팔아먹으려면 각설이타령 몇 곡은 불러야했던 예전의 정서를 되살려 이 노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각설이타령

- 창자 : 유진룡(도서 장사꾼 돈이 왜 꾸린지 알어에 구술자)

- 기록 :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디 알어(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어헐씨구들어간다 어헐씨구 들어간다
작년 왔던 각설이가 죽지두 않구 또 왔어
으흐흐흐 이눔이 이래뵈두
정승판서의 자젠디 팔도 감사 마다허구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루 나섰네
지리구 지리구 잘헌다 품바하 품바 잘헌다

이전저전 다 버리구 아저씨 전이루 돌아왔슈
오늘 장에 재수는 천냥 만냥 지수요 억십만냥 남으시구
우리 같은 인생덜(거지들) 돈 한푼만 주셔유
지리구 지리구 잘헌다

한일자를 들구 봐 일원이 성성해성성
밤중 밤중 오밤중이 덕산장이 완연하다

두이자 들구 봐 두이번이 자 두치 관전육방 나려올제
핀지(편지)나 한 장 전해주
석 삼자 들구 봐 삼월이 신령 두 신령, 신령 중에는 어른이라
넉 사자 들구 봐 사시장천 바쁜 길 점심참이 여기로다
다섯 오자 들구 봐, 오관참장 관운장 적토마를 비껴 타고
제갈 선생을 찾어간다
여섯 육자 들구 봐 육천 대사 도련님 팔선녀를 거느리구
헐헐거리구 논다
일곱 칠자를 들구봐 칠년 가뭄은 가뭄 중에는 어른이라
여덜 팔자 들구 봐 팔년 풍진 초패와 오초마를 비껴타고
오강으로 나려온다
아홉구자 들고 봐 구중 대사 늙은 중 참잔홍을 거느리구
헐헐거리고 나려온다
장자나 한 장을 들고 봐 장안 광대 박광대 어른 중에는 어른이요
[이상 유진룡 구술 부분]

※ 유진룡은 1916년 생으로 당진군 송악면에서 태어났으며 8세에 예산 삽교로 이주하였고 21세에 보부상 예덕 상무사에 가입하여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장사꾼으로는 엿을 고와 엿장사를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다녀와서는 어물 장사, 덕산장에 장세 받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였다.
유진룡의 이 각설이타령은 노래로 채록된 것이 아니라 상기 도서 발간시 구술 채록분이며, 예산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불린 각설이타령과 숫자풀이 각설이타령 2수다. 각설이타령 중 '오늘 장에 재수는 천냥 만냥 지수요. 억십만냥 남으시구 우리 같은 인생덜(거지들) 돈 한푼만 주셔유'하는 부분은 유진룡이 보부상의 회원으로 보부상들이 좋아하는 말로 동냥을 얻기 위해 부른 소리로 보인다.
숫자풀이는 변형이 많다. 여기서 변형이라 함은 이 노랫말 속에는 여러 종류의 숫자풀이 노래를 한데 섞어 구술하였다는 것이다. 예산에서는 일반적인 숫자풀이와 삼국지 월령이라 하여 숫자를 중국 삼국지의 내용만으로 부르던 곡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해방과 한국전쟁만을 노랫말로 꾸민 숫자풀이가 있었는데 유진룡의 구술 중에는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다.

각설이타령 2

- 창자 : 김모씨 외 다수　　- 기록 : 생략

어헐씨구들어간다 어헐씨구 들어간다

각설이타령이루 들어간다
재작년 왔던 각설이가 죽지두 않구 또 왔어
어허허이 이놈이 이래두 정승판서의 자제루
팔도 감사자리 마다하구
돈 한 푼에 팔려서 장똘뱅이가 되었구려
어헐시구 절씨구 품바하구두 잘한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니 선생이 누군지 날보담두(나 보다도) 잘한다
시전詩經.詩傳 서전書經.書傳 읽었는지 유식하게두 잘한다
논어論語 맹자孟子나 읽었는지 대문대문이 잘한다
냉수 동이나 쳐먹었는지 시원시원이 잘한다
뜨물 동이나 마셨는지 걸직하게두 잘한다
기름 동이나 먹었는지 미끌미끌 잘한다
대목장을 몬보면 겨우살이를 벗느냐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 이 소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각설이타령이다. 장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애환 때문에 본 고처럼 '돈 서푼에 팔려서 장똘뱅이가 되었네'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각설이가 되었네'로 노래한다. 노래 장단과 가락은 특이점이 없다.

각설이타령 3

- 창자 : 다수 - 기록 : 본 도서(2015년 채록)

일 자나 한 자나 들구보니 일본놈이 들어가구
노랑대가리만 나오셨네
이 자나 한 자나 들어간다 이북이 조선 기물(괴물)조선
어느 개잡놈이 만들었나

석 삼자나 한 자 들어간다
삼천만 우리동포 평화가 오기만 기다리구
어헐씨구 절시구 품바하구두 잘한다

사 자나 들어 간다
단기 사 이 칠십 팔년 해방에 종소리 들려주구

다섯 오 자나 들어간다
오만명이나 유엔군 구파 일대를 일러주네

여섯 육자나 들어간다
육이오 사변에 집을 태우고 거러지 생활이 웬 말이요.

일곱 칠자나 들어 간다
칠칠이 못난 조선 사람들은 시키는 대루만 하능구나

여덜 팔자나 들어간다
팔자 좋은 양놈들은 찌프차만 몰고 다니고

아홉 구자나 들어간다
구십먹은 노인네 아들오기만 기다린다
품바품파 품파 잘한다

※ 이 노래는 예산에서 불리는 각설이타령 중 한국전쟁(6.25) 종전 후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많이 불리는 각설이타령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탄하며, 이를 각설이타령을 만들어 부르는 모습 속에서 예산지역의 각설이타령이 걸인들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살필 수 있다.

각설이타령 4

- 창자 : 다수　　- 기록 : 본 도서(2015년 채록)

어헐씨구들어간다 어헐씨구 들어간다
각설이타령이루 들어간다
재작년 왔던 각설이가 죽지두 않구 또 왔어
에 – – – – – – – – – 씨구씨구시구 자리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낭군 살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이승만이 대통령이 평화이루 마련하구
석 삼자나 한자 들구보니 삼팔선이 생겨서는 삼천만이 원망한다
사자나 들구보니 단기 사천 이백구십사년 평화의 종소리 들려주구
다섯오자나 들구보니 오십만에 중공군 아군포에나 옥동사로 물리친다
여섯육자나 들구보니 육이오 사변에 도망가던 생각이
오늘같이도 생겨 난다

※ 이 노래 또한 예산에서 불리는 각설이타령 중 한국전쟁(6.25) 종전 후 만들어졌으며 현재도 많이 불리는 각설이타령이다.

각설이타령 5

- 창자 : 다수　　- 기록 : 본 도서(2015년 채록)

어헐씨구 들어 간다 저얼 씨구시구 드러간다
각설이타령이가 들어간다

일자 한 자나 들구나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장병 통일오기만 기다린다

두 이자를 들고나보니
이승만이가 대통령 평화오기만 기다린다

슥 삼자나 들구나 보니
삼천만 우리 동포 통일오기만 기다린다

사자 한자나 들구나보니
사천이백팔십년 그지나 상태로 돌아간다

다섯 오자나 들고나 보니
오동나무 숲속에서 김일성이가 나타났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육자나 한자나 들고나보니
육요사변 기태먹구 그지나 상태루 돌어간다
어헐씨구들어간다
일곱칠자나 들고나 보니
칠년만에 만난 친구 상해제대가 웬말이냐
어헐씨구들어간다

여덜팔자나 들고나보니
팔백미리 대포소리가 대포소리에 놀어 난다
어헐씨구들어간다

아홉구자나 들고나 보니
군인 간지 구년만이 상이 제대가 웬말이냐

어헐씨구들어간다

장자나 한자를 들고니
장가간지 삼일만에 소집 영장이 웬말이냐
어헐씨구들어간다.
품바나 하구두 들어간다.

※ 이 노래 또한 예산에서 불리는 각설이타령 중 한국전쟁(6.25) 종전 후 만들어졌으며, 현재도 많이 불리는 각설이타령이다.

애기 그지 품바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불쌍하고 가련하다 각설이 팔자가 기구하다
천지天地 만물萬物이 생겨 날 제는(날 때는)
모단(모든) 호성好聲을 듣는다는디
이 내 일신一身 생겨 날 제(때)
무슨 업보業報를 지녔던지
좋은 말 한 마디두 못들었네

만장滿場하신 사람들아 이내 하소연을 들어나 봐라
태어난지 슥(석) 삼일만에 나의 어머니 황천길 가구
시작부터가 동냥이니 젖 동냥이 그것이라
서럽고도 서글프다 젖 동냥이 무엇인가
재물財物 쌓둔 집이라해도 어린 애가 웂구보면
주구파두(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갖난애기의 젖 동냥이요

젖동무가 있다구해두 어미 가슴이 퉁퉁 불어
허허난당이다 젖통을 내 놓구(놓고)
짜 내비는(내버리는) 행편(형편)이 못되여
제 새끼 젖두 모자르믄(모자르면) 못주는 게 젖동냥이라
서룬(서러운) 애비 품에 앵겨(안겨)
이 집 저 집을 댕길적이(다닐적에)
손 때 절은 울애비 옷고름을 멧번(몇번)이나 적셨으며
삽작(사립문)앞에 망설이며 흘린 한숨 멧(몇) 말인고
어~허 품바가 자리한다

이 젖두 빨구 저 젖두 빨구 세살 넘구 네살 못되야
나의 아버님두 저승길 가니 걸음마부터 깡통이라
깡통 차구 나섰쉐다(나섰습니다)
깡통 기륵지(길이)가 짧다구 해두
끈나풀(끈)이 질구(길고)나보면
언발에 툭툭 채이는 게 애기 그지(거지) 깡통이요
채인 깡통 흔들리면 흘리는 게 으든(얻은) 음식
문전 걸식門前乞食하는 놈이
찬밥 더우운 밥을 가릴 소며
으더(얻어) 먹는 팔자가 되어 한 푼 두 푼을 마달 손가
즘심(점심) 저녁은 인심 바람에
굶지 않구 먹는다구 해두
어떤 미친년이 엄동설嚴冬雪寒한 춥디 추운 겨울날에
각설이를 위해서니 뜨건(뜨거운) 국을 끓여 줄까?
어~허 품바가 자리한다.

※ 김모씨 의 노래다. 채록 당시 김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주 힘없이 불렀다. 일부러 슬픈 소리로 노래하려 하지 않았지만, 스

스로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느린 동살풀이 가락이었다.
슬픈 각설이타령으로 애기그지 품바는 공주에서 1수, 예산에서 1수가 전하여 채록되었는데, 예산의 소리는 표현이 직설적이고 쉬운 언어를 구사하는데 반하여 공주의 소리는 한자성어가 포함되어 있고 끝 부분 몇 소절을 빨리 부르면서 구걸에 필요한 노랫말로 끝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미천 타령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장사치 한티는(한테는) 방물이 미천
농사꾼 한티는 밭때기(밭뙈기)가 미천
숯장사 한티는 참나무가 미천
대 목수 한티는 대패가 미천
주막거리 술집에는 막걸리가 미천
서당방에 훈장님은 대꼬바리가 미천
마님 후려 돈 버는 놈 연장이 미천
술상머리 몸파는 년 거시기가 미천
각설이 한티는 깡통이 미천
그지 한티는 각설이타령이 미천
어헐 씨구야 품바야
뚜뚜뜨르 뚜뚜뜨르 뚜뚜뚜

※ 김모씨 의 노래다. 미천이란 기본이 되는 재력이나 돈 후원자 등을 의미하며 노래하는 속도는 보통 각설이타령 정도인데 아주 경쾌하고 흥겹게 부른다. 마지막 연의 뚜뚜뜨르 행은 목청 좁혀 내는 소리로 익살스럽다.

각설이타령 6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잘한다 잘한다 품바하구두 자리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두 않구 또왔네
어허이 품바가 들어간다
어 허 허 허 이놈이 이래봬두
정승政丞 판서判書의 자제로서
팔도八道감사監司 마다하고
돈 서푼(세 푼)에 팔려서 각설이루 나섰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니 선생이 누군지 날보담두(나 보다도) 잘한다
시전詩經.詩傳 서전書經.書傳 읽었는지 유식하게두 잘한다
논어論語 맹자孟子나 읽었는지 대문대문이 잘한다
냉수 동이나 쳐먹었는지 시원시원이 잘한다
뜨물 동이나 마셨는지 걸직하게두 잘한다
기름 동이나 먹었는지 미끌미끌 잘한다
[아니리 – 만담재로]
대목장을 몬보면 겨우살이를 벗느냐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 김모씨 의 노래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각설이타령의 대표적인 곡이다. 노랫말이 현대적인 변형이 조금도 없어 예산 각설이타령의 기준으로 삼아도 좋은 곡이다. 김모씨는 이 곡을 보통의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부르면서도 아주 흥겹게 불렀다.

잡 타령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앉은 고리는 동고리
슨(선) 고리는 문고리
뛰는 고리는 개고리(개구리)
나는 고리는 꾀꼬리

입는 고리는 저고리
지리구 지리구 자리한다 품바하구두 자리헌다

한 발 가진 깎귀
두 발 가진 까마귀
세 발 가진 통노귀
네 발 가진 당나귀
먹는 귀신鬼神은 아귀라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두 잘한다

※ 김모씨 의 노래다. 채록 당시 김모씨가 이 노래를 잡타령이라 칭했으며 다른 제목을 말하지 않았다. 김모씨가 부른 각설이타령 중 가장 빠른 가락으로 노래했으며, 손으로 장단을 쳐가며 부른 몇 곡 안되는 노래 중 한다. 공주에서도 이 노래는 많이 채록되는데 노랫말이 길고 사설이 많으며 구걸을 위한 노래 풍이다.

월령 품바 타령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어허 품바가 잘두한다
일자나 한자를 들고나 보니 정월이 송송 나송송
일편단심一片丹心 먹은 마음 죽으면 죽었지 못잊겠네

두 이자를 들고나 보니 이 도령이를 기다리는
옥중獄中에 춘향春香이 한숨 소리에 쇠 창살도 다 녹는다

서이 삼자를 들고나 보니 삼월이라 삼짓날에
제비 새끼 멍마구리가 두리 둥실 높이 떴고

넉 사자를 들고나 보니 사월이라 초파일 날
연등蓮燈 놀이가 좋을씨고

다서 오자를 들고나 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에
추천鞦韆하는 큰 애기의 속옷 것이 뵐(보일) 동 말 동

여섯 육자를 들고나 보니 유월이라 유두일에
유두 밀떡을 손이다 들구 품바라 품바라 품품품

일곱 칠자를 들고나 보니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牽牛 직녀織女가 좋을시구

여덟 팔자를 들구나보니 팔월이라 한가위에
햅쌀에 송편이 좋을시고

아홉 구자나 들고나 보니 구월이라 구일날에
조상님 모시는 아낙네의 경전耕田 단심丹心이 피어나고

열십자를 들고나 보니 시월 상달에 격양가는
태평 성대를 노래한다

동지 슷달에 눈 내리면 청솔가지 한 짐 쩌다가
아궁이 깊이나 군불을 때구 둥굴둥굴 좋을시고

어허이 품바가 자리한다
어허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 김모씨 의 노래다. 예산지역의 월령품바로 세월에 따라 변하는 노랫말이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노래에는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의 아픔에 대한 변형이 전혀 없는 유일의 노래다. 걸인들이 구걸 행위에서 가장 흔하게 부른 각설이타령 중 하나 인 이 노래는 보통의 동살풀이 가락으로 흥겹게 노래한다.

중신 타령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이 내 팔자가 기구해도 좋은 일이 웁쓸소냐
각설이타령을 쓰게나 배워 배고픈 날이 스러지고
세월이 둥둥 흘러가서 열살 넘고 스무살 넘어
장정 소리가 떠댕긴다 이 고을 저 고을루 떠댕긴다

둘(들어) 온다 둘 온다 중신 애비가 둘온다
아랫말 윗말 시렁이골 논두렁을 빙빙 돌아
사주四柱 단자單子 서너개 들고
중신 애비가 날아든다
화살처럼 빠른 세월 유수같이 흐르는디
기쁜일이 무에 있나
어른 되면 관례冠禮있고, 장정되면 혼례婚禮있어
윗말이라 얼순이는 기운 좋구 응뎅이(엉덩이)가 넓어
밥 궁길(굶길) 이유 당최(당초) 웁구
자식 쑥쑥 나을기요(것이요)
아랫말에 유월이는 맘이 착하구 자태가 고와서
이불속이 좋을기요
시렁이골 종 년 월이란 년 달딩이 같은 제 얼굴루
서방질하던 솜씨가 있어서 아랫도리를 잘쓸테니

찬 밥 더운 밥 가릴손가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구 잘한다

[느리게]
깨지네 깨~지네 이 중신 저 중신이 박살난다
처자가 이쁘면(예쁘면) 무엇을 하나
이 내 팔자가 기박해서
깡통 들구 댕기면서 빌어 처먹는 신세인디
어떤 미친년이 나 같은 놈한티(한테)
밥그릇을 얹어 놓고 목을 매구 살어 줄까
한 평생을 목을 맬까?
어허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 김모씨 의 노래다. 예산지역의 각설이타령으로 공주에서도 전혀 채록되지 않은 예산 유일의 각설이타령이다. 불쌍하게 자라 걸인이 되었지만 혼인을 할 나이가 되어 중신애비들로부터 중신이 들어오는데 모두 깨진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노래는 첫머리부터 보통 각설이타령의 속도로 아주 흥겹게 부르는데 후반부의 '깨지네' 부터는 처철하게 느껴지도록 느리고 애절하게 부른다. 본 도서 정리 과정에서 청혼이나 중신과 관련된 노래 2수를 정리하였는데, 부녀자들의 노래 청혼가에서도 등장하는 '얼순이'라는 이름이 이 노래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얼순이는 예산지역에서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인을 비하하는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三國志 월령 품바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일자나 한장 들구나 봐라 한일자가 무엇이냐
한 임군 섬기는 관우운장 일 천리 먼 길을 달려가구

두 이자를 들구나 보니 천지간에 이간질은
조조란 놈이 혼자하구

서이 삼자를 들구나 보니 적벽부에서 쫓기는 조조
제갈량한티 쫓기면서두 말위에서 세번 웃구

늑사 자는 죽을 사자死字. 사지死地 승지勝地를
가려 가며 어느 천년이 영웅나랴

다섯 오자의 오추마는 조자룡이를 태우구서
오십리 장강을 건너 뛴다.

여섯 육자를 들구나 보니 육도삼략에 능통한 공명
동남풍東南風을 빌어나 타구
중원中原 천지天地를 넘나들구

일곱칠자 칠보七寶나 단장丹粧 미인계美人計 쓰던 동오東吳에 손권
재갈량의 삼랑지계三廊之計에 제 꾀에 제가 자빠지구(넘어지고)

여덟 팔자는 사람에 팔자 뽕나무 밑이서 자리를 짜던 유비 현덕이
큰 덕德으루 만승 천자萬乘天子가 되었구나

어헐 씨구씨구 들어간다
저헐 씨구씨구 들어간다
남엇네 남엇네 장짜字 한 장이 남었네
장땡 끝발을 부여나 잡구 장비처럼 용을 써두
이 내 인생人生은 각설이
어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 김모씨 의 노래다. 예산지역에서 불린 삼국지 월령 각설이타령의 전형으로 삼국지의 내용 외 다른 내용이 섞이지 않은 유일한 노래다. 조사자는 삼국지를 사용한 각설이타령을 2수 채록하였는데 다른 한 곡은 공주시 사곡면의 유재천이 불렀다. 유재천의 이 노래는 판소리 적벽가 중 공명가의 노랫말이 상당부분 도입되어 숫자마다 노랫말이 길었다. 이 노래는 담백하며 숫자간의 노랫말 균형이 뚜렷하다. 마지막 장자 부분은 창자가 흥에 겨워 더한 것으로 보이며, 노래는 보통 각설이타령의 노래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를 주지 않는다.

대빵 타령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5년 채록분)

홀애비 한티(테)는 과부가 대빵
홀어미한티는 홀애비가 대빵
총각한티는 처녀가 대빵
양반한티는 중놈이 대빵
대감한티는 백정이 대빵
장돌뱅이 한티는 손님이 대빵
날고 뛰는 놈은 짱돌루(돌) 찍어라

모시야 적삼 안 섶 안에
소 젖 같은 저 젖통 봐라
쌀 돌만큼 만 훔쳐나 봐라
많이 보면은 탈 난 단다
어허 품바가 푸푸푸

※ 김모씨 의 노래다. 채록 당시 김모씨가 두 노래를 함께 불렀다. 앞의 대빵 타령은 전국적으로 널리 불린 각설이타령이며, 이 노래 역시 여타 노랫말이 섞이지 않은 원형을 보여준다. 뒤에 부른 모시야 적삼 부분은 예산의 소리로는 드믈게 노골적인 난봉제 소리다. 창자는 이 부분은 마치 판소리꾼처럼 느리고 담백하게 부른 후 어화 품바가 푸푸푸의 부분은 익살스럽게 입술 터는 소리를 길게 뺐다.

한탄 사설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79년 채록, 1987년 녹음 분)

누가 시상世上을 맨들었나(만들었나)
전능全能하신 상제上帝님이
실수失手로서 맨들었지
실수로서 맨든 시상이
퇴주잔으루 빗은 인생
천상天上 천하天下에 외톨이루
인덕人德없이 사는 인생
이십 전이 장가들구
삼십 전이 아들 딸 낳고
좋은 시상을 보잤더니
마흔 못되야(못되어) 아들 딸은 죽구
쉰이 못되야 마누라 내빠(도망가다)
자식 죽구 환장해서
내 마누라 내뺄적이
곱던 머리 삼마杉麻 꼴이요
입성(옷) 성한디 한 군데두 없써
소내기(소나기)는 고사하구
이슬 한 방울두 못 피 할기요
동네 어귀에 학동學童놈덜은
떼 뭉치루 쫓아댕기며
각시 그지(거지)라구 골리믄서
팔매질을 해 댈텐디
그런 꼴을 당할라구

고무신 거꾸루 신었단 말가
허망하구 허망하다
인생 살이가 허망하다
어허이 품바가 허망하다
어허이 품바가 허망하다
어허이 품바가 쓸디 웂다

글력 웂구(힘이 없고) 맘이 웂다.
세상世上 만사萬事가 귀찮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구
누운 자리서는 앉지두 못하니
할 일 웂구 가련하다
자식 죽구 마누라 내뺘(도망가)
밥 으더다(얻어다) 줄 사람두 웂구보니
천장바래기 내 신세가
가련하구두 불쌍하다

왜 몰렀나 왜 몰렀나
거렁뱅이의 팔자가되어
으더(얻어) 먹을 힘만 있어두
복이란 걸 왜 몰렀나
조가리진(조각 난) 바가지를 손이다가 들구
동냥질이래두 나가구 싶지만
문전門前 걸식乞食은 고사하구
오줌 똥두 못가리니
살어 있는 게 불통일세

어여 죽는 게 복이려니

어허~ 이 품바가 들어간다

어허~ 이 품바가 들어간다

어여(어서) 죽는 게 복이려니

어여 죽는 게 복이려니

어여 죽는 게 복이려니

※ 김모씨의 노래다. 한탄 사설은 아주 느리며 처량하게 노래한다. 목이 쉬지 않아도 쉰 목소리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겨우 노래하듯이 힘겹게 부른다. 끝 부분 '어여 죽는게 복이려니'에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소리를 낮추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화하였다. 그리고 힘겹게 부르던 소리가 '상여 소리 품바'로 넘어가면 갑자기라고 느낄 만큼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상 조사자 이걸재의 채록 일지 기록)

※ 이 노래는 예산 각설이타령 중 백미인 슬픈 각설이타령의 진수다. 기구한 팔자인 걸인이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행복한 시간이 적었음을 한탄하고 자식죽고 아내가 미처 떠나는 장면을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왜 몰렀나 왜 몰렀나 거렁뱅이의 팔자가되어 으더 먹을 힘만 있어두 복이란 걸 왜 몰렀나'하고 한탄하면서 '어여 죽는게 복이라 절규하는 소리'로 끝을 맺는다.
조사자 이걸재는 이 소리와 상여소리 품바에 반하여 채록 당시 녹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혼자 노래를 익혀 공연하기도 하였으며, 민속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노래다.

상여 소리 품바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7년 녹음 채록분)

가자가자 어서가자 북망산北邙山을 찾어가자

내가가며는 아주를가나 아주간들 잊을손가

나는가구 너는남구 나는편쿠(편하고) 너는섧구(슬프고)

어~허~이~ 품~바가 떠나간다.

이내일신이 생겨나서 한평생을 살어갈제

좋던날과 울던날이 정이반반 나뉘어서

원안냉기구 간다마는

어~허~이~ 품~바가 떠나간다

남은님은 어느날에 다시만나 볼것이며
영결종천 나떠나가면 내동무는 언제보나
어~허~이~ 품~바가 떠~나~간~다~
[상여소리조로]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럽마라
너는명년明年 봄이되면 잎도나고 꽃도피고
어~허~이~ 품~바가 떠~나~간~다~

좋은시절을 보련마는 영결永訣종천終天에 가는이몸
움이날까 싹이날까
어~허~이~ 품~바가 떠~나~간~다~

명산名山대천大川 다놔두구(두고) 대문앞이 북망이라
어~허~ 어~허~ 에헤 어~허~

잘살어라 잘살어라 니(네)복福대루(대로) 잘살어라
어~허~ 어~허~ 에헤 어~허~

북망산에 다다르니 세평三坪무덤이 날기다려
어~허~ 어~허~ 에헤 어~허~

인생살이를 한다구하면서 이런일과 저런일루
어~허~ 어~허~ 에헤 어~허~

동분東奔서주西走 하온꼴이 세평무덤 이란말가
어~허~ 어~허~ 에헤 어~허~

여보시오 사람들아 이내한말을 들어나보게
어~허~ 어~허~ 에헤 어~허~
화살같이 빠른세월 유슈流水같이 흘러가면
어~허~ 어~허~ 에헤 어~허~

싸운일두 다툰일두 눈물흘려 지친일두
어~허~ 어~허~ 에헤 어~허~

허망하구 허망하니 맘착하게 쓰구사소
어~허~ 어~허~ 에헤 어~허~

마~~ 음~~ 착하게 쓰구사소
어~허~ 어~허~ 에헤 어~허~

어~허~ 어~허~~허~~이 품바가 떠나를 간다아~
어~허~ 어~허~ 에헤 어~허~

어~허~ 어~허~~허~~이 품바가
나를 두고 저만 혼~자서 떠나를 가안다~

※ 김모씨의 노래다. 이 노래는 예산 각설이타령 중 백미인 슬픈 각설이타령의 진수 중 하나다. 평생을 걸인으로 살아 온 사람이 죽음을 만나 '나는 가구 너는 남구'로 시작하지만 종래 예산지역의 상여소리로 바꾸어 부른다. 앞부분에 수록한 행상소리의 선소리와 일치하는 노랫말이 많고, 노랫말이 다른 부분도 노래의 정서상 일치하는 소리로 이어가다가 끝 부분에서는 인생이 허망한 것이니 마음 착하게 살아가라고 노래한다.
창자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깜짝 놀랄만큼 풍부한 성량으로, 마치 전문 소리꾼처럼 노래했다. 당시 조사자가 이 노래를 들으며 받은 가장 큰 충격은 각설이타령이라는 속된 노래가 걸인은 고사하고 소리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으면 결코 소화해 내지 못할 노래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이 노래로 인하여 각설이타령이 '걸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걸인들의 인생'을 노래한 '깊이 있는 민요'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조사자 이걸재는 소리꾼으로 활동하면서 한동안 관객들과 호흡이 일치하는 무대에서는 앵콜로 이 노래를 불렀다.

예산군 삽교읍 두2리 각설이타령

- 창자 : 이긍원(1930년 생. 남. 삽교읍 두2리)　- 기록 : MBC 한국 민요대전(1992년 12월 채록)

어리 허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저헐씨구씨구 나오신다
천지에 장마나 허지
만물이 청산에 들오신다
품바나 하고도나 잘이헌다
찌리고 찌리고 잘이 헌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나 하고도나 잘이헌다
앉은 고리는 통고리(동고리－둥그런 대나무 그릇)고
뛰는 고리는 개고리로다
달린 고리는 문고리고
날으는 고리는 꾀꼬리다
입는 고리는 저고릴세
품바나 하고도나 잘이헌다

냉수동이나 먹었는디
시원하게도 넘어가고
나물동이나 먹었는디
걸찍 걸찍 걸찍 걸찍 넘어간다
지름동이나 먹었는디
미낀 미낀히 넘어간다

여름바지는 홑바지
겨울바지는 합바지고
가을바지는 겹바지
시아버지 바지는 당고바지고
시어머니 바지는 몸빼바지
시동생 바지는 통바지고
시누이 바지는 나팔바지
우리아기 바지는 촛대바지고
우리남편 바지는 일자바질세
품바나 하고도나 잘이헌다

일자 한자나 들고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낭군
언제 오실려나 기다리네
두 이자 들고 봐
일월이 송송이 해송송
석 삼자나 들고 보니
삼삼하게도 논다요
사자나 들고 보니
사주팔자가 기박해서
다섯 오자나 들고 보니
오륜삼강을 찾으시네
여섯 육자를 들고 보니
육간 대청에 무릎 꿇고
일곱 칠자나 들고 보니
칠성단에 절하네

팔자나 들고 보니
사주 팔자가 기박해서
아홉 구자나 들고 보니
국화꽃이 만발한데
장자 한자나 들고 보니
이 장 저 장에 댕겨볼까
어리어리 씨구씨구 잘이헌다
품바나 하고도나 잘이헌다

일 일 장은 홍등장이고
이 일 장은 삽교장이고
삼 일 장은 대천장이고
사 일 장은 광천장일세
오 일 장은 예산장이고
육 일 장은 합덕장일세
칠 일 장은 서산장이고
팔 일 장은 천안장일세
구 일 장은 온양장이고
십 일 장은 당진장일세
품바나 하고도나 잘이헌다

※ 이 노래는 예산 1992년에 채록되었고, 음원이 남아 있다. 앞서 기록한 김모씨의 노래가 예산지역에서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소리다. 앞부분은 전형적인 구걸 행위를 하는 걸인들 소리의 전형이며 '고리타령'으로 넘어가 흥을 돋운 후, '잘한다 타령'으로 흥을 이어간다. 그 후 각동의 '바지타령' 후에 '숫자풀이'로 노는데 예산에서는 거의 채록되지 않는 숫자풀이를 부르고 나서 장타령을 이어 부른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장타령은 예산 인근의 큰 장들의 장날을 노래하는데 이는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른바 장돌뱅이들이 중요하게 외야 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 통고리 : 동고리. 둥그런 대바구니.

사설 각설이

- 창자 : 김모씨　- 기록 : 본 도서

어~허~ 품바가 들어간다
보니 보니 보니 반갑소
아줌마 보니께 반갑소
내 각시 보다도 더 반갑소

보니 보니 보니 반갑소
아저씨 봉게로 반갑소
내 남편 보다도 더 반갑소
급살 맞게 반갑소

보니 보니 보니 반갑소
저 처녀 봉게로 반갑소
내 밥보다도 더 반갑소

보니 보니 보니 반갑소
저 총각 봉게로 반갑소
떡보담도 더 반갑소

※ 본디 공주에서 채록된 각설이타령을 창자가 근래에 배워 소리한다.

각설이타령

- 창자 : 임세창(1940년 생. 남. 광시면 마사리)　- 기록 : 예산 군지(1999년 7월 채록)

일자나 한 장 들구 보니 정월이라 대보름

온갖 세상 만나보고 온갖 진상 만나보구
품바품바 잘헌다 어얼씨구나 잘헌다

사자 한 장 들구나 보니 사월 오일에는 초파일
관등하기가 좋을 씨구 관등하기가 좋을 씨구
품바품바 잘헌다 어얼씨구나 잘헌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두 않구 또 왔네
품바품바 잘헌다
냉수통이나 먹었는지 시원시원 잘헌다
기름통이나 빠졌는지 미끈미끈 잘헌다
품바품바 잘헌다

※ 창자 임세창은 광시면 마사리에서 태어나 젊어서는 서울 영등포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책장사도 했으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42세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1남 1녀를 두었으며 취미가 노래 부르는 것이라 한다. (이상 예산군지)

※ 이 소리는 창자가 예산지역의 어른들이 부르는 각설이타령의 부분을 익힌 것으로 보이며, '숫자풀이'와 '잘한다타령'의 일부다.

※ 창자 임세창의 민요는 이 노래 외에도 한오백년, 태평가, 맹꽁이 타령, 밀양 아리랑, 신고산타령,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모두 현대민요로 지역 향토성이나 노랫말의 변형이 전혀 없는 소리이기에 기록하지 않았다.

예산의 동요

동요는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달래며 불러주는 노래와 아이들이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로 나뉜다. 지금까지 예산에서 채록된 동요는 양자 모두 양이 적다. 해방 후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아도 TV와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이라면 어린아이들은 주로 집 밖에서 노는 놀이를 즐겼고, 놀이에는 많은 노래가 붙었다.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체계가 확립되었고, 초등학교에서 현대적인 동요를 교육하면서부터 전래동요는 쇠락하였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는 여러 형태로 전래동요가 구전되었다.

현재는 우리민족의 전래동요를 들으려면 65세 이상, 즉 1950년 이전 출생자들에게서나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동요를 본격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예산의 동요 조사현황을 살필 때 추가조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동요 부분에는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봉산면 봉림리와 덕산면 시량 옥계리 등에서 할머니들을 만나 채록을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했다.

이 책에 수록된 예산의 동요는 어린이들이 불렀던 동요 3종 4곡과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달래거나 재우며 부르는 동요 5종 8곡이다. '자마리 꽁꽁'은 잠자리의 꽁지를 떼어내고 밀대집이나 풀줄기를 꽂고 날려 보내는 놀이를 하며 부르는 전형적인 놀이동요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불렸다. 두 번째 수록된 '달래 먹고는' 먹을 수 있는 나물이나 열매의 이름을 빗대어 노랫말을 만들었으며, 의미를 살려 앞으로 가자는 노랫말로 구성된 동요다. 어린이들이 불렀던 우스갯소리, 풍소가는 어른들도 부른 소리로 남을 놀리는 소리였다. 미워하는 사람을 놀리고 싶은데 직접 놀리는 것이 어려울 때 엉뚱한 표현으로 돌려 놀리는 노래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달래며 부르는 노래는 다른 지역과 같이 불무소리 달강소리, 자장가, 둥둥 등으로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마리 꽁꽁

- 창자 : 미상 - 기록 : 『한국민요대전해설집』(문화방송, 1996); 『한국민요집』(임동권, 동국문화사, 1961); 한국민요학(최철, 연세대학교출판부,)

기상 매 – 상 영문 앞에
도 – 상 장도칼은 무얼 하구
목도 칼은 무얼 하누
범아 범아 오지 마라
절둑 적둑 하기 전에
멀리멀리 훌훌

※ 잠자리 꽁지에 밀짚이나 풀줄기를 꽂아 날려 보내며 부른 동요로 다른 고장에서도 널리 행해진 놀이며 동요다. '저 멀리 훌훌 부분'에서 잠자리를 날려 보내며 여러 아이들이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아이씩 날려 보내며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반복한다. 특히 비교적 잘 잡히는 고추잠자리를 많이 이용했다.

달래 먹고

- 창자 : 미상 - 기록 : 한국 민요집(제6권. 충청남도). 음원 from 권태룡의 전래동요

달래 먹고 달려 가자
쉬어 먹고 쉬어 가자
찔레 먹고 찔러 가가
밤 – 먹고 밤마실 가자
복상 먹고 복 받어서
살구 먹고 살었네

※ 전형적인 여자 아이들의 동요로 손을 잡고 춤을 추듯 뛰어 놀며 부르거나 놀이 없이 노래만 부르기도 한 동요다. 이 동요는 권태룡이 현대 음악으로 편곡 공개하여 온라인 상에서 음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스개 노래(풍소가諷笑歌)

- 창자 : 김현목(생년 미상. 남. 예산군 대흥면 신중리)　- 기록 : 한국민속 종합보고서(제6권 충청남도편)

술래 백장(백정) 개 백장(개 백정)
머리 밑에 이 잡어 먹고
이불 밑에 피 빠－(빨아 먹어라)

※ 예산에서는 이 소리를 우스갯노래, 혹은 우스갯소리라 칭했으며 남을 놀리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부른 소리로 기억한다.

※ 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는 이 노래 제목을 풍소가로 적고 있다.

우스개 소리(풍소가)

- 창자 : 윤병달(생년 미상. 남. 예산군 신양면 만토리)　- 기록 : 한국민속 종합보고서(제6권 충청남도편)

눈깔이 땡 그랗다
먹을 것 잘 베고
도둑놈 잘 지키겠다.

※ 예산에서는 이 소리를 우스갯 노래, 혹은 우스갯소리라 칭했으며, 남을 놀리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부른 소리로 기억한다. 개(犬)를 닮았다고 놀리는 노랫말이라서 이 노래로 놀리면 매우 싫었다 한다. 한국민속 종합 보고서에는 이 노래 제목을 풍소가로 적고 있다.

불무소리 1

- 창자 : 장기순(1919년 생. 삽교읍 신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불아 불아 울 애기 불무두 잘부네
워디 불무냐믄 전라도 재령 불무네
불아 불아 울 애기 불무두 잘부네

워디 불무냐믄 전라도 재령 불무다

※ 예산지역에서 어린 아이의 걸음마를 시키면서 부르던 전래 동요로 어린아이 양손을 마주 잡고 한 발한 발 걸음을 옮겨 주며 부른다. '전라도 재령 불무네'부분은 집안의 내력을 붙여 부르기도 하였다. 사례 : '밀양 박씨 대종 불무네'

대흥면 탄방리 불무소리

- 창자 : 구옥희(1943년 생. 대흥면 탐방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불아 불아 불무 딱딱 불아야
불무 딱딱 불아야
우리 애기 잘 커라 불무 딱딱 불아야
잘 놀아라 잘 놀아 불무 딱딱 불아야

삽교읍 달강달강

- 창자 : 장기순(1919년 생. 남. 삽교읍 신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서울 질이(길을) 갔다 오다 밤 한 되를 주워다가
살강 밑이 묻었더니
머리 까만 새앙쥐가 들강달강(들락날락) 다 까먹구
밤 한 톨 남었는디(남았는데)
이것을 워따(어디에) 삶을까
가마솥에다 삶을까 큰 솥이다 삶을까
가마 솥이 삶어서
조램이(조랭이)로 건지까(건질까) 대꼭지로 건지까 주걱으루 건지까
조래미로 건저서
겉껍데는 오메니(어머니) 아버지 드리구

속껍델랑(속껍네기일랑) 할아버지 드리구

알맹일랑(알맹이일랑) 너허구 나하구 먹자

※ 이 동요는 어른이 어린 아이를 어르며 부르는 동요로 아산, 예산, 공주, 세종시 등 충남의 북서부 지역에서 널리 불린 동요다. 앞뒤 사이사이에 불무 소리의 후렴부분을 반복하며 부르는 사례도 있다.

대술면 장복리 달강달강

- 창자 : 조종술(1915년 생. 남. 대술면 장복1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그것두 다 잊져버렸네, 하두 안하니께

달강달강 달강달강
달강달강 달강달강
서울질이 가다가 밤 한 되를 주섰는데
살강 밑이 묻었더니
머리 가믄 새앙쥐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믄 하나 남았는데
너랑나랑 먹자

허는 건디 다 잊어버렸어. 허두 안 하니께, 잊어버리는 겨.

대흥면 탄방리 달강달강

- 창자 : 구옥희(1943년 생. 여. 대흥면 탄방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서울 길에 가다가 밤 한 되를 주어다

살강 밑이 놨더니 생쥐가 다 까먹고
너 하나 줄라고 놨더니 생쥐가 다 까먹고
반톨 남은 거 너 먹고 나먹고 달랑 먹지

대술면 장복리 자장가 창

- 창자 : 조종술(1915년 생. 남. 대술면 장복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자장자장 자장자장
얼룩이두 잔다
너두 잘자라
삽살이두 잔다
너두 잘자라
자장자장 자장자장

이렇기 허는디 더러 해봤어야 알지

※ 예산의 자장가 소리는 다른 고장의 정서와 같다. 일반적으로는 이 노래에 '우리 아기 잘도 잔다'등의 소리로 불린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 노래는 기억력이 희미해진 노인이 불완전하게 부른 것이 채록 정리 된 것으로 보인다.

대흥면 탄방리 둥기야

- 창자 : 구옥희(1943년 생. 여. 대흥면 탄방리) - 기록 : 예산군지(1999년 6월 채록)

둥기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둥기야 둥둥 둥기야

※ 이 소리는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 어린아이를 안고 어르며 부르는 동요의 후렴 부분이다. 예산군지 수록 분에는 선소리가 보이지 않으나 어린아이와 관련된 소리를 하는데 일정한 곡을 정하기도 하고 즉흥소리로 부르기도 하였다.

기타 – 잡가 등

예산에서는 엄밀히 말해 잡가로 분류할 수 있는 소리가 매우 적어 없다하여도 별 탈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불린 노래 중 기록의 가치가 있는 몇 수의 노래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잡가 첫머리에 수록한 덕수가는 향토민요가 아니라 창자가 직접 만들어 부르는 노래다. 그럼에도 정리하여 수록하는 것은 그 노랫말이 향토민요의 문법을 따르는 까닭이다. 예산지역의 향토민요를 많이 듣고 살아 온 창자가 노래를 배우지 못한 것을 한하여 들은 노랫말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가락을 붙여 불렀다 한다. 뚜렷한 창작자가 있다는 점에서 구전되는 민요와 성격은 다르지만 민요가 만들어지고 민중들에게 퍼지는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진도아리랑 곡에 노랫말을 붙여 부른 난봉재 아리랑은 예산지역에서 한동안 널리 부른 노래인 것 같다. 지역의 정서가 선비적 기질을 닮아 드러내놓고 부르지는 못하였지만, 속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흥겹게 노는 장소에서는 부르는 횟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다.

장돌뱅이 약장수가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타령'과 동학의 녹두장군 전봉준을 노래하는 2수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예산지역의 동학연구에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록한다.

덕수가

- 창자 : 김덕수 작, 창　- 기록 : 본 도서(2014년 채록)

아버님 전에 뼈를 빌어 어머님전으 살을 빌어
열달만에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니
내가 너를 나서 기를 적이는
젖은 자리는 내가 눕고 마른자리에 너를 뉘여

금자동아옥자동아 만첩청산이 보배 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님게는 효자동이
공기야 하기는 항복동이 친구야 가지는 우정동이

이럭저럭 살다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서
팔구십을 먹구 나면 이내 인생 한번 죽어지면
삯이나 나나 움이나 나나 영결종천이믄 북방이라
간다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이을 찾어간다
한 모링이를 돌아가니 두견새는 슬피 울고
또 한 모링이를 돌어가니 광종한 가르는 소리 산천초목이다 흔들린다.

칠성판을 짊어지고 광중안이를 들어가니
회다지 꽝광광 울리는 소리 세계 각국이 흔들린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구서 병들믄 못노나니
이내 인생 한번가믄 영결종천이면 구만이라
당기구둥당당(기성) 둥당당 내 사랑아

※ 이 노래는 예산의 향토소리를 좋아하며 즐겨 부르는 김덕수가 스스로 만들어 부르는 소리로 향토 민요의 생성 과정을 느끼게 하는 소리다.

난봉아리랑

- 창자 : 미상　　- 기록 : 본 도서(2016년 채록)

저기 가는 저 가내야 옷고름이나 풀어라
이제나 숨은디끼 보듬어나 보잔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흥 아라리가 났네

저기 가는 저 가시내 앞가슴을 보아라
조롱 없는 호박이 투통이나 열렸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흥 아라리가 났네

※ 예산에서 채록된 소리들 중 가장 질탕한 난봉재 소리다. 사실 타고장의 난봉재 소리들은 이보다 더 노골적인 노랫말이 많은데 예산에서 본격 난봉재 소리는 이 한 곡뿐이다. 진도아리랑에 붙여 불렀으며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배웠다고 한다. 창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청에 의해 기록을 생략한다.

병타령

- 창자 : 김모씨(생년 미상) - 기록 : 본 도서(1987년 채록)

[사설]
머리 통에 두창 뒤통수에 부스리기
등 판에 등창. 배꼽밑에 배꼽창
부랄 밑에 불알 총 똥구멍에 치질
바가락에 무좀 배꼽 밑에 씨알시미
우두매끼로 생긴듯 해두 변명없는 북망산이 있것능가

[노래]
지(저 혼자) 잘난 놈은 중풍中風에 맞구
돈 많은 노랭이는 급살急煞에 맞구
인정머리 없는(없는) 놈은 등창－瘡이요.
형제兄弟 우애友愛 없는 놈은 안질眼疾이요
불효不孝 친자親子는 괴질怪疾이요.
불충이군자不忠二君者는 참수형斬首刑이구
마누라 미친놈은 앉은뱅이라
니 놈 팔자가 앉은뱅일세.

※ 이 노래는 각설이타령을 부른 김모씨가 각설이타령 외의 노래로 유일하게 부른 노래이다. 가락과 박자가 각설이타령과 유사하여 각설이타령의 일부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게 아니라 별개의 노래라 했다. 장마다 다니는 약장사의 사설을 은연중에 익혀 부르는 것으로 보였다.

새야 새야

- 창자 : 미상　　- 기록 : 〈교양국어〉 - 고려대학교교약양국어 편찬위원회. 263쪽. 1999. 2. 15

아랫녘 새야 웃녘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두류딱딱 우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 첫 노랫말이 '새야 새야 파랑새야'로 익히 알려진 '새야 새야'와 다르다. 다른 노랫말의 형태는 공주에서 2수개 채록되었다. 그 중 1곡은 기록이 남아있고, 다른 한 곡은 채록되지 않았다.

파랑새의 노래

- 창자 : 이기선(생년 미상. 여. 예산군 예산읍 산성1리)　　- 기록 : 한국민속 종합 보고서(제6권. 충청남도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뜨럭 끝에 노는 새야
분을 주랴 연지 주랴
분도 싫고 연지 싫고

금봉채나 찔러다오

※ 동학 관련 '새야 새야'와는 다른 노래로 보인다. 앞의 노래와 이 노래는 같은 제목의 노래이면서 내용은 완연히 다르다. 예산에서 녹두 장군 전봉준을 지칭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노래 2수가 채록되었음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예산군지에 수록되어 있으나 생략한 민요들

책의 발간을 위해 현지조사와 함께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중 이 책의 수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리는 예산에서 채록되었어도 수록하지 않았다. 최근에 개인이 만들어 부른 노래,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래들 중 특히 경기 민요나 강원도 아리랑처럼 한고장의 소리로 고정된 노래를 변형 없이 부르는 민요들도 제외했다. 또한 최근에 편곡되어 가수들이 부르는 민요풍의 가요도 제외하였다.

예산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다른 고장에서 널리 불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에 수록하고 타고장의 민요로 고착된 노래일지라도 선소리가 예산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이 부르는 소리는 기록 하였다.

현재 예산군지에 수록된 노래 중 위의 기준으로 제외한 소리는 대부분 민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제목만 들어도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수긍이 될 노래들이다. 제외된 노래들은 다음과 같다.

01) 양산도 : 대흥면 상중리 노성환 창. 예산군지 1652쪽
02) 한오백년 : 광시면 마사리 임세창 창. 예산군지 1654쪽
03) 태평가 : 광시면 마사리 임세창 창. 예산군지 1656쪽
04) 맹꽁이 타령 : 광시면 마사리 임세창 창. 예산군지 1657쪽
05) 밀양 아리랑 : 광시면 마사리 임세창 창. 예산군지 1658쪽
06) 신고산 타령 : 광시면 마사리 임세창 창. 예산군지 1659쪽
07) 베틀가 : 광시면 마사리 임세창. 창 예산군지 1660쪽

08) 진도 아리랑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1쪽

09) 한강수 타령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2쪽

10) 몽금포 타령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3쪽

11) 경복궁 타령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3쪽

12) 밀양 아리랑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4쪽

13) 정선 아리랑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4쪽

14) 강원도 아리랑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5쪽

15) 꼬불고개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5쪽

16) 닐리리야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6쪽

17) 천안 삼거리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6쪽

18) 창부타령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7쪽

19) 성주풀이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7쪽

20) 매화타령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8쪽

21) 태평가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9쪽

22) 군밤타령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69쪽

23) 농부가 : 고덕면 호음리 전봉남 창. 예산군지 1670쪽

예산의 소리꾼들

한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있어 문화를 향유한 인물들의 면면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연령층의 인물이 어떤 노래를 즐겨 불렀으며, 어떤 노래가 민중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에서 불린 소리의 소리꾼들을 모두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타 문헌이나 음원 등에서 기록한 인물들을 모두 찾아 그들의 인적사항과 즐겨 부른 노래, 잘 부르는 노래를 기록하려 노력하였으며 살아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 모두 포함하였다. 소리꾼과 애호가를 분류하지 않았으며, 노래를 즐겨 불러 소리가 채록되어 기록이 남아있거나 채록과정에서 노래를 들려 준 모든 사람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소리꾼을 지역(읍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읍 : 김모씨 (남). 이기선 (여). 김덕수 (남)—3명
삽교읍 : 김창교 (남). 유진룡 (남). 이긍원 (남). 장기순 (여)—4명
덕산면 : 김동식 (남). 박승갑 (남). 이광선 (남). 이정순 (여). 이종원 (남). 이희천 (남). 이희철 (남). 인건배 (남). 인종명 (남). 장인환 (남)—10명
대흥면 : 구옥희 (여). 김현목 (남). 노성환 (남)—3명
오가면 : 김세갑 (남). 김영상 (남)—2명.
신양면 : 윤병달 (남). 이기선 (남)—2명
광시면 : 윤병준 (남). 임세창 (남)—2명
대술면 : 이덕호 (남). 조종술 (남)—2명
신암면 : 나신환 (남)—1명
고덕면 : 전봉남 (남)—1명

읍면별 지역의 소리꾼 분포에서 덕산면이 타 고장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채록과정의 우연도 있겠으나, 조사자의 생각으로는 덕산장과 덕산 온천이 가지고 있는 소리판

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속 관련 소리꾼과 보부상놀이 관련 소리꾼, 풍물 관련 소리꾼・풍장인들은 별도로 기록한다. 기록하는 순서는 한글 표기 순을 따랐다.

구옥희 1943년 서천에서 내어나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에 시집와 평생을 살아온 여인으로 시집살이 노래와 어린아이를 달래는 불무소리, 달강달강, 둥기야 등을 불렀다. 시집 살이 노래, 불무 소리, 달강달강, 둥기야 등 4곡이 예산군지에 기록되어 전한다.

김동식 생년 미상으로 덕산면 몽곡리에서 활동한 소리꾼. 그가 부른 소리인 장타령이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6권 충청남도 편에 수록되어 전한다. 이 장타령은 조사자 이걸재가 1985년 경 예산 최고의 각설이타령 소리꾼 김모씨가 부른 장타령과 거의 일치한다.

김모씨 1912년 예산군 예산읍 당시 예산 농업전문학교 후미에서 출생하여 예산에서만 살면서 각종의 각설이타령에 능했던 인물. 집안이 곤궁하였으나 소리를 매우 잘했고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타령을 잘한다하여 "김타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60년대 한국전쟁 후 곤궁하던 시기에 노래 잘하는 여성 세 명과 남성 한 명 등이 어울려 놀기를 즐겼으며, 거리 공연을 거침없이 하였는데 이때 주로 각설이타령을 많이 부르면서 "거지대장"으로 불렸다. 그 영향으로 현재의 후손들이 김모씨의 신상을 밝히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

조사자 이걸재는 최초 1979년에 만나 채록을 시도하였으나 각설이타령 중 한탄사설 한 수만 듣고 본인이 거부하여 더 채록하지 못하였다가 1985년 경 예산농전 뒤의 주막에서 김모씨를 세 번 찾아간 끝에 각종의 각설이타령을 채록하였다. 당시 조사자 이걸재에게는 민속음악이 아니라 소설의 소재로 채록한 관계로 구체적인 신상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1987년에 녹음기를 빌려 녹취하였다.

당시 김모씨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였다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997년경 다시 찾아 갔을 때는 사망하고 부인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남편이 생전에 소리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이 한이 되어 채록에 응하지 않았으며 부인이 서울(평택이라는 설도 있음)의 아들 집에 있다가 2003년 경 사망하였다.

김모씨의 각설이타령은 지금의 각설이타령보다 점잖은 특징이 있으며 동살풀이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진양처럼 느리게도 부르고 아주 빠르게도 부르는 등 변화가 다양하였다. 청이 두껍고 힘이 좋아 어떤 부분은 판소리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였다. 그는 각설이들이 신세타령하듯 부르는 슬픈 각설이타령들을 많이 불렀는데 이는 공주의 사곡면 유재천 이라는 인물과 김모씨 두 사람만 부르는 노래였다. 지금은 단절되어 필자 외에는 부르는 사람이 없는 소리가 되었다.

김세갑 대를 이어 충청도 앉은굿(경)을 행한 박수. 광산 김씨의 집안에서 태어나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14-19번지에 살았으며 아들 용봉에게 박수를 물렸다. 무속인이면서 노래를 잘하여 농요와 일반의 민요를 즐겨 불렀다. 좌방리 두레의 선소리꾼으로도 활동하였다. 지역 사람들이 소리 잘하는 무당으로 회자하고 있다.

김영상 오가면 좌방리에서 1939년생 출생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이다. 김용봉의 아들로 아버지와 각종의 전통소리를 즐겨 부르는 마을의 영향을 받아 전통의 예산소리 여러 수를 부른다. 특히 청춘가, 창부타령 등의 대중적인 유희요와 상여행상의 선소리를 잘한다. 보부상난전놀이 보존회에서는 계화자 소리의 선소리꾼이며 풍장놀이 상쇠이나 현대적인 가락을 배워 예산 전통장터풍장가락을 연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아버지에게 경문을 배우다가 무당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함에 포기하였으나 뿌리가 분명한 예산의 앉은굿 경문소리와 굿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중 기본이 되는 경문은 아직도 막힘없이 연행한다.

김영상이 본도서 무속의 노래 편에 채록한 회심곡은 상여소리에 사용되는 변형의 회심곡과 달리 무속인이 경문으로 사용한 회심곡의 전문으로 충청도 앉은굿의 경문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다.

김창교 1932년 삽교읍 창정리에서 출생하여 활동한 마을의 일노래 선 소리꾼. 3대를 창정리에서 살아 온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14세부터 장구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의 풍부한 일노래를 배워 불렀다. 기록이나 음원으로는 모찌는소리와 논매는 소리 2수가 전한다.

그가 부른 논매는 소리는 두레가 두물논매기와 만물논매기 때 부르는 소리로 추정된다. MBC 한국민요대전에 남아있는 음원에 담긴 김창교의 노래는 목소리가 예산 일노래 선소리꾼 특유의 맑은 소리이며 논 일 소리로는 흥이 좋고 가락과 박자가 정확하다.

김현목 생년 미상. 예산군 대흥면 신중리 사람으로 그가 부른 우스개소리가 '풍소가'라는 제목으로『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6권 충청남도 편에 에 수록되어 있다.

나신환 출생 연대 미상의 신암면 신택리 소리꾼. 충남 청양 출신으로 예산의 민속이 관심이 높았던 민속학자 임동권이 자신의 저서『한국의 민요집』에 나신환의 시집살이 노래와 청혼가를 수록하였다. 나신환이 부른 시집살이 노래는 예산에서 채록된 시집살이 노래 중 가장 노랫말이 길고 서민적인 정서가 잘 배어있다. 청혼가는 노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노래인데, 노랫말이 노처녀의 애타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 것이 이채로워 다른 고장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노래다.

노성환 1923년 대흥면 상중리에서 출생하여 활동한 예산 유일의 판소리를 부르고 마을 논매는소리 선 소리꾼. 대흥면의 최고 소리꾼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노성환은 여러 소리에 능했던 인물로 보인다. 예산 군지에 수록 된 노성환의 소리는 적벽가 1수. 수궁가 1수, 판소리재의 단가 1수와 논매는 소리 1수, 방아타령 1수, 양산도 1수

등이다. 또한 MBC 한국민요대전 우리소리를 찾아서에 논매는 소리 1수가 음원으로 남아있다.

그가 부른 판소리들은 노랫말로 보아 충청 일원에서 널리 불린 고제 판소리로 보이며 이는 예산의 중고제 문화에 소중한 자료이나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생전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노래했는지를 알 수 없다. 노성환의 소리가 없었다면 예산군 판소리가 완전 절맥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인물이다.

박승갑 1896~1897년경 덕산면 시량리 출생자로 박영택의 아버지. 1964년 이후에는 덕산장에서 옷 장사를 난장으로 행한 인물로 각종 소리에 능했던 소리꾼. 인건배의 고사축원 소리를 배워 인건배의 사망이후 그 소리를 하였다. 이후 인건명의 아들 인종명이 그 소리를 배우고 싶어 하자 1964년 기록으로 노랫말을 전해주고 소리를 들려주어 예산 고사 축원소리의 맥을 잇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본디 박승갑은 시량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겨울이면 나무장사를 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꾸려 나갔으나 대치리로 이사를 하고 나서는 덕산장에 나와 난장으로 장사를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점잖은 신명'이 좋다고 회자하였으며, 혼자 장사를 할 때면 북과 괭가리를 혼자 치면서 호객을 하였다 한다. 보부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덕산장의 고정 장사꾼으로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인물이며 덕산장에서는 이름 있는 소리꾼이었다.

유진룡 1916년 당진 출생. 곤궁한 가정에서 태어나 19세에 예산 삽교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예산으로 이주하였고 21세에 예덕 상무사에 가입하여 장사를 하였으며 1980년에 예덕 상무사의 두령이 되었다.

소리를 잘하는 소리꾼은 아니었으나 상무사 관련 노래를 많이 알고 즐겨 부른 인물로 '공문제 소리', '새우젓타령', '담바구파는소리', '엿장사타령', '싸구려타령(필목장사)' 장타령과 각설이타령이 혼재한 '각설이타령' 등을 불렀으며, 이 소리들은 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제5권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은『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

어?』(구술 유진룡. 편집 김택춘)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윤병달 생년 미상. 신양면 만토리 사람으로 그가 부른 우스개소리가 풍소가라는 제목으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6권 충청남도 편에 수록되어 있다.

윤병준 1920년 광시면 신흥리 출생. MBC 한국민요대전에 예산 광시지역 다리 공사현장에서 부른 '말목박는 소리'와 일제강점기 금을 캐는 광산에서 부르던 '메질소리'를 부른 사람. 예산의 말목박는 소리와 메질소리는 이 소리가 유일하다.

이광선 1929년 덕산면 광천리 출생으로 고사 축원소리에 특히 능했던 인물. 3대가 덕산에서 살아 왔으며 상쇠잽이로 활동하였다 한다. 이광선의 소리는 『예산군지』의 기록과 『MBC 한국민요대전 우리소리』를 찾아서에 맑은 음원으로 남아있다. 창자의 목소리가 맑고 높으며 낮은음과 높은음을 구사하는 영역이 넓고 높은 소리의 발성을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특색이라 할 만큼 좋다.

또한 그가 남긴 상기 음원의 고사축원은 가히 예산 고사축원의 종합본이라 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덕산 지역의 민요 채록 과정에서도 이를 덕산 최고의 소리꾼으로 회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긍원 1930년 출생하여 삽교읍 둔2리에 살았던 소리꾼. 이긍원의 부른 각설이타령이 『MBC 한국민요대전 우리소리를 찾아서』에 음원으로 남아있다.

이긍원의 각설이타령은 예산지역의 각설이타령과 구성이 다르고 노랫말도 걸인들이 구걸하는 소리에 가깝다. 음원의 각설이타령은 창자의 목소리가 맑고 구성져서 각설이타령과 잘 어울리며 일정한 가락과 박자를 지키는 것으로 보아 소리꾼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기선 1944년 신양면 신양리 출신의 소리꾼. 여러 민요를 즐기다가 지금은 부르지

않으며 상여행상 선소리와 산소의 무덤다지는 소리인 '달궁소리'를 잘 부르며 두레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와 집터다지는소리도 부른다. 집터다지는소리는 노랫말의 구성과 내용이 좋으며 예산에서는 유일하게 채록되어 전하는 소리로 전통소리 맥을 잇는 중요한 자료다. 『예산군지』에 그가 부른 소리로 상여행상 선소리, 달구소리, 논매는소리, 집터다지는소리 등이 수록되어 전한다.

이기선 생년 미상. 예산읍 산성1리의 여인. 이기선의 노래는 파랑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6권 충청남도 편에 기록되어 전한다. 동학의 녹두 장군을 상징하는 파랑새 노래는 다른 고장에서 채록되지 않은 독특한 노래말로 이루어졌다.

이기순 덕산면의 여자 소리꾼. 예산 문화원의 경기민요 강습에 참여하여 소리를 시작하였으며 노랫가락 등에 능하다.

이덕호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에 살던 상여행상 선소리 꾼으로 활동했다. 그의 상여행상소리는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6권 충청남도 편에 수록되어 있으나 소리꾼에 대한 기록은 없다. 예산에서 상여행상소리는 일반적으로 회심곡의 노랫말을 활용하는데, 이덕호의 선소리는 '이제가면 언제오나, 백발보고 웃지마라'조의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이덕호가 상여 소리 외에도 많은 민요를 즐겨 부른 것을 의미한다.

이정순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출생하여 예산을 출가하여 생활하다가 현재는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271-8번지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다. 아버지가 시량리의 전통 소리꾼이며 두레풍장의 풍장꾼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영향을 받았다. 예산에서만 살아 온 그녀는 경기민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인연으로 소리를 접하였으며, 보부상놀이를 통해 지역의 소리꾼이자 정리자로 일생을 보내고 있다.

경기 민요가 전국적인 유행한 반면 보부상 놀이는 예산 고유의 문화라는 인식에서 예덕 상무사의 보부상놀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구전으로만 전하는 보부상놀이의 소리들을 접장 윤기상의 도움을 받아 악보화 하였다. 규범이 없는 소리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하기도 하였다.

보부상놀이의 예능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보부상놀이가 상무사와 공연단으로 분리되면서 상무사에서 이탈하여 공연단, 현재의 보부상 난전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도자로 일반 예술단의 예술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창의력이 좋아 각종 장사치의 공연용 사설과 대사를 모두 정리하였으나, 보부상과 예산 전통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기재의 선거리 무당의 굿과 경상도재의 담방구타령을 공연작품으로 연출하였다. 이정순은 사실상 구전으로 전래되던 보부상 놀이의 규범화 악보화에 큰 공을 세웠으며 이는 정당히 평가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연희 되는 보부상 놀이 죽방울 놀이 2.3절, 떡 타령, 옹기타령은 그가 작사 작곡한 창작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보부상 놀이의 상여소리 노랫말을 작사 수준으로 정리하였고 다른 노래(소리)들의 악보화 작업도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1923년 예산 옥계리 380번지 출생. 덕산 일원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소리꾼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최고령 소리꾼이다. 본인이 출생한 가옥이 소류지에 수몰되어 현재 살고 있는 옥계리 140 - 3번지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의 아들 이희철이 보부상 놀이에서 각종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배역자로 활동 하고 있다.

이종원은 예산 일원에서 널리 불린 고사축원에 능하며 현재까지 그 원형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타고장의 비나리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인물로도 보인다.

고사축원 외에도 상여행상소리, 두레 논매는소리, 회심곡, 청춘가, 창부타령, 노랫가락 등의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데 순수 예산의 향토 민요를 부르고 있어 자료적 가치

가 매우 높다.

본인이 자신을 치매 환자라고 말하며 사실상 다른 부분의 기억은 매우 단편적인데 반하여 노래에 관하여는 아들이 시작을 하면 모두 부르며 즐거워하였다. 또한 자신과 함께 활동한 민속 예술인들이나 소리꾼들에 대한 사항은 잘 기억하고 있어서 덕산 일원의 소리꾼들에 대한 증언을 다수 채록할 수 있었다.

93세의 나이에도 노래를 부르는 청이 매우 맑아 70대인 그의 아들 이희철보다 청이 좋은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아직도 노래를 부르면 힘이 부족하여 상청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 그의 부인 장기산의 증언에 의하면 덕산 장 전날과 장날은 언제나 함께 어울려 노는 소리꾼들과 어울려 마당 공연을 즐겨 농사일을 등한시 여겼다 한다.

이희천 1915년 경 예산 덕산 출생. 이종원과 4촌간으로 상여소리에 능하여 옥계리 일원의 초상집에는 상여소리 선소리꾼으로 활동하였다. 노랫가락, 창부타령, 뱃노래 등에 능하였으며 풍장은 북을 쳤다.

이희철 1947년 8월 15일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출생. 이종원의 아들로 옛 소리에 능하며 보부상 예덕 상무사 소속으로 공연시 각종 소리를 부르는 인물이다. 보부상 놀이에서는 공문제 고사 축원소리, 각설이타령, 상여소리, 새우젓장사 소리를 부르는데 이를 소리꾼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예산의 옛 소리를 잘 보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그가 부르는 보부상 놀이의 공문제 축원은 예산의 전통 고사축원에 공문제의 내용을 더하여 부른 형식을 보이며 예덕 상무사 공연팀의 예능 지도를 맞고 있다.

임세창 1940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출생. 광시면에서는 널리 알려진 소리꾼으로 활동하였으며, 예산에서 채록된 노랫말로는 가장 구성이 좋고 노랫말의 내용이 정리된 소리를 하였다. 특히 상여소리에 사용되는 회심곡을 별도의 소리로 언제든지 소리

할 수 있는 예능을 지녔는데 이는 흔한 일이 아니다.

노랫가락, 창부타령, 청춘가에 능했으며 각설이타령도 불렀다. 『예산군지』에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산군지에는 실리고 이 책에 실리지 않은 노래 6곡도 예산군지에 실렸다.

인건배 1890년대 출생하여 덕산면 시량리에서 살았던 상쇠이면서 소리꾼으로 현재 보부상난전놀이단의 인종명의 아버지. 발연리 55번지 거주. 생존한 소리꾼. 같은 마을에서 1910년대에 활동한 박승갑의 영향으로 소리를 시작하여 즐겼으며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에 능했다. 특히 상여 행상소리와 고사축원에 능했다.

인종명 1939년 출생.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산의 소리꾼 중에 뿌리 깊은 전통의 예산 소리를 맑고 높은 청으로 노래하는 소리꾼으로 보부상 난장놀이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부상 난장놀이 공연에서는 새우젓타령, 각설이타령, 상여행상소리를 공연하는 중추적인 인물이다.

덕산면 시량리의 소리 맥은 1910년대의 박승갑, 1930년대 이후의 인건배의 뒤를 이어 인종명이 활동한 까닭에 전승의 계보가 확실하다. 이런 연유로 그가 부르는 상여행상의 선소리와 시량리의 고사축원은 전통 예산 소리로써의 가치가 매우 높다.

장기순 1919년 삽교읍에서 출생하여 삽교읍 신리로 혼인하여 일생을 살아간 여인으로, 예산군에서는 유일하게 베틀가를 불러 예산군지에 수록되었다. 이 베틀가는 노랫말이 예산지역 특유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소중한 자료다. 또한 방아타령 후렴과 어린아이를 달래는 불무소리, 달강달강 등을 불렀으며 이 4곡이 『예산군지』에 수록되어 전한다.

장인환 1923년 예산 옥계리 출생. 덕산 일원에서 이름이 높은 상쇠이면서 소리꾼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앞서 기록한 이종원과는 나이가 동갑이며 놀기 좋아하고 소리에

능하며 풍장을 잘쳤기 때문에 늘 함께 활동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장인환은 청춘가, 노랫가락에 능하였으며 축원소리도 잘하여 이종원이 축원소리를 하지 못할 때는 그가 부르기도 하였다. 스스로를 풍각쟁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으로 성격이 호방하였으며 새로운 문화에도 능동적이어서 창가를 배워 즐겨 불렀다. 타지역의 민요와 양산도, 노들강변, 태평가도 잘 불렀다.

특히 상쇠로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한다. 박상쇠의 풍장을 배우지 않고 옥계리의 마을 풍장을 잘 쳤으며 덕산장에서 수시로 공연하였다 한다.

전봉남 1933생으로 고덕면에서 활동한 소리꾼이다. 두레패 상쇠를 지낸 아버지의 영향으로 풍장과 지역 전통소리에 능했으며 특히 회심곡을 노랫말로 하는 상여행상소리 선소리꾼으로 활동하였다. 전봉남은 현대 민요도 많은 노래를 배워 즐겨 부르는 인물로 예산군지에 수록되고 이 책에서는 생략된 소리도 진도 아리랑 등 17곡에 이를 만큼 흥이 좋으며 민요를 좋아하는 인물이다.

조종술 1905생으로 대술면 장복리에서 두레 소리의 선 소리꾼. 고령에 채록하여 논매는 소리와 자리개질 소리 두 곡 모두 짧은 소리가 전하나 예산의 동쪽 차령산 줄기 마을에서 부른 논매는 소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자리개질 소리는 현재까지는 예산에서 채록 된 유일한 추수 현장소리로 가치가 있으며, 그의 논매는 소리와 자리개질 소리, 어린아이를 달래는 달강달강, 자장가 등이 예산군지에 수록되어 있다.

김덕수 1926생으로 예산읍 발연리 55번지 거주하는 생존한 소리꾼. 예산에서 태어나 6세에 홍성군 은암면 하봉리 상가에서 살다가 26세에 다시 예산으로 귀향하였다. 아버지 김종한은 마을에서 침을 놓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다 한다.

김덕수는 흥이 매우 좋고 남이 하는 것을 보면 잘 기억하여 자기의 흥으로 노래를 바꾸어 부르는 것에 능숙하다. 이런 이유에서 소리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고도 주변에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노래를 스스로 익혀 많은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단점으로는 한 곡 한 곡 노래를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을 즐기는데 어떤 노래를 시작해도 끝없이 계속하여 주변 사람을 질리게 하였고, 그런 이유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리꾼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의 소리가 중요한 것은 예산지역의 민요를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나 1주일 만에 한글을 깨우쳤다 하며, 그 후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옛날이야기 책을 읽어 주었다. 이때 읽은 책은 옥단춘전, 장화홍련전, 최공원전 등이었다 한다. 이른바 충청도 일원에서 '책 읽어주는 사람' 또는 '만독꾼'으로 불리는 민간의 예능을 생활 속에서 행한 인물이다.

회심곡을 배우다가 자기 인생을 주제로 만들어 부른 노래를 '덕수가'라 칭한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제목이다. 우리나라의 민요가 만들어 지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매일 예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 나오며 매일 노래를 부른다 한다.

※ 김덕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며, 노래 중 작창의 소리가 많아 별도 분리 차원에서 순서를 바꾸어 마지막이 수록함

예산의 무속 소리

예산지역의 무속 신앙은 선거리가 없고 앉은 경(앉은 굿)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무속인 중 경기도의 선거리들이 예산지역에서 굿을 하기도 하였지만, 전통사회 예산에서는 모두 지역민들이 '정'이라 일컬었던 앉은 굿(앉은 경)을 행하였다. 이런 문화적인 면은 예산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살필 수 있다. 예산에서는 굿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굿을 한다고 하지 않고 "정을 읽는다"고 했다.

앉은굿은 어느 면에서는 아주 독특한 굿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작은 규모로 앉은굿을 할 때는 무당 한 명과 대를 잡는 대잡이 한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굿이었다. 무당이 북과 꽹과리 각각 한 개를 앞에 놓고 채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경문을 왼다. 굿을 시행하는 절차는 ① 굿을 하는 마당을 씻는 부정풀이를 하고 ② 좋은 기운을 불러 들이는 명당경, ③ 굿을 하는 본디 목적을 위해 읽는 각종의 본경, ④ 해원으로 이어진다.

앉은굿이 독특하다는 것은 이런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당의 경문소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무당이 북, 꽹과리를 치는 반주로 경문을 외면, 신장대라 하여 한지를 좁고 길게 잘라 대나무에 묶어 늘어뜨린 대로 접신을 하여 대잡이의 행동으로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풀어내는 형식이다. 무당이 직접 자신의 몸에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타 고장의 굿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충청도 일원에 만연하였던 앉은굿에서도 처음 무기를 자기 몸에 받는, 무당이 되기 위해 행하는 내림굿 등 일부의 굿은 무당의 몸으로 신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무당의 몸으로 신을 받아들이는 굿을 예산에서는 '큰 정'이라 했다. 큰 정을 읽는다면 한지를 여러 모양으로 오려 굿청을 만들며 하루에 끝나지 못하고 3~4일을 계속 진행하고 드물게는 7일 동안 정을 읽기도 했다. 이런 굿판조차 모두 무당은 경문을 외고 대를 잡는 기본의 진행이 같았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무당이 타 지역에 비하여 천시 받는 정도가 비교적 약했다. 예산의 동쪽 차령산맥 자락의 마을들에서는 무당을 높여 이르는 말로 '큰 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무속과 관련된 예산의 소리는 음악적 리듬감이 매우 적으며, 소리의 진행이 한 가지로 느껴질 만큼 단조롭다. 또한 상당부분의 경문은 법문, 경문이라 하여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한자어 경문을 발음 그대로 외는 까닭이다. 그나마 명당 경의 명기 부르는 소리나 회심곡 등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이고 반야심경 등이 친숙한 소리였다는 정도다.

경문은 본디 불교 경전의 경문 소리가 근본이지만 연행하는 무당에 의해 변형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산에서 채록된 경문은 모두 불교적인데 이는 수덕사라는 지역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는 큰 사찰이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앉은굿에서 사용된 소리만을 채록하여 기록한다. 많은 내용이 채록되지는 않았으나 확실한 증언에 의하여 선창자가 분명한 경문소리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예산 안택경의 반야심경문

- 창자 : 김영상(1939년 생. 남. 오가면 좌방리 14-19)　- 기록 : 본 도서(2014년 채록)

일 년이면 열 두달 과년이믄 열 슥달 내내
올해 그저 계사년을 맞이하여 몸 건강하구
아무 탈 없이 이뤄지기를 그저 간절히 비나이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악)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악)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집멸도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고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 첫소리의 시작부분은 창자가 채록 시 행한 소리다. 본경의 주요 내용은 반야심경이며, 경문의 첫 두 소절은 원문을 상용하고 후에 부분에서는 발음상의 변화를 주어 앉은 경의 경문으로 변한 소리로 보인다.
아버지가 무당임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창자의 음성이 예산지역 박수로 아주 적당한 목소리 였다. 경문을 외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행하는데, 반복되는 가락과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노래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았다. 이는 예산지역 앉은경 경문소리이며 이 특성을 아주 잘 보관하고 있었다.

예산 앉은 경의 회심곡 (독경용)

- 창자 : 김영상(1939년 생. 남. 오가면 좌방리14-19)　- 기록 : 본 도서(2014년 채록)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를빌어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덕 알을손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덕 못다갚아
어이없고 애닯고나 무정세월 여류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닭고도 설운지고 절통하고 분통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홍안백발 늙어가며
인간에 이공도을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못하니라
인간백년 다살아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단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나 약효염이 있을손가
판수불러 정읽은들 경덕이나 입을손가
재미쌀을 쓸고쓸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촛대한쌍 벌려놓고
향료향합 불갖추고 소지한장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아름있어 감응이나 할까보냐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전륜대왕

열시왕의 부린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는 철봉들고
또한손에 창검들며 쇠사슬을 빗겨차고
활등같이 굽은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문을 박차면서 뇌성같이 소리하고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삐가자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영이라 지체할까
실날같은 이내목에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야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자라도 갖고가게
만단계유 애걸한들 어느사자 들을손가
애고답답 설은지고 이를어이 하잔말가
불쌍하다 이내일신 인간하직 망극하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북망산천 돌아갈제 어찌갈꼬 삼삼험로
한정없는 길이로다 언제다시 돌아오랴

이세상을 하직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처자식의 손을잡고 만단설화 다못하여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을 버려놓고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목숨 살릴손가
옛늙으니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드니
오늘내게 당하여서 대문밖이 저승이라
친구벗이 많다한들 어느누가 동행할까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예배하고
대문밖을 썩나서니 적삼내어 손에들고
혼백불어 초혼하니 없던곡성 낭자하다
일직사자 손을끌고 월직사자 등을밀어
풍우같이 재촉하여 천방지방 몰아갈제
높은디는 낮아지고 낮은디는 높아진다
악의악식 모은재산 먹고가며 쓰고가랴
사자님아 사자님아 내말잠간 들어주오
시장헌데 점심하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쉬어가자 애걸한들 들은체도 아니하고
쇠뭉치로 등을치며 어서가자 바삐가자
이렁저렁 여러날에 저생원문 다달으니
우두나찰 마두나찰 소리치며 달려들어
인정달라 비는구나

인정쓸돈 반푼없다 담배골고 모은재산
인정한푼 써볼손가 저승으로 옮겨볼까
의복벗어 인정쓰며 열두대문 들어가니
무섭기도 끝이없고 두렵기도 측량없다.

대명하고 기다리니 옥사장이 분부듣고
남녀죄인 등대할제 정신차려 살펴보니

열시왕이 좌개하고 최판관이 문서잡고
남녀죄인 잡아드려 다짐받고 봉처할제
어두귀면 나찰들은 전후좌우 벌려서서
기치창검 삼열한데 형벌기구 차려놓고
대상호령 기다리니 엄숙하기 측량없다

이놈들아 들어보라 선심하랴 발원하고
인세간에 나아가서 무슨선심 하였는가
바른대로 아뢰어라 용방비간 본을받아
임금님게 극간하여 나라에는 충성하며
부모님게 효도하여 가범을 세웠으며
배고픈이 밥을주어 아사구제 하였는가
헐벗은이 옷을주어 구란공덕 하였는가
좋은곳에 집을지어 행인공덕 하였는가
깊은물에 다리놓아 월천공덕 하였는가
목마른이 물을주어 급수공덕 하였는가
병든사람 약을주어 활인공덕 하였는가
높은산에 좋은밭에 원두심어 행인해갈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들어 마음닦고 선심하야
염불공덕 하였는가

어진사람 모해하고 불의행사 많이하여
탐재함이 극심하니 풍토옥에 가두리라
착한사람 불러들어 위로하고 대접하여
못쓸놈들 구경하라 이사람은 선심으로
극락세계 가올지니 이아니도 좋을손가

소원대로 물을적에 네원대로 하여주마
극락으로 가려는냐 장생불사 하려느냐
서왕모의 사환되어 반도소임 하려느냐
네소원을 아뢰어라 옥제에게 주품하사
남중절색 되어나서 요지연에 가려는냐
백만군중 도덕되어 장수몸이 되겠는냐
어서바삐 아뢰어라

옥제전에 주문하며 석가여래 아미타불
재도하게 이문하자 산신불러 의론하며
어서바삐 시행하자 저런사람 선심으로
귀이되어 가나리라
대웅전에 초대하야 다과올려 대접하며
못쓸놈들 잡아내어 착한사람 구경하라
너희놈들 죄중하니 풍토옥에 가두리라
남자죄인 척결한후 여자죄인 잡아들려
엄형문 하는말이

너의죄목 들어봐라
시부모와 친부모게 지성효도 하였는냐
동생항렬 우애하며 친척화목 하였는냐
괴악하고 간특한년 부모말씀 거역하고
동생간에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게하며
세상간악 다부리며 열두시로 마음변화
못듣는데 욕을하고 마주앉자 웃음낙담
군말하고 성내는년 남의말을 일삼는년

시기하기 좋아한년 풍토옥에 가두리라

죄목을 물은후에 온갖형벌 하는구나
죄지경중 가리어서 차례대로 처결할제
도산지옥 화산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독사지옥 아침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 분부하야 모든죄인 처결한후
대연을 배설하고 착한여자 불러들어
공경하며 하는말이
소원대로 다일러라 선녀되어 가려느냐
요지연에 가려느냐 남자되어 가려느냐
재상부인 되려느냐 제실왕후 되려느냐
제후왕비 되려느냐 부귀공명 하려느냐
네원대로 하여주마 소원대로 다 일러라

선녀불러 분부하야 극락으로 가게하니
그아니도 좋을손가 선심하고 마음닦아
불의행사 하지마소

회심곡을 업신여겨 선심공덕 아니하면
우마형상 못면하고 구렁이뱀 못면하네
조심하여 수신하라 수신제가 능히하면
치국안민 하오리니 아무쪼록 힘을쓰오
적덕을 아니하면 신후사가 참옥하니
바라나니 우리형제 자선사업 많이하여
내생길을 잘닦아서 극락으로 나아가세

나무아미타불

거룩하신 부쳐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 이 소리는 일반 국악인들이 꽹가리로 반주를 하면 고사축원을 하듯이 행하는 소리가 아니라 북과 꽹가리를 앞에 놓고 굿을 하듯 치면서 행하는 경문이다.
창자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가 정을 읽을 때 행한 소리임을 생각하며 익힌 소리라 한다. 회심곡 원문에 충실한 노랫말이며 부분적으로 약간의 수정이 있어 보인다.

앉은 경(굿) 경문

- 창자 : 유복렬(1929년 생. 여. 덕산면 둔리) - 기록 : 본 도서(2014년 채록)

－심방장수 경문－

대납장진 원옴남아 자리정법게(계) 진언 옴 담

문여시일시불 재비야달마성

요학태중 십방상수 사중위요 이시무애 보살재

대중중자긔(귀) 합장향불 이백불언 세존차염부 데(대)중생

례(예)대상생 무시이래 상속부단 유식자조

무지자다 념(염)불자소 구신자다

지게자소 파게(계)자다 정신자소

해태자다 장수자소 단명자다 선정자소

산란자다 부귀자소 빈천자다 온유자소

강강자다 흥성자소 경독자다 정직자소

곡첨자다 청신자소 탐탁자다 보시자소

간인자다 신설자소 허망자다 치사세속

천박○○ 관○○○ 부여번중 소구다난득 량(양)유신사도견중생

획예시고 유윈세존 위제 사견중생 셜(설)기정견지법 령득 오해

면어중고 불언 선재선재 무애보살 여대자비 위제
사견중생 문어여래 정경지법 불가의
여등례청 선사념지 오당위여 분별해셜(설) 텬(천)디팔양지경
차경과거 제불이셜(설) 미래 제불당셜(설) 현재
제불그셜(설) 부 텬(천)디지간 위인
최승최상 귀어일톄(체) 만물. 인자

정야진야 심무허망 신행정진 좌별위정
우별위진 상행정진 고명위인 시지
인능홍도 도이윤신 의도의인 개셩셩(성성)도
부차무애 보살일톄(체)중생 귀득인신불능
○○○○ ○진향위 조종○○ ○장욕종 침륜고해
수조○○죄 악문차경 신심불역 즉득해탈
계리재난 즐어고태 서신가호 무제참배
연년익수 이무횡보 이신 수자득송
여법수탱 긔(기)공덕 불가청

불가랑 무유변제 명종지지후 범득성불 불고무애보살 마하살
악유중생 신사도견 즉피 사마외도 리매망량 조명백괴 제악귀신
경리노란 여기핑병 약종 악쥬악오 수기통교 무유휴식 우선지식
귀득 자경삼편 시제악귀 개실소멸 범즉제유
신강력즉 득경공덕 획여시복 약유중생
다애○○ 진예○○ ○○○○ 약전○경 신경공양즉독
차경○○ 우치등악 병개제멸 자비희사 득불법분
부차 무애보살 선남자 선녀인등 홍융위법
선독 차경삼편 축장동토 안입가택

남당북당 동셔서셔 주사객실 문호 정조
개대고장 육축난혼 일유월살 장군태세
황번표○ 오토디(지)신

청룡백호 주작현무 륙갑금위 십이제신 토위복룡 일톄(체)귀매
객실은장 원병타방 현소영멸 불감위해 심대길리 득복무량
선남자 흥공지우 당사영안 오택로고 부귀길창 불구자득
약요 원행종군 사환흥행 심득의

문홍상구 범자찬순 ○○○○ 충남충녀종정 형공제순 부처화목
신의독친 소원성취 약유중생 홀피 현관국게 도덕견만 잠독
차경삼편 즉득해탈 약유선남자
선녀인 수지독종 위타인서사 텬(천)디팔양경자
설입수화 물피분표 흑재산택 호랑병적 불감박서 선신위호 셩(성)무
삼도약부유인 다어 망어 긔(괴)어 량(양)설 악구
약능수지 독송차경 영제 사과 득
사무애변 이셩(성)불도 악선남자
선녀인등 부모유죄 림종지일 당타니(지)옥
당타니(이)옥 수무량고 귀자즉위 독송
차경칠편 부모 즉리디(지)옥 이생텬(천)상
견불문법 오무생인 이셩(성)불도 불고
무애보살 비바시불 시유우바세
○○○○ ○○○○ ○○○○ ○○○○ 차경○지독

송수작 즉작 일무소문 이정신고 겸행보시 평등공양 득무루신
셩보리도 호왈 보광열래 음정등각 겁명대만

국호두변 단시인민 행보살도 무소득법
천성친지후 부귀해로자소 번한생리사
별자다 일종신사 여햐 이유차별 유원

– 천지팔양신주경 –
부차 무애보살 차 텬디(천지) ○○○○○
붗체 재재처처 유팔보살 제비텬(천)왕
일체명령 위요차경 향화공양 여불무이
불고 무애보살 마하살 약선남자 선녀인 등위제중생
강셜차경 심달실장 득심
심리 즉지신심 불심법심 소이 능지즉 지혜안 상견 종종무진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샹향색 력공즉시 묘색신여래
이상문 종종무신셩(성)

성즉시공 공즉시셩 즉시묘음성여래
비상후 종종무진향 향즉시공 공즉시향 즉시향적여래
셜상요 종종무진미 미즉시공 공즉미시 즉시법회여래
신상각 종종무진촉 촉즉시공 공즉시촉
즉시여래 ○○○○ ○○○○ ○○○○
션(선)남자 차륙근현현 열 개구상
셜긔선어 선법상진 즉셩셩(서성)도
셜긔(설키)사어 악법성전 즉타디(지)옥
선남자 선악지리 부득불신 선남자 인지신심 시불법긔 역시
십이부 대경권야 무시이래 전독부진 불손호모 여래장경 유식심
견성자지 소능지 비제 셩문(성) 범부 소능지야 선남자
독송차경 심해진리 즉시신심 시불법긔(기) 약취미 불성

불요자심 시불법근본 류랑재취 타어악도 영침고해 불문불법명자 이시
오백텬(텬)자 재대중중 문불소셜(설) 득법안정
개대환희 즉발무등등 아록 다
다삼약삼보리심 무애보살 부백불언
○존 인지재세 생사위중 생불택일
시지즉생 산불택일 시지즉시 사불택일
지지즉시하이 법장즉문 량진길일 연시변장
변장지추 황후방해 빈궁자다 멸물자불소 유원세
석불 존위제사견 무지중생 설긔(기)인연 령독경건 제기전도

불언 선재선재 선남자 멸실심능 문어중생 생사지사 빈장지법
여등테(체)청 당워여일 지혜지리 대도지법 부 텬(천)디(지)광대청
일월 광장명 시년 선션(선)미 실무유이 선남자 인왕보살 심대자비
민념중생 개여격자 하위인주 작민부모 순어속인 교민속법 유작렬
일 반하텬(천)하 영지사절 위유 만평성수 개제지사 집위파
살 지문우인 의자신용 무불면긔(귀) 흉화유사 사사압진 셜(설)시도비
만구사진 배아귀 각초암 자수고 여신인배 반텬(천)시 역디(지)리
○○ ○○○○ 상루○○ ○○○○
항심사경 정도지심야 선남자 산시 독숑(송)
차경칠편 심대길리 획복부량
문영인귀 연년익수 명종지일 병득셩성
선남자 빈장짇디 막문동서남북
안온지처인지애락 귀신애락 즉독 차경삼편
변이수영 안치묘전 영무재장 가부인흥
심대길리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셜개언 영생선성일 휴빈호호 시생사독송경

심득대길리 월월션(선)명월
년년대호년 독경즉빈장 영화만댗창
이시중중 칠만칠천인 문불소셜(설)
심개의해 사사귀청 득불법문 영단의혹
개발아 록다라 삼약삼보리심
무애보살 부백불언 세존
일테(체)범부 걔(개)이혼구위친 선문상의 후취길일연시
성친 셩(성)친전후 부귀허로자소 ○○○○
시리사별자다 일증신사 여하다중 차별유언세존 위결중외
불언 선남자 여등테청(체청) 당위여셜(설)
부 텬(천)음디(지)양 월음일양 수음화양
남음여텬디긔(천지기)합 일례초복 생언
일월교운 사시팔절 명언수화상승 일테(체)만물 숙언
남녀윤해 자손흥언 개시 텬(천)지상도
자영지리 세테(태)지법 선남자 우인무지 신기사사
복불망길 이불수선 조종악업 명종지후
부득인신자 여지갑상토 타어디(지)목
작아귀축생자 여대디(지)토 선남자 부득인산
정신수선자 여지갑상토 신사조악업자 대여디(지)토
선남자 욕결혼친 막분수화상극 포태상압 년명불동
○간록명서 시즉지복 덕라이위 권속 호영지일
즉독차경삼편 이이성례 차내 선선상인 명명삼소자
문고인귀 자손흥셩(성) 총명리지 다재다예
효경상승 심대길리 이두중요
복덕구족 개셩불도

시유팔보살 승불위신 득대총시 상처인간 화강동진 파사립정
도사생 처팔새 이불자이 기명월 발다라보살루진화
라린갈보살루진화 교목도보살류진화
나라달보살루진화 수미심보살루진화
인저달보살루진화 화륜조보살류진화 무연관보살루진화
시(십)팔보살 구백불언 세존아등 어제불소
득다라니 신주 이금설지 옹호수지
팔양경팔○시 팔시륙근시륙시○
함장식 아뢰야식 시명팔식 명오분별
팔식근원 공무소유 즉시지량
안시광명텬(천) 광명텬(천)중 즉현
일월광명 세존량니(이) 시셩(성)문텬(천) 셩(성)문텬(천)중 즉현
무량셩(성)여래 량비. 시불향텬(천) 불향텬(천)중 즉현
성취로사니불 로사니 경상불 로사니
광명불의 시무분별텬(천) 무분별텬(천)중 즉현
부동여래 대광명불심 시법개진 법개텬(천)중 즉현
공왕여래 함장식텬 연출 아나함경 대반열반경
아뢰야식텬(천) 연출 대지도론경 유가론경
선남자 불즉지법 법즉시불 합위일상 즉현
대통지승여래 불셜(설)자경시
이테(체)대디(지) 륙(육)종진동 광조텬디(천지)
무유변졔(제) 호호탕탕 이무소명 일테(체)
유명 개실명랑 일려○○ 병개소설 일톄(체)죄인 그득리고
이시 대중지중 팔만팔천보살 일시성불
호왈 공왕여래 응정등각 겁병리구
국호두변 일톄(체)인민 개행보살

륙(육)바라밀 무유피자 증무장삼매
톄(체)무소득 륙(육)만륙(육)천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라 득대총지
일불이법문 무수텬(천)룡 야차

건달아수라 가루라 긴(진)나라 마후라가
인비인등 득법안정 행보살도
선남자 약부유인 극관등위지일
급신입택지시 잠독차경삼편 심대길리
선신가호 연년익수 북덕구족
선남자 약독차경일편 여독일톄
(체)경일편 약사일권 여사일톄(체)경일부
기공덕 불가칭 불가량 등허공
무유변제 셩(성)성도과

보○무○○보살 마하살유중생 불신정법
상생아견 홀문차경 즉생비방
언비불설 시인현세 득백뢰병
악창농혈 편톄(체)교류 성조취예
인개증질 명종지일 즉타 아비무간디(지)옥
상화철하 파쳘(철)상 쳘(철)창쳘(철)차
편쳬(체)천혈 융동관구 근골란괴
일일일야 만사만생 수대고통
무유휴식 방사경고 획죄여시 불위죄인
이설게(계)언 신시자연신 오체자연족
장내자연장 로즉자연로 생내자연생

사즉자연사 구장부득장 구장부득단

고락여자당 사정유여긔 욕작유위공

독경막문사 천천만만세 득도전법륜

불설차경이 일톄(체)대중득미증유

심명의정 환희용략 개견제상 비상

일불지견 오불식견 무이무오 무지무견

부득일범 호로호로 사야목게(계)

사바하

※ 본 경문은 류복렬이 무당 수업을 받을 때 선생에게 받은 경문공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류복렬은 홍성 광천에서 큰 무당으로 이름이 높았던 서춘식을 스승으로 모셔 공부하였다. 서춘식이 직접 써서 전해준 원본이라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2개의 경문 모두 충청도 앉은 굿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라서 타 지역의 소리를 기본으로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원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글씨를 알아 보지 못한 부분은 '00'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문의 전형으로 귀한 자료적 가치가 있지만 창자 류 복렬은 신기(神氣)에 의존하는 무당으로 기가 마른 후 아무 것도 행하지 못하는 일반인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7일 큰 정을 읽던 무당이면서도 한소절도 경문이 입을 통해 굿으로 외워지지 않는 다 하여 이를 몹시 아쉬워하면서도 그렇게 되게 도와 준 천지신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예산의 앉은 굿(경) 무속인

김세갑 예산군 오가면 대방리에서 대를 이어 충청도 앉은굿(경)을 행한 박수. 현재 보부상 난장놀이 보존회 김영상의 조부로 광산 김씨의 집안에서 태어나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14-19번지에 살았으며 아들 용봉에게 박수를 물렸다. 자신이 스스로 법사임을 자처하였고 무당으로 일생을 살다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인물로 아들에게 이를 물렸으며 손자 영상에게 무당으로 살아 갈 것을 권하였다.

경문으로 정을 읽어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 주고 병을 고쳐 주며, 죽은 사람의 원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설명했다고 한다. 7일 큰 정을 읽어도 같은 소리를 하지 않는 바른 무당으로 회자되었으며 그 소리 중 일부는 아들과 손자에게 대물림 되어 현재까지 재현되고 있다.

김용봉 위의 김세갑의 아들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충청도 앉은 경으로 일생을 살아간 박수. 좌방리에서 살다가 대흥면 노동리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아버지에게 배운 경문으로 경을 읽었다. 4촌 동생과 박수 생활을 함께하면서 3남 2녀를 두었고,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았다 한다. 아버지가 박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이 또한 자부심이 높아 아들 영상에게 대를 물리려 하였으나, 아들 영상이 배우던 중에 포기하고 거부하여 일부 소리만 전수되었다.

김영상 위의 김용봉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경문을 배우다가 무당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박수의 길을 포기한 인물이다. 1939년생. 박수의 삶은 포기를 하였으나 뿌리가 분명한 예산의 앉은굿 경문소리와 굿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중 기본이 되는 경문은 아직도 막힘없이 시행할 수 있는 주요제보자이다. 현재 보부상 난장 놀이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에서는 상쇠, 물물 교환장사 행위, 계화자 타령의 선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건배 풍물꾼 기록 참조

유복열 무당. 1929년생. 예산군 덕산면 둔리 거주. 45세였던 1974년에 무당이 되어 80세인 2009년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다가 스스로의 무속 일판을 떠나고자 했는데 같은 시기에 신기가 말라 굿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무속인으로서 활동을 접고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의 아버지 유병철은 예산에서 일꾼(머슴)을 셋이나 두고 살아가는 부자였고, 양반으로 살았다. 1남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성장하였다. 유복열은 18세에 청주한씨 문중으로 출가하여 2남 3녀를 두었으며, 남편이 서울 금명고 과장으로 재직하는 등 유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남편이 기이한 인연으로 사망하고 나서 가장이 되어 무속인의 길을 걸어왔다.

유복열의 시 숙모가 무속인이었다. 시 숙모는 경기지역 선거리를 잘하는 무당으로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집안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 채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 사망 후 무당으로 사용하던 집기며 굿당의 모든 물품을 종교적인 차이가 있던 유복열의 남편이 모두 불에 태웠고, 득병하여 3년 만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유복열은 남편 사망 후 바로 신기神氣가 왔으며, 시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라서 집안의 반대 없이 무속 일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신엄마는 홍성 광천 거주 큰 법사로 이름이 높았던 서춘식이었다. 서춘식은 유복열의 재주와 신기를 높이 평가하여 처음부터 충청도 앉은굿(경)의 경문을 가르쳤다. 무속인으로서 유복열은 스승인 서춘식의 영향을 받아 신기도 좋고 법문도 좋은 법사로 알려졌다. 무당을 한지 6년 만에 수덕사 오르는 산자락(식당가에서 서쪽의 산속)에 법당을 차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7일 큰 정을 읽을 수 있는 여자 법사로 활동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굿(경)만을 행하였다.

첫 경문 공부를 하던 공책의 일부가 남아있으며 그 내용은 '천지팔양신주경'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의 향토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기지방의 무속인들이 하는 동 경문과는 차이가 있다. 충청의 앉은경문으로 선거리가 없고 신장과 3개의 사자만을 사용하는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여 마지막 정까지 그 방법으로 행했다고 한다.

예산의 보부상 관련 소리

예산에서 보부상 놀이는 지역 민속의 특화 종목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 그리고 애정을 보여 온 분야다. 이 책에서는 보부상과 관련 된 사항은 예산군지 외에도 많은 도서에서 기록하고 있기에 생략하고 보부상과 관련된 소리(노래 등)만을 기록한다.

보부상과 관련된 소리는 공문제와 관련된 소리, 장사꾼들의 물건 파는 소리, 여흥소리로 나뉜다. 공문제 관련 소리는 보부상들이 1년에 한 번 올리는 가장 큰 행사인 공문제 장에서 부른 소리이다. 보부상들의 정신을 담아 이어가고 애환이 서린 노래와 보부상들이 1년 동안 무탈하게 큰돈을 벌게 해달라는 축원덕담을 대상으로 삼아 정리한다. 이에 공문제 관련 소리는 공문제 소리, 계화가, 공문제 축원덕담, 영감행차 소리 등을 정리하였다.

보부상들의 물건 파는 소리는 보부상들이 거래 물품으로 취급했던 소리만을 대상으로 삼아야하나, 예산의 보부상 놀이 관련 공연 단체에서는 오래도록 이에 관계없이 각종의 물건 파는 소리를 공연해 왔다. 또한 일부 노래는 곡을 정리하여 편곡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중에는 충청도 소리재가 아닌 경기재, 경상도재의 민요 성격을 택하고 현대 변형된 민요 가락을 차입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본디 상인들의 물건 파는 소리는 만담에 가까운 사설이 함께한다. 이는 손님을 모으려는 소리로 일정한 대본이나 정해진 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보부상이나 옛 장터의 전문 상인인 이른바 장돌뱅이 문화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설의 대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산 보부상 놀이에서는 불리는 장사꾼 물건 파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약장수 죽방울 놀이 죽방울 노래

② 약장수의 약파는 사설과 약타령

③ 젓갈 장수의 사설과 젓갈타령

④ 담배 장수의 사설과 담방귀타령

⑤ 엿장수의 엿파는 사설과 엿장수타령

⑥ 떡 장수의 떡 파는 사설과 떡타령

⑦ 소금장수의 소금 파는 사설과 소금장수타령

⑧ 짚신장수의 사설과 짚신타령

⑨ 뱀 장수 뱀 파는 사설과 뱀 파는 소리

⑩ 많은 장수꾼들이 부른 싸구려 타령

상기 10종의 물건 파는 소리는 공연의 발전을 추구하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1990년대 이후 변화를 거쳐 정리 되었으며 일부 편곡된 곡도 있다. 또한 물건을 팔기 위해 펼치는 만담형의 사설들은 대본 자체에 옛스러움이 적고 지나치게 교육적인 면을 담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약장수 사설을 제외한 모든 사설을 최소화 하여 기록하며 뱀장수의 뱀 파는 소리는 노래가 없어 기록하지 않는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소리들 중 현재 예산 보부상과 관련이 없는 소리들도 있다. 앞에 말한 유진룡의『장사꾼 돈이 왜 구린지 알어?』라는 구술 도서에 실린 물건 파는 소리들과『한국민속종합보고서』등에 기록된 민간인 채록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들은 공연화 하기위한 변형이 없어 현재 보부상 공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록한다.

보부상 놀이 공연에 사용되는 기타의 공연물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터에서 구걸하는 걸인들이 부르는 각설이타령

② 관객들의 흥미를 위해 공연하는 요지경놀이 소리

③ 가난한 보부상의 죽음에 보부상들이 치루는 상례의 상여 행상소리

④ 잘못을 행한 보부상을 치죄하는 장문놀이

⑤ 무당 선거리를 흉내내는 대감놀이

⑥ 장에 나온 사람들의 재수 대통을 비는 고사 축원소리

이들 소리 또한 사설을 최소화하며 노래가 없는 장문놀이는 기록을 생략하며, 대감놀이는 예산지역의 굿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보부상과 관련된 민속으로는 적하하지 않음을 밝힌다.

보부상과 관련된 공연 중에서 구분을 명확히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물건을 파는 주체로서의 보부상과 보부상이 취급하는 물품, 인근 5일장을 순회하며 장사하는 이른바 장돌뱅이, 개인이 집에서 만들거나 얻은 물품을 파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공연물로 연행되는 보부상놀이에는 보부상이라는 주체성이 모호하여 위에서 말한 세 종류의 시장 상인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예산 보부상 놀이와 관련하여 존재하고 공연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예덕 상무사 보부상 관련 놀이의 전승　고인이 되신 전 예덕 상무사 두령 윤규상씨가 예산 보부상의 전승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예덕 상무사로 활동한 사람들이 이를 도와 공분제의 명맥 잇기 위한 노력으로 보부상의 놀이 문화가 장터 문화와 어우러져 현재까지 이어 나왔다. 초창기에는 윤두령님의 개인적인 죽방울 놀이 사랑으로 공연의 중심에 죽방울 놀이가 있었으며, 사실상 보부상 놀이 공연의 구성과 전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내용들은 2012년에 『유통 경제의 원형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전한다.

② 기록으로 전하는 류진룡의 “장사꾼 돈이 왜 구린지 알어?”라는 말은 출판사 뿌리깊은나무의 민중자서전 제5권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 평생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도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류진룡은 1916년 당진에서 태어나 8세에 예산으로 이주하여 머슴살이를 살았고, 21세에 예덕 상무사에 가입하여 어물장수로 살았으며, 49세인 1964년에 덕산 장에서 장세(자릿세)를 받는 일을 해왔다. 1980년에는 65세의 나이에 예덕 상무사의 우두머리인 접장을 역임하였고, 위 도서 구술 채록 시기인 1984년 까지 덕산장의 장세를 받으며 살았던 인물이다. 21세 이후 보부상으로

일생을 보낸 구진룡의 구술은 덕산장에서 진행된 보부상과 장터문화를 살필 수 있는 기록물이다. 또한 책에 수록된 소리나 노래는 예산의 민요 정서에 벗어나지 않아 더욱 가치가 있다.

③ 2001년에 발행된 예산군지 하권 제10편에 수록된 보부상 관련 자료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앞의 책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도서의 기록과 일치하고 이에 추가하여 각 소리의 앞부분과 현장진행 모습을 간단히 기록하였는데 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노랫말에 대하여 사투리, 불분명한 언어 등을 부분 수정하였는데 수정 내용이 아주 적으며 원형을 해치지 않았다.

보부상의 공연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통의 민속 또한 시대적으로 변화하며 이어 나가는 것이다. 일상에서 보부상이 소멸되었고, 이제 민속의 공연물로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 위의 3개 기록을 연구자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공연물을 고형古形에 가깝게 구성하여, 옛날 보부상의 모습을 관객이 재미있게 관람하고, 연희자가 즐겁게 공연할 수 있는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의 보부상 관련 내용은 이런 기준으로 기록, 정리하였으며 공연에 참여하여 연행 한 사람들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 참여한 사람 모두를 기록한다.

1) 공문제 관련 소리

공문제 소리

- 선창자 : 출연자 전원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예산 군지

성수만세 성수 만세
오늘 장은 천량이요. 다음 장은 천량이요.
한달 육장 매장 처도 수천량씩 재수 봐요.
가는 길에 천량이요. 오는 길에 만냥이요.

봇짐장수 등짐장수 간 곳마다 짭짤허네.

만세 만세 성수 만세.

※ 보부상 놀이의 상징적인 노래다. 현재의 소리는 재창작 되어 국악가요 풍으로 불러 노랫말 외에는 전통 보부상의 소리라고 보기도 힘들고, 예산향토소리로서의 가치도 적다.

계화가

- 선창자 : 김영상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태조대왕 등극후에 우리 생명 건져냈소.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영위영감 반수영감 든잡시오.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시제 영감 요중 영감/ 모시고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오늘이 몇일이냐. 삼월 열하룻날입니다.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우리가 살면 몇 백년 사나요.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죽음으로 보은 충성합니다.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산천초목은 젊어나 가지만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우리네 인생은 왜 이리 늙어만 가나요. 계화 계화 계화가 좋소

※ 보부상 난전 놀이 보존회에서 부른다. 선창자의 목소리가 노래와 잘 어울리며, 후렴이 단조로워 모든 회원들이 부르는 소리다. 본디 이 노래는 보부상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도 즐겨 부른 소리로 알려져 있으며 공문제장 외에도 장에서 장을 옮겨가는 길에 지게를 지면서도 불렀다 한다.

공문제 영감(新 接長) 행차 소리

- 창자 : 박천동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놀이 (윤규상)

태조 대왕 등극후에 우리 생명 건저 냈소

반수영감 접장영감 드십시오

두령 영감 영위 영감 모시고 들어갑니다.
오늘이 몇일이냐
삼월 삼십일 무쇳날입니다.
우리가 살면 몇백년 사나요
죽음으로 보은 충성합시다.
산천 초목은 젊어나 가지만
우리네 인생은 왜 이리 늙어만 가나요
오늘 영감 잔칫날에
신명 나고 푸짐하게 놀아 봅시다.

※ 이 소리는 보부상의 공연 공문제 현장 재현 부분에서 새로 선출된 접장이 처음 공문제 장으로 입장하는 것을 재현하며 부르는 소리다. 예산 군지 보부상 관련 내용에서는 노래를 기록하지 않고 새 접장 귀가 행진 놀이만 서술적으로 기록하였다. 노랫말 중에 사용된 '영감'이라는 표현은 조선조에는 일정 관직에 오른 사람을 높여 칭하는 용어로 사용 할 수 없는 언어였기에 노랫말이 전래된 것이라면 일제강점기 이후 또는 해방 후 지어지거나 변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문제 축원소리

- 선창자 : 이희철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예산 군지

[사설]
오늘이라 오늘은 우리 영감 잔칫날이라
일년이면 열두달. 삼백육십오일을 기다려 온 잔치로다.
잔칫날에 고사를 올리니 다시 없는 영광이요

[창]
고사 고사 고사 고사로다. 고사 축원을 받으시오.

[풍장]
시화연풍 국태민안 이 잔치에 날아든다.

태조 대왕 등극전에 여진족과 싸워
유시 맞어 쓰러지시니 지나가던 등짐장수
백토 장군 도와 주어 등짐장수
재수 대통 승승장구로다.
[풍장]
김씨 영감 일년이라 열두달
예덕 임방 장 지켜 장시가 번창하니
등짐 봇짐 세원만나 영감잔치 영광이로구나
[풍장]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일월성신님께 비나이다.
삼월이라 무쇳날에 날아드는 제비처럼
조선 팔도 헤메다가 임방 찾아
영감찾아 굿판 벌려 보니
[풍장]
지난 일년 춘하추동 영감님 덕택으로
재난 없고 건강하게 불길 같이 재소 좋아
짭짤하게 재미보고 모였으니
마음껏 웃어가며 신이나게 놀아보세
[풍장]
저기보소 영감상 상다리가 휘청휘청
푸짐하다 사족상 잘도 잘도 차렸네
[풍장]
마음껏 먹고 마셔 둥실둥실 너울너울
신명나게 추어보세
[풍장]
고사로다 고사로다 신구 영감 건강하고

재수 대통하소사

[풍장]

※ 이 소리는 오래지 않은 시기에 축원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즉흥으로 한 소리가 전해지며 공연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문제 고사 축원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인을 위한 고사 축원일지라도 고사는 신에게 개인이 잘되기를 비는 소리가 기본이라서, 벼슬이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힘든 인생을 노래하고 복은 들어오고 화는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구성을 취한다. 하지만 이 소리는 보부상의 영감의 화려한 모습만 자랑하고 복을 비는 내용이 빈약하다.

2) 상인들 물건 파는 소리

약장수 죽방울 놀이 죽방울 노래

- 선창자 : 모든 공연자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예산군지

[외침]

자 죽방울이요

[창]

죽방울이요 죽망울 죽방울이요 죽방울

하늘에 솟으면 죽방울이요

땅에 떨어지면 땅방울이라

네 놈에 팔자가 죽방울 이니라

땅에 떨어져서는 살수 없느니라

[죽방울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

※ 이 소리는 예산의 덕산장에서 마지막까지 약장수를 해온 명재명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죽방울 놀이를 하면서 부른 노래다. 다른 장터에서는 행하지 않는 죽방울 놀이를 재주있게 함으로써 손님을 모았고 고약을 주로 팔았던 이유로 약장수로 일관되이 증언된다. 중국과 일본에도 전승되는 죽방울 놀이가 중국이나 일본의 놀이에서는 노래가 불리지 않는데 한국에서만 불리며, 우리나라 죽방울 놀이 중 노래를 부르는 곳도 덕산장의 약장사 밖에 없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약장수의 약파는 사설과 약타령

- 창자 : 이정화 외 다수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예산 군지

[사설과 창을 섞어 부름]

머리 나는 두창. 머리 나는 부스럼
머리가 깨지고 터저서 시뻘건 피가 펑펑 나는디
걱정만 하지 말고 이약 사다 발라만 줘봐
한 번 만 바르면 싹 낳습니다. 안발르믄 안 낫고

등에 나는 등창 배꼽 밑에 배꼽창.
부랄 밑에 부랑총. 똥구멍이 치질.
발등 밑에 무좀. 가렵고 근지러워 환장하건는디
걱정만 하지 말고 이 약 사다 발라만 줘봐
한 번 만 바르면 싹 낳습니다. 안발르믄 안 낫고

논 밭에 나가 삽질 몇 번 하면
팔 다리 허리 아프다구 아이고 아이고 하는 양방
냉수만 먹어도 명치 끝에 딱 걸려 꺽꺽거리다가
소다 한 숟가락 퍼드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 사다 먹어 봐
한 병만 먹으면 속이 뻥 뚤려. 안 사가면안 낫고.
(이하 뱀 장수 사설 생략)

※ 만담류의 사설과 노래가 혼용되는 이 소리는 보부상 놀이 사설 중 하나이다. 약장수 사설로는 부족함이 있음

삽교읍 두2리 약장수타령

- 창자 : 이긍원(1992생. 삽교읍 두2리)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

[사설]
자 – 약이 왔습니다.
[풍물]
자 약 사세요. 오늘 여기 갖고 온 약은 무슨 약이냐 하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발르면 잘 낫는 약입니다.
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번 보셔갔고 약을 사가시랍니다.
잘 보세요

[소리]
머리 나는 두종 이마 나는 상종
눈에 나는 안질 입에 나는 부종
얼굴에 나는 면종 코에 나는 비종
목에 나는 한종 등에 나는 등창
어깨 나는 견종 배에 나는 복종
돌안에 나는 산종 똥구녕 나는 치질
발르면 낫고 안 발르면 안 낫는 거
물에 데고 불에 데고
발르면 잘 낫는것

[사설]
오늘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러니 만큼 요것이 이렇게 좋으며는
사실적에 요거 하나 사시 자며는
시중가로다가 지금 멫 천원씩주고 사야지만,

여기선 단돈 십원 한장 받두 않구서 여러분께 같이 노놔드리겠습니다.

한 번 잘 보십시오.

[풍물]

잘 나간다. 어차–

[풍물]

※ 약장수는 보부상과 관련 없는 인물이다. 특이한 것은 사설 부분에 풍장을 쳤다고 증언하는데, 이는 삽교장에 온 약장수가 풍악패와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약장수는 인건비 등 때문에 풍장꾼을 대동하지 않고 1~2인이 꽹가리, 북, 장구를 치는 형식이었다.

젓깔 장수의 새우젓 타령

- 창자 : 인종명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예산 군지

새우젓 사려. 조개젓 사려.

초봄에 담은 쌀 새우는 세하젓이요

이월 오사리는 오젓이요.

오뉴월에 담은 젓은 육젓이요.

갈에 담은 젓은 추젓이요.

겨울 산 새우는 동백젓이요.

전라도 법성포 중하젓. 서산에 어리굴젓.

홍합젓. 공쟁이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황새기젓. 밴댕이젓.

권댕이젓. 멸치젓. 갈치 창자젓.

입맛 나는 젓이요.

오뉴월 배추쌈에 달구

한겨울 짐치국에 좋아요.

젓이유 젓. 젓사이유.

※ 이 소리는 예산의 노랫가락 재로 노래한다. 지역정서에 잘 맞는 소리로 인종명의 예능기량이 좋아 듣기좋게 노래한다.

담배 장수의 사설과 담방귀 타령

가. 보부상 공연단 공연 담방귀 타령

- 창자 : 이현숙. 박천동. 조향세. 이상분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사설]

자 담바구를 사시유. 담바구

평양에서 일초요. 강원도라 영월초요.

그 밖에도 직산초. 장절초. 시초. 입맛대루 들여가시유.

[창]

귀야 귀야 담바귀야

충청 덕산에 담바귀야

은을 주러 나왔느냐 금을 주러 나왔느냐

은도 금도 없어 담바귀 씨를 가지고 왔네

여기 저기 가야산 밑에 담바귀 씨를 솔솔뿌려

낮이면 태양을 받고 밤이면 찬이슬 맞아

무성하게 자란 후에 속에나 속잎 다 제쳐 놓고

속에 속대 베어 다가 청동 화로 백탄물 피워

담바귀 한 대를 피워 보자

담바귀 한 대를 피워 보자

※ 현재 예산의 2개 보부상 관련 단체에서 공연하며 부르는 담바귀타령. 이 노래는 첫머리 시작 사설 외에는 예산의 소리가 아니며 경상도 일원에서 채록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담바귀 타령이다. 예산 덕산의 보부상 관련 공연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 류진룡 구술 사설 담방귀 타령

- 창자 : 유진룡　- 기록 :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

자 담바구를 사시유. 담바구

평양에는 일초요. 강원도라 영월초요. 평양서초으 서초요.

직산초. 장절초. 시초. 입맛대루 들여가시유.

저그 저그 저산 밑얼(밑을) 서리서리 갈어 엎구

담바구 씨를 술술 뿌려 낮이믄 찬물주구 밤이믄 찬이슬 맞혀

젙은 젙잎 다 제치구 속에나 속잎을 잘 질러서

니모 번 듯 드는 칼루 어슥어슥 쓸어 놓쿠

총각 쌈지두 한 쌈지요 처녀 쌈지도 한 쌈질세,

소상 반죽 열두 마디는 소복을 맵시있게 맞춰 놓구

청룡 화로 백탄불을 이글이글 피워 놓구

담배 한 대 먹고 나니 목구녕이 실안개 돈다.

또 한 대 먹구 나니 청룡화룡 꿈틀 거린다.

자 담배는 동대 담배요.

팔모죽, 육모죽, 파란죽, 은조죽, 인죽, 서천죽이요.

자 담바구 사시유.

※ 류진룡은 예덕 상무사의 보부상이었으며 덕산장에서 마지막으로 장세를 받으며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이 채록본은 그의 생전에 구전으로 녹음하여 이를 풀어 기록하여 남아있는 것이며 예산군지에 수록되어 있다.
덕산장의 담배장수들을 소리로 사료되며, 기록의 내용과 예산의 민요적 정서로 보아 만담형의 재담과 노랫가락과 유사한 소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다. 노랫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복원하여야 할 할 것이다.

엿장수의 엿파는 사설과 엿장수 타령

가. 보부상 공연단 공연 엿장수 타령

- 창자 : 이순만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엿을 사시오 엿을 사.
아주 달고 맛있는 엿이 왔어요.
우리 충청도 찹쌀 엿은
입에 붙지 않아 이가 빠질 일이 없고
아주 맛있답니다

엿 사시오. 엿을 사.
충청도 찹쌀 엿. 엿을 팔러 나왔소
끈적끈적이 찹쌀 엿.
이 엿을 잡수지면 장수하는 엿이요.
모두 모여 오시여 엿 맛을 보시오

엿을 사시오 엿을 사
경기도 호두 엿. 달고 고수한 호도 엿.
가락이 굵고 유연하고 혀에 녹는 호두 엿.
매끈 매끈한 고구마 엿.
울릉도라 호박 엿. 울퉁불퉁 호박 엿.
아주 맛있는 엿이로 구나.

늙은이 해소에 허기 끄는 엿이요.
울긋불긋 대추 엿.

여기 파는 건 깨 엿이고 저기 파는 건 수수 엿.
이 쪽하는 건 감자 엿. 댓 픈어치 콩 엿이요.

엿을 사시오 엿을 사.
강원도라 강냉이 엿. 동글동글 강냉이 엿.
입에 넣으면 잘도 녹는 강냉이 엿.
경상도라 지장 엿. 제주도에 찹쌀 엿.
전국 각처 팔도 엿이 다 나왔어요.
아주 맛있는 엿이요.

※ 현재 공연되고 있는 이 노래는 예산 전통 소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언어가 지나치게 현대적이며 표준어를 사용하여 예산의 소리 정서에 반한다.
2) 예산에서 채록되어 전해지는 타 엿타령과 너무 상이하다.
3) 실제 엿장수가 엿파는 소리로 노래하기 어렵다.
4) 충청 지역의 엿장사 사설은 현장에서 엿을 팔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소리로 만담재였다.

나. 엿장사 엿 파는 소리

- 창자 : 유진룡 - 기록 : 예산군지,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

호도엿 사시유. 호도 엿 사시유. 제피 건강에 호도엿 사시유.
가락 굵구 유허구 쫄깃쫄깃혀 녹는 호도엿 사려.
양념 맛이로 댓푼어치 콩엿 사려.
깨엿 사려. 늙은이 해수에 허기 끄는 콩엿이요.
쏜 살을 붙들겠수, 엎어진 물을 거두겠수.
지금 못사믄 후회하는 호도엿이요, 수수엿이요.

※ 앞의 엿장사 엿파는 소리 류진룡 구술분과 같으며 예산군지에 기록되었다. 덕산장의 엿장수들을 소리로 사료된다. 1970년 이전의 엿장수들은 장터에서 팔기도 하고, 지게에 엿판을 지고 마을을 돌며 팔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엿장수가 손수레(일명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수레 윗 판에는 엿판을 놓고 아래에는 엿을 바꾸기 위해 엿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고물을 싣고 다녔다. 참고 자료로 이런 엿장사들이 하던 소리를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엿사려 엿사 고물 가지고 나오믄 엿 주네
고무신짝 떨어진 거 양은냄비 쭈그러든거
대꼬바리 떨어진 거 깨어진 쟁기 보습 부러진 꼭괭이에
세상 쓸 거 다 놔두구 못쓰는 물건만 엿바꿔 먹유
고무신짝 떨어 진게 옶다?
그람 새 신발짝은 돌에 문질러 가저오고
양은 냄비 쭈그러 진거 옶다?
그람 새냄비 돌맹이루 쭈구려 가저오믄
엿치기 할 수 있네
고물 장사가 엿장수유
엿시시유 엿사. (이상 이걸재 채록분)

※ 이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담제로 하면서 약간의 가락을 섞는 소리였다.

다. 삽교의 엿장수 타령

- 창자 : 이긍원(1992생. 삽교읍 두2리)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

엿을 사려 엿 사요
황해도 봉산에 조청엿이고
울굿불굿 대추엿이다
일본 대판에 수수엿이고
여기 파는 건 찹쌀엿이고
저기 파는 건 수수엿
이쪽 파는 건 감자엿
전라도에 보리엿이고
어어허 엿 사시오 어허

※ 짧은 엿장수 소리로 예산삽교 일원에서 활동한 엿장수의 소리로 보이며 노래의 유형은 가락이 좋은 만담형이다.

떡 장수의 떡 파는 사설과 떡타령

- 창자 : 박종란. 한차랑. 이희철. 권영금. 정명운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사설]

명떡 복떡 재수떡 사시오. (이하 사설 생략)

[창]

파릇 파릇 돗는 새싹 봄철에는 쑥버무리기, 쑥개떡
논일 밭일 쉴참에는 보리 개떡이 일품이고
한 여름 보양식은 참쌀로 한 콩 인절미
시원한 막걸리로 기주 떡은 술떡이고
팔월 한가위엔 예쁜 송편에 물이떡
추수 감사에 잡귀 물러가라 팥 시루떡
즐거운 잔칫상에 절편 꿀편 무지개떡
애기 돌 잔치에 수수 팥 단지에 백설기
조상님 제사에 콩 시루떡
동지 섣달 긴긴 밤은 무 시루떡이 제격이고
우리 나라 대명절 설날에는 흰떡 가래떡이 최고라네
자 면떡 복떡 재수떡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책자에 기록된 사설을 생략한 것은 내용이 너무 현대적이며 교육적인 모습이 공연을 위해 쓰인 대본임이 분명하여 옛 소리로의 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이정순이 작창하여 보급한 이 노래는 우리민족이 즐겨 먹은 떡에 대해 적합한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본디 채록 소리가 아니지만 기록한다. 우리나라 어느 고장의 떡에 대한 노래와 비교해도 노랫말이 좋다.

소금장수의 소금 파는 사설과 소금장수 타령

- 창자 : 이상분. 맹무섭. 이순희.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사설]

귀하고두 흔하고 흔하고도 귀한 소금 왔슈.
이 귀한 소금을 어디다 쓰는고 하니
김장 김치 백 포기에 소금 한숫가락
사골 국 냄비 한 솥에 소금 열 가마
무 생채 한 개에 소금 한 가마
이렇게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소금유
소금들 들어가슈.

[창]

새벽 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소금장수 노총각 부스스 문 나서네
오늘은 소금팔아 또 군이 버선에다
고무신도 사오겠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소금장수 노총각 발거름도 부산하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징검다리 건너다가
아이고 이게 웬 일이냐 물 속으로 곤두박질
에헤 이젠 틀렸구나 장가가긴 틀렸구나.

※ 이 노래는 윤규상 두령을 도와 보부상 놀이의 정형을 확립한 이정순이 글을 쓰고 직접 창작한 노래로 트롯트 풍이 느껴지도록 만들었으며 소금장수의 애환을 노래한 곡이다. 보부상놀이 공연에서도 관객들의 호응이 매우 좋으며, 단원들이 유쾌하게 연희하는 노래다.

짚신장수의 사설과 짚신 타령

- 창자 : 박흥남. 이승갑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사설]

[앞 사설 생략] 장바닥에 나오니 널린 것이 짚신장사라
소리래두 해야 그나마 멧커리 팔라는가
자 그럼 짚신 팔러 가 봅시다

[창]

짚신이요 짚신이요 세월 낙는 짚신이요
웃음 있는 짚신이요 논 밭 가도 짚신이요
산에 가도 짚신이요 마실 가도 짚신이요
장에가도 짚신이요

비가 오면 구슬프고 눈이 오면 아파하고
해가 나서 따뜻하면 짚신이 절로 가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짚신 장수 다 팔었네.
짚신이요 짚신이요

※ 이 노래도 이정순이 글을 쓰고 예산지역의 창부타령과 노랫가락재를 택하여 창작한 노래다. 사설의 앞부분은 현대적인 노랫말이 너무 많은까닭에 생략한다.

싸구려 타령

- 창자 : 유진룡　- 기록 :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

[사설]

자! 자! 싸구려 났네

골러 잡어유 골러 잡아유

한 가지 잡구는 한 돈인데, 두 가지 잡구는 두 돈인데,

세 가지 잡구두 한 돈이유 골라 잡아유 골라 잡아

[창]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의 조종은 황하수라

양반의 대감은 곤룡 대감, 아니 놀고 무엇하리

원앙금침 잣베계는 나 혼자 빌리구 만들었나.

[사설]

자! 자! 싸구려 났네

골러 잡어유 골러 잡아유.

※ 위의 책자에 수록된 싸구려 타령으로 사설과 창의 구분은 조사자 이걸재가 노랫말의 구성을 보아 추가 하였다. 창 부분의 소리의 곡은 예산의 노래 가락의 곡을 닮은 소리라 추정된다.

삽교 양잿물장수타령

- 창자 : 이긍원(1992생. 삽교읍 두2리)　- 기록 : MBC 한국민요 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

잿물 사리다 양잿물 사 예

잿물 비누요 양잿물 비누 예

잿물이라 양잿물 사려
잿물 사려 양잿물 비누
잿물 사리다 양잿물 사
아예 잿물이라

※ 보부상 놀이 공연과 관계없는 예산삽교의 양잿물 파는 장수의 소리로 보인다. 음원 확보가 용이하고 예산 장사꾼 소리의 전형으로 보여 참고 자료로 기록한다.

3) 보부상 놀이 공연에 불리는 기타 소리

장터에서 구걸하는 걸인들이 부르는 각설이타령

가. 보부상 공연

- 창자 : 인종명. 이화자. 이상분. 이순만. 최경순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일자나 한 자나 들고나 보니 일편단심 먹은 마음 죽으면 죽었지 못잊겠네
이자 한 자 들고 보니 이수증분 백노주에 백구 훨훨 날아든다
삼자 한 자 들고 보니 삼원이라 삼짓날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든다
사자 한 자 들고 보니 사월이라 초파일에 관등놀이가 좋을 씨고
오자 한 자 들고 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에
처녀 총각 한데 모여 그네 놀이가 좋을씨고
육자 한 자 들고 보니 유월이라 유두날 탁주 놀이가 좋을 씨고
칠자 한 자 들고 보니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가 좋을 씨고
팔자 한 자 들고 보니 팔월이라 한가위날 올해 송편이 좋을 씨고
구자 한 자 들고 보니 구월이라 구일날 국화주가 좋을 씨고
시월이라 무오일에 고사 사당이 좋을 씨고
백자 한 자 들고 보니 백만 장안 억만간에 태평가가 좋을 씨고

만자 한 자 들고 보니 국태민안이 좋을 씨고

※ 이 각설이타령은 김모씨가 부르던 월령 품바와 유사한 소리다. 거의 내용과 표현이 같고 일부만 다른 예산 고유의 각설이타령 중 하나다.

나. 예산군지 보부상편의 각설이타령

- 창자 : 기록 없음 - 기록 : 예산군지

으흐흐흐! 이놈이 이래뵈도 정승판사 자제분으로
팔도감사 마다하고 돈 한푼에 팔려서 각서리로만 나섰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마 품마 잘한다

이전 저전 다 버리고 아저씨 전으로 돌아왔소.
오늘 장 재수는 천만냥 재수요 억십만냥 남으시고
우리 같은 인생들 돈 한 푼만 주시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마 품마 잘한다

일자나 한 장 들고 봐. 일월이 성성 해성성
밤중 밤중 오 밤중 덕산장이 완연하다

※ 이 각설이타령은 걸인들이 동냥하면서 부른 전형적인 소리다. 예산군지에는 출원의 기록이 없다. 단 노랫말은 앞에 기록한 유진룡의 구술 도서에 나오는 소리의 일부분과 일치한다.

다. 류진룡 구술 각설이타령

- 창자 : 유진룡. - 기록 :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

으흐흐흐! 이놈이 이래뵈도 정승판사 자제분으로

팔도감사 마다하고 돈 한푼에 팔려서 각서리로만 나섰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마 품마 잘한다.

이전 저전 다 버리고 아저씨 전으로 돌아왔소.
오늘 장 재수는 천만냥 재수요 억십만냥 남으시고
우리 같은 인생들 돈 한 푼만 주시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마 품마 잘한다.

일자나 한 장 들고 봐. 일월이 성성 해성성
밤중 밤중 오 밤중 덕산장이 완연하다.
두 이자 들고 봐. 두 이변에 자 두치
관전 육방 나려 올제 핀지나 한 장 전해 주
석 삼자 들고 봐. 삼월이 신령 두 신령 신령 중이 어른이라
넉 사자 들고 봐. 사시 장천에 바쁜 길 점심 참이 여기로다.
다섯 오자 들고 봐. 오관참창 관운장
적토마를 빗겨 타고 제갈 선생을 찾어간다.
여섯 육자 들고 봐. 육천대사 도련님
팔선녀를 거느리고 헐헐 거리고 논다.
일곱 칠자 들고 봐. 칠년 대한 가뭄은 가뭄 중에는 어른이라
여덟 팔자 들고 봐. 팔년 풍진 초패왕
오초마를 빗겨 타고 오강으로 나려 온다.
아홉 구자 들고 봐. 구중 대사 늙은 중
참찬홍을 거느리고 헐헐 거리고 나려온다.
장자니 힌자 들고 봐. 장안 광대 박광대 광대 중에 어른이요.

※ 이 각설이타령은 두 단락이다. 앞부분은 걸인들이 동냥하면서 부른 전형적인 소리며 뒷부분은 월령 각설이타령이다. 월령소리로는 예산에서 채록된 다른 월령 각설이타령과 사뭇 다르며, 오자와 팔자만이 앞에 말한 김모씨의 각설이타령 중 삼국지 월령이라는 노래와 유사하다. 덕산장의 걸인들이 가장 흔히 부른 각설이타령으로 사료된다.

관객들의 흥미를 위해 공연하는 요지경놀이 소리

- 창자 : 이순만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안창남 비행기〉
떳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
창공을 나는 비행기
구름을 가르고 나르는 안창남 비행기
안창남 만세 만만세

〈엄복동 자잔거〉
내려다 보니 엄복동 자전거
신나게 달리는 자전거
바람가르며 나가는 엄복동 자전거
엄복동 이겨라 엄복동 만세

〈명재명〉
죽방울이요 죽방울
하늘에 솟으면 죽방울 땅에 떨어지면 땅 방울
네놈에 팔자가 죽방울이라 땅에 떨어져서는 못사느니라
창남이 비행기 다 날았네
복동이 자전거 다 달렸네
구름이 가라 했나 바람이 가라 했나
날보고 가라 하네

바람이 창남이 싫다 하네
구름이 복동이 싫다 하네

등짐과 친구 할래 봇짐과 친구 할래

우리네 보부상들과 친구하자.

(사설 생략)

※ 요지경 놀이란 해방 후 만화경을 상자에 넣어 설치 한 후 이를 구경시켜 주고 돈을 받던 상행위를 이르며 이 노래는 당시 요지경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 사람의 소리를 윤규상 두령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노랫말에 등장하는 '안창남 비행기'와 '엄복동 자전거'는 충남 여러 지역의 민요에 노랫말로 사용되었다. 가장 흥하게 쓰인 노랫말은 '올려다보면 안창남 비행기 내려다 보면 엄복동 자전거'이며, 자리개질 소리 등의 일노래 노랫말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가난한 보부상의 죽음에 보부상들이 치루는 상례의 상여 행상소리

- 창자 : 인종명, 박홍남, 맹양호, 이희철, 이철희, 한차량 - 기록 : 보부상과 보부상 놀이 (윤규상)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봇짐 장수 등짐장수 이장에서 저장으로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나라 위해 가정위해 한 푼 보고 천리가네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가련하고 불쌍하다 객사라니 웬 말이냐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잘모시네 극락으로 극락가서 편히 쉬소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어허이 어하 에헤이 어하

※ 이 소리는 보부상 놀이 중 가난한 보부상이 죽어 보부상들이 장례를 치러 주던 선행을 상징하기 위하여 공연되고 있으며, 노랫말은 즉흥적으로 행한 소리를 정리 한 것으로 보인다. 받는 소리는 예산지역 상여행상소리 중 많이 쓰는 후렴이나 선소리는 예산의 일반 행상소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

장에 나온 사람들의 재수 대통을 비는 고사 축원소리

- 창자 : 인종명 - 기록 : 본 도서(2015년 채록)

[쇠 장단]

일년하고도 열두달 과년하고도 열석달

삼백육십오일

[쇠 장단]
이장에서 저장으로 저장에서 이장으로
재수있고 운수있게 고사축원을 드립니다
[쇠 장단]
재수대통 운수대통 간곳마다 황금천하
품에 점에 점지하여주시옵기를 축원하옵니다
[쇠 장단]
온갖 재앙을 말아 내고 가는 재해 몰아내가
오는 복을 받어 들고 들어오는 복을 받어 들어라
[쇠 장단]
쉬~~~
삼재팔란을 막어 주고 관재구설도 막어 주고
노변 객사도 막어주고 횡액부재도 막어주시고
[쇠 장단]
재수 대통 운수 대통 점의 점지 하여주시옵기를
축원축원 하옵니다
[쇠 장단]
아하~
오는 복을 받어 주고 가는 복을 붙잡아 주고
[쇠 장단]
아하~
바람 복은 날아 들고 구름 복은 휘어들고
[쇠 장단]
애놉은 접여 들고 두꺼비앞 복은 노파들고
흘린 복은 주서들고?
[쇠 장단]

한자 반 먹어주고 먹을 전 불어 주고

먹고 남고 입고 남고 점을 점지 하여주시옵시고

[쇠 장단]

노적에는 꽃이 피고 뒷노적에 꽃이 피어

만사안택을 둘러올 때 봉황전으로 하여주시옵소서

[쇠 장단]

아하~

고사축원을 마치오니

점의점지 하여주시옵기를 바랍니다.

※ 이 축원은 보부상 난장 공연에서 축원소리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예산 축원 고유의 노랫말의 구성에서 일탈한 소리이다. 창자의 즉흥성이 소리의 변형을 불러와 본래 보부상이나 장터의 고사 축원소리 노랫말이 적다.

예산 보부상 활동 소리꾼들

예산 보부상놀이는 예산군청, 예덕 상무사, 사단법인 윤봉길 월진회 등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장기간 후원하고 투자하여 20여년 동안 공연단이 활동하였다.

현재는 예덕상무사 관할의 보부상 공연단(이하 상무사 공연단)과 사회적 협동조합 보부상 난장(이하 보부상 난장) 2개 단체가 각기 보부상 관련 민속의 전승과 공연을 위해 연습과 공연을 행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보부상 놀이 관련 활동 전원을 기록한다. 양 단체의 구분은 임원만 표기하고 일반 연희자는 표기하지 않으며, 이름의 한글 표기 순으로 정리 한다.

권영금 여자. 예산군 덕산면 시량1길 15
역할_ 약장사. 물물교환(약장사 타령 소리꾼).

김동우 남자.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현대아파트 2동 1407호
역할_ 풍장 북쟁이. 죽방울 놀이.

김상연 남자.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신암남로 426
역할_ 풍장 징잽이.

김성재 남자. 예산군 고덕면 별리
역할_ 태평소. 엿장사 엿가위 질. 흥이 매우 좋음

김영상 남자.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171-18
역할_ 계화자타령. 풍장 상쇠. 물물교환(계화자 타령 선 소리꾼)

김월자 여자. 예산군 봉산면 당곡옥전길 191-26
역할_ 약장사. 봇짐장사(약타령 소리꾼)

김응회 남자. 신안면 용궁호정길 37-24. 전 보부상 난장 회장
역할_ 약장사. 봇짐장사(약타령 소리꾼)

맹무섭 남자. 예산군 덕산면 둔리 노곡길 97
역할_ 소금 장사. 신차영감 행차 놀이 장무원장(소금타령 소리꾼)

맹양호 남자. 예산군 삽교읍 목리1구
역할_ 상여 행상 담여꾼

맹진호 남자. 봉산면 봉산로 95. 상무사 공연단 단장.
역할_ 상쇠. 총 공연 지휘

박종란 여자. 덕산면 수덕사로 407-24
역할_ 떡장사.

박천동 남자. 덕산면 읍내리 온천로 413-26
역할_ 담배장사.

박홍남 남자.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71-8호
역할_ 짚신장사. 상여 행상 담여꾼(짚신 장사 소리꾼)

배인화 여자. 예산군 예산읍 수절길 509
역할_ 시절띠기. 약장사.

서정자 여자. 예산군 창말로 22-14
역할_ 봇짐장사.

유진룡 남자. 당진에서 출생. 8세 예산군 합덕읍 가좌리 이주. 전 예덕 상무사 접장
역할_『장사꾼 돈이 왜 구린지 알어』로 각종 보부상. 장터 소리 전수 기반 조성

원유순 여자. 덕산면 봉운로 54
역할_ 대감 놀이(선거리 굿의 무당 역 소리꾼)

이기순 여자.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써니벨리 104-1306
역할_ 담배장사(담바귀 타령 소리꾼)

이상분 여자. 예산군 덕산면 부당4길 8-8
역할_ 각설이타령 공연 시 주모(소금장수 타령. 담바귀 타령 소리꾼)

이순만 남자. 예산군 오가면 좌방1리
역할_ 엿장사. 각설이(엿장사 타령. 각설이타령. 요지경 놀이 소리꾼)

이순희 여자. 예산군
역할_ 소금장수.

이승갑 남자. 덕산면 둔지미1리 33-2

역할_ 짚신장수(짚신 타령. 옹기 타령 소리꾼)

이인희 여자.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토성길 55

역할_ 엿장사(엿 타령 소리꾼)

이정순 여자 예산군 오가면 원평동길 62-10. 보부상 난장 회장. 각종 소리의 정리 악보 작업 공연 기획 전반. 연습 시 예능 전반의 지도 연출.

이정화 여자. 예산읍 덕산면 둔지개 1길 27-10

역할_ 뱀장수 아내. 신차영감 귀가 행차 놀이

이제홍 남자.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신암로 426

역할_ 지소 영감. 도둑. 북잽이.

이종옥 여자.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주공 아파트

역할_ 봇짐장사.

이철희 남자.

역할_ 상여 행상 담여꾼

이현숙 여자. 예산군 주교리 333-1 오성빌라나동203호

역할_ 담배장사(담바귀타령 소리꾼)

이화자 여자. 예산군 덕산면 써니벨리 103동 905호

역할_ 소금장수(소금장수 노래 소리꾼)

이희철 남자.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상무사 공연단 지도자(예술 감독 역할 수행)

역할_ 축원소리. 각설이타령. 옹기타령. 상여행상담여꾼 및 선소리꾼 외 다수

인종명 남자.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역할_ 새우젓 장사. 각설이타령. 상여 행상(젓깔 타령. 각설이타령. 상여 행상 선소리 소리꾼)

전용업 남자. 예산군 덕산면 읍내1리 구 덕산하이츠 가동 201호

역할_ 장문행수. 풍장의 북잽이.

정명운 여자. 예산군 덕산면 읍내1리 구 덕산하이츠 가동 201호

역할_ 떡장사. 청춘가. 대감놀이(떡타령 소리꾼)

정석래 남자.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31-4

역할_ 짚신장사(짚신 타령 소리꾼)

조남택 남자.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509

역할_ 옹기 장사. 각설이(옹기 장사 옹기 파는 소리. 각설이타령 소리꾼)

조향세 여자.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수암산로 158-15

역할_ 담배장사. 고사. 떡장사(담바귀타령 소리꾼)

최경순 여자. 예산군 신암면 황금뜰로 853

역할_ 약장사. 자릿세 다툼. 각설이타령

한권희 남자. 예산군 덕산면 온천로 134-10

역할_ 옹기 장사(옹기타령 소리꾼)

한차랑 남자. 예산군 덕산면 온천리

역할_ 떡장사. 북잽이. 상여 행상 담여꾼

홍창식 남자. 예산군 봉산면 당곡옥전길 191-26

역할_ 장문놀이 도둑. 모도지기

예산의 풍장

풍장은 두레풍장, 마을풍장, 장터풍장 등으로 나뉘며 풍장을 치는 성격으로 보아 ① 고사 등에서 치는 기원풍장, ② 두레 일판에서 치는 일풍장, ③ 마을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치는 놀이풍장, ④ 장터 등에서 돈 벌이를 위해 치는 연희 풍장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의 발간 관계자들은 풍장을 본 도서, 즉 예산의 소리 편에 포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주저하였다. 예산의 민속 중 민속놀이를 주제로 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록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장은 분명 음악이다. 더구나 모든 민속의 기반이 되는 민속이며, 특히 마을 단위에서 함께 행하는 종합적인 민속 무형문화 유산이 적은 예산의 실정으로 볼 때 향후 민속놀이를 정리하는 기회가 있으면 놀이 중심으로 조사해야 한다. 본 도서에서는 음악적인 입장에서 예산의 풍장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며 민속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이 쉽지 않은 점, 즉 기회가 있을 때 기본이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미래에 예산의 민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 책에 수록한다.

1) 예산 풍장의 개설

예산지역의 풍장은 다른 고장과 같이 크게 두레 풍장이 주를 이루는 마을풍장과 장터에서 풍장을 쳐 돈을 벌었던 장터풍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사회와 일제강점기 초반까지 예산에서 가장 이름난 풍장고지는 덕산면 시량리로 보인다. 1890년대에서 1910년대 경에 출생한 사람들 중 예산에서 이름났던 풍물잽이들은 대부분 시량리 사람들이며 이들의 이름은 덕산은 물론 예산읍이나 삽교읍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온천으로 유명한 덕산의 문화적 기반이 시량리 풍장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증언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예산 풍장인들 중 시량풍장을 경험한 노인들의 증언으로 볼 때, 시량리의 풍장은 일반 마을의 두레풍장 수준이 아니라 대중적

공연을 시행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박상쇠 풍장 이후 마을 풍장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이 증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문 예능인들의 풍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후 194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덕산읍을 중심으로 활동한 박상쇠로 불린 박익수의 영향으로 예산 풍장이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다. 박익수의 풍장은 그 시절에는 상상하기 힘들게 회원을 모집하고 정기적으로 연습하며 공연 할 곳을 찾아내서 공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덕산 장의 장터 풍장으로 활동하였다.

지금 채록되는 예산의 옛 풍장은 두레풍장으로 덕산면의 옥계리와 예덕 상무사 보부상 놀이에 포함된 두레풍장, 봉산면 봉림리의 풍장 등이며 박상쇠 풍장의 가락은 대부분 채록 할 수 있지만, 두레 풍장과 장터 풍장 모두 시연자들이 고령이어서 전성기 풍장의 가락이나 판제의 전형 모두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의 풍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점식이다. 이 점식은 박상쇠보다 늦은 시기에 시작하였고 판재는 예산에서 전통적으로 연희된 풍장만이 아닌 외지의 풍장 판재를 더한 인물로 스스로 남사당 놀이 풍장을 섭력하였다 말한 인물이다. 주요 활동시기는 해방 후 였으며 박상쇠는 덕산 일원과 예산의 장터 풍장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반면 이점식은 한국전쟁 이후 예산에서 다수가 열렸던 군단의 풍장대회를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인물이다.

오랫동안 예산의 예술 풍장의 지도자로 활동하여 예산 전역으로 보면 박익수와 이점식이 쌍벽을 이루는 형상이었으나 풍장대회 시 박상쇠 풍장 단원은 각각의 마을이나 면단위 풍장패로 활동하여 대회가 거듭 될수록 활기를 잃어 갔으나 이점식 풍장단은 젊은이들이 함께하여 성해가면서 박상회 풍장이 쇠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점식의 풍장 기예나 가락은 현재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보부상놀이 공연단 중 상무사 공연단의 맹진호 단장이 이점식과 오래도록 활동하여 그 가락은 대부분 연주하고 있으며 판재는 분명하지 않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판재 중에 반공을 글씨로 쓰는 것을 추가하였고 삼무동을 중시하였다 한다.

예산 풍장의 특징 중 하나는 노래 즉 소리판의 반주 풍장을 널리 쳤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풍장을 치면서 노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풍장의 모든 소리가 커서 소리꾼들의 목소리를 덮기 때문에 같이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번의 채록에서 확인한 모든 마을에서는 소리꾼이 소리를 하고 풍장꾼들이 반주 풍장으로 놀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소리를 할 때 장구만으로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쇠, 장구, 북, 징이 모두 참여하는 풍장을 쳤다고 하는데, 이는 예산의 마을 풍장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이는 풍장을 많 쳤으며, 기량 또한 좋아 소리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풍장 기록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두레 풍장 중 느리게 치는 가락이 전혀 채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레풍장은 논에서 일을 할 때나 이동하면서 치는 느리면서 흥겨운 가락과 백중날 전 후 여름두레먹는 날 논매는 작업을 모두 끝내고 두레 먹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꽃나비를 세우고 농기를 들고 치는 이른바 두레행차풍장, 정자나무 밑에서 치는 정자나무가락들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느린 가락을 다른 풍장들보다 먼저 쇠락하여 현재는 찾기 어려운 풍장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까닭이다.

2) 풍장 고지로의 예산

그럼에도 예산은 참으로 많은 마을에서 풍장을 쳤으며, 1년 동안 마을에서 풍장을 치는 날수는 타 고장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표본적으로라도 예산군 전역을 조사해서 기록해야 할 사안이지만 금번의 소리 채록 과정에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파악한 마을 풍장은 매우 성행하였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두레풍장의 경우 덕산면 옥계리, 시량리 등은 여러가지 연유로 예산 최고의 풍장꾼들이 예산 최고의 가락을 연주하였으며 농사나 두레 일판과 관계없이 풍장을 즐겼다는 증언이 다수 채록되었다. 봉산면과 광시면, 예산읍, 삽교읍 등의 지역에서도 두레풍장이 주를 이루는 마을풍장이 성행하였다.

예산의 풍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활동하여 1960년대까지 덕산 읍내리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박상쇠의 풍장이 있었다. 박상쇠풍장은 뒤에 자세히 기록하겠지만 타고장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타 고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 적인 연습 197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어느 곳이나 가난과 전쟁의 연속이었으며 문화적인 암흑기였다. 이런 시기에 젊은 남자들을 모으고 일정한 장소에서 풍장의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며 기능의 발전을 위한 연습을 행한 고장은 타 고장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둘째, 풍장 판재의 정리 기본적으로 예산 박상쇠풍장의 판은 평택 안중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웃다리판재다. 그러나 연희의 순서나 개인의 특기를 자랑하는 풍장과 판의 구성을 타고장의 판재와 다른 면이 있다. 이는 순전히 타고장에 앞선 풍장을 배워 와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역의 마을 풍장 중 우수한 것을 함께하는 풍장 마당으로 예산의 풍장 마당 판을 정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전문 예능인 표방 박상쇠는 개인예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집중적인 노력을 행한 사람으로 보인다. 상쇠, 열두 발 상모, 버나 등의 예능인은 자신이 직접 사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했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 풍장패로 고장의 풍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의미다.

넷째, 오랫동안 계속되었음 일제강점기 말, 이른바 대동아 전쟁 시 우리나라 농촌은 민속의 암흑기였다. 일제가 두레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고, 젊은이들이 대거 징용에 차출되었다. 전쟁을 위한 물품 공출도 매우 심하여 풍장을 치기 어려웠다. 박상쇠가 풍장패를 모은 기간도 일제의 영향으로 4~5년을 걸렸다. 해방 후에도 바로 시작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전쟁 기간에도 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1955년 이후 다시 장터풍장을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예산에서 각종의 풍장 대회가 개최되는 뿌리가 되었다. 시작부터 소멸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집단 풍장의 연습과 공연을 시행한 사례는 단연 충청남도에서 최고일 것이다.

3) 면, 군 풍장대회

1960년대 이후 예산군의 각 면과 예산군에서 주최한 풍장대회가 있었다. 이는 매년 열리는 형태가 아니었으며 덕산과 예산을 중심으로 면단위 풍장대회는 덕산이 중심이었으며 타 면에서는 군 대회를 내보낼 풍장패를 가리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의 면이 여러 마을의 풍장패를 모아 연습을 통해 구성하는 면 단위 연합 풍장패를 구성하여 출전시켰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 면에서만 면대회가 열리고 그나마 매 년하는 경우는 매우 드믄 편이었다.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치러지던 예산 풍장대회는 19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83년 모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아웅산 테러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사가 전격 취소되면서 중단된 이후 그 명맥이 끊어졌다.

4) 예산의 마을(두레)풍장

예산의 두레 풍장은 덕산 지역에서 매우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덕산면 옥계리의 경우 박상쇠의 풍장이 터를 잡기 전부터 성행하였고 옥계리 풍장꾼들이 끝내 박상쇠의 풍장 판에서 가락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종원의 증언과 면단위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풍장잽이들의 연령으로 추정하면 덕산면의 옥계리, 시량리의 두레풍장은 지역의 고유성을 지니고 전통사회부터 해방 후 지 잘 보존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산의 덕산 지역을 중심으로 채록한 두레풍장은 예산지역에서 연주된 풍장의 가락과 판재를 감안하고 얼마나 성행하였는지를 가늠 하는 작업이었다. 덕산의 두레풍장은 가락의 변화가 많지 않고 판재가 단조로운 형태로 인근의 공주와 아산 지역의 두

레풍장보다 단조롭다. 풍장의 가락 역시 세마치(3채)와 굿거리(길굿나비), 잦은마치가 주를 이루었으며, 두레 공동작업에서 치는 풍장은 세마치 춤 장단을 느리게 쳐 논매는 소리와 조화를 이루었다. 여름 두레먹는날의 풍장은 특별한 가락을 연주하기보다 기존에 치던 가락을 빠르고 흥겹게 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 마을(두레) 풍장에서 느린 가락이 일찍 쇠락한 이유는 1950년대 중반 이후 덕산 장에서 장터 풍장을 운영한 박상쇠의 영향으로 보인다. 각 마을의 두레 풍장꾼들이 장에 나가면 전문 예능 풍장패의 판과 가락을 보고 듣게 되면서 장터 풍장은 훌륭한 풍장이고 마을 풍장은 시골스런 풍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두레풍장이 장터 풍장의 화려함을 쫓게 되면서 가락이 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두레풍장에서도 쩍쩍이 가락이나 칠채, 칠채 머릿가락 등을 치는 다양성이 생성된 반면 느린 굿거리가 주로 연주되는 덕산 전통의 두레풍장이 쇠락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박상쇠의 장터풍장이 쇠락하면서 박상쇠 풍장패에서 연주하던 풍장꾼들이 자연스럽게 마을풍장의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을 풍장과 박상쇠의 풍장가락이 섞이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예산의 마을 풍장들도 빨리 변해갔지만 논에 풀을 죽이는 제초제의 대중적 보급으로 마을 두레의 공동작업이 사라지면서 빠르게 쇠락하여 현재에 이른다.

(1) 옥계리 마을(두레) 풍장

덕산면 옥계리는 1967년까지 논매는 두레를 시행했다. 일판에서 노래를 부른 마을로 두레풍장이 예산에서는 드물게 늦도록 두레를 시행한 마을이다. 두레가 서면 청룡이 그려진 농기(옥계리 사람들은 '용대기'라 칭함)를 세우고 2개의 영기를 앞세웠으며 기수만 7인의 장정이 참여했다. 풍장꾼 외에 7명의 상모잽이를 뒤 따르게 할 만큼 규모가 컸다. 두레 행차에 꽃나비를 매년 세웠으며 정자나무 아래 여름두레 판에서는 반드시 열 두발 상모놀이를 했다고 한다.

옥계리의 풍장 가락

늦을마치 : 두레 일꾼들이 들을 오가며 쳤던 풍장. 느린 굿거리를 잔가락은 생략하고 힘을 주어치는 장단으로 느린 세마치와 굿거리 중간의 가락으로 연주 된 것으로 추정됨.

세마치 : 삼채 가락으로 정자나무 가락은 아주 빠르고 잔가락이 많으며, 일 풍장은 느리게 치는데 연주 횟수가 많지 않았음. 일부 증언은 삼채는 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 마을의 고사축원 가락이 모두 3채인 점으로 보아 풍장을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이후에는 박상쇠의 영향으로 마을풍장에서도 연주되었음.

잦은 마치 : 2채 장단의 속도로 시작하여 휘몰이 속도에서 맺는 가락으로 모든 풍장의 막음 가락.

꽃나비 풍장 : 현대 풍장의 칠채 앞머리 가락을 걷는 속도에 맞추어 치는 풍장으로 꽃나비를 세운 장정들이 춤을 추듯이 걷도록하기 위한 풍장가락.

옥계리 풍장의 예능별 예인들

상쇠 : 장인환, 1923년생, 남자, 사망.

장구 : 유기봉, 1919년생, 남자, 사망.

북 : 이종원, 1923년생, 남자, 생존. (이상 이 책 뒤 예산의 풍장인들 참조)

징 : 별도의 징잽이는 두지 않고 마을에서 풍장을 배우는 사람이 그때 그때 바꾸어 쳤음.

(1) 봉산면 봉림리 마을풍장

봉산면 봉림리는 칠석제를 올리는 마을이다. 봉림리 칠석제는 전통사회에서는 칠월 칠석날 새벽에 마을의 남정네들이 모여 새벽에 마을고사로 올려졌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인 1940년대 초반부터 불온한 집회로 치부한 일제가 이를 금하였는데, 마을의 어른이었던 서용재와 이용구가 마을 사람들이 오가기 전인 이른 새벽에 조용히 고사

를 올리며 명맥을 이었다. 새벽에 조용히 올리던 칠석제는 해방 후는 물론 한국전쟁 후까지 계속되었으나, 서용재와 이용구가 사망한 후에는 이용구의 처가 혼자서 이를 행하였다.

이용구의 처이며 남춘희의 어머니인 이미원에 의해 조용히 올려지던 봉림리 새벽 칠석제는 1990년대 중단되어 명맥이 단절되나 느티나무 정자아래서 올리던 칠석제가 그친 후 마을의 젊은이들이 비명에 죽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2004년 칠석 때부터 다시 드리게 된다. 예부터 지내온 마을 고사로 복원하였고, 칠석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적 성격을 더하였다. 복원된 이후로는 지금까지 매년 올려지는 예산군 유일의 여름 마을 고사로 자리 잡고 있다.

봉림리 칠석제는 타 지역의 칠석제와 같이 마을 두레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름 두레 논을 매는 두레 공동 작업이 칠석날 끝나며 여름 두레를 이날 봉림리 정자나무 밑에서 즐겼던 것이다. 마을의 주민이 천 년 되었다고 믿는 느티나무 정자는 아직도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흉고의 나무 둘레가 8.2m에 이르는 아름다운 정자나무다. 이 나무 밑에 농기(용대기)와 영기를 세우고 여름 두레를 먹었는데 이날 새벽에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는 주체와 여름 두레를 먹는 주체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봉림리에는 지금도 마을의 대동계장이 선출되어 마을을 운영하는 주요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명칭은 '대동계장大洞契長'이며 이 마을의 대동계가 주관할 마을 고사가 칠석제뿐이니 칠석제는 대동계에서 주관하고 여름두레 먹는 것은 두레가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봉림리의 마지막 두레 좌상은 김봉필이며 1986년 경 출생하였다.

마을의 전통을 힘겹게 지켜온 봉림리 칠석제의 영향으로 이 마을에는 다른 마을들과는 다른 풍장이 존속해 온 것으로 채록된다. 아쉽게도 당시의 상쇠나 장구잽이가 생존해 있지 않아 확실한 가락은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북잽이의 연주 기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봉림리 풍장 가락

알림 풍장 : 칠석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 남자들이 모이라는 의미로 치는 풍장. 삼채를 치며 '신을 위해 정성을 드리는 풍장'이라하여 조용히 친다.

고사 풍장 : 본디 전통사회에서는 조용히 고사를 지낸 후 마을 사람들에게 고사가 끝났으며 여름 두레 먹는 행사가 시작되니 모이라는 의미로 쳤다는 풍장이다. 삼채와 잦은마치를 흥겹게 친다. 2014년 복원된 칠석제에서는 고사를 지내기 직전에 풍장을 치면서 정자나무 아래를 한 바퀴 도는 풍장으로 조용히 친 후 고사가 끝나면 흥겹게 노는 풍장으로 친다. 가락은 삼채와 잦은마치만 친다.

정자나무 가락 : 칠석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여름두레를 먹으면서 쳤던 가락이다. 마을에서는 '덩더깨비 가락'이라 불리는 가락과 세마치 잦은 마치의 풍장을 흥겹게 즐겼다. 5명의 상모와 1명의 긴 상모(열 두발 상모)도 함께 놀았다.

봉림 풍장잽이들

[상쇠]

김용재 : 1896년경 출생, 남자, 사망.

이돈구 : 1926년경 출생, 남자, 사망.

이병원 : 1956년 출생, 남자, 생존.

[장구]

이경복 : 1926년경 출생, 남자, 사망.

권춘혁 : 현재의 장구잽이. 권춘혁 외 6인으로 칠석제의 마을 풍장에서는 7명의 장구잽이가 함께 친다.

[북]

이도원 : 1956년생, 남자, 생존.

이부원 : 이도원의 친 동생.

김기홍 : 현재의 북잽이. 김기홍 외 6인이 함께 배워 북을 친다.

[징]

이병일 : 1919년경 출생, 남자, 사망. (이상 이 책 뒤 예산의 풍장인들 참조)

⑶ 예산덕산장 박상쇠의 장터풍장

예산장 덕산장 모두 풍장을 많이 치지 않았다. 박상쇠가 풍장을 가르쳐 다시 장터 풍장을 일으켰지만 장날마다 친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치지 않다가 덕산과 예산의 백중장(백중 직전 장날)날은 반드시 풍장을 쳤다 한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까지 5년 동안은 장터에서 풍장을 치는 빈도가 높았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장에서 치는 풍장의 맥은 약화되었으며, 1955년 이후 백중 전 장에 1~2회 치는 정도로 이어지다가 1957년부터는 박상쇠의 풍장패가 인원이 많아지고 기량이 좋아져 가을일이 끝나고 나서 봄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의 장날마다 풍장을 쳤다 한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예산군청에서 개최한 풍장대회를 비롯하여 각종의 풍장 대회가 성행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상쇠 풍장단이 각각의 마을풍장을 대표하여 풍장대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5~6년 후에는 상을 타는 것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일부 면에서는 각 마을에서 우수한 풍장꾼들을 모아 면 대표 풍장패를 출전시키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사회문화적 흐름은 풍장패 개인 간의 경쟁심을 부추겨 박상쇠 풍장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결국 박상쇠의 장터 풍장은 완전히 중단하였다.

박상쇠가 가르쳐 성행하였던 풍장의 가락과 판재는 송창용, 맹근섭, 김종욱 등이 박상쇠에게 직접 풍장을 배웠고 이들이 현재까지 활동하기에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 할 수 있었다. 위 세 명의 인물들에게 들은 증언과 현장에서 친 풍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단 3인의 제보자자 모두 연령이 높아, 가락이나 판재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은 하나 연행을 못하는 부분, 의견이 일치하니 않는 부분도 있었다. 3명의 의견을 각각 들어 정리하는 교차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가. 박상쇠의 풍장 복식

① 의상 : 무명 바지저고리 (조금은 홍덕하게)

② 끈(천) : 삼색천 (처음에는 검은천만 사용하다가 1960년대 이후 삼색천 사용)

③ 모자 : 종이 고갈 모자, 한지로 접어 오린 꽃을 달았음

④ 농기 : 용담기를 사용했으며 덕산면 광천리의 쌍룡 농기를 사용하였고 기잡이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행하였다. 기수 1인. 줄잽이 3인. 령기는 청홍 2개를 사용했으나 일반 풍장에서는 세우지 않고 면대회나 군 대회 풍장판에만 세웠다.

나. 박상쇠의 풍장 판재

① 인사풍장 : 풍장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치고 맺는 시작 풍장으로 잦은마치(휘몰이)를 친다.

② 자욱치기 : 인사굿을 끝내고 판으로 들어오는 풍장으로 길 굿은 느리게 치며 입장한다. 자욱치기라는 말은 앞에 가는 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③ 허물벗기 : 마당에 들어선 풍장패가 'ㄹ'자형을 반복하여 행진하여 풍장해의 행진이 길게 늘어서서 가락이 흩어진 것을 모으고 흥을 돋우는 기본 판재이다. 가락이 잘 모아지면 1회로 끝내지만 모아지지 않으면 1회를 더 반복하기도 한다.

④ 태극말이 : 허물벗기를 풀면서 전원이 태극 문양을 그리는 판재다. 멍석말이를 시작하는 형태가 되어 멍석말이로 구분하기도 하며 1회 반복 후 역으로 돌며 멍석말이 판재로 이어진다.

⑤ 멍석말이 : 나사형으로 말고 들어가 풍장패의 행렬을 역으로 푸는 마당. 일반적인 멍석말이와 같다.

⑥ 무디기 놀이 : 일명 '사방고사 판재'로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면서 태극으로 말아 멍석말이와 유사한 판재를 사방과 중앙 5회를 반복하는 풍장이다. 이동하는 과정에 풍장 꾼들이 뛰어 다니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인 판재다. 가락은 칠채를 몰아서 친다.

⑦ 모듬발치기 : 멍석말이를 풀어내면 가락을 빠른 세마치로 바꾸어 치면서 자리를 잡고, 자리가 잡히면 잦은마치(2채)로 바꾸고 두발을 함께 모아 치면서 좌우로 돈다.

⑧ 쩍쩍이 : 일반적으로 충청 경기의 웃다리 판재에 쩍쩍이와 같으나 양편으로 나뉘어 모아지고 푸는 과정의 속도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인다.

⑨ 상모마당 : 짧은 상모꾼 7명과 긴 상모꾼 1명의 마당으로 현재는 천안, 평택 등의 웃다리 풍장에서 행하는 상모놀이를 이른다. 다른 고장과 다르게 짧은 상모자반 뒤집기 후 바로 열 두발 상모를 돌렸다 한다.

⑩ 막음질 : 쩍쩍이 후 개인 놀이를 즐긴 풍장패가 마당을 접으며 풍장패는 중앙에 모여 빠른 가락의 풍장을 치고 상모잽이가 주변을 돌며 자반뒤집기를 하고 잡색이 각기의 장기를 자랑하는 마당으로 이 가락이 끝나면 인사 풍장을 치고 마당을 끝낸다.

다. 박상쇠 풍장의 개인 놀이

① 단상 : 짧은 상모놀이로 상모꾼들은 복구를 든다. 연행하는 예능은 상모 끝 맞추어 돌리기, 자반뒤집기, 빠르게 돌리기 등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② 열두발 상모놀이 : 열 두발 상모놀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다. 다만 흥이 나는 판에서는 열 두발 상모꾼을 장정의 어깨 위에 무동이처럼 세우고 돌렸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레 풍장이 성행하였던 예산지역의 풍장판에서 반드시 시행된 무동이의 풍장을 박상쇠가 응용하여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③ 버나질 : 박상쇠가 욕심을 내서 행한 판이다. 버나질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2인 주고 받기는 복적이 없다는 증언을 통해 박상쇠 본인도 능숙하지는 못하여 기본의 놀이만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늘 행하지는 않았고 판이 성행하여 돈이 많이 나온 날 또는 의미있는 날에 연행하였다고 한다. 박상쇠 본인이 직접행하기도 했다 한다.

④ 잡색놀음 : 특별한 잡색의 놀음은 보이지 않는다. 가짜 양반과 그가 주도하는 재

담판이 있었으며 포수는 세우지 않았고, 여장 남자 1명, 가짜 양반 1명 정도의 잡색만을 세웠다.

라. 박상쇠의 풍장 가락

① 잦은마치 : 몰아치다가 사잇가락, 칠채형 잦은마치, 밀기로 맺음.

② 세마치(3채) : 예산에서 현재 채록되는 삼채가락은 보편적으로 빠른 삼채의 여러 변형이 채록되는데 두레 풍장에서 사용하던 가락들도 전반적으로 빠르게 연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박상쇠에게 상쇠가락을 직접 배운 송창용의 가락에서는 느린 삼채는 시작단계의 한부분이며 쩍쩍이 가락조차 삼채로 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③ 춤장단 : 송창용의 시연에 따르면 타고장에서 가장 흔하게 연주하는 굿거리가 매우 적으며, 길굿을 굿거리로 치고 주요 춤 장단은 세마치 형이다.

④ 사잇가락 : 가락과 가락 사이, 즉 가락을 바꾸는 과정에서 변형으로 치는 모든 가락을 이른다. 잦은마치, 세마치, 칠채 모두 사잇사락이 있다. 일명 '넹기는 가락'이라 칭한다.

⑤ 열두발 상모가락 : 삼채와 잦은마치를 사용하여 평범하다.

⑥ 칠채 : 충청웃다리 풍장의 특징이 잘 배어있는 전통의 칠채가락이 박상쇠의 제자 송차용에 의해 현재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연주된다. 시작의 단계부터 가락의 변화를 주어 연주하며 연주 시작 4~5회 부터는 '칠채 몰이가락'이라 하여 현재 젊은이들이 칠채에서 다른 가락으로 넘어갈 때 치는 이른바 사잇가락을 연주하듯 변화를 주어 치기 때문에 다양한 칠채 가락이 전한다. 충청웃다리풍장 중 공주 예산에서 연주되는 고유의 칠채 가락이 잘 전하고 있다.

⑦ 칠채 몰이가락 : 칠채를 아주 빠르게 치는 가락으로 처음에는 칠채의 모든 장단을 치다가 점점 빨라 지면서 칠채의 앞 4마치를 반복하듯 치는 가락으로 현대 풍장의 휘몰이 속도에 이르러 잦은 마치로 넘긴다. 예산 공주 천안의 장터 풍장(예인 풍장)에서 보이는 가락이다.

⑧ 질굿나비 : 굿거리장단의 변형으로 치는데 장터 풍장꾼들이 사용하는 길굿나비보다는 두레 풍장의 길굿과 유사하다. 가락은 많이 치는 것으로 변화를 주지 않고 적게 치는 것으로 변화를 둔다.

※ 특이 사항

예산 풍장에서는 굿거리장단이 충청도 서북부 지역에 비하여 매우 적은 형태로 나타난다. 충청도 웃다리 풍장은 대부분 굿거리장단을 치며 이는 길굿이나 춤장단으로 사용하여 치는 빈도가 많은데, 예산의 80대 이상 풍장꾼들은 한 결 같이 이를 적게 치고 짧게 치는 특징을 보인다. 질굿나비에서 치는 굿거리는 느린 네마치가 아니라 빠른 네마치이며 가락의 변화가 심하여 굿거리 보다는 공주 일원에서 치는 옛 두레 풍장의 '눈꿈쩍이' 가락과 더 유사하다.

마. 삽교 박상쇠에게 풍장을 배워 활동한 인물들

수상쇠 : 박상쇠

부쇠 : 송창룡

장구 : 맹근섭

북 : 김종옥(보부상). 어일담

징 : 정해서 치지 않고 상쇠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맞겼음.

상복구 : 한두영

열두발 상모 : 이한구

잡색(가짜 양반) : 최승천 (이 책 뒤. 예산의 풍장인들 편 참조)

예산의 풍장인들

예산 풍장인들의 기록은 지역 예술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활동한 개인의 예능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풍장을 즐겼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익수(박상쇠) 삽교 목씨 집성촌인 상소에서 살다가 시량리 상가 자리로 이주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예산 최고의 상쇠로 활동하였다. 박상쇠는 일제강점기에도 마을풍장을 활발하게 치며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 1946년경부터 풍장꾼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풍장단을 구성하고 가르쳤다.

처음 단원을 모집했을 때 상쇠를 희망한 사람이 20여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모든 재주를 박상쇠가 직접한 시험하고 평가하여 악기를 정해주어 풍물을 가르쳤다. 이 과정에서 송창용을 수상쇠로 선발하여 자신의 상쇠가락을 모두 이어나가려 노력하였다. 칠석 풍장은 무조건 쳐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칠석날은 덕산장에서 백중전의 장날에는 예산장과 덕산장에서 풍장을 반드시 치려하였다.

70세를 넘어 사망하였으며 후손은 모두 이주를 하여 연고를 찾을 수 없다. 그의 제자인 송창용조차 박상쇠의 본명을 가억하지 못하여 호적 등의 기록으로도 찾을 수 없었다. 향후 반드시 추가 조사를 요하는 중요 인물이다.

이점식 삽교오가면 월평리를 주요 활동지로 삼하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예산 최고의 상쇠이면서 풍장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예산 일원의 풍장만이 아니라 경기 일원의 남사당. 웃다리 풍장에 두루 능하였다 하며 판재를 구성하는데도 기존의 판재에 억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넣고 빼는 것에 자유로운 인물로 증언되며 당진의 최순구와 함께 예산 당진의 최고 풍장인으로 칭송되었다.

단원의 구성은 상쇠 부쇠 징 각 1명 장고 북 각 2명, 열두말 상모 1명 단상 3－5명, 이었으며 마당 판굿에 능하여 잡색이나 개인 예능을 중요시 하지 않아 판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의 명성에 비하여 조사는 미흡하며 현재 재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상세한 추가 조사를 요하는 인물이다.

송국현(아명 귀남) 1893년경 태어난 시량리의 풍장잽이며 재주꾼으로 송창용의 아버지이다. 마을에서는 그를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입으로 내는 휘파람 소리 형태의 구음이 탁월하여 '입소리로 옥퉁소를 이기는 사람'으로 회자되었다.

풍장판에서는 징잽이로 활동하였으며 건립패의 앞소리인 고사축원 소리꾼이다.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은 인물로 박상쇠의 풍장판에서는 공연하지 않았다.

인건배 1896년생으로 시량리의 풍장잽이, 소리꾼이다. 소리는 축원덕담을 잘하였다. 현재 예산에서 활동하는 인건배(풍장, 소리)와는 동명 이인이다. 덕산면내 대표 풍장단의 수상쇠로 동생 인동배와 함께 시량리 풍장을 이끌었다. 장구는 박갑돈, 인건배, 북에 어일담, 징에 이국선과 함께 활동하였다. 시량리 풍장이 덕산을 대표하는 풍장이었으나 인건배의 이른 사망으로 쇠락하여 갔다. 이때 등장하여 1980년대 초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박상쇠로 인하여 시량리 풍장이 마을풍장으로 전락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인건매의 이른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술을 마시지 못하면서도 신명이 좋았고 기운에 매우 쎄 장사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후덕하여 이웃 간에 화목함을 소중히 하였으며 마을에서는 싸운 사람들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회자되었다. 평생 농사를 생업으로 6남 3녀를 두었고 1951년 상가집에 음식을 먹고 급한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그의 자녀 중 9번째 자녀 인종명이 예덕 상무사 보부상놀이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종명은 20대 초반에 아버지의 축원을 찾아 맥을 잇고 있다.

한두영 박상쇠 풍장단의 짧은 상모 우두머리로 1900년경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하였다. 본인은 짧은 상모를 돌리고 열 두발 상모는 공연 한 적이 없으면서

도 젊은이들에게 열 두발 상모를 가르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량에 이르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난이도가 높은 단상을 50대까지 직접 공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상쇠의 장터 풍장패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최승천 1913년경 출생자로 예산 풍장패 최고의 재담꾼으로 회자 된다. 풍물은 치지 않았으며 예산 풍장의 유일한 잡색놀음으로 가짜 양반을 역할을 하였다. 입담이 좋아 풍장이 쉬어가는 판에서 재담을 즐겼다. 박상쇠 풍장판에서도 잡색과 재담판을 이끌었다. 박상쇠의 성격이 까다롭고 예능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 않은 풍장꾼은 판에 잘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최승천의 재주를 좋아하여 항상 그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하였다 한다.

박갑돈 1896경 출생의 시량리 풍장꾼. 덕산에서 1930~40년대 부쇠를 치기기 시작하여 풍장을 배웠으나 장구로 바꿔 치면서 풍장잽이로 이름을 날렸다. 예산 최고의 장구잽이로 회자된다. 다른 마을에는 상모꾼들이 개인기를 선보였으나 시량리에서는 박갑돈이 장구로 개인기를 선보였고 상모보다 인기가 좋았다. 예산군 풍장대회에서 개인상을 타기도 하였다.

인돈배 1901년경 출생자로 인건배의 둘째 동생. 장구잽이로 활동하면서 덕산 풍장을 이끌었다. 풍장의 장구잽이로 알려지기 보다는 인건배와 함께 풍장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어일담 1900년경 출생자로 덕산을 대표하는 북잽이다. 젊어서 한 번 이사를 하였으나 북을 잘 치는 것이 소문나자 이사 전후 양쪽 마을의 풍장잽이로 활동했다. 어씨 성을 따서 '어북'으로 불렸으며 북을 메면 혼자서도 능히 북춤과 연주로 대중을 휘감았고 춤사위가 좋아 어북이 뜨면 아낙네들이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그의 북춤은 배운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연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국선 1900년경 출생자로 덕산을 대표하는 징잽이로 인건배와 함께 활동하였다. 징을 잘치는 것으로는 소문난 풍장잽이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국선은 고사축원소리나 기타 유희요에도 능하여 여러 마을에 불려 다니며 풍장을 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풍장잽이는 다른 악기를 칠 법도 한데 징 외는 치지 않았다 한다.

송창용 1925년생으로 송국현의 아들이다. 2016년 현재 88세로 활동하고 있는 풍장꾼으로 박상쇠에게 배웠다. 예산 풍장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현재 기억력이 쇠하지 않아 예산 장터 풍장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며 상쇠 가락을 시연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부상놀이 보존회 수상쇠로 활동하다가 연로하여 활동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로하여 가락이 쇠하는 실정이며 이를 젊은이들이 전수 받지 못하여 송창용이 치는 가락, 특히 칠채의 각종 변형가락을 4개의 악기로 연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맹근섭 박상쇠가 풍장단을 모집할 때 참여하여 상쇠를 희망하였으나 장구에 소질이 보인다는 박상쇠의 지도로 장구잽이가 되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예산 최고의 장구잽이로 칭송을 들었다.

맹진호 현재 예산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풍장인. 보부상의 상무사 공연단에서 상쇠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 이점식의 풍장판에서 연주된 공연 마당의 풍장 가락을 잘 보존하고 있다. 보부상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하면서는 이점식류의 판제 풍장을 치지 않고 마을 두레 풍장을 지도하여 함께 공연하고 있는 인물이다. 예산 두레 풍장 중에서 일판에서 치던 느린 풍장은 연주하지 않으며 정자나무 밑에서 신명을 다해 치던 흥의 풍장을 소중히 알고 공연한다.

김종욱 젊어서 보부상으로 활동한 인물로 단순한 장돌뱅이가 아니라 보부상(상무사)

에 적을 두고 활동한 유일의 풍장패이다. 북을 잘 쳐 박상쇠의 풍장판에서 풍장을 치기 시작했다. 예산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살았다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장사를 하던 수완으로 박상쇠 풍장패의 총무처럼 일을 했고 보부상에 관련된 사람들은 김종욱이 나오면 점심과 막걸리는 얻어먹는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한구 1900년경 출생자로 박상쇠 풍장의 열두발 상모꾼이다. 마을에서 상모꾼으로 활동했던 이한구는 쇠를 배우고 싶어 박상쇠 풍장패에 48년 가입하였으나 박상쇠의 권유로 열 두발 상모를 돌렸다. 이한구가 열 두발 상모를 돌리기 전에는 박상쇠가 직접 열 두발 상모를 돌리곤 하였으나, 이한구의 예능이 좋아진 후로는 그 혼자 돌리게 되었고 실력이 나날이 늘어 예산, 덕산의 최고 열 두발 상모꾼으로 일컬어 졌다.

장인환(1923년 생. 남자. 사망) 상쇠에 능하여 덕산 최고의 상쇠잽이로 활동하였으며 고사 축원,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양산도, 태평가에 능했으며 노년에는 일반 트롯 가요을 배워 즐겨 부른 인물.

유기봉(1919년 생. 남자. 사망) 장구에 능하였으며 옥계리 최고의 소리꾼이다. 이종원의 사돈(이희철의 장인)으로 춤을 잘 추고 흥이 좋아 장구를 신명나게 쳤다.

이종원(1923년 생. 남자. 생존) 북에 능하여 덕산 최고의 북잽이로 활동하였다. 상쇠 장인환과 동갑 친구로 언제나 함께 즐겼음. 고사 축원,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상여소리, 회심곡, 두레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꾼 등에 능한 인물.

김용재(1896년경 출생. 남자. 사망) 봉림리 두레 마지막 좌상이며 상쇠잽이로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꾼이기도 했다.

이돈구(1926년경 출생. 남자. 사망) 마을 고사 풍장과 두레 풍장의 마지막 상쇠잽이.

이병원(1956년 출생. 남자. 생존) 현재 봉림리 풍장의 상쇠로 웃다리 풍장을 배워 마을에 풍장패를 조직하여 함께 친다.

이경복(1926년경 출생. 남자. 사망) 봉림리 마을 고사 풍장과 두레 풍장의 마지막 장구잽이.

권춘혁 현재 봉림리의 장구잽이. 봉림리 장구잽이는 권춘혁 외 6인 으로 칠석제의 마을 풍장에서는 7명의 장구잽이가 함께 친다.

이도원(1956년 생. 남자. 생존) 현재 봉림리에서 유일하게 노인어른들과 함께 풍장을 친 생존자로, 봉림리의 옛날 풍장의 가락을 가늠하게 하는 인물이다.

이부원 이도원의 친동생으로 함께 북을 쳤으나 지금은 마을에 살지 않는다.

김기홍 현재의 봉림리의 북잽이이다. 북잽이는 김기홍 외 6인이 함께 배워 북을 친다.

이병일(1919년경 출생. 남자. 사망) 봉림리 마을고사풍장과 두레풍장의 마지막 징잽이이다.

김모씨 : 기록 생략
윤규상 : 예덕상무사 두령(좌장)
박성희(84세 서우아파트 102동 607호) : 대농씨름선수. 소장수 외1인
김영상(1939년생) :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171-18.
　　김용봉의 아들 현재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보존회 회원
김덕수(1926년생) : 예산읍 발연리 55번지 거주. 생존한 소리꾼
인종명(1941년생) :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보존회 회원
원효순(1942년생) :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보존회 회원
박홍남(1940년생) :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보존회 회원
송창용(1925년생) : 송국현의 아들. 시량리 거주 현존 풍장인
유복렬(1929년생) : 여자 무속인 예산군 덕산면 둔리 거주
최호빈(1996년생) : 죽방울 놀이 시연자
전유상(1995년생) : 죽방울 놀이 시연자
이정순 : 여자 예산군 오가면 원평동길 62-10. 보부상 난장 회장
박우성(82세 서우아파트) : 박성희와 동향인
인종명 :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 2014년 이전 채록에 도움을 준 사람들로 상기 인 외 34명의 채록을 행하였음. 상기 13인은 본문의 내용에 수록된 증언자만을 기록한 것임

2015년 이후 증언 및 채록에 도움을 준 분들 (한글 표기 순)
권영금 : 예산군 덕산면 시량1길 15
김동우 :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현대아파트 2동 1407호
김성재 : 예산군 고덕면 별리
김월자 : 예산군 봉산면 당곡옥전길 191-26
김응회 : 전 보부상 난장 회장
맹무섭 : 예산군 덕산면 둔리 노곡길 97
맹진호 : 예덕 상무사 공연단 단장

배인화 :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509
안계웅 : 1949년 생.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봉림리 대동계장)
이기자 : 1954년 3월 7일생. 예산군 덕산읍 온천동 413-26 쎄니벨리 103동 802호
이기순 : 1946년 7월 4일생. 생산군 덕산면 읍내리 써니빌라 104
이도원 : 1956년 생. 봉산면 봉림리
이보원 : 1957년 생. 봉산면 봉림리
이상분 : 예산군 덕산면 부당4길 8-8
이수녕 : 1936년 생. 봉산면 봉림리
이순만 : 예산군 오가면 좌방1리
이용구 : 1937년 생. 봉산면 봉림리
이인희 :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토성길 55
이정화 : 예산군 덕산면 둔지개1길 27-10
이제홍 :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신암로 426
이종원 : 1923년 11월 14일생(이희철의 부).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가야산로 100
이종옥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주공 아파트
이학원 : 1938년 생. 봉산면 봉림리
이현숙 : 예산군 주교리 333-1 오성빌라나동203호
이화자 : 1947년 12월 20일생. 예산군 덕산읍 써니빌라 103동 905호-1306호
이희철 : 1947년 8월 15일생(호적 52년생).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가야산로 100
임창제 :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이장
장석래 : 1941년 9월 30일생. 봉산면 시동리 31-14
전용업 : 예산군 덕산면 읍내1리 구 덕산하이츠 가동 201호
정명운 : 예산군 덕산면 읍내1리 구 덕산하이츠 가동 201호
조남택 :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509
조향세 : 1950년 3월 25일생. 덕산면 신평리 수암산로 158-15
최경순 : 예산군 신암면 황금뜰로 853,
한권희 : 1954년 12월 29일생. 덕산면 온천로 134-10
홍창식 : 예산군 봉산면 당곡옥전길 191-26

예산군수, 『예산군지』, 예산군지편찬위원회, 금오 인쇄사, 2001.
봉산면장, 『봉산면지』, 봉산면지 편찬위원회, 예산 인쇄사, 2002.
이명재, 『예산말사전』, 예산문화원, 예산말사전 편집위원회, (주)신원 문화사, 2013.
유진룡 구술, 김택춘 편집,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뿌리깊은 나무, 1985.
윤규상, 『유통경제의 원형 보부상과 보부상놀이』, 예덕상무사보존회, 2013.
『충청남도의 세시풍속』,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2.
『MBC 한국 민요 대전 우리소리를 찾아서』, 문화방송국, 1992.
임동권 편, 『한국 민요집』, 집문당, 1993.
『한국민속 종합보고서』 제6권 충청남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음원채록〉
권태룡의 전래동요

〈자료제공〉
예산군청
예산문화원
예산군 봉산면사무소
예산군 봉림리